

2010.6 **2**

U.B. 한국학연구

- 몽골어의 문자로 한글 자모의 차용 가능성 ... 김 국
- 서술부 양태 표현들의 범주화와 결합 양상 ... 이필영
- 18세기 (몽)어록해의 문법적 고찰 ... 가르드자브 바야르마
-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 비교 연구
 - 대등접속문 구성을 중심으로- ... 테. 톱신바이야르
-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 비교 ... 아띠야수룽
- 한국어와 몽골어 보조용언 구별기준 ... 아.나랑게를
- 동북아시아 통합 : 몽골과 한국의 관계 ... 베. 하과
-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 테. 남질
- 소설 모티브의 서사적 의미 - 부자(夫子)의 갈등 모티브 ... 현길언
- 한국 단편소설 속에 여성 묘사에 대한 고찰 ... 데. 나르만다흐
- 조생원전 고찰 ... 강신구
- 한.몽 민담의 화자 성격과 정신문화 고찰
 -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 물새」와 몽골의 「세상의 세 망상가」를 중심으로 ... 이탄미
-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영성(신)의 형상성
 - 주체적 여성들의 영웅적 특성을 중심으로 ... 이안나
- 몽한 무교 비교연구 ... 보양넴에흐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목 목

이

이 도 상영사 공자 은모사 들랑 표사물 의이동물 1

811. 장영이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2

82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3

U.B. 한국학연구

83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4

84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5

85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6

유도 · 화사

86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7

87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8

한문

88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9

89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0

90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1

91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2

92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3

수문

93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4

94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5

951. [이동사] 장영 합산 의이동물 의이동물 의이동물 16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목 차

언어

1. 몽골어의 문자로 한글 자모의 차용 가능성 김 국 | 4
2. 서술부 양태 표현들의 범주화와 결합 양상..... 이필영 | 18
3. 18세기 (몽)어록해의 문법적 고찰..... 가르드자브 바야르마 | 39
4.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 비교 연구
-대등접속문 구성을 중심으로- 테. 톱신바이야르 | 55
5.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 비교 아피야수릉 | 70
6. 한국어와 몽골어 보조용언 구별기준 아. 나랑계를 | 90

사회·교육

7. 동북아시아 통합 : 몽골과 한국의 관계..... 베. 하과 | 107
8.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테. 남질 | 133

문학

9. 소설 모티브의 서사적 의미 - 부자(夫子)의 갈등 모티브 현길언 | 141
10. 한국 단편소설 속에 여성 묘사에 대한 고찰 테. 나르만다흐 | 161
11. 조생원전 고찰 강신구 | 171
12. 한몽 민담의 화자 성격과 정신문화 고찰 | 203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 물새」와 몽골의 「세상의 세 망상가」를 중심으로 이탄미 | 203

민속

13.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영성(神)의 형상성
-주체적 여성들의 영웅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안나 | 229
14. 몽한 무교 비교연구 보양넴에흐 | 252

Гарчиг

Хэл шинжлэ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эгшиг гийгүүлэгчээр Хангиль эг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тэмдэгдэх боломж

..... Ким Гүк

Өгүүлэхүүний бүлгээр илрэх баймж илэрхийллүүдийн хамрах хүрээ болон нэгдлийн байдал

..... И Пил Ён

18-р зууны үеийн МонӨрогхЭ-н хэл зүйн талаар ажиглалт

..... Г. Баярмаа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ээр

..... Түвшинбаяр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харьцуулалт

..... С. Адъяасүрэн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шалгуур

..... А.Нарангэрэл

Нийгэм Боловсрол

ХА-ийн интеграци: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 Б. Лхагва

Монгол улс дах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хөгжилт

..... Т.Намжил

Уран зохиол

Романы учир шалтгааны өгүүлэмжийн утга санаа

- Аав хүү хоёрий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л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 Хён Гил Он

Солонгосын зарим өгүүллэ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сан нь

..... Нармандах

Жусэйнвон түүх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 Кан Шин Гү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н өгүүлэгчийн зан авир ба оюуны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 И Танми

Угсаатны зүй

Жэжү арлын Бунпүрид гарч буй эмэгтэй бурхадын дүр

-Гол дүр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баатарлаг зан чанарыг голчлон

..... И Анн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бөө мөргөл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Т. Буяннэмэх

몽골어의 문자로 한글 자모의 차용 가능성

김 국*

목 차

1. 서론
2. 몽골 문자로 차용하기 위한 검토
3. 모음
4. 자음
5. 결론

[국문초록]

몽골어는 언어적으로 한국어와 비슷한 요소가 많다. 몽골어의 문자는 역사적인 문자가 있지만 현재 키릴 문자를 차용하고 있다. 몽골어 문자로 한글의 자모의 차용은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음소끼리 대응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한글 자소에 없으나 몽골어에서 식별하는 음소, 음절 끝소리를 터짐소리로 정의하는 등, 이를 위해 자소 음소 대응규칙을 몽골어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모를 차용하는 것이며 형태도 몽골어에 맞게 최소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주제어: 몽골어 문자, 한글 자모, 문자 차용, 자소 음소 대응규칙, 음소, 자소, 자모, 음성기호

1. 서론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 문화적 공동의 관계가 깊다. 앞으로 교류 협력이 더욱 많아질

* 서경대학교 교수/울란바타르대학교 방문교수(ksk@skuniv.ac.kr, kimkuk99@nate.com)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는 몽골어, 한국어, 만주어가 동북아시아어족으로 유사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최기호(2005)]. 더 넓게 터키어, 통구스 여러 언어도 넓은 범위의 같은 어족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몽골어, 터키어는 현재 다른 문자를 차용하고 있고, 만주어는 사어가 되어 가고 있다. 몽골어는 현재 키릴문자를 차용해서 쓰고 있으며, 터키어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로마자를 차용하여 쓰고 있다.

몽골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에 유사성이 많으며, 음소에 있어서도 기본 모음의 수가 비슷하고 원래 [f] 음이 없고 단어의 처음에 [r]이 오지 않는 등 유사한 음운체계를 가지고 있다.

몽골어는 키릴문자를 차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 유사성과 민족 유사성이 있는 한국의 문자를 표음 문자로서 차용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자 차용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연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 국가가 서로 교류 협력할 때 읽기를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문자, 즉 한글 자모를 활용하여 음성기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몇 연구자에 의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국제음성기호의 하나로서 인정받을 만큼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한편 한글 자소를 활용하여 무문자 언어 또는 난문자 언어를 표기하려는 시도 역시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문자로 차용한 실례로서 2009년 짜아찌아 언어 외에는 시도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 예가 없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문화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첫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성과 음소 및 자소의 개념 차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음성기호나 다름없는 수많은 자모를 만들어서 표기를 하려는 시도 때문에 한글이 세계 문자로서 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한글 자모의 차용은 1) 한국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2) 반면, 한글 형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쉬운 문자 체계이어야 한다는 점의 양면성을 잘 양립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한글은 음운의 자질이 반영된 문자 체계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표음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의 장점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어휘는 많이 다르지만, 문법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음운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거의 음운론적이어서 한 음소는 한 자모로 표기되는 원칙이다.

또 몽골어는 자음 겹침이 한국어와 비슷하게 2개까지이다. 3개의 연속자음이 없다.

기본 모음의 갯수가 비슷하다. 몽골어는 기본 모음이 7개인데 한국어에서는 6개이다. 옛 한국어에서는 7개였고, 현대 한국어에서 현실적으로 7개이다. 또 음라오후 문자가 둘 다 5개

씩이다. 이런 점들로 보아 몽골어의 문자로 한글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몽골어에서 한글 자모를 차용할 수 있도록 음소자소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몽골 문자로 차용하기 위한 검토

문자는 음성기호와 개념 차이가 있다. 물론 불가분의 관계지만, 문자는 단순화된 음성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음성기호, 음소, 자소, 자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음소(phoneme)는 낱소리이라고도 하는데 발음하는 언어의 낱말을 식별시켜주는 이론적인 낱말의 소리이다[위키피디아(낱소리)]. 한 낱말에서 음소가 바뀌면 그 낱말 자체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음소 기호는 / /이다.

한편 자소(grapheme)는 서기소, 낱글자라고도 하는데, 음소를 표시하는 최소의 변별적 단위로서의 문자 혹은 문자 결합이다. 예를 들어 음소 /p/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pin의 p, hopping의 pp, hiccough의 gh는 모두 한 자소의 구성원이다. 자모는 이들의 원소로 알파벳이라고 한다. 흔히 자소와 자모를 혼동하여 쓰기도 하는데, 영어의 예를 들면 th는 자소이고, t, h는 자모이다.

음소는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식별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음가가 달라도 사용자는 일정 범주의 음소로서 인식한다²⁾. 음성(phonetic)은 사람이 내는 소리를 뜻한다. 즉 목소리이다. 음성의 종류, 특징, 발성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이다. 음성의 기호는 []이다.

음운론(Phonemics; Phonology)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음소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소론(Phonemics)이라고도 한다. 음성학(Phonetics)이 말소리의 물리적인 발성과 인지를 연구하는 데에 비해 음운론은 주어진 언어 내에서 또는 범언어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기술한다[위키피디아(음운론)]. 말하자면 음운론은 언어학의 부분 집합이고, 음성학

1) 음소 하나 차이로 구별되는 두 낱말을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물', '벌', '빨', '꿀'은 ㅁ, ㅂ, ㅃ, ㅍ을 구별하는 최소 대립쌍이다. 음소는 모음(홀소리)과 자음(닿소리)으로 구분된다.

2) 예컨대 한국인은 무성음 ㄱ과 유성음 ㄱ을 음소로서 구별하지 않는다. 반면 ㄱ과 ㅋ을 구분한다. 많은 유럽인은 ㄱ과 ㅋ을 구분 못한다.

은 하나의 학문 체계로 자연과학적이다.

흔히 음성기호와 음소기호를 혼동하여 쓰고 있다. 혼동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자소를 위해서는 개념상 '자소=음소' 이지 '자소=음성기호' 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문자와 소리를 연합하는 규칙을 '자소 음소 대응규칙(Grapheme-to-phoneme correspondence rule)' 이라 하며 각각의 문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결합시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언어의 특성이 다르므로 모든 언어가 자소 음소 대응규칙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한글을 몽골어 문자로 차용하더라도 한국어의 자소 음소 대응규칙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없다.

국제음성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는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음성 기록 체계를 말한다[위키피디아(국제음성기호)]. 모음의 경우 혀의 앞 뒤, 위 아래 위치와 입술의 둥근 형태 여부로 구분하며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호가 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한다. 이 모든 음성기호를 한 언어에서 음소로서 식별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한글의 문자 차용 연구에 국제음성기호, 국립국어원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과거 여러 가지 세계화용 한글 문자들 참조하였다[김종미(2009), 서정수(2000), 이현복(1999)]. 이러한 대부분의 것은 음성기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도 복잡하고 괴상한 상형문자를 새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모든 음성기호를 다 달리 표기하는 기호를 한글로 하겠다는 강박관념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 시에 말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귀신소리도 적을 수 있다' 는 말을 오해하는 것이다. 관점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결국 쉽게 익혀야 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괴상한 문자를 십 수개 만들어 포함하지는 주장은 음성기호 자체를 쓰자는 발상이다.

문자는 한 음소로 인식하는 심리학적 현상으로 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eaɳʌŋh" 와 같은 국제음성기호를 전부 음소로 쓸 것 인가. 하물며 이들 모두를 자모로 쓸 것 인가. 이에 비해 영어는 26 자모로서 간결하다. 세계 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글자의 요소 즉 알파벳의 수가 간결했던 것도 한 이유이다. 이를 참조로 본론에 앞서서 몽골 문자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한다.

1) 자모의 개수를 현재 몽골어 알파벳 수를 넘지 않게 적게 한다. 자모는 분별력있는 음소의 개념으로 충분하며 물리적인 음성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대 한국어 자모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필요한 자모는 가급적 유니코드 글자 내에서 차용한다.

2) 한글은 모아쓰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특징을 살리도록 한다. 풀어쓰기는 키릴 문자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

3) 자소 음소 대응규칙은 언어의 특징에 맞추도록 한다. 자모의 형태, 기본 자모의 음소를 정한 후 구체적인 자소 음소 대응규칙은 언어의 특징이 있으므로 똑같이 할 수 없다.

음성기호에 대한 음성을 실제 청취하는 것은 UCLA의 음성학 과정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http://www.phonetics.ucla.edu].

3. 모음

3.1 모음과 음절의 관계

음절을 구분하는 것은 모음이 관건이다. 중모음을 1 음절로 하기 위해 모음의 결합형태가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몽골어 $\gamma\alpha$ 를 ‘우이’로 표기하면 두 음절처럼 보인다. ‘위’로 표기하면, 1 음절로 모아진다. 중모음인지 단순모음인지 언어의 특징에 따라 규칙이 정해질 수 있는데, 몽골어는 모음을 모을 수 있다. 모음은 소수의 기본 단순 모음을 주고, 결합 형태에 따라 음소를 대응시킨다.

3.2 기본 모음

기본 모음은 알파벳순으로 {a o u y ɔ ɛ}의 7개이다. 앞으로 편의상 순서는 일관성 있게 {a o u y ɔ ɛ ɪ}로 하겠다.

모든 언어든지 모음의 기본 자모는 자음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영어의 모음은 5 개뿐이다. 몽골어 한글 대응을 위한 검토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몽골어의 기본 모음은 7개이다.

이에 비해 한글은 {ㅏ, ㅑ, ㅓ, ㅕ, ㅗ, ㅛ}의 6 개이다. 옛 한국어에서 단순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의 7개였다. 모음의 수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와 유사점이 높다. 영어의 경우 5개뿐이다. 옛 한국어에서 ‘ㅐ, ㅒ’는 중모음이었었는데 [e] 및 [æ(e)]로 단순모음화가 되었다³⁾.

2) 몽골어에서 α 가 붙은 중모음은 5개이다.

이에 비해 한글의 ㅣ가 붙은 자소 형태는 {ㅘ, ㅙ, ㅚ, ㅜ, ㅠ}의 5개로 같으며, 음라웃화 및 중모음인 것도 몽골어와 한국어의 유사점이 높다. 다만, 기본 모음과 음라웃 모음 간 자소

3) 현실 발음은 ‘ㅐ, ㅒ’ 모두 [e]로 단일화되고 있다. ㅚ, ㅜ는 중모음도 있고 단순모음도 있지만 단순모음으로 고려하지 않겠다.

형성 규칙을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3) 몽골어의 남성모음은 a, o, y, 여성모음은 y, ə, e, 중성모음은 u이다.⁴⁾

이에 비해 한글은 양성모음 ㅏ, ㅗ, 음성모음 ㅑ, ㅓ, 중성모음 ㅣ로 유사하다. 그러나 양성모음 남성모음에, 여성모음을 음성모음에 정확히 대응시킬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4) 일대일 대응이 쉽지 않지만, 반모음이 {e, ɵ, ɤ, ɯ}와 {ɨ, ʌ, ɯ, ʏ} 4개씩으로 같다.

위의 4 가지 검토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자소 대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모만 차용하는 것이지 자소음소 대응 규칙도 꼭 같을 수 없다. 다만 음소가 가급적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대응에 관해 다음 두 가지의 체계가 있을 수 있다.

1) 체계 1: 한글 기본 자모 중심

장점은 유사한 음소를 대응시키고,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점이고, 단점은 몽골어의 중모음을 한 음절 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모음용 자소의 새 형태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2) 체계 2: 자소 형성 규칙성 중심(옛 한국어 문자 사용)

장점은 몽골어의 형태를 좀더 쉽게 대응시킬 수 있는 점, 음절 구성이 용이한 점이다. 단점은 음소의 대응이 역시 부적절하고, ㆍ의 사용 등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분석하면, 어떤 대응체계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없고 문자의 차용일 뿐이지 음운체계 자체를 같게 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인 문자의 경우 자모의 수는 간절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체계 1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성토록 한다. 체계2는 향후 연구 주제로 하겠다⁵⁾.

몽골어 기본 모음 7 개를 한글 모음에 대응시키는 것은 다음 2 가지가 있다.

1) 한글 기본 모음 6개에 대응시키는 방법

2) 한글 기본 모음 6개에 형태 1개를 더하여 대응시키는 방법

1)안에 대해, {7개: a, o, y, y, ə, e, u}~{6개: ㅏ, ㅗ, ㅑ, ㅓ, ㅡ, ㅣ}를 대응시키려면 몽골어 모음 1개가 중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로마자로 대응시키는 {a>a, u>i, o>o, e>o, y>u, y>u, ə>e}의 2개가 중복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로마자 전사와 대칭성이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로마자 전사는 키릴문자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몽골어 y는 후설 고모음으로 입술 모양은 'ㅏ' 이면서 입안 모양은 'ㅓ' 로서 로마자

4) 단독으로 쓰인 u는 여성모음으로 간주된다.

5) 참고로 ɵ를 넣을 경우 이는 중설 중모음의 위치로 추정되며 e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에는 u로 대응시키지만(이는 키릴문자 전사의 영향이기도 하다), 한글 문자로는 ㅏ의 음소와 근사하므로 이와 대응시킨다. ㅓ는 중설 중간모음으로 한국어 음소에 없으나 ㅓ가 중설이므로 이것을 차용한다. ㅕ는 전설 중간모음으로 음가는 [i]에 가까운 [e] 음소다. 이를 ‘ㅓ’에 대응시킨다⁶⁾.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ㅏ, o>ㅓ, y>ㅕ, ʏ>ㅗ, ㅑ>ㅓ, ㅓ>ㅓ, ㅓ>ㅓ, ㅓ>ㅓ}

이 방안의 장점은 음절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모음조화도 잘 맞으며, 식별성 면에서 로마자 전사보다 우월한 점이다. 단점은 두 개의 음소가 한 자모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2)안은 위에 비해서 한글 중모음 풀 중 하나를 추가하여 이를 ㅑ에 대응시키고, ㅓ를 ㅓ로 대응시키는 것이다. 추가하는 모음은 ① ‘ㅓ’ 또는 ② ‘ㅓ’가 가능하다. 가장 관건이 ㅓ, ㅓ인데, 비교적 익숙한 ① ㅓ=ㅓ로 하면, ㅓㅓ=ㅓ+ㅓ=ㅓ로 할 수 없고, ㅓㅓ=ㅓ도 할 수 없다. 따라서 ㅓ붙은 풀 중 ㅓ를 사용하여 ㅓㅓ=ㅓ에 대응시키고, 다음 ㅓㅓ=ㅓ+ㅓ=ㅓ로 새로운 글꼴을 더하여 대응시킨다. 반면 ② ㅓ=ㅓ로 하면, ㅓㅓ=ㅓ+ㅓ=ㅓ로 할 수 있다. 단 ㅓㅓ=ㅓ+ㅓ=ㅓ로 앞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글꼴을 더하여 대응시킨다. ㅓ는 [i]에 가까운 [e]라는 점, 또 자소 결합의 규칙성, ㅓ가 ㅓ와 ㅓ의 사이라는 점에서 ②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채택한다.⁷⁾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ㅏ, o>ㅓ, y>ㅕ, ʏ>ㅗ, ㅑ>ㅓ, ㅓ>ㅓ, ㅓ>ㅓ, ㅓ>ㅓ}

이 방안의 장점은 음소를 전부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 ㅓㅓ=ㅓ의 풀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단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자의 차용은 종종 최소의 변형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림 1, 그림 2는 몽골어 모음에 한글 문자 차용의 대응위치이다. 원래 한국어의 모음 위치와 다르다.

6) 한국어에서 보통 ㅓ를 후설 [ɐ]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중설 [ə]로 발음한다.

7) 참고로 혀 앞소리인 ㅓ[e]에 ㅓ를 대응시키는 것은 생소하지 않다. 한국어에서 ㅓ는 단어 처음에는 ㅓ+ㅓ 중모음, 그 외에는 ㅓ로 발음하는데 지역에 따라 ㅓ와 ㅓ 사이의 단순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ㅣи	ㅓγ	ㅓ y
중모음	ㅓㅣ	ㅓ̄	ㅓ o
저모음			ㅓ A

그림 1 기본 모음 차용 6개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ㅣи	ㅓγ	ㅓ y
중모음	ㅓㅣ	ㅓ̄	ㅓ o
저모음			ㅓ A

그림 2 기본 모음 차용 7개

3.3 중모음, 반모음

중모음, 반모음의 자소 대응은 위 기본 모음의 대응을 기초로 하여 대응시킨다. a/я, o/ё, y/у/ю, ㅓ/e의 짝을 고려한다. ю의 경우 ю, ю y, юγ처럼 쓰이므로 π로도, ㅓ로도 쓸 수 있다. 대안 1, 2에 따라 약간 다르다.

이상에서 빠진 것은 ㅓ와 ㅓ인데, ㅓ는 중모음이나 장음 표기에 내포되어 있다. ㅓ이 과제인데 'ㅣㅣ'로 쓰는 방법을 고려한다. 좀 더 연구과제로 둔다.

이러한 모음의 형태소는 몽골어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안 2의 ㅓ는 단순 모음 ㅓ이다. 따라서 두 개의 자모 'ㅡ+ㅣ'로 이루어진 자소가 아닌, 한 개의 자모 취급을 해야 한다(영어의 w처럼). 한편 и y, и a와 같은 경우, 'ㅣ오, ㅣ야'와 같은 2음절로 하거나, ㅓ, ㅓ와 같은 1음절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추후 더욱 연구하기로 한다.

3.4 장음 단음

한글 자소를 차용하면 한 음절을 한 몽치로 표기하므로 장음 단음의 표시는 어렵다. 현대 한국어에서 발음 상 장음 단음이 있어도 글자 상 표기하지 않는다. 몽골어는 a a, o o처럼 장음을 표시하므로 이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장음 표시는 : 또는 ~을 사용할 수 있다.

3.5 성조와 강세

성조와 강세는 몽골어에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소 차용시 문제될 것이 없다. 이상의 모음 대응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몽골어 모음의 한글 자소 대응

구분		대안 1.	대안 2.
기본 모음	a	ㅏ	ㅏ
	и		
	o	ㅗ	ㅗ
	ө	ㅜ	ㅜ
	y	ㅛ	ㅛ
	ү	ㅠ	ㅠ
	э	ㅓ	ㅓ
중모음	аи	ㅏ	ㅏ
	ои	ㅗ	ㅗ
	уи	ㅛ	ㅛ
	үи	ㅠ	ㅠ
	эи	ㅓ	ㅓ
반모음	e	ㅔ	ㅔ
	ё	ㅖ	ㅖ
	ю	ㅠ	ㅠ, ㅟ
	я	ㅟ	ㅟ

4. 자음

4.1 몽골어와 한국어 자음의 비교

몽골어와 한국어는 유 무성음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자음 체계가 비슷하다. 예를 들어 r가 단어 처음에는 'ㄹ'과 유사하며 단어 중간에는 'ㄴ'과 비슷한 것은 한국어에서 유성음화를 억제할 때와 비슷하다. 고유의 단어로 첫소리에 p[r]로 시작하는 것이 없다는 점, φ[f]가 고유어에 없다는 점, b이 [v] 또는 [w]로 사용되는 점이 매우 흡사하다. 한국어에서는 b이 [v]에서 [w]로 변했고 자소 모양에서도 사라졌다.

몽골어 자음 수는 19개로 한글의 자음 19과 같다⁸⁾. 기본 자음과 쌍자음만 첫소리에 나올 수 있다. 일대일로 대응할 수는 없어도 19개의 자음을 사용한다는 점은 자음 특성의 유사성이 높다.

격음 경음을 한국어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몽골어 자모에 비슷한 음소로 일대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어의 자음 수와 한글 자음 수가 같지만 일대일 대응이

⁸⁾ 한글의 기본 자음 14개이지만, 알파벳으로 정의되는 14개 외에 쌍자음 5개를 음소 및 자소로서 식별하기 때문이다.

어려우므로 실제로 몇 개의 자모가 더 필요하게 된다.

4.2 복자음 및 단독 자음 음소의 문제

‘맏다’ 대신 ‘말ᄃ다’ 처럼 자음 단독으로 음소를 이룰 수 있는가? 또는 ‘빠’처럼 첫소리에 복자음을 쓸 수 있을까? ‘맏다’를 ‘말ᄃ’ ‘처럼’ 할 수 있을까? 현대 한국어에서는 복자음이 단순화되었고, 특히 첫소리의 음소는 복자음 음소를 사용하지 않는다⁹⁾. 첫소리에 복자음을 허용하면 자소 차용 시 간결성을 상실되고 앞 음절의 받침과 뒤 음절 첫소리 부분이 혼동된다. 정보처리 관점에서도 이러한 첫소리의 규칙은 유리하다. 자소 음소 규칙을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분석컨대 받침에서는 일정 복자음의 유형이 허용될 수 있으나, 첫소리는 정의된 자음 자소로만 사용한다.

4.3 끝소리일 때 닫힘 소리, 터짐 소리 여부

자소 음소 규칙은 언어에 따라 정의되므로 끝소리가 한국어처럼 닫힘소리(불파음, unreleased sound)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어 자음은 자음 앞 또는 말끝에서 중화현상이 많다. ‘악, , ’ 이 모두 [악]으로서 터지지 않고 닫히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몽골어는 끝소리에서 터짐소리가 된다. 예컨대 c를 ‘ᄃ’으로 차용한다면 차용된 ‘ᄃ’은 ‘y c’ 발음이 된다.

4.4 추가가 필요한 자음

몇 개가 더 필요하지만, 한글 자음 14개 모양을 기초로 한다. 자음에 악센트 종류를 붙이거나 새로운 글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가된 자소는 하나의 독립된 자모처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ϕ > 풍으로 차용한다면, $\pi + o$ 으로 만들기보다, 풍의 단독 자모가 좋다¹⁰⁾. 영어의 th는 별도의 음가를 가졌지만 자음 알파벳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몽골어에 있는 순치 마찰음 B, ϕ 은 현대 한글 자소에 없다. 몽골어 특성에 맞게, 이를 B > 붕, ϕ > 풍로 사용한다. 이 글자는 옛 한국어에 사용되었다.

몽골어는 p[r], π [l]이 구별된다. 한국어에서 r은 첫소리에 [r], 끝소리에 [l]로 사용하는 데, 자소 구별이 없다. 차용 방안은 {p, π }을 {르, 르, 름}의 3 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모의 빈도수를 고려하되 이는 차후 추가 연구로 하고, 여기서 p > 르, π > 르에 대응시

9) 쌍자음은 식별되는 음소이다.

10) 영어의 th는 별도의 음가를 가졌지만 자음 알파벳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킨다.

한글 자모는 치경음이 단순화되었다. 몽골 문자 {6개: с ш з ж ц ч}¹¹⁾을 {5개: ㅅ ㅆ ㅈ ㅊ ㅅ}로 대응시키기는 간단치 않다. ① 6개를 5개로 대응시키는 방법, ② 모음과 연동시키는 방법 ③ 옛 문자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①은 {с>ㅅ, ш>ㅆ, з>ㅈ, ж>ㅊ, ц>ㅅ, ч>ㅅ}으로 ц, ч의 2 개를 ㅅ으로 대응시킨다. ②는 앞과 같으나, {ца>차, цо>쳐, цу>초, цү>추, ча>차, чо>쳐, чу>초, чү>취처럼 사용한다. ③은 {с>ㅅ ш>ㅆ, з>△, ж>ㅈ, ц>ㅅ, ч>ㅅ}과 같다. 자모의 식별을 위해 ③ 방안을 채택한다.

4.5 음가가 없는 ㅇ과 받침ㅇ[ŋ]의 구분 문제

몽골 문자로는 [ŋ]음을 자모로 구분하지 않고 н이 [n], [ŋ]에 다 쓰인다. 따라서 몽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절의 끝소리로 [ŋ]을 식별하는 자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첫소리 자리 ㅇ은 음소가 없으며,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을 구성할 때 사용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자음의 한글 자소 대응

조음위치 순번	입술	잇몸, 입천장	잇몸, 혀	여린입천장, 어금니	목구멍
1	м>ㅁ	з>△	н>ㄴ	г>ㄱ	х>ㅎ
2	б>ㅂ	ж>ㅈ	д>ㄷ	к>ㅋ	
3	п>ㅍ	ш>ㅅ	т>ㅌ		
4	в>ㅍ	с>ㅅ	р>ㄹ		
5	ф>ㅍ	ц>ㅅ	л>ㄹ		
6		ч>ㅅ			
소계	5	6	5	2	1

4.6 기타

경음부호 ъ, 연음부호 ь는 각각 ', "의 기호를 붙인다. 참고로 ъ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авъяс(재주)가 거의 유일하다.

몽골어 표기는 단어 끝에 모음이 붙은 것이 묵음이 되거나 자음 모음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발음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байна[벤], өмнө[으믄]과 같다. 이러한 점은 좀더

11) ц는 몽골어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빼었다.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몽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였고, 미래의 강력한 협력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몽골 문자는 역사적인 고유 문자도 있지만 현대 몽골어는 키릴 문자를 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학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한국어의 자모를 차용하는 것은 미래를 볼 때 많은 장점이 있다. 바로 의사소통은 안되지만 읽는데 편리할 것이다.

한국어 자체의 전파가 아니고, 한글 알파벳으로서 몽골어의 문자로 차용될 수 있게 시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자모의 수가 간결하면서 식별성이 있도록 하였다. '쉬운 표음문자인 한글'을 차용하여 비슷한 음소에 대응시켜 사용할 뿐이며 한국어의 음가와 질적으로 같은, 즉 같은 음성기호인 것은 아니다. 현대 한글 자모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추가의 자모가 소수 있다. 자소 대 음소의 규칙을 현대 한국어 규칙으로 구속할 필요는 없고, 몽골어의 특징에 따랐다.

형태적으로 모아쓰기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로마자 차용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독립적인 자모의 수 또는 자소 형태는 한국어의 경우와 약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ᠨ , ᠪ 와 같은 자소는 —+| , ᠪ+o 의 결합으로 간주하기보다 독립적인 자모화되는 것이 낫다. 또 유니코드에 없는 자모가 극소수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연구로 본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알타이 계나 동남아의 무문자 언어에도 발전시킬 수 있다.

문자의 차용은 입력기나 컴퓨터 정보처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첫소리의 자음과 끝소리의 자음이 입력 시에 구분되어야 하는지, 자동기능(오토마타)로 해야 하는지, 기계식과의 호환 문제 등의 주제들이다. 또 자모화 된 것들을 어떻게 입력 단위로 할 것인지, 부호와 합성 규칙도 연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기계적 입력이 우선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몽골어의 글자 빈도수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어떤 글자의 연접이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정보공학적 관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자판, 문자구현 알고리즘, 문자집합과의 관계 등이다.

[참고문헌]

- 김종미(2009), 「한글, 한국말, 한국 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실용주의 언어교육론 소고」, 『한국어정보학』 제11권 제1호, 한국어정보학회.
- 방성원 외(2008),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국민은행·한국국제교류재단.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 문진미디어
- 서정수·정달영(2000), 「국제 음성 한글 기호(IPH)의 제정(시안)」,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July 13-15, 2000, Prague, Czech Republic.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이현복(1999), 『국제한글음성문자 (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 이론과 활용』, 대한음성학회
- 최기호(2005), 「몽골어와 한국어의 계통적 위치」, 『청람어문교육』 32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http://www.korean.go.kr/08_new/data/rule03_0101.jsp,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외래어 표기법, 국립국어원
- <http://www.phonetics.ucla.edu/course/chapter1/flash.html>, A Course in Phonetics, Ladefoged, P.
- <http://ko.wikipedia.org/wiki/국제음성기호>,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날소리>,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음운론>, 위키피디아

Монгол хэлний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ээр Хангиль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тэмдэгдэх боломж

Ким Гүк

кхурангуйь

Монгол хэлэнд Солонгос хэлтэй төстэй элементүүд олон бий. Монгол хэл бол түүхэн бичиг үсэг болох монгол бичигтэй хэдий ч өнөө цагт криль бичиг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гаа билээ. Монгол хэлний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ашигл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үсэг бичгийг тэмдэглэх боломжтой. Ижил төстэй авиануудыг харьцуулан нэгэн төвшинд авч үзэх нь харьцангуй хялбар арга юм. Гэвч Хангиль авиа авиалбарт байхгүй ч Монгол хэлэнд ялгаж болох авиа, үеийн төгсгөлийн аваиг тэсрэлттэй авиа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ж, авиаг тэмдэглэхийн тулд авиа авиалбаруудыг харьцуулах аргыг ашиглан Монгол хэлэнд яв цав тохируулах нь чухал.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тэмдэглэн Монгол хэлэнд тохируулах явцад бага зэргийн өөрчлөлт гарч болох юм.

Түлхүүр үг :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иг(цагаан толгой), Хангиль үсэг бичиг,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тэмдэглэх, авиа авиалбарыг харьцуулах арга, элшиг гийгүүлэгч авианы тэмдэглэгээ

서술부 양태 표현들의 범주화와 결합 양상*

이 필 영*

목 차

1. 서론
2. 양태의 하위범주 분류
 - 2.1 심리적 주체에 따른 분류
 - 2.2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
3. 결합의 양상
 - 3.1 양태 용언 구성들 간의 결합 양상
 - 3.2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
 - 3.3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어 서술부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들을 대상으로 양태의 하위범주를 분류하고 각 하위 범주에 속하는 양태 표현들 간의 결합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양태의 하위범주 분류는 우선 양태가 나타내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행위자([+행위자]) 양태와 비행위자([-행위자]) 양태로 나누고, 후자(비행위자 양태)는 다시 화자만이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심리주체 제약적])과 그렇지 않은 것([-심리주체 제약적])으로 나누었다. 양태의 하위범주 분류에 사용한 두 번째 기준으로는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 즉 인지적 양태([+인지적])인가 비인지적 양태([-인지적])인 가이다. [+행위자] 양태는 모두 [-인지적]이며, [-행위자] 양태는 [-인지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는 모두 [+인지적]이다. 세 번째 기준은 명제 내용의 제약을 받는가 여부에 따른 것인데, [+행위자] 양태의 성격이 강할수록 그 명제는 주어의 미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하위범주 이다.

* 이 논문은 2004년 <답화와 인지> 제11권 3호에 실린 것을 일부 줄이고 다듬은 것이다.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① [+행위자][-인지적][+미래 행위 명제 제약]
- ② [-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인지적][+사물중심적][+미래 행위 명제 제약]
- ③ [-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인지적][-사물중심적][-미래 행위 명제 제약]
- ④ [-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인지적][-미래 행위 명제 제약]
- ⑤ [-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인지적][-미래 행위 명제 제약]

위의 5가지 양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결합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즉 ①이 서술어의 본용언에 가장 가까이 결합할 수 있으며, ⑤가 가장 멀리서 결합한다. 이는 명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수록 본용언에 가깝고 그렇지 않을수록 멀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위의 5가지 양태 표현과 양태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 ‘-겠-’, ‘-더-’ 및 종결어미 ‘-을래, -을까’ 등과의 결합 관계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양태, 심리적 주체, 행위자, 인지적, 명제 내용

1. 서론

최근까지도 국어학에서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태도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¹⁾ 그런데 양태 표현 가운데는 화자 이외에도 청자 그리고 제3자의 내면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²⁾ ‘-을 것같-’ 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1) 가. 철수가 이길 것 같다.

나. 철수가 이길 것 같니?

다. 철수가 이길 것 같으니까 영화는 매우 좋아했다.

‘-을 것같-’ 이 (1가)에서는 화자의, (1나)에서는 청자의, (1다)에서는 제3자인 ‘영화’의 인지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2)의 ‘-고 싶-’ 이나 ‘-으려고 하-’ 와 같이

1) 그간의 양태의 개념에 대하여는 장경희(1985), 고영근(1986)가 참고할 만하다. 장경희(1985:11)에서는 양태를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필영(1998)에서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쓰인 양태 표현이 후행절 주어의 인지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화자가 아닌 주어, 즉 행위자의 내면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2) 가. 영화는 지금 그 영화가 보고 싶은가 보다.

나. 영화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따라서 양태는 '명제에 대한 심리적 태도³⁾'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다. 이때 심리적 태도의 주체는 화자, 청자, 제3자, 행위자(주어) 중 그 어느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국어 양태 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양태 범주를 '주어(또는 행위자) 중심적/지향적' 인 것과 '화자(또는 화청자) 중심적/지향적' 인 것으로 나눈다.⁴⁾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양태 분류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있어서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를 분류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⁵⁾ 가령, '-어야 하-' 를 일반적으로는 행위자(또는 주어) 중심적/지향적 양태로 간주하는데, 이는 '-어야 하-' 가 행위자(또는 주어)의 행위 수행이 의무적(당위적)임을 나타내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행위 수행이 의무적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행위자가 아닌 제3자이다. 다음 예문 (3)에서 '철수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는 주체는 주어(행위자)인 '철수' 가 아니라 화자이기 때문이다.⁶⁾

(3) 철수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3) 이때의 '심리적 태도' 는 의도, 희망, 당위, 의무, 허락, 금지, 가능성, 판단의 불확실성 등등을 모두 포함한다.

4) 김지은(1998), 남길임(1998), 임동훈(2000:137) 등에서는 양태를 행위자(주어) 중심적/지향적인 것과 화자 중심적/지향적인 것으로만 나누었는데 박재연(2003)에서는 여기에다가 청자 중심적/지향적인 양태를 더하여 양태 범주를 주어(행위자) 지향적인 것과 화청자 지향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것은 Bybee(1985)의 분류 방식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5) 김지은(1998:30-38)에서는 주어 중심 양태용언을 '선행용언이 가리키는 행위나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바람, 능력, 의무 등의 조건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언' 으로, 화자 중심 양태용언을 '명제의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나 명제 실현에 대한 화자의 희망, 바람, 유감, 의도 등을 표현하는 양태용언' 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양태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이 논문에서 분류한 주어 중심 양태 용언 가운데는 '-어 주-', '-어 보-', '-어 두-' 등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양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6) 이때의 '-어야 하-' 가 화자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사태의 당위성)을 화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말한 것이라면 이때의 '-어야 하-' 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심리적 주체를 행위자와 화자(또는 화청자)로 양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다)에서와 같이 행위자(곧 주어)나 화자(또는 화청자) 중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양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양태의 하위범주 구분에는 그것이 인지적 양태인가 아닌가, 또 명제의 의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특성을 지닌 양태 범주에 대하여는 그 동안 비교적 자주 연구되어 온 편이지만 그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양태의 하위범주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또 양태와 명제 내용의 관련성에 따른 양태 분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양태 범주의 체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먼저 서술부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주체와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양태의 하위범주를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각 하위범주들 사이의 결합 순서를 살피고자 한다. 양태 표현들은 그 특성에 따라 문장 안에서의 상대적인 배열 순서를 갖는다. 따라서 하위범주들 간의 결합 순서를 살핌으로써 하위범주 분류 작업의 타당성이 검증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주로 다룰 양태 표현들은 ‘-은/을 것같-’, ‘-은 모양이-’, ‘-은가 보-’, ‘-려고 하-’ 등등과 같이 본동사에 연결되는 용언적 구성들이지만, 이들의 배열 위치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선어말어미들 및 양태성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도 살피게 될 것이다.

2. 양태의 하위범주 분류

2.1 심리적 주체에 따른 분류

심리적 태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양태는 행위자 중심적 양태와 비행위자 중심적 양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전자를 [+행위자] 양태, 후자를 [-행위자] 양태로 나타내기로 한다. [+행위자] 양태란 행위의 주체만이 자신의 행위 실현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를 가리키고, [-행위자] 양태란 행위자뿐 아니라 행위자 이외의 인물, 즉 제3자도 명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가령, 다음 (4)의 ‘-고 싶(어하)-’ 과

7) (1다)의 양태는 후행절 주어인 ‘영희’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므로 주어 중심적인 아닌가 하고 의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어 중심적 양태, 즉 행위자 중심적 양태란 행위자 자신이 주어인 문장(절)에서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1다)의 양태는 주어(또는 행위자) 중심적 양태라고 할 수 없다.

‘-으려고 하-’ 는 행위자인 ‘철수’ 의 심리적 태도를, 예문 (5)의 ‘-을 수 있-’, ‘-어야 하-’, ‘-을 것같-’ 은 행위자 ‘철수’ 가 아닌 행위자 이외의 인물, 즉 화자, 청자, 후행절 주어(‘영희’)의 심리적 태도를 각각 나타낸다.⁸⁾

(4) 가. 철수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어한다.

나. 철수는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한다.

(5) 가. 철수는 이 일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나. 철수가 오늘 이 일을 끝내야 하니?

다. 철수가 1시간 안에 끝낼 것같아서 영희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따라서 ‘-고 싶(어)하-’, ‘-으려고 하-’ 가 나타내는 양태는 [+행위자] 양태, ‘-을 수 있-’, ‘-어야 하-’, ‘-을 것같-’ 이 나타내는 양태는 [-행위자]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 양태는 다시 심리적 주체의 제약 여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즉, 화자만이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과 화자를 포함하여 청자나 그 밖의 인물도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이 그것이다. 이를 ‘-을 것이-’ 와 ‘-을 것같-’ 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6가)와 (7가)에서 보듯이 양자는 모두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6나)와 (7나)에서처럼 청자가 심리적 주체가 되거나, (6다)와 (7다)의 선행절에서처럼 제3자(‘영희’)가 심리적 주체가 될 경우에는 ‘-을 것같-’ 만 허용되고 ‘-을 것이-’ 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가. 철수는 어제쯤 도착했을 것이다.

나. *철수가 언제 도착했을 것이냐?⁹⁾

8) 만약에 ‘-을 수 있-’, ‘-어야 하-’, ‘-을 것같-’ 에 선행하는 명제 내용이 화자 자신의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가 행위자(곧, 화자)가 될 것이다.

(예) 가. 나는 이 일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나.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내야 한다.

다. 나는 이 일을 1시간 안에 끝낼 것같다.

9) 익명의 심사자가 (i)과 같은 예를 통해서 [추정]의 ‘-을 것이-’ 가 의문문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 그 물건 언제 올거냐?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준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ii가)나 (ii나)에서처럼 서술부가 현재의 행위를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을 것이-’ 가 의문문에 쓰이기 어려운

다. *철수가 곧 도착할 것이니까) 영화는 역으로 달려 나갔다.

(7) 가. 철수는 어제 도착했을 것 같다.

나. 철수가 언제 도착했을 것 같나?

다. 철수가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영화는 역으로 급히 달려 나갔다.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표현에는 ‘-을 것이-’ 이외에도 ‘-을/은 모양이-’, ‘-은 가/나 보-’ 등이 있으며,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표현에는 ‘-을/은 것같-’ 이외에도 ‘-을/은 {듯하-, 듯싶-}’, ‘-기 쉽-’, ‘-을지/은지 모르-’, ‘-을 법하-’ 등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심리적 주체에 따른 양태 범주

가. [+행위자] 양태: ‘-고 싶(어하)-’, ‘-으려고 하-’

나. [-행위자] 양태

a.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을 것같-’, ‘-을 듯하-’, ‘-기 쉽-’ 등등

b.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을 것이-’, ‘-을/은 모양이-’, ‘-은가 보-’ 등

2.2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

여기서는 양태 용언의 의미적 특성을 살피고, 이것이 명제의 의미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양태 용언의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양태는

데 비해 (ii 다)에서처럼 서술부가 미래의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가능하다.

(ii) 가. *철수가 지금쯤 자기 방에서 뭐할거냐?

나. *그 물건 비쌀거냐?

다. 철수도 올거냐?(‘철수’ ≠ 청자)

(i) 은 주어가 유정물이 아니므로 서술부가 미래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물건을 이동하는 사람이 행위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때의 서술부는 미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정]의 ‘-을 것이-’는 서술부가 미래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 한하여 청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0) ‘-으니까’는 일반적으로 시제나 서법의 해석이 후행절을 기준으로 해석되지만, 후행절이 명령문이나 청유문, 또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지닌 절일 경우에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발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으니까’에 선행하는 양태 표현에 대한 해석은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나누어질 것이다.

[+인지적] 양태와 [-인지적] 양태로 나눌 수 있다. [+인지적] 양태란 (9)에서처럼 사태에 대한 인지의 확실성 정도¹¹⁾를 가리키는 것이고, ¹²⁾ [-인지적] 양태는 (10)에서와 같이 행위자 자신의 행위 수행에 대한 원망(願望)이나 의도를 나타내거나, (11)에서와 같이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한 당위성 판단(11가), 허용(11나), 금지(11다), 원망(願望)(11라), (행위 수행) 가능성 또는 능력 평가(11마), 가치 평가(11바) 등등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다.

- (9) 가. 철수는 어제 도착했^을 {수 있다, 것 같다, 것이다, 지 모른다, 만하다, 법하다}.
나. 철수는 어제 도착한 {모양이다, 것 같다}.
다. 철수는 어제 도착했^기 쉽다.
- (10) 철수는 영희를 만나-^고 싶어하, 려고 해-^ㄴ다.
- (11) 가. 철수는 오늘 도착해야 {한다, 된다}.
나. 철수는 오늘 도착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
다. 철수는 내일 {도착해서는,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철수가 오늘 도착했으면 좋겠다.
마. 철수는 1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바. 철수는 상을 받을 만하다.

이들을 심리적 주체와 관련지어 보면, [+인지적] 양태는 행위자 이외의 인물도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행위자] 양태에 속한다. 그리고 2.1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다시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과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으로 나뉜다. 즉 ‘-을 것이-’ 류가 전자에 속하고, ‘-을 것같-’ 류가 후자에 속한다. 한편 [-인지적] 양태는 (10)에서처럼 [+행위자] 양태에 속하는 것과 (11)에서처럼 [-행위자] 양태에 속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리고 후자, 즉 [-행위자][-인지적] 양태는 모두 [-심리주체 제약적]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11) 사태에 대한 인지의 확실성 정도란 다른 말로 하면 인지된 사태가 사실(참)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확실성 정도’를 뒤집어 말하면 불확실한 정도가 될 것이다.

12) 물론 인지적 양태 표현들 가운데는 ‘-지’나 ‘-구나, -네, -더-’와 같이 [이미 앎] 또는 [새로 앎]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을 것이-’와 같이 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미 앎]이라는 의미도 갖는 경우도 있다. 박재연(1999:203)에서는 인지 양태를 ‘화청자 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규정하고,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을 1) 정보의 확실성 정도(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2) 정보의 출처(지각, 추론, 인용), 3) 정보의 내면화 정도(이미 앎, 새로 앎), 4)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기지 가정, 미지 가정) 등의 4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12) 가. 철수가 일을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영희는 철수를 도와 주었다.
나. 철수가 오늘 안 와도 될 것 같아서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철수가 내일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 철수가 오늘 도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 철수가 1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희는 기다리기로 했다.
바. 철수가 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철수를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12가)~(12바)의 선행절에 쓰인 [-인지적] 양태 표현들은 모두 후행절 주어인 '영희'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은 화자뿐 아니라 제3자의 심리적 태도도 나타낼 수 있는 [-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양태의 의미적 특성과 심리적 주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양태 용언의 의미특성에 따른 분류

가. [-인지적] 양태

a. [-인지적][+행위자] 양태: '고 싶(어하)-', '으려고 하-'

b. [-인지적][-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을 수 있-', '을 만하-', '어야 하-', '어도 되-', '으면 안 되-' 등등

나. [+인지적] 양태

a. [+인지적][-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을 것같-', '을/은 듯하-' 등등

b. [+인지적][-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 양태: '을 것이-', '은가 보-' 등등

그러면 이제는 이들과 명제 내용¹³⁾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13나)의 [+인지적] 양태들은 명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비해서 (13가)의 [-인지적] 양태들은 명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여기서는 편의상 '명제 내용' 이 시간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13가a)의 [-인지적][+행위자] 양태는 [의도]나 [원망(願望)]과 같이 행위자의 행위 수행 실현에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반드시 명제 내용이 심리적 태도가 발생한 이후의 행동(즉 미래적인 행동)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즉, 이들은 (14)에서와 같이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의 상태 등과는 결합할 수가 없다.

(14) 가 *철수는 영희를 만났-(고 싶어하, (으)려고 해-ㄴ다.

나. *철수는 배가 고프-(고 싶어하, (으)려고 해-ㄴ다.

그리고 (13가b)의 [-인지적][-행위자][-심리주체 제약적] 양태에는 명제 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전자는 (11마)의 ‘-을 수 있-’ 처럼 어떤 사물(인물)의 행위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¹⁴⁾ (11바)의 ‘-을 만하-’ 처럼 어떤 사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사태보다는 사물(인물)에 초점이 놓이는 것들이고, 후자는 (11가)-(11라)에서처럼 사물보다는 사태 전체에 초점이 놓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를 [+사물 중심적] 양태, 전자를 [-사물 중심적] 양태로 나타내기로 한다.

(11) 가. 철수는 오늘 도착해야 {한다, 된다}.

나. 철수는 오늘 도착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

다. 철수는 내일 {도착해서는,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철수가 오늘 도착했으면 좋겠다.

마. 철수는 1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바. 철수는 상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사물 중심적] 양태는 미래 지향적인 행동 명제와만 결합한다는 제약이 있다. 예컨대, ‘-을 수 있-’ 은 (15)에서와 같이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의 상태 따위와는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13가a)의 [-인지적][+행위자] 양태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¹⁵⁾

14) ‘-을 수 있-’ 이 나타내는 [행위 수행 가능성]은 [행위 수행 능력이 있음](예-가)과 [행위 수행이 허용됨](예-나)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안주호, 2004 참조).

(예) 가. 철수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나. 철수는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15) 가 *철수는 그 일을 1시간 안에 끝냈을 수 있다.

나. *철수는 배가 고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사물 중심적] 양태는 명제 내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다. 가령, -으면 안 되-' 는 (16)에서와 같이 명제 내용이 현재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다.

(16) 가 철수가 지금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철수가 지금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양태의 하위범주 체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양태의 하위범주 체계

심리적 주체	의미적 특성		양태 표현	부류
	양태 용언의 의미	명제(사태)의 의미		
+행위자	-인지적	미래적 행동만 허용됨	-고 싶(어)하-, -으려고 하- ¹⁶⁾	①
-행위자	-인지적	미래적 행동만 허용됨	'-을 수 있a-', '-을 만하a-' ¹⁷⁾	②
	-사물 중심적	제약 없음	-어야 하-, -지 않으면 안 되-, -어도 되/괜찮/좋-, -어서는 안 되-, -았으면 좋겠-	③
	-사물 중심적	제약 없음	-을/은 (것)같-, 듯하-, 듯싶-, -을 수 있b-, -을 만하b-, -을지/은지 모르-, -을 법하-	④
	+인지적	제약 없음	-을 것이- ¹⁸⁾ , -을/은 모양이-, -은가/나 보-	⑤

15) '-을 수 있-' 은 [-인지적][-행위자][+사물 중심적] 양태와 [+인지적][-행위자] 양태를 모두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을 수 있a-' 와 '-을 수 있b-' 로 나타내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가)에서처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 후자의 경우에는 (예-나)에서처럼 '-할 가능성이 있다' 로 바꿔쓰는 것이 가능하다.

(예) 가. 철수는 이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 ??읽을 가능성이 있다}

나. 철수는 이 책을 {*읽은 것이 가능하다,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15) 의 예문들이 쓰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전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안주호(2004)에서는 '-을 수 있-' 의 두 가지 양태를 부정문의 양상, 후행 서법의 제약, 선행 용언의 제약, 시상의 제약, 관형절/부사절 제약 등의 통사적 특성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다.

16) -으려고 하-' 는 (예-가)에서처럼 서술어가 주어의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행위 주체의 의도, 즉 [+행위자] 양태를 나타내지만, (예-나)에서처럼 서술어가 상태를 나타내거나 (예-다)에서처럼 주어가 무정물일 경우에는 사태에 대한 예상, 즉 [-행위자] 양태를 나타낸다.

(예) 가. 철수가 집에 가려고 한다.

나. 철수는 배가 아프려고 한다.

앞으로는 논의의 편의상 각 부류를 각각 ①, ②, ③, ④, ⑤로 나타내기로 한다.

3. 결합의 양상

그러면 이제부터는 양태 용언 구성들 간의 결합 양상과 이들과 양태적 성격을 지닌 선어말 어미 및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양태 용언 구성들 간의 결합 양상

양태 용언 구성들은 그들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다. 즉 이들은 명제의 뒤에서 그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의 뒤에 오는 발화 상황적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는 명제적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일수록 명제 쪽(즉, 앞 쪽)에 가깝고, 발화 상황적 특성과 관계가 깊은 것일수록 뒤 쪽에 가까울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①-⑤ 부류 각각의 배열 순서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 [+행위자] 양태 표현인 ① 부류는 명제(사태)에 참여하는 행위자(즉, 주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제(사태)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②-⑤ 부류보다는 명제 내용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들보다 명제 쪽(즉, 앞 쪽)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반해 [+심리주체 제약적]인 ⑤는 심리적 태도의 주체가 발화 상황의 주체인 화자만으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발화 상황적 성격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더 강하고, 따라서 다른 것들보다 발화 상황적 요소 쪽(즉, 뒤 쪽)에 가까울 것이다.

다. 비가 오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행위자] 양태의 경우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17) ‘-을 만하-’ 도 [-인지적][-행위자][+사물 중심적] 양태를 나타내는 것과 [+인지적][-행위자]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인지적]일 경우에는 (예-가)에서처럼 ‘-할 [가치, 자격, 가능성이 있다]

로, [+인지적]일 경우에는 (예-나)에서처럼 ‘-할 가능성이 있다’ 로 바꿔쓸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을 만하_a-’ 와 ‘-을 만하_b-’ 로 구별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예) 가. 철수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 철수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18) ‘-을 것이-’ 가 [의도]를 나타낼 때는 [+행위자] 양태, [추정]을 나타낼 때는 [-행위자] 양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행위자] 양태의 경우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②-④ 부류 가운데서는 [+인지적] 양태 표현인 ④ 부류가 [-인지적] 양태 표현인 ②-③ 부류에 비해 명제 내용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왜냐하면 [+인지적] 태도는 인지된 명제(사태)와 명제 밖의 상황, 즉 실제 세계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심리적 태도(판단)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②-③ 부류는 명제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심리적 태도(의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③ 부류가 ④ 부류에 비해서 명제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다시 ② 부류는 ③ 부류에 비해 명제 쪽에 더 가깝게 배치될 것이다. 그것은 [+사물 중심적]인 ② 부류가 명제 내용 속의 한 사물(인물)을 통해서 명제 내용과 관련되는 데 비해서 [-사물 중심적]인 ③ 부류는 명제 내용 그 자체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예상되는 양태 표현들의 배열 순서는 ①>②>③>④>⑤의 순이 될 것이다.¹⁹⁾

그러면 이제는 각 양태 용언 구성들의 실제 배열 순서가 위와 같은 예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① 부류와 그 나머지 부류 간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18)은 ①+{②, ③, ④, ⑤}가 가능하며, (18)'은 {②, ③, ④, ⑤}+①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18) 가. 철수는(가) 이 책을 읽고 싶어-(할 만하^a다②²⁰⁾/ 해서는 안 된다③/
할 것 같다 ④/ 하는가 보다⑤

나. 이 책은 철수가 읽으려고 {할 만하^a다②/ 해서는 안 된다③/할 것 같다④/
할 것이다⑤}

18) '가. *철수는 이 책을 읽-(을 만하^a다②/ 어서는 안 되③/것같④/가 보⑤)-고 싶어한다.

나. *철수는 이 책을 읽(을 만하^a다②/어서는 안 되③/을 것같④/을 것이⑤)-려고 한다.

다음은 ②부류와 ③-⑤ 부류와의 결합 관계이다. (19)는 ②+{③, ④, ⑤}가 가능하며, (19)'는 {③, ④, ⑤}+②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19) 가. 철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a-(어야 한다③/을 것같다④/을 것이다⑤)

나. 모름지기 동화책은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만하^a-(어야 한다③)

¹⁹⁾ 물론 모든 양태 표현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통사적 특성이 상이할 수 있고, 따라서 통사적인 특성상 결합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개별 양태 표현이 지닌 의미적 특성상 결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부류 사이의 일반적인 배열순서 성향을 찾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²⁰⁾ 이 문장은 '철수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라면 이 책을 읽고 싶어할 만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이 책은 철수가 읽을 만하^a-{은 것같^a④/을 것^a이다⑤}

(19) '가. *철수는 이 책을 읽-{어야 할③/을 것같^a④/을 것^a일⑤} 수 있^a다.

나. *모름지기 동화책은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어야 하③}-을 만하^a다.

다. *이 책은 철수가 읽-{은 것같④/을 것^a이다⑤}-을 만하^a다.

다음은 ③부류와 ④-⑤ 부류와의 결합 관계이다. (20)은 ③+④, ⑤가 가능하며, (20)'은 ④, ⑤+③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20) 가. 철수는 오늘 그 일을 끝내야 {할 것같^a④/할 것^a이다⑤}

나. 철수가 오늘 그 일을 안 끝내도 {될 것같^a④/될 것^a이다⑤}

(20) '가. *철수는 오늘 그 일을 끝내-{을 것같④/을 것^a이다⑤}-어야 한다.

나. *철수는 오늘 그 일을 안 끝내-{을 것같④/을 것^a이다⑤}-어도 된다.

다음은 ④부류와 ⑤ 부류의 결합 관계이다. (21)은 ④+⑤가 가능하며, (21)'은 ⑤+④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21) 가. 영화는(영화 생각에는) 철수가 오늘쯤 도착할 것같^a④{을 것^a이다⑤, 던가 보다⑤}

나. 영화는(영화 생각에는) 철수가 오늘쯤 도착했^a을 만{?했^a을 것^a이다⑤, 했던가 보다⑤}

(21) '가. *영화는(영화 생각에는) 철수가 오늘쯤 도착하-{을 것^a이다⑤, 였던가 보⑤}-었^a을 것같^a다.

나. *영화는(영화 생각에는) 철수가 오늘쯤 도착하-{을 것^a이다⑤, 였던가 보⑤}-었^a을 만하^a다.

이상에서 우리는 양태 용언 구성들 각각의 특성을 통해 예상해 본 ①>②>③>④>⑤의 배열 순서가 대체로 실제의 배열순서와 일치함을 보았다.

3.2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

선어말어미 '-시-었-겠-더-' 가운데서 양태적 성격을 지닌 '-겠-' 과 '-더-' 는 주체높임의 '-시-' 나 시상의 '-었-' 에 비해 뒤에 배치된다. 그러면 이들 각각과 양태

용언과의 결합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겠-’과의 결합 양상

‘-겠-’ 과 양태 용언 구성들과의 결합 양상을 보기에 앞서 먼저 ‘-겠-’ 이 어떤 부류에 해당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겠-’ 은 [의도], [추정], [가능성], [완곡함] 등을 나타내는데(임동훈, 2001),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추정]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추정]의 ‘-겠-’ 은 [+인지적] 표현에 속한다. 그런데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추정]의 ‘-겠-’ 은 화자(22가), 청자(22나), 제3자인 ‘영희’ (22다)의 인지적 태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추정]의 ‘-겠-’ 은 [+인지적] 표현 가운데서 [-심리주체 제약적]인 ④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가. 철수가 내일쯤 오겠다.

나. 철수가 내일쯤이면 오겠니?

다. 영희는 철수가 안 오겠으니까 철수네 집으로 찾아갔다.

이 [추정]의 ‘-겠-’ 과 ①-⑤ 부류와의 결합 양상은 (23)-(27)와 같다. (23)-(27)는 각각 ①-⑤ 부류가 사용된 문장이다.

(23) 가. 철수는 이 책을 읽-(*겠)-고 싶-(겠)-다.

나. 철수는 이 책을 읽-(*겠)-으려고 했-(겠)-다.

(24) 가. 철수는 이 책을 읽-(*겠)-을 수 있a-(겠)-다.

나. 이 의자는 네 사람도 앉-(*겠)-을 만하a-(겠)-다.

(25) 가. 철수는 어제 도착하-(*겠)-어야 했-(겠)-다.

나. 철수는 (서두르지 않고) 어제 도착하-(*겠)-어도 됐-(겠)-다.

다. 철수는 어제 도착하지 않-(*겠)-으면 안 되었-(겠)-다.

(26) 가. 영희는 철수가 어제 도착했-(*겠)-을 (것같, 듯하, 듯싶)았-(겠)-다.

나. 철수는 어제 도착했-(*겠)-을 수도 있b-(겠)-다.

(27) 가. 영희는 철수가 어제 도착했-(*겠)-을 것이-(*겠)-다.

나. 영희는 철수는 어제 도착했-(겠)-던가 보-(*겠)-다.

다. 영희는 철수가 어제 도착하-(겠)-던 모양이-(*겠)-다.

이상에서 ‘-겠-’은 ①-④ 부류에는 전혀 선행할 수 없고, ⑤ 부류에는 ‘-을 것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겠-’이 후행할 수 있는 것은 ①-④ 부류뿐이다. 따라서 ‘-겠-’의 위치는 ④ 부류와 ⑤ 부류의 사이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8) 양태 용언 구성과 ‘-겠-’의 결합 순서

① + ② + ③ + ④ + ‘-겠-’ + ⑤

3.2.2 ‘-더-’와의 결합 양상

‘-더-’와 양태 용언 구성과의 결합 양상을 보기에 앞서 먼저 ‘-더-’가 어떤 부류에 해당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문장에 쓰이는 ‘-더-’의 주된 의미는 대체로 ‘과거에 새로 알게 됨 [과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더-’는 ④, ⑤의 [+인지적] 양태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그것은 인지의 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④, ⑤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심리적 주체 제약을 볼 때, ‘-더-’는 다음의 (29가)와 (29나)에서처럼 화자와 청자의 인지 태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29다)에서처럼 제3자(‘영희’)의 인지 태도를 나타낼 수는 없다.

(29) 가. 철수가 어제 왔-더-라.

나. 철수가 어제 왔-더-냐?

다. *철수가 어제 안 왔-더-니까 영희가 (철수네) 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볼 때, 주문장에 쓰이는 ‘-더-’는 ⑤ 부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더-’와 ①-⑤ 부류의 양태 용언 구성과의 결합 양상을 보기로 한다. (30)-(34)은 각각 ①-⑤ 부류가 사용된 문장이다.

21) ‘-더-’는 소위 주어 인칭 제약을 받는 것(‘-더라, -더니, -던데’ 등등)과 그렇지 않은 것(‘-던-(았)더니, -더라도, -(았)더면’ 등등)이 있는데, 주어 인칭 제약을 받는 것은 ‘-더-’가 화자나 청자의 인지적 태도, 즉 ‘발화시 이전(과거)에 새로 알게 되었음(=과거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 인칭 제약을 받지 않는 것들은 위와 같은 화자와 청자의 인지적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만이 논의 대상이다.

- (30) 가. 철수는 이 책을 읽-(*더)-고 싶어하-(더)-라.
나. 철수는 이 책을 읽-(*더)-려고 하-(더)-라.
- (31) 가. 철수는 이 책을 읽-(*더)-을 수 있a-(더)-라.
나. 이 의지는 네 사람도 앓-(*더)-을 만하a-(더)-라.
- (32) 가. 철수는 어제 도착하-(*더)-어야 했-(더)-라.
나. 철수는 (서두르지 않고) 어제 도착하-(*더)-어도 됐-(더)-라.
다. 철수는 어제 도착하지 않았-(더)-으면 안 되었-(더)-라.
- (33) 가. 철수는 어제 도착했-(더)-은 {것같, 듯하, 듯싶-(더)-라
나. 철수는 어제 도착했-(*더)-을 수도 있b(겠)-(-더)-라.
- (34) 가. 영희는 철수가 어제 도착했-(*더)-을 것이-(*더)-라.
나. 철수는 어제 도착했-(더)-은가 보-(더)-라.
다. 철수는 어제 도착했-(더)-은 모양이-(더)-라.

외견상으로는 ‘-더-’는 ③ 부류의 ‘-으면 안 되-’ (32다), ④ 부류의 ‘-은 {것같, 듯하, 듯싶-’ (33가), 그리고 ⑤ 부류의 ‘-은가 보-’ (34나)와 ‘-은 모양이-’ (34다) 등에 선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⑤ 부류에 가까운 ‘-더-’가 이처럼 ③이나 ④ 부류에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 이때의 ‘더’는 ‘-더면’ (32다), ‘-던’ (33가), ‘-던가’ (34나), ‘-던’ (34다)을 구성하는 형태 ‘더’로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화자와 청자의 인지적 태도[과거 인식]를 나타내는 ‘-더-’와는 다른 것이다. (각주 22를 참조할 것) 그렇다면 인지적 표현으로서의 ‘-더-’는 ①-⑤의 그 어느 부류에도 선행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더-’가 후행할 수 있는 것은 ①-④ 부류는 물론이고, ⑤ 부류에도 ‘-을 것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더-’가 ⑤의 뒤에 위치한다고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5) 양태 표현과 ‘-더-’의 결합 순서

① + ② + ③ + ④ + ⑤ + ‘더’

3.3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

종결어미 가운데는 화청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앞에서와 같이 [+행위자] 양태의 성격을 지닌 것과 [-행위자] 양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행위자] 양태의 종결어미는 ‘-을래, -을게, -을까a, -어야지, -을걸a’ 등등처럼 주어인 행위자인 화청자의 행위 의지나 결심, 아쉬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²²⁾ ① 부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선행하는 명제 내용도 미래 행동적 성격을 지닌 것들만 허용된다. 이들은 ① 부류와 선택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양자가 상호 결합할 수가 없다. 한편 [-행위자] 양태의 종결어미는 ‘-구나, -네, -지, -을까b²³⁾, -을걸b²⁴⁾’ 등등처럼 [+인 지적]인 것들로서 ④나 ⑤ 부류에 가깝다.²⁵⁾ 그런데 이들은 대개 인지의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새로 알게 됨’ 이나 ‘이미 알고 있음’ 과 같은 인지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점에서²⁶⁾ ④나 ⑤ 부류의 인지 표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①-⑤ 부류와 결합이 가능하다.²⁷⁾ 양태적 종결어미가 ①-⑤의 양태 용언 구성 및 선어말어미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을래(요)’ 와 ‘-구나’ 의 예를 통해서 살피기로 한다. (36가)와 (37가)는 양태 용언 구성과, (36나)와 (37나)는 선어말어미들과 결합한 예이다.

(36) 가. *나는 이것을 읽-(고 싶①/ 을 수 있a②/ 어야 하③/ 을 것같④/ 은 모양이 ⑤)-을래.

나. 김 과장님은 이것을 읽-(으시)-(*었)-(*겠)-(*더)-을래요?

(37) 가. 철수는 이것을 읽-(고 싶어하①/을 수 있a②/ 어도 되③/ 을 것같④/ 은 모양이 ⑤)-(는)구나.

나.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읽-(으시)-(었)-(겠)-(더)-구나.

(36)에서 보듯이 ① 부류에 속하는 ‘-을래’ 는 그것 앞에 ①-⑤ 부류나 ‘-겠-’ ,

²²⁾ 여기 예로 든 것들 가운데 ‘-을래, -을까’ 만이 (‘요’ 가 결합되었을 경우에 의문문에서) 화청자를 심리적 주체로 취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화자만을 심리적 주체로 취한다.

²³⁾ ‘-을까a’ 는 화자(또는 1인칭 복수)의 행위 [의지]를(예-가), ‘-을까b’ 는 사태의 사실성에 대한 [추정]을 나타낸다(예-나).

(예) 가. 오늘 등산이나 가 볼까?

나. 철수가 왔을까?

²⁴⁾ ‘-을걸a’ 은 행위자(화자 자신)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행위자] 양태로서 ‘-을 것일’ 로의 환원이 가능한 데 비해(예-가), ‘-을걸b’ 은 非행위자(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인지적][-행위자] 양태로서 ‘-을 것일’ 로 환원될 수 없다.(예-나)(이필영 1997 참조)

(예) 가. 그때 철수에게 잘 대해 {줄걸, 줄 것일}.

나. 지금쯤 철수가 {도착했을걸, *도착했을 것일}.

²⁵⁾ 장경희(1985)와 박재연(1999)에서는 ‘-네, -구나’ 가 [새로 읽]의 의미를, -지’ 가 [이미 읽]의 의미를 나타냄을 밝힌 바 있다.

²⁶⁾ ‘-구나, -네’ 는 감탄형 어미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인지적] 양태의 성격도 얼마간 지녔다고 볼 수도 있다.

²⁷⁾ ‘-지’ 는 대체로 ④나 ⑤ 부류의 인지적 표현들과 결합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아마도 ‘-지’ 가 인지의 확실성을 나타냄으로써 이들 사이에 선택적(계열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①-⑤ 부류에 속하지 않는 ‘-구나’ 는 (37)에서 보듯이 그것 앞에 ①-⑤ 부류의 양태 용언 구성이나 ‘-겠-’ , ‘-더-’ 등의 선어말어미를 허용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양태적 종결어미가 양태 용언 구성 및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8) 양태 종결어미와 양태 용언 구성 및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가. [+행위자] 양태 종결어미

어떠한 양태 표현도 선행하지 못함.

나. [-행위자](+인지적) 양태 종결어미

①+②+③+④+ ‘겠’ +⑤+ ‘더’ +<[-행위자] 양태 종결어미>

4. 결론

본 논문은 양태 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심리적 태도의 주체와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양태 범주를 분류하고, 각 범주들 간의 결합적 양상과 각 범주들과 선어말어미 및 종결어미와의 결합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태도는 사태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의 태도와 사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로 나뉘는데, 전자를 [+행위자] 양태, 후자를 [-행위자]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다시 화자만이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과 화자 이외에도 청자나 제3자가 심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심리주체 제약적]인 것으로 나뉜다. 한편 의미적 특성 면에서 볼 때, [+행위자] 양태는 대체로 의도나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명제 내용이 미래적 행동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행위자] 양태는 당위, 가능, 금지, 가능성, 가치 평가 등등과 같이 명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인지적] 양태와 사태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양태로 나뉜다. [-인지적] 양태는 다시 사물에 초점을 둔 [+사물 중심적] 양태와 그렇지 않은 [-사물 중심적] 양태로 나뉘는데, 전자는 명제 내용이 미래적 행동을 나타낼 때만 쓰인다는 점에서 [+행위자] 양태에 가깝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2의 (17)과 같다.

(17) 양태의 하위범주 체계

심리적 주체	의미적 특성		양태 표현	부류
	양태 용언의 의미	명제(사태)의 의미		
+행위자	-인지적	미래적 행동만 허용됨	-고 싶(어하)-, -으려고 하-	①
-행위자	-인지적	+사물 중심적	미래적 행동만 허용됨	②
		-사물 중심적	제약 없음	③
	+인지적		제약 없음	④
	+제약적	+인지적	제약 없음	⑤

이들 하위 부류들끼리는 ①>②>③>④>⑤의 순서로 결합된다. 그것은 대체로 명제 내용과 밀접한 것일수록 앞쪽에 놓고, 발화 상황적 요소와 관련된 것일수록 뒤쪽에 놓이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겠-’ (추정을 나타낼 경우)은 특성상 ④에 가깝고, 따라서 그것의 위치는 ④와 ⑤ 사이이다. 선어말어미 ‘-더-’ 는, 주문장에 사용될 경우, [과거 인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인지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①-⑤의 그 어느 부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⑤ 부류의 뒤에 놓인다. 그리고 종결어미의 양태도 양태 용언 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 양태와 [-행위자] 양태로 나뉘는데, 전자는 ① 부류와 그 특성이 일치하며, 후자는 대개 인지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인지의 방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④와 ⑤의 [+인지적] 표현들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전자에는 어떠한 양태 표현도 선행하지 못하는 데 비해 후자는 ①-⑤ 부류와 모든 선어말어미 뒤에 놓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3.6의 (38)과 같다.

(38) 양태 종결어미와 양태 용언 구성 및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가. [+행위자] 양태 종결어미

어떠한 양태 표현도 선행하지 못함.

나. [-행위자](+인지적) 양태 종결어미

①+②+③+④+ ‘겠’ +⑤+ ‘더’ +<[-행위자] 양태 종결어미>

본고에서는 용언적 구성과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양태적 특성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라든가 그 밖의 문장 구성요소들의 양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관한 연구: 선어말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5.
- 고영근. 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249-265.
- 김동욱. 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 'ㄴ 것 같다', 'ㄴ 듯 하다' 와 'ㄴ가 보다', 'ㄴ 모양이다' 의 의미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35, 171-198.
- 김지은. 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박재연. 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국어학 34, 199-225.
- 박재연. 2003.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41, 249-276.
- 안명철. 1983. 현대국어의 양상 연구, 국어연구 56.
- 안주호. 2004. 한국어에서의 양태범주의 문법화 - 'ㄴ 수 있다' 를 중심으로 -, 담화인지언 어학회 제2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요지, 31-40.
- 이기종. 1996. 국어의 짐작추측 구문 연구, 한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6.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필영. 1997. '것을' 과 '것이' 의 특수용법에 대하여, 한양어문 15, 233-256.
- 이필영. 1998.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179-198.
- 임동훈. 2000. 한국어 어미 '-시-' 의 문법, 국어학총서 37, 태학사.
- 임동훈. 2001. '-겠-' 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115-148.
- 임칠성. 1991. 현대국어의 시제어미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 1998. 서법과 양태,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61-303.
- 남길임. 1998. '-겠-' 결합 양상에 따른 종속 접속문 연구, 《남기심 편 1998, 국어 문법의 탐구 IV - 되짚어본 국어 문법의 문제들》, 태학사, 423-451.
- Bybee, J.L., 1985, Morphology: A Study of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Palmer, F.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tegorize the modalities of the predicate constructions by the distinction of subject of mentality and by the semantic features and to survey the syntagmatic relations among the subcategorie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the pre-final & final endings.

In the first, the modalitie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which the ones are of the behavior and the another ones are of the non-behavior. Then the latters are further subcategorized by the semantic features and by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mental subject. According to the semantic features, they are divided into two; the emotive and volitive one and the cognitive one. And according to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mental subject, they are also divided into two groups; the restrictive one and the non-restrictive one.

The subcategories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in a certain order according to their properties. And we can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categorization by that.

Key words: modality of the behavior, modality of the non-behavior, modality of the emotion and volition, modality of the cognition, subject of mentality

18세기 (몽)어록해의 문법적 고찰*

가르드자브 바야르마*

목 차

- I. 서론
- II. 「(몽)어록해」의 서지와 구성
 - 2.1 「(몽)어록해」의 서지
 - 2.2 「(몽)어록해」의 구성
- III. 「(몽)어록해」의 문법적인 고찰
 - 3.1 문법표현 고찰
 - 3.2 문법용어 고찰
- IV. 결론

[국문 초록]

현존하는 『몽어유해(蒙語類解)』(1790) 보편(補篇)의 권말(卷末)에는 당시 몽골어의 주요 어형(語形)과 어법(語法)을 해설한 「어록해(語錄解)」가 수록되어 있다.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간추린 몽골어 문법’에 해당할 이 자료는 18세기 조선의 몽역관(蒙譯官)들이 당시의 몽골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보여 주는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록해(語錄解)」를 통해 당시 편찬자(蒙譯官)들의 문법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제부 및 해설부 대상으로 현대어 관점에서 문법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어록해」에는 총 53개 항에 걸쳐 어미류, 기본 동사류, 관용적 표현 등이 표제어로 나타난다. 각 항은 먼저 몽골 문자로 된 표제어가 제시되고, 그 밑에 한문(漢文)과 한글(부분적)로 된 해설이 덧붙은 뒤, 한어(漢語) 예문과 몽골어 예문이 짝지어 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몽)어록해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고의 3장에서는 표제부 및 해설부 대상으로 현대어 관점에서 문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본고의 표제어 해석 및 용어 고찰에 이어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18세기 당시에

* 울산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06)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간행된 여러 종의 어록해를 정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주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의 표제부, 해설부, 예시부에 포함된 언어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도 앞으로 수행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주제어: 몽골어, 몽문(蒙文), 『몽어유해(蒙語類解)』, 『어록해(語錄解)』, 역주(譯註), 예시부, 표제부, 한어(漢語), 한자(漢字), 해설부

1. 서론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역학서(譯學書) 가운데 현존하는 몽학서(蒙學書)로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몽어유해(蒙語類解)』, 『첩해몽어(捷解蒙語)』 등 이른바 ‘몽학삼서(蒙學三書)’를 들 수 있다. 이들 ‘몽학삼서(蒙學三書)’는 조선조의 ‘몽학(蒙學)’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북경(北京)이나 심양(瀋陽)에서 통용되던 몽골어²⁾를 반영하여(이성규 2002:17) 18세기 당시 한국어와 몽골어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학삼서(蒙學三書)’ 가운데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와 『첩해몽어(捷解蒙語)』는 회화 학습서이고, 『몽어유해(蒙語類解)』는 한(漢)·한(韓)·몽(蒙)의 세 언어로 이루어진 대역(對譯) 어휘집이다. 그런데 『몽어유해(蒙語類解)』의 권말(卷末)에는 당시 사용되고 있던 몽골어의 어법(語法)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어록해(語錄解)』가 수록되어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간추린 몽골어 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이성규, 1998:89) 18세기 조선조 몽역관(蒙譯官)들이 당시의 몽골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보여 주는 흥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몽어유해(蒙語類解)』의 『어록해(語錄解)』(이하 「(몽)어록해」로 약칭)를 통해 당시 편찬자[蒙譯官]들의 문법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몽)어록해」의 원문을 역주한³⁾ 것을 바탕으로 표제부의 문법적인 표현 및 해설부의 한자로 된 문법 용어 체계를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2) 몽골(Mongol)을 ‘몽골’과 ‘몽고(蒙古)’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할 것인지의 문제는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몽고(蒙古)’는 한자로 ‘몽골’을 음역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성규 2002:17)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글로 표기할 때는 ‘몽골’로 표기하고 한자어로 표기할 때는 ‘몽고(蒙古)’로 표기한다.

3)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06)의 원문 역주를 토대로 한다.

간행된 여러 종의 어록해를 정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주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의 표제부, 해설부, 예시부에 포함된 언어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도 앞으로 수행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주제어: 몽골어, 몽문(蒙文), 『몽어유해(蒙語類解)』, 『어록해(語錄解)』, 역주(譯註), 예시부, 표제부, 한어(漢語), 한자(漢字), 해설부

1. 서론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역학서(譯學書) 가운데 현존하는 몽학서(蒙學書)로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몽어유해(蒙語類解)』, 『첩해몽어(捷解蒙語)』 등 이른바 ‘몽학삼서(蒙學三書)’를 들 수 있다. 이들 ‘몽학삼서(蒙學三書)’는 조선조의 ‘몽학(蒙學)’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북경(北京)이나 심양(瀋陽)에서 통용되던 몽골어를 반영하여(이성규 2002:17) 18세기 당시 한국어와 몽골어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학삼서(蒙學三書)’ 가운데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와 『첩해몽어(捷解蒙語)』는 회화 학습서이고, 『몽어유해(蒙語類解)』는 한(漢)·한(韓)·몽(蒙)의 세 언어로 이루어진 대역(對譯) 어휘집이다. 그런데 『몽어유해(蒙語類解)』의 권말(卷末)에는 당시 사용되고 있던 몽골어의 어법(語法)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어록해(語錄解)』가 수록되어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간추린 몽골어 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이성규, 1998:89) 18세기 조선조 몽역관(蒙譯官)들이 당시의 몽골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보여 주는 흥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몽어유해(蒙語類解)』의 『어록해(語錄解)』(이하 「(몽)어록해」로 약칭)를 통해 당시 편찬자[蒙譯官]들의 문법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몽)어록해」의 원문을 역주한²⁾ 것을 바탕으로 표제부의 문법적인 표현 및 해설부의 한자로 된 문법 용어 체계를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2) 몽골(Mongol)을 ‘몽골’과 ‘몽고(蒙古)’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할 것인지의 문제는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몽고(蒙古)’는 한자로 ‘몽골’을 음역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성규 2002:17)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글로 표기할 때는 ‘몽골’로 표기하고 한자어로 표기할 때는 ‘몽고(蒙古)’로 표기한다.

1)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06)의 원문 역주를 토대로 한다.

해석하여 당시 편찬자들의 문법 의식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몽)어록해』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방한(1966), 최학근(1977), 송기중(1988), 이성규(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몽)어록해』의 몽골 문자를 로마자로 전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몽)어록해』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품사 분류를 하거나 문법적 설명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몽)어록해』의 해설 부분에 등장하는 한문(漢文)이나 예시 부분에 등장하는 한어(漢語)·몽골어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한문(漢文)으로 풀이된 해설 부분과 한어(漢語)·몽골어의 짝으로 제시된 예시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관성이 문법적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된 예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몽)어록해』의 문법 의식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셈이다. 본고에서 『(몽)어록해』의 원문 역주를 통한 문법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2. 『(몽)어록해』의 서지와 구성

2.1. 『(몽)어록해』의 서지

『(몽)어록해』는 모두 8장(張)에 매면(每面) 10행(行)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다른 역학서와 마찬가지로, 이 『(몽)어록해』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최초로 편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어록해』가 실린 『몽어유해(蒙語類解)』는 이억성(李億成)에 의하여 1768년(영조 44) 1차 수정된 이후 1790년(정조 14) 방효언(方孝彦)에 의하여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1790년의 수정본은 원편(原篇)에 해당하는 상하(上下) 2책과 『몽어유해보(蒙語類解補)』로 불리는 보편(補篇) 1책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존하는 『(몽)어록해』는 바로 이 보편의 말미에 실린 것이다.⁵⁾ 1768년 이억성의 수정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몽)어록해』는 1790년 방효언에 의하여 수정된 어록해라 할 수 있다.

『(몽)어록해』와 비교될 수 있는 어록해로는 『동문유해(同文類解)』에 부록으로 수록된 청어(淸語), 곧 만주어(滿州語) 어록해를 들 수 있다. 『동문유해(同文類解)』의 어록해를 『(몽)어록

4) 이기문(1964)은 “최초의 ‘몽어록해’는 조선조 역관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편찬되었다고 믿어진다.”고 하였다.

5) 이 1790년의 수정본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동경외국어대학에도 소장되어 있으나 이것은 규장각본을 필사한 필사본이다. 규장각본의 형태 서지는 다음과 같다. 목판본, 36.2×19.3cm, 사주쌍변, 반엽광곽, 26×19.3cm, 유계, 10행, 상하 2단. 판심: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해와 비교하면 처음 12개 항이 동일한 순서에 의하여 동일한 의미의 어형(語形)들을 설명에 시하였음이 드러난다. 이밖에도 청나라에서 간행된 『청문계몽(淸文啓蒙)』(1730년 序)의 「청문 조어허자(淸文助語虛字)」나 「삼합편람(三合便覽)』(1780)의 「몽문지요(蒙文指要)」에도 「동문유해(同文類解)」의 어록해 및 「(몽)어록해」에 공통적인 한어형(漢語形)과 한어(漢語) 예문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의 어록해가 편찬된 후 1768년 이익성이 수정할 때나 1790년 방효언이 수정할 당시에는 「동문유해(同文類解)」도 참고했고 당시 청나라에서 간행된 어떤 몽고문(蒙古文) 서적도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송기중 1988:664) 앞으로 이들 여러 어록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2 「(몽)어록해」의 구성

「(몽)어록해」에는 총 53개 항에 걸쳐 몽골어의 어미류, 기본 동사류, 관용적 표현 등이 설명되고 예시되었다.

가. 표제부

- (1) 몽골어 표제어를 몽골 문자로 제시하였다. 표제어를 적은 행은 다른 행보다 한 글자를 올려 극행(極行)부터 시작하였다.
- (2) 표제어에 여러 형태를 나열할 때에는 형태 사이사이에 ①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였다.

나. 해설부

- (1) 표제어의 의미와 용법을 ②와 같이 쌍행(雙行) 소자(小字)의 한문(漢文)으로 해설하였다. 표제어의 의미 제시는 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어(漢語)를 ‘...字, ...字’의 형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른 항에서는 직접 해당 의미를 서술식으로 설명하기도 함)
- (2) 표제어에 대당되는 한국어 어형을 한글로 제시하되 ③과 같이 ‘卽...字意(也)’의 형식에 넣어 제시하였다. (다른 항에서는 대응되는 한국어형이 없을 때 생략하기도 함)
- (3) 표제어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나 용법을 가진 것일 때, (1)과 (2)를 ④와 같이 ‘又..’로 시작하며 반복하였다.

다. 예시부

- (1) 첫 예문을 들기에 앞서 ⑤와 같이 ‘如(云)...’으로 시작하였다.
- (2) 먼저 ⑥과 같이 한어(漢語) 예문을 들었다.

(3) 한어(漢語) 예문에 대응되는 몽골어 예문(몽골어 표제어가 포함된 예문)을 ⑦과 같이 몽골 문자로 제시하였다(띄어쓰기 적용).

(4) 그 다음 예문을 들 때는 (2)와 (3)을 반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5) 마지막 예문의 끝에는 ⑧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여 한 항의 내용이 끝났음을 표시하였다.(다른 항에서는 부호를 생략한 경우도 있음)

3. 「(몽) 어록해」의 문법적인 고찰

3.1 문법표현 고찰

〈표-1〉

항 목	표제부 전사	한국어표현	예문	문법표현
1	-ni ' -yi ' -ban/-ben	'을' '씨' '으로'	tegün i6) abuju od, baʿsi čimayi od kemebe, neyite čöm beyeben jasaqui yi uʿ bolʿamui	대격조사
2	-tur/-tür ' -dur/-dür ' -ta ' -da ' -taʿan/-daʿan ' -tegen/-degen	'제' '게' '에'	sayid ud mōnū odqui dur kelebe, jegün-te, baraʿun-ta, uʿ-taʿan, gerte, gertegen, gertür	여치격조사
3	-u/-ü ' un/-ün ' -ni ' -nu ' -yin	'의'	kümün ü ečige eke beyen ü ečige eke yin adali7), činu, öberei-n, tedeger ün8)	속격조사
4	-kü ' -qu	'는' , '며'	bolʿumjilaqu der-e basa bolʿumjilaqu kičiyenggüilekü der-e basa kičiyenggüilekü	용언활용어미 , 미래시제 연결형
5	-la- ' -le- ' -lu- ' -lü- ' -ta- ' -da- ' -na- ' -ne- ' -siya- ' -siye- ' -čila- ' -čile-	-	ebderebe, ebdelebe, tasuramui, tasulamui, čolʿurumui, čolʿulumui, sidamtamui, debigürdemüi9), qušungnamui, degüjingnemüi10), dorusiyamui, kečegüsiyemüi11), aqačilamui, degüčilemüi12)	접사(능동/피 동)
6	-ba ' -be -bai ' -bei ' -san ' -sen	-	od, odba, gegerebe, unuʿsan mori, seyilügsen bičig	용언활용어미 ,

				시제(과거완료형)
7	-n	‘하여’ , ‘하며’	qoyiçi edür erke ügei sedkil kılıçedgen kiçegen jidgün qarıulan çidamui 예)ergün ülü çidamüi,	용언활용어미 연결형
8	-ıad , -ged , -ju/-jü	‘하고’ , ‘하여서’	kelelçeju üje, bi gerte kürçü oduıad baqan segkijü buda ideged niıur uıaıad jiçi irey-e, bayan böged erkim,	활용어미, 연결형
9	aısan aji , aısan , bile , bülüge	‘했더니’	uı taıan nigen masi sayin kümün bülüge ¹³⁾	시제 과거회상표현
10	üjese	‘상풍’ ¹⁴⁾	üjese eyimü aısan aji	부사
11	aısan bügesü , aısan abasu , aısan bolbasu	‘했으면’	-	시제 과거완료, 조건
12	ajuıu , ajuqui , aısan bui	‘하여실러니 라’	-	시제 회상 (과거완료) 표현
13	juqui , jüküi , ji	-	olbau, olba, oljuqui, olji	용언활용어미 , 시제 과거-과거완 료형
14	kemejüklüi	‘했느니라’ ,	-	시제 과거-과거완 료표현
15	bolumui	-	ene kereg yabubasu bolumui, nadur aq_a bolumui ¹⁵⁾	가능표현
16	kedü	‘비록’	kedü mönggü joıus bui abaçu qayiralan kereglekü ügei, öberen duralaqu ügei yin tulada kedü kelelçebeçu ber mön daıaqu ügei, kedü suruısan ügei kemebeçu ber bi erke ügei surujuqui kememui	부사
17	-basu , -besü ,	‘하면’ ,		용언활용어미

	-qula ' -küle ' bŭgesŭ	거든'	-	판정형
18	bolqula ' bolbasu ' bolusa ¹⁶⁾	'하게 되면'	kerber kereg teyin bolqula yakibasū sayin	용언활용 판정표현
19	ke/ge	'하', '니르라', '하드라'	či inggiŭ ge, bi sonusbasu eyimŭ kemekŭ,	용언활용 명령형 간접화법
20	-suŭai ' -sŭgei ' -ya ' -ye	'하고자', '하자', '쇼셔'	abusuŭai, idesŭgei, saŭuya, ideye	용언활용어미 , 요구 기원형
21	-tuŭai ' -tŭgei	'하게하라', ,	iretŭgei, saŭutuŭai, činu durabar boltuŭai	용언활용어미 , 명령형
22	-ŭulu- ' -ŭa- ' -ge- ' -qa- ' -ŭda- ' -gde-	'하게', '하이다'	tegŭn i kereg sidgegŭlŭn od, teden dŭr nige jerge dongŭodqamui, či yabu, tegŭn i yabuŭul	접사 사동/피동 파생
23	-sai ' -sei ' -tui ' -tun/-tŭn	'하라'	či qayiralasai, či sayin-iyar aŭtun	용언활용어미 명령형
24	ajam ' ayuu ' -ŭujin ' -gŭjin	'할까'	ečiŭge eke dang ebedtŭgŭjin kemen jobamui, dang sayin kŭmŭn irekŭ ŭgei boluŭujin maŭu kŭmŭn basa irekŭ ayuu kememŭi, eyimŭ ajam, teyimŭ ajam	용언활용 용언활용어미
25	-nar ' -ner ' -s ' -d ' -ud ' -čud	'들'	aq_a-nar, degŭtŭ-ner, jalaŭus, keŭked, sayid-ud,	명사 복수접미사
26	-ŭad ' -ged	'식'	ŭučiŭad, yisŭged ¹⁷⁾	접사, 명사파생
27	bolai ' bišwu	'하도다'	pŭdzi ŭgŭler-ŭn asaŭuŭsan anu yeke bolai, masi sayin bolai,	문종결사
28	čigi	-	čigi mŭlgŭkŭi-yi tŭsŭgelekŭ ŭgei bayital-a darui jorčiqui surqu uu	부사
29	bayital-a	-	-	용언활용 한계표시
30	yaŭun ŭgŭletel-e	-	boŭda kŭmŭn čigi sursuŭai kemekŭ bayitala arsar kŭmŭn-i yaŭun	용언활용한계 반어표현

			ögületel-e	
31	-tal-a ' -tel-e	'도록'	kürtel-e, baratal-a, odo boltal-a	용언활용어미 , 한계형
32	tai ' tei ' altai ' eltei	-	jobaŋuritai, ereltetei, sejigleltei	접사, 형용사파생
33	-ča- ' -če- ' -du- ' , -jaŋ-a- ' -jeg-e-	-	uŋulčamui, iniyelčemüi, neyitümüi, üjeldümüi, saŋujaŋamui, kebtejegeji	접사 공동-상호동 사 파생
34	bayituŋai	'호모론'	kereg tegüsüged jimelekü bayituŋai egüsgekü urid bolŋumjilaqui-dur kürkü ügei	접속사
35	kemekü-eče bayituŋai	'홀췌아니라	-	접속사
36	buyuu ' buyu ' uu ' , -nau/-neü ' , -bau/-beü	'하냐'	-	활용형어미, 용언활용어미 , 의문형, 의문표현
37	ajiyamu	'하리잇가'	gegen abačiqu ajiyamu	용언활용 경어법
38	-kei ' -ki ' -neyiki ' , -anu ' -inu ' , -tai/-tei ' -tu	'것'	mi nukei, öbereyiki, eneüneyiki, qaraŋatai, aburaltu, saqaltai, erdemtei, mösütümüi, qoruqayitumui ,	소유대명사 용언파생
39	-qu anu ' -kü anu ' , -gči	'는 거시' , '거슨'	erdemten-i kükigülkü anu, namnaqu anu qarbuqu anu čöm sayin, iregči yakisan kümün	'는 것' 연결어
40	kemekü anu ' , kemegči ' gegči	'하는 거 시'	elberil degüči kemekü anu tere örüsiyel-i yabuqu ündüsü bui j-a	'하는 것' , 연결어
41	kemekü anu ' , kemegči ' gegči	'한 거시'	ken bičigsen anu, songŋuŋsan anu, emüsümü, qubilumu	'한 것' , 연결어
42	-ŋar ' -ger ' -bar ' , -iyar	'으로' , '씨'	-	조격조사
43	sa ' se ' si ' ača	'부터' , ' , 으로서' , ' ,	či qanasa irebe, či qasi odumui, egün-eče qoyisi, kenese	탈격조사

		에서' 18)		
44	-duŋar , -düger	'때'	kedüdüger, qoyaduŋar	접사, 서수사 파생
45	-qan , -ken , -ski	'저기'	kündüken, batuqan, ködelüskibe,	명사 용언파생
46	lab	'싱각전대' '응당'	lab kereglebesü bolumui bui j-a, lab bai bui j-a	부사
47	bayija	-	iremüi bayija, oduŋsan bayija	문종결사, 과거
48	bui j-a	'헝리라'	buruŋu bui j-a	문종결사, 미래
49	baqana	'쯔름이라',	sayin baqana	문종결사
50	-maŋča , -megče	'헝며즉시'	-	용언활용어미 , 즉시형
51	-saŋar , -seger	-	jula sitaŋaŋsaŋar gegeŋegtebe, gelmegeŋseger seribe,	용언활용어미 , 지속형
52	-ŋ , -g , -r , -s ¹⁹⁾ , -b , -d	-	-	음운규칙
53	-n , -l , -m , -y , -ng	-	-	음운규칙

- 6) 몽골어 문법에서 목적격 조사는 'ni' 의 형태가 아니라 'i' 의 형태이다.
- 7) 여기서는 kümün ü' , beyen ü' 와 같이 소유격 조사가 들어간 예를 들었다. ü' 는 전설모음이나 후설모음이나에 따라서 대응되며 선행체언과 분리되어 쓰인다. ü' 는 오직 'n' 발음을 가진 명사 뒤에 만 통합된다.
- 8) '-ün' 은 무조건 띄어 쓰는 조사이다.
- 9) 20-21번 예는 명사 어간에 동사화시키는 (-de) 를 삽입시켜서 동사가 되게 한다.
- 10) 22-23번 예는 명사 어간에 동사화시키는 접요사 (-na, -ne)를 삽입시켜서 동사가 되게 한다.
- 11) 24-25번 예는 명사 어간에 동사화시키는 접요사 (-siya, -siye)를 삽입시켜서 동사가 되게 한다.
- 12) 명사 어간에 동사화시키는 접요사 (-čila, -čile)를 삽입시켜서 동사가 되게 한다.
- 13) 여기서는 bülüge만의 예문을 들었다. aŋsan aji , aŋsan bile에 대한 예문이 없다.
- 14) 상풍: 원래, 본디.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1991)에 따름]
- 15) 42-43번은 bolumui를 설명하기 위해 basu, dur 가 들어간 예문을 들었다.
- 16) bolusa에 대한 예를 안 들었다.
- 17) yisüged에 대해서는 중국어와 그에 해당되는 몽골어 해석이 서로 맞지 않다. 즉, 중국어는 '九十' 이

3.2. 문법용어 고찰

〈표-2〉

항목20)	용어	관찰되는 점
1	자의(字意)	뜻
2	단용(單用)/ 연용(聯用)	띄어쓰기/붙여 쓰기
4	자말(字末)/승상접하(承上接下) /미연(未然)	어간말/윗말을 이어서 아랫말을 이어 줌/현재 시제
5	행위(行爲)/동용(動用)/역주(力做)/ 개전(開展)/자중(字中)	능동/피동/동사형어미/어중
6	자미(字尾)/이연(已然)	어말/과거 시제
7	장연(將然)	미래 시제
8	결상접하(結上接下)/사(詞)	윗말을 이어서 아랫말을 이어 줌/말
9	추술어(追述語)	과거를 회상하여 서술하는 말
10	구수(句首)	문두
12	쇄미(煞尾)	문말
13	어(語)	형태소
14	전인(前人)/ 타인(他人)/자(字)	선행절 주어/3인칭 주어/
17	결상기하(結上起下), 정어(整語)	윗말을 맺어 아랫말의 조건이 되게 함(연결어미) /명사
19	상문(上文)	선행절
21	구말(句末)	구절의 끝 부분(문말)
23	구기(口氣)	서법 요소
26	자미(字尾)	어말
29	구미(句尾)	구절의 끝 부분
37	비자(卑者)/존자(尊者)	지위가 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48	생문(省文)	생략된 문장
51	정주(停住)/장왕(長往)	완료상/진행상

〈표-1,2〉에 나타난 문법 사항에서 짐작할 수 있는 몽어역관들의 문법 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만 몽골어 해석은 '구' 이다.

18) 현대어로는 '보다'의 뜻이다. (비교)

19) 몽골 문어에서 -s 자음의 어말 받침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 여기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두 가지의 어말 형을 제시한 것이다.(이성규 1998:103)

20) 총 53개의 해설부 중에서 문법 용어가 관찰되는 항 번호이다.

1) 문체적인 인식

구어와 문어간의 차이의 인식이 있었다. 항목 2의 여치격에 관한 기술에서 '-ta/-te, -da/-de'는 구어형들이다. 기타 많은 항에서 구어와 문어형식을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음운론적인 인식

항목의 기술에 있어서 똑같은 자형을 중복해서 기술한 예가 많지만, 이것은 표기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어형(-la, -le, -na, -ne)등을 음운 상으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2항 53항 경받침 문자와 연받침 문자를 구별해서 항목을 나눈 것이다.

3) 형태론적인 인식

-파생접사, 조사, 용언의 활용어미에 관한 기술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분명히 단어 이하의 단위인 형태소와 그들의 문법적 기능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인식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언어형식(낱말)들

당시 몽역관들에게 “독립된 낱말” 즉 “단어”의 개념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8항, 13항, 14항에서 조사 및 어미 구분 없이 ‘사(詞)’, ‘자(字)’, ‘어(語)’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래에 항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에 인식되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문법 형식을 열거한다.

체언: 35항의 복수 개념은 체언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조사의 개념도 체언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수사: 44항은 순서 수사를 만드는 접사에 관한 기술이다. 35항, 44항에서는 수, 수사, 순서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용언: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활용형에 관한 기술이 어록해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용언의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활용어미

종결어미: 20항, 21항, 23항, 24항, 연결어미: 4항, 7항, 8항, 17항, 31항, 50항, 51항, 시제어미: 4항, 15항, 6항 과거시제어미, 13항, 미래, 현재, 과거, 과거완료의 시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부사: 10항, 16항, 28항, 46항이다, 보조사: 27항, 36항, 37항, 47항, 48항, 49항

조사: 1항, 2항, 3항, 42항, 43항, 접사: 5항(자동사, 타동사) 파생접사, 22항 피동사 사동

사 파생접사, 25항 명사 파생접사, 32항 형용사 파생접사, 33항 공동 상호동사 파생접사, 38항 용언 파생접사, 44항 서수사 파생접사, 45항 명사-용언 파생접사

4) 통사론적 인식

-간접화법: 19항에 “kemekü, kememüi” 라는 기술이 있고, 예문으로 “我聽如此說:bi sonusbasu eyimü kemekü” 라는 간접화법의 예가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간접화법의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경어법: 37항을 보면 예시부에 “卑者向尊者言也” 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 몽역관들이 경어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몽어유해(蒙語類解)』 「어록해(語錄解)」를 대상으로 서지적인 고찰과 문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몽)어록해」 서지 사항과 문법적인 고찰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되는 바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구어와 문어간의 차이, 음운과 음운 규칙, 형태소, 활용어미, 부사, 보조사, 조사, 접사, 간접화법, 경어법등의 문법적인 범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관찰된다.

둘째, 해설부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 대상으로 현대어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단용(單用)/연용(聯用), 품사(정어(整語)/명사), 형태소(어(語)), 통사론적 측면에서 능동(行爲(行爲)/동용(動用), 경어법(비자(卑者)/존자(尊者), 시제 장연(將然), 이연(已然), 미연(未然)등이 관찰되었다.

셋째, 18세기 당시에 간행된 여러 종의 어록해를 정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금석림(古今釋林)』 안의) 『삼학역어(三學譯語)』에 수록된 몽골어 어록해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몽)어록해」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으므로 표제항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비교대조해 보아야 할 우선적 대상이 된다. 이밖에 『동문유해(同文類解)』에 수록된 만주어(滿洲語) 어록해나 18세기 청나라 문헌에 수록된 어록해류 자료에도 어형(語形)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한어형(漢語形)과 한어(漢語) 예문이 공통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방한 외(1986),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 김방한(1966), 「三學譯語方言集釋 考」, 『백산학보』, 1.
- 김연순(1988), 「『蒙語老乞大』의 국역문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수(1974), 『蒙學三書 研究 1』, 형설출판사.
- 노은주(1997), 「『三學譯語』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용(1970), 「同文類解 語錄解의 출전에 對하여」, 『국문학연구』, 3.
- 朴在淵 (2003), 「『老乞大朴通事』 原文諺解 比較 資料」, 中韓翻譯文獻研究所.
- 서상규(1997), 『蒙語老乞大 語彙索引』, 박이정.
- 송기중(1985), 「『蒙語類解』 研究」, 歷史言語學.
- 송기중(1988), 「18세기 朝鮮朝 蒙譯官들이 이해한 蒙古語 文法」,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제 5회 세계 한국학 대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 연규동(1995),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비교: 표제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17.
- 유원수 역(1992), 『몽골 문어 문법』, 민음사.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기문(1964), 「蒙語老乞大 研究」, 『진단학보』, 25-26-27.
- 이기문(1967), 「蒙學書 研究의 基本 問題」, 『진단학보』, 31.
- 이성규(1994), 「『몽학삼서』의 몽고어에 대한 기초적 연구」, 『몽골학』, 2.
- 이성규(1998), 「蒙學三書의 蒙古語 文法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규(2002), 『蒙學三書의 蒙古語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 정제문(1990), 「『蒙語類解』의 몽골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학근(1977), 「『蒙語類解』 附錄 『語錄解』 譯釋」, 『어문논집』, 19-20, 월암 박성의 박사환려 기념호.
- P. Ajušžav(2001), 「한국어와 몽골어 격어미 비교 연구: 몽어노걸대를 중심으로」, 상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 Penčin(1964), 「Mongol bičgiin xelnii züi」 awian züi, BNMAU Šinžlex uxaanii akedemi, Ulaanbaatar
- B. Sumjabaatar(1975), 「Mongol Solongos tuurgatnii ugsaa xelnii asuudal」,

Ulaanbaatar.

Batireedüj · Baasanbat(1992), 'Mongol bičgijn товч толж', Ulaanbaatar.

BNMAU Šinžlex uxaanii akedemi(1966), 'Orčin cagijn mongol xel züi', Ulaanbaatar.

C. Ónórbajan(1998), 'Orčin cagijn mongol helnij üg zui', UBIS mongol xel Šinžleliin tenxim, Ulaanbaatar.

Cinggeltei(1996), 'Odu üy-e-yin mongol helnij züi', Óbur mongol-un arad-un keblel-ün qoriy-a, Óbur mongol.

J. Nadmid(1968), 'Mongol xel, tüünii bičgiin түүхөн хөгžлийн товч тоим', ŠUA, Ulaanbaatar.

Ja. Ceval(1966), 'Mongol helnij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ж', Ulsiin xevleliin xereg erxlex xoroo, Ulaanbaatar.

Lessing Ferdinand D.(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N. Poppe(1964), 'Catalogue of the Manchu-Mongol' section of the Tokyo Bunko, Univ. of Washington Press.

Rita Kullmann and D. Tserenpil(1996), 'Mongolian Grammar', Ulaanbaatar: Jensco.

ŠUA-Xel zoxiol xvreelen(1987), 'Orčin cagijn mongol helnij üg zuin baiguulal', ŠUA-Xel zoxiol xvreelen, Ulaanbaatar.

18-р зууны үеийн МонӨрогхЭ-н хэл зүйн талаар ажиглалт

Г. Баярмаа

[хурангуй]

Өнөөг хүртэл хадгалагдан ирсэн “(МонөюхЭ)”(1790) нэмэн засварласан дэвтэрийн төгсгөл бүлэгт тухайн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чухал хэл зүйн хэлбэр ба хэл зүйн дүрмийг тайлбарласан ӨрогхЭг оруулсан байдаг. Орчин цагийн хэл шинжлэлийн үүднээс авч үзвэ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ураангуй товч дүрэм”-тэй дүйцэх энэхүү сурах бичиг нь 18-р зууны үеийн Чосёны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л бичгийн хүмүүс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эл зүйн талаар хэрхэн ойлголттой байсныг харуулж буй сонирхолтой бичиг гэж хэлж болно. Тус судалгааны ажлаар ӨрогхЭгээр дамжуулан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бичгийн хүмүүсийн хэл зүйн ойлголтын талаар ажиглалт хийх боломжтой гэдэг үүднээс толгой үг хэсэг болон тайлбар үг хэсгийн хүрээнд орчин цагийн солонгос ба монгол хэлний үүднээс хэл зүйн ажиглалт хийхийг зорьсон болно.

ӨрогхЭд нийт 53 зүйлийн нөхцөл, үндсэн үйл үг, хэлц үг зэрэг толгой үг илэрдэг. Зүйл тус бүр нь монгол бичгээр бичсэн толгой үгээр эхэлж, түүний дор хятад ханз үсэг болон солонгос үсгээр (зарим) бичсэн тайлбар хадсаны дараа хятад ханзны жишээ өгүүлбэр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 дээрх жишээ өгүүлбэр хослон гарч байна. Тус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2-р бүлэгт Мон ӨрогхЭгийн бүтцийн талаар дурдсан болно.

3-р бүлэгт толгой үг хэсэг болон тайлбар үг хэсгийн хүрээнд орчин цагийн хэл шинжлэлийн үүднээс хэл зүйн талаарх ажиглалт хийсэн болно.

Энэхүү тайлал ажиглалтын ажлын үргэлжлэл судалгаа хийгдэх нь зүйн хэрэг. Иймийн тулд 18-р зууны үед хэвлэгдэн гарсан төрөл бүрийн ӨрогхЭн

талаарх нар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гд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Мөн өмнөх хөрвүүлгийн ажил дээр тулгуурлан үндсэн агуулгын толгой үг хэсэг, тайлбар, жишээ хэсэг тус бүрт агуулагдаж буй хэл зүйн талаарх мэдээллийг нарийн судлаж тогтоох нь зүйтэ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Голлох үг : Монгол хэл, МонөюхЭ, ӨругхЭ, хөрвүүлэг, жишээ хэсэг, толгой үг хэсэг, ханз үсэг, тайлбар хэсэг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 비교 연구

-대등접속문 구성을 중심으로-

테. 툽신바이야르*

목 차

- I. 서론
- II. 한국어의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 개념
 - 2.1 한국어 접속문 구성의 개념
 - 2.2 몽골어 접속문 구성의 개념
- III. 한국어와 몽골어의 대등접속문 구성 비교
 - 3.1 한국어 대등접속문 구성 특징
 - 3.2 몽골어 대등접속문 구성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한국어와 몽골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두 언어의 통사적 구조는 유사한 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속문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2장에서 두 언어의 접속문의 개념과 그 분류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해 봤다. 이어서 3장에서 두 언어의 접속문 구성이 각각 갖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을 각각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첫째, 대등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는 서로 관할한 관계에 있지 않고 자립적이며 서술어는 종결형태소를 갖는 것, 둘째, 한국어와 몽골어 접속문 구성의 종류는 그 연결어미 의미 분류에 의해 결정되며 대등접속문을 이루는 연결어미 개수가 종속적 연결어미에 비해 적은 것, 셋째, 대등접속문을 이루는 요소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갖는 것 등 유사점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두 언어의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기능은 주로 연결어미가 담당하며 연결어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기능은 연결어미에 의해 구성되나 이외의 억양(ayalga), 접속

*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사(xolbox ug), 접속조사(xolboos) 등에 의해 구성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몽골어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몇 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느냐가 관심을 이끄는 특징, 셋째, 한국어 접속문 구성 중에는 주어만 여러 개일 경우 접속조사 '-와/과'에 의해 접속되고 서술어는 하나뿐이어서 마치 단문처럼 보이는 것, 넷째, 한국어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는 선행절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어의 연결어미는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한 것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접속문 구성(conjunctive construction), 연결어미(connective ending), 대등접속문(coordinate sentence), 종속접속문(subordinate sentence)

I. 서론

한국어와 몽골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두 언어의 통사적 구조는 유사한 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는 연결어미¹⁾가 잘 발달된 언어이므로 접속문 구성에서 연결어미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담이 크다.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 큰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몽골어에서 접속문 구성에서 연결어미가 갖는 부담이나 의미적인 다의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 한국어 접속문 구성과 다른 연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접속문이 있는지, 즉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접속문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언어의 접속문의 개념과 그 분류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두 언어의 접속문 구성이 각각 갖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것이다.

1)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접속어미, 접속문 어미, 부사형 어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 용어에 따라 '연결어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II.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 개념

2.1 한국어 접속문 구성의 개념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언어 구조라고 할 때, 한국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결합을 단문(simple sentence)이라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복합문(multiple sentence)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복합문은 연구자에 따라 크게 접속문 구성(compound sentence)과 내포문 구성(embedded sentence)으로 나누어 본다.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은 연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연구자들은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접속문 구성을 분류해 왔다. 접속 구성에 있어 연결어미가 하는 역할은 크고 연결어미는 대단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 동안 한국어 연구자들은 접속문 구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의향법, 높임법, 시제법, 주어, 서술어 등에 대한 통사 관계에 따른 방법이고, 둘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체계를 세우는 방법²⁾이다.

전통적으로 접속문 구성을 체계화하는 기준은 의미 관계에 바탕을 두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³⁾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기술되어 왔다.

1.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한 후 의미 범주를 설정한 논의

- 최현배(1971), 고영근(1975), 이익섭·임흥빈(1983), 권재일(1985), 정정덕(1986),

²⁾ 그 동안 접속문 구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문법적 기준의 방법을 꾸준히 써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를 권재일(1992:250)은 연결어미 자체가 가짓수에 있어서의 다양성, 의미에 있어서의 다의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타당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법적 기준을 설정하여 체계화한 대표적인 연구는 서태룡(1979), 남승호(1985), 이상태(1988), 남기심(1985), 유현경(1986) 등이다. 그 다음의 방법은 의미적 기준인데 그 동안의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을 체계화할 때에는 주로 의미 관계에 바탕을 두었다. 주시경(1910), 최현배(1971), 허웅(1983) 등은 모두 접속문 구성을 연결어미가 가지는 의미 관계에 따라 체계를 세웠다.

³⁾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의미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시키는 종속적 연결어미,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2008:392)에서 대등적 연결어미로 ‘-고, -(으)며, -(으)나, -지만’ 등을, 종속적 연결어미로 ‘-자, -아/어도, -자마는, -라도, -되, -(으)면, -(으)니까, -아/어서, -다가, -(으)려고, -거나, -(으)ㄴ데, -도록’ 등으로 봤다.

최재희(1989), 남기삼고영근(1993), 서정수(1994)

2.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의미 범주를 설정한 논의

- 주시경(1910), 김진수(1987), 윤평현(1989)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나 통사적인 관계에 따라 대등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을 대등접속문이라고 하고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비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종속 접속문 구성으로 본다.

2.2 몽골어 접속문 구성의 개념

몽골어의 접속문은 접속 방식에 따라 크게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나누어서 본다.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의미적 관계보다 통사적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접속문 구성은 최소 두 개의 단문이나 두 개의 서술어 성분을 갖고 있다. 접속문 구성에 속한 단문은 독립적으로 언표 효력이 없는 부성분이며 주성분의 직접 관할 하에 있는 단위이다(학교문법자료1998:64). 몽골어의 두 개의 서술어로 구성된 복합문장을 접속방식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체계화된 바 있다.

제1부 : 나타내는 성격과 구조는 $\langle A \parallel B \rangle$ 와 같은 형식을 갖는 수평적으로

나열된 복합문

제2부 : 나타내는 성격과 구조는 $\langle A \leftarrow B \rangle$ 와 같은 형식을 갖는 주문장이 부문장을

직접 관할하여 이루어진 복합문

제3부 : 나타내는 성격과 구조는 $\langle A \rightleftarrows B \rangle$ 와 같은 형식을 갖는 주문장과 부문장의

관계는 의존하고 관할하여 이루어진 복합문

제4부 : 나타내는 성격과 구조는 $\langle A \rangle \text{ geij-} B$ 와 같은 형식의 인용문을 안은 복합문

몽골어의 복합문을 분류하는 체계화 기준은 첫째, 복합문을 이루는 성분들간의 통사적 관계와 의미적 관계 기준, 둘째, 연구자들이 제시한 의견 및 그들이 세운 분류 체계의 보편성 기준, 셋째, 언어학적인 보편성과 몽골어의 문장 구조 특성과 문어체 및 문학 자료에서 나타나는 실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몽골어(2004)에서 아래와 같이 기본 형식과 특수 형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몽골어 복합문 분류

I. 복합문 기본 형식

1. 대등접속문 가. 접속사 없는 접속문

나. 접속사에 의한 접속문

2. 대칭접속문

3. 종속접속문 가. 관형사절 종속접속문

나. 목적절 종속접속문

다. 부사절 종속접속문

위의 분류에 속하는 형식을 갖는 접속문을 몽골어 복합문의 기본 형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는 문장을 특수 형식을 갖는 문장으로 보았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접속문 형식은 기본 형식을 갖는 문장형식이며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은 한국어의 내포문과 비슷한 통사적 관계와 구조를 갖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II. 복합문 특수 형식

라. 다수의 성분 문장을 갖는 복합문

마. 연합문

바. 인용문을 안은 복합문

III. 한국어와 몽골어의 대등접속문 구성 비교

3.1 한국어의 대등접속문 구성 특징

전통적으로 접속문 구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나 통사적인 관계에 따라 대등접속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을 대등접속문이라고 하고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비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종속 접속문 구성으로 본다.

고영근(2008)은 이들 접속문은 연결어미가 선행절에 결합하여 선행절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의미 통사의미 관계 등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

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첫째, 대등접속문 구성은 앞뒤의 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1)에서처럼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1)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둘째, 후행절의 요소를 선행절에서 일반 대명사나 재귀칭 대명사로 나타낼 수 없다. 다음 2가)에서 후행절의 요소를 선행절에서 일반 대명사나 재귀칭 대명사로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앞뒤의 절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 가. *자기 i 동생은 열심히 일했고 철수 i는 놀기만 했다.

나. 자기 i 동생이 열심히 일해서 철수 i는 기분이 좋더라.

셋째, 선행절과 후행절에 보조사 ‘-는/은’ 이나 ‘-도’ 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3)에서 볼 수 있다.

(3)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그는 중국에도 가 보고 러시아에도 가 봤다.

넷째, 선행절은 후행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다. 4가)와 같은 대등 접속문 구성과 달리 4나)와 같은 종속 접속문 구성에서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의미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원인, 조건 등의 의존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4)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나.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봄이 오면, 핀다.

다섯째, 한국어 접속문 구성 중에는 주어만 여러 개가 접속조사 ‘-와/과’ 에 의해 접속되고 서술어는 하나뿐이어서 마치 단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다음 5)의 주어는 둘이다.

(5) 승철이와 순호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위의 5)는 승철이도 어제 부산으로 떠났고, 순호도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는 뜻이다. 결국 다음 6)과 같은 두 개의 단문이 ‘-와/과’에 의해 이루어진 접속문 구성이다.

(6) 가. 승철이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나. 순호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위의 6가)와 6나) 두 문장으로 ‘-고’에 의해 다음 7)과 같이 접속문을 만들 수 있다.

(7) 승철이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고, 순호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그러나 똑같은 서술어가 두 번씩 반복되어서 자연스럽지 못함으로 반복되는 서술부는 한 번만 쓰고, 주어를 접속조사 ‘-와/과’로 연결하면 (5)와 같은 문장이 된다.

3.2 몽골어의 대등접속문 구성 특징

몽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등접속방식에 따라 대등접속문 구성과 종속접속 구성으로 나누어 본다. 두 개이나 그 이상의 단문이 서로 zeregcüülex xolboo(대등접속)⁴⁾로 서로 의존하거나 관찰하는 관계가 없고 수평적이며 서로 평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대등접속문이라 할 수 있다. 대등 접속문은 대등접속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등접속에 따른 분류는 학교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① 접속사에 의하지 않은 접속문 가. ayalga(억양)⁵⁾에 의한 대등 접속문

나. nōxcöldüülen xolbox nōxcöl(연결어미)⁶⁾에

4) 의미기능형태적으로 동일한 부류의 단어를 서로 자립적으로 대등한 나열의 관계를 갖게 하는 접속방식을 대등접속이라고 할 수 있다(학교문법 자료1998:6).

5) 억양(intonation)은 문장을 이루는 성분 중 하나이다. 억양은 형태적 활용, 태, 목적(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의 목적),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간의 통사적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억양에는 열거, 나열, 설명, 환호, 감탄 등의 다양한 감정과 감탄의 뉴앙스를 표현하는 억양이 해당된다. 억양에는 음조(tone), 운율(rhythm), 강약(intensity), 이야기 속도(tempo of narration) 등이 속한다. 이 가운데 이야기 속도는 이야기의 휴지(休止), 경과, 이야기의 속도 정도 등이다. 몽골어의 대등접속방식의 하나는 이야기의 휴지(休止)로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문어체에서 쉼표(.)로 표기되며 구어체에서는 이야기 도중에 잠깐 쉬는 방법이다(학교문법자료1998:50).

6) 몽골어 연결어미(zeregcüülen xolbox nōxcöl)는 동사의 끝자리에 붙으며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의한 대등 접속문

- ② 접속사에 의한 접속문 가. xolboos(접속조사)⁷⁾에 의한 대등 접속문
나. xolbox üg(접속사)⁸⁾에 의한 대등 접속문

8) 가. Törsön gaz(a)r-yn šoroo erdene, tör-üül-sen exiin
homeland-Gen soil treasure-Nom, be born-Caus-Pas mother-Gen
süü rašaan, milk mineral water.
'고향의 흙이 보물, 나아 주신 어머니의 젖이 약수다'

나. Nam(a)r-yn jixūūn salxi ülee-j, mod-ni navč-is xiis-eed,

autumn-Gen chilly wind blow-Conn, tree-Gen leaf-Plr be
blown off-Conn,
nar-nii ilč sulra-n, nam(a)r-iin sar duus(a)-v.

sun-Gen energy weak-Conn, autumn-Gen month finish-Past.

가을 쌀쌀한 바람 불며, 나뭇잎이 날아다니고, 햇빛이 약해지면서 가을 달(월, 철) 이 끝났다'

다. Dūgreg n' us-ni oir baix ba gonzgoi n' tüūn-ees

round shaped 3Poss water-Gen near be Conn oblong 3Poss that thing-Loc

하는 제1부 연결어미 “-j/č, -aad’ (-aad, -eed, -ood, -ööd), -n” 제2부 연결어미 “-saar’ (-seer, -soor, -söör), -vč, -magč’ (-megc, -mogc, -mögc), -tal(-tel, -tol, -töl), -xlaar’ (-xleer, -xloor, -xlöör), -lgüi” 등이다. 제1부 연결어미를 대등접속 연결어미로 보고 제2부 연결어미는 종속접속 연결어미로 분류해 왔다. 이들 연결어미가 붙은 서술어(동사)는 몽골어 연구자들이 “불완전 동사”로 보아 왔다. 그 이유는 연결어미가 붙은 서술어는 문장에서 비종결 서술어 기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연결어미가 붙은 동사 및 서술어는 그 뒷자리에 오는 동사와 서술어를 접속 관계를 갖게 한다 (학교문법1997:43).

- 7) 몽골어에 대등 합성어, 대등 문장 성분, 대등접속 문장 등을 접속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 접속조사는 ‘ba/와/과, -이며/’ 이다. 문장 성분들을 접속하는 데 있어 중요 역할을 하는 접속조사이다.
8) 자립문장들 또는 문장 속의 성분들을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다음과 같은 접속사들이 몽골어에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은 ‘böggöd(-이며), xarin(하지만, 그렇지만), xerev(만약에), ööröör xelbel(즉), getel(그렇더니), gevč(그러나), iimees(그래서, 그러니까), bas(또한, 또는), tul(때문에), talaar(-에 대하여), šig(처럼), met(듯이), baraxgui(뿐만 아니라), baitugai(조차), učir(그러기에), ulmaas(그렇기 때문에)’ 등이다. 접속사의 기능과 관계를 살펴보면 일부분은 대등하게 접속하는 역할을 하나 일부분은 종속하게 접속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 접속사들을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Orčin cagiin mongol xel (현대몽골어)』 2004:179).

jaaxan zaiduu bai-v.

little part from be-Past.

‘동그라미는 물의 근방에 있고, 길쭉이는 그보다 좀 떨어져 있었다’

라. Xün-ii saixan n' dotr-oo gerelt-deg agaad saixan xün

man-Gen beautiful 3Poss inside-Refl be shine-Hab Conn beautiful man

gedeg n' ariun setgel-eer gerelt-sen xün-iig xel-ne.

is 3Poss pure heart-Intsr be shine-Past person-Gen say-Fut.

‘사람의 아름다움은 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 거룩한 마음으로 빛내는 사람을 말한다’

위의 대등접속문 예문 가운데 8가)는 (이야기의) 중단 억양으로, 8나)는 각각 단문이 제1부 연결어미 ‘-j/č, -n, -aad’ 로, 8다)는 ‘ba(-와/과, -이며)’ 접속조사로, 8라)는 접속사 ‘agaad(-이며)’ 로 이어지고 있다. 대등 접속문 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등접속문 구성은 bütéc ögüülber⁹⁾(구조적 문장)+bütéc ögüülber(구조적 문장)와 bütéc bus ögüülber¹⁰⁾(비구조적 문장)+bütéc ögüülber(구조적 문장) 등으로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등 접속문 구성은 대등접속 방식에 의한다. 대등접속 방식에는 억양, 대등 접속사, 대등 연결어미 등의 방식이 있다.

셋째, 대등 접속문을 이루는 요소(문장)는 ecsiin bus ögüülber(비종결문)+ecsiin

9) 몽골어의 engiin ögüülber(단문)를 butec ögüülber(구조적 문장)와 butec bus ögüülber(비구조적 문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Butec ögüülber(구조적 문장)가 다시 neg büreldexüünt(한 개의 성분)과 xoyor büreldexüünt(두 개의 성분) 문장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 주어나 서술어가 모두 나타나느냐 아니면 둘 중 하나가 Ø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른 것이다. 다음 1)는 bütéc ögüülber(구조적 문장)의 예이다.

1) a. Xöl bömbögöör toglov(축구를 했다).

b. Xuiten salxi baruun xoinoos salxilna(추운 바람이 서쪽에서 분다).

10) 몽골어의 engiin ögüülber(단문)의 하나인 butec bus ögüülber(비구조적 문장)로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등)들을 대체, 축약,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 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형태를 갖는 문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단어를 볼 수 있다. 그 예문을 들면 다음 2)와 같다.

2) a. Bülüvei, bülüvei(자장자장/의태어/).

b. Ugui(아니다/아니오).

ögüülber(종결문)의 순서를 갖는다.

넷째,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간의 경계가 뚜렷하며, 독립적이어서 요소들이 나란히 이어지므로 요소들의 자리 바꾸기 가능하다. 그러나 원인과 시간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자리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는 서로 관할한 관계에 있지 않고 자립적이며 서술어는 종결형태소를 갖는다.

여섯째,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몇 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느냐가 관심을 이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어의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의 구조, 성분, 위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

제 1 형식 : Neg büreldexüünt ögüülber¹¹⁾(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 Xoyor büreldexüünt ögüülber¹²⁾(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제 2 형식 : Neg büreldexüünt ögüülber(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 Xoyor büreldexüünt ögüülber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제 3 형식 : Xoyor büreldexüünt ögüülber(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 Neg büreldexüünt ögüülber(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제 4 형식 : Neg büreldexüünt ögüülber(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 Xoyor büreldexüünt ögüülber(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일곱째, 대등 접속문 구성 또 다른 특징은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문장)들이 동일 주어를 조건하는 것이다.

1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büreldexüünt ögüülber(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bütec ögüülber(구조적 문장)의 하나이다. 이 형식은 문장 주성분 주어, 서술어 중 하나가 Ø형태로 나타난다. 위 각주 20)에서 다른 예문을 들어 보도록 한다.

1) a. Xöl bömbögöör toglov(축구를 했다).

위의 1a.는 neg büreldexüünt bütec ögüülber(한 개의 성분을 갖는 구조적 문장)이다. 이 문장은 주어가 Ø형태로 나타나고 서술어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b.의 예문은 주성분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xoyor büreldexüünt bütec ögüülber(두 개의 성분을 갖는 구조적 문장)이다.

12) 2büreldexüünt ögüülber(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bütec ögüülber(구조적 문장)의 하나이다. 이 형식은 문장 주성분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위 각주 20)에서 다른 예문을 들어 보도록 한다.

1) b. Xuiten salxi baruun xoinoos salxilna(추운 바람이 서쪽에서 분다). 위의 1b.는 주어(Xuiten salxi/추운 바람/)과 서술어(salxilna/(바람)분다/)로 구성되었다.

IV. 결론

한국어와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도록 한다. 먼저 두 언어의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접속 방식과 접속 현상의 유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는 서로 관할한 관계에 있지 않고 자립적이며 서술어는 종결형태소를 갖는다.

둘째, 한국어와 몽골어 접속문 구성의 종류는 그 연결어미 의미 분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대등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 개수가 종속적 연결어미에 비해 적다.

셋째, 대등 접속문을 이루는 요소(문장)는 *ecsiin bus ögüülber*(비종결문)+*ecsiin ögüülber*(종결문)의 순서를 갖는 것이 유사하다.

다음으로,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 두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기능은 주로 연결어미가 담당하며 연결어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몽골어의 접속문 구성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기능은 연결어미에 의해 구성되나 이외의 억양(*ayalga*), 접속사(*xolbox üg*), 접속조사(*xolboos*) 등에 의해 구성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몽골어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몇 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느냐가 관심을 이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어의 대등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요소의 구조, 성분, 위치에 따라 네 가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

셋째, 한국어 접속문 구성 중에는 주어만 여러 개일 경우 접속조사 ‘-와/과’에 의해 접속되고 서술어는 하나뿐이어서 마치 단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넷째, 한국어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는 선행절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어의 연결어미는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의 접속문은 접속방식에 따라 크게 대등접속문 구성과 종속접속문 구성으로 체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언어에서의 접속문 개념과 그 분류에 있어서 두 언어가 각각 갖고 있다. 앞으로 대등적 접속문 구성을 이루는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어미 가운데 그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두 언어 접속문 구성에 있어서 연결어미가 갖는 의미통사적 기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고영근(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1994),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남기삼고영근(2008),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남기심(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평현(1992),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익섭(2003),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섭임홍빈(1984),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탑출판사.
-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도설출판 월인.
- 최재희(1992), 국어 접속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1965/1980),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일반 논문

- 김기성(2006),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연결어미 대조 연구, -현대몽골어 접속연결어미 중심으로-”, 『몽골학』 제20호.
- 남기심(1980), “연결어미 ‘-고’ 에 의한 접속문에 대하여”, 제 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 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재목(2003), “한국어와 몽골어의 활용어미 대조 분석Ⅱ: 몽골어 동명사어미와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언어학』 제 37호.

몽골어 자료

- Badamdorj,D(2001), Mongol xelnii utga sudlal, Ulaanbaatar.

Baraišar,Š(1989),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ögүүлberzüi, Ulaanbaatar.

Bazarragčaa(2005), Mongol xelnii ögүүлber судлал, Ulaanbaatar.

Cedenbal,C(1997), Orčin cagiin mongol xel, Ulaanbaatar.

Luvsanvandan,Č(1966), Orčin cagiin mongol xel züi, Ulaanbaatar.

(1987),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üg züin baiguulalt, Ulaanbaatar.

Pürev-Očir,B(1988),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ögүүлberzüin xolbox togtolcoo” ,
Ulaanbaatar.

(2003), Mongol xelnii dadlagyn ögүүлber züi 3, Ulaanbaatar.

(2002), Mongol xelnii ex zadlалын асуудлууд 4, Ulaanbaatar.

(2006), Mongol xelnii engiin ba niilmel ögүүлberiin xuvirгал 5, Ulaanbaatar.

Pürev-Očir,B · Cog-Očir,A(2007),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ögүүлberzüi, UBIS.

Š.U,A(1987),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üg züin baiguulalt, -üil ügiin togtolcoo-,
Ardyn surax bičig, setgüülin negdsen redakc.

MUBIS(2004), Orčin cagiin mongol xel, MUBIS.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Зэрэгцсэн ниймэл өгүүлбэр

Түвшинбаяр

Хураангуй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 нь алтай язгуурын залгамал хэл бөгөөд тус хоёр хэл нь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ийн хувьд ижил төстэй хэлнүүд юм. Тус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зорилго нь хоёр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эц, холбох арга, хэрэглүүрийн ялгаатай болон төстэй шинжийг харуулахад оршино.

Юуны өмнө 2-р бүлэгт хоёр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талаар ерөнхий шинжийг дурдаж, 3-р бүлэгт хоёр хэлний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эц, холбох арга хэрэглүүрийн онцлог шинжүүдийг тус тус дурдав.

Хоёр хэлний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эд ажиглагдсан төстэй шинжийг дурдвал,

1-рт Хоёр хэлний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г бүрдэлдэхүүнд багтсан энгийн өгүүлбэр нь утга, хэлзүйн хувьд бие даасан байдлаа хадгална.

2-рт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г холбож буй холбох нөхцлийн ангиллын дагуу зэрэгцсэн ба угсарса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 гэж ангилна. Мөн зэрэгцэх нөхцөлийн тоо угсаран холбох нөхцөлөөс харьцангуй цөөн байна.

3-рт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г бүрэлдүүлэгч нь хоёр хэлэнд эцсийн бус өгүүлбэр, эцсийн өгүүлбэр гэсэн бүтэцтэй байх ба байрын хувьд эцсийн бус өгүүлбэр+ эцсийн өгүүлбэр гэж бүтнэ.

Мөн ялгаатай шинжийг дурдвал,

1-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ийг бүрэлдүүлэгч эцсийн бус өгүүлбэр, эцсийн өгүүлбэрийг холбох үүргийг холбох нөхцөл голлон гүйцэтгэдэг.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 нь нөхцөлөөр холбогдохоос гадна холбох үг, холбоос болон аялга зэргээр холбогдоно.

2-рт Монгол хэлний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хэд хэдэн энгийн өгүүлбэрээс бүтдэг онцлогтой.

3-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т өгүүлэгдэхүүн гишүүн хоёр ба түүнээс дээш тохиолдвол холбоос "-와/과" -оор холбогддог тул энгийн өгүүлбэртэй ижил бүтэцтэй.

4-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г холбох нөхцөл нь эцсийн бус өгүүлбэрийн өгүүлэхүүн гишүүн нь тэмдэг нэр, үйл үг, нэр үг байхаас үл шалтгаалан хэлбэржүүлж эцсийн өгүүлбэртэй холбох онцлог шинжтэй. Цаашид тус хоёр хэлний утга, үүрэг, хэрэглэгдэх давтамж зэрэг нь ижил төстэй холбох нөхцлөөр холбогдсон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эд харьцуулалт хийж үз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Голлох үг: ёүиргиёэшсу ёүиыжэгёэшүиь ёүиуёэшсу уибшиаь
ёүүжбшийэу ыуизуиёуь ыгмүжбшийэу ыуизуиёуь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 비교

아띠야수릉*

목 차

1. 서론
2. 한국어와 몽골어 동사 어기에 붙는 파생접미사
 - 2.1. 한국어와 몽골어의 피동접미사
 - 2.2. 한국어와 몽골어의 사동접미사
 - 2.3. 한국어의 강세 접미사
 - 2.4. 몽골어의 '태' 접미사
3. 한국어와 몽골어 동사 어기에 붙는 파생접미사 비교
 - 3.1. 피동접미사
 - 3.2. 사동접미사
4. 결론

[한국어초록]

본고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어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를 형태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양국 언어는 둘 다 교착어에 속함으로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의 결합 방법 및 그 뜻에 있어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접미사 분류 기준과 파생된 동사의 뜻을 보면 서로 다른 점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동사 어기에 붙어서 그 말의 뜻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강세시키는 강세접미사가 있는 반면에 몽골어에는 동사 어기에 붙어 본동사의 뜻에 행위가 같이 행해지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의미적인 면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미론적인 고찰을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주제어 : 동사파생접미사, 결합 방법, 사동접미사, 피동접미사, 어근/어기/어간

*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1. 서론

본고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파생접미사를 형태적인 면에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어의 동사 어기에 붙어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를 몽골어의 동사 파생접미사와 비교하도록 한다. 여러 품사 중에서 동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사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착적인(agglutinative)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어와 몽골어는 단어의 구성에서 접미사의 역할이 크므로 공통접미사의 추출 작업이 두 언어의 친연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동사 파생접미사에 속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 접미사들이 매우 생산적이며, 그 사용도가 높은 것처럼 몽골어의 ‘-gd(-гд-), -d(-д-), -t(-т-), ‘-uul(-eyyn-), üül (-үүл-), lga(-лга-), lge(-лгэ-), lgo(-лго-), lgö(-лгө-), ga(-га-), ge(-гэ-), go(-го-), gö(-гө-), aa(-аа-), ee(-ээ-), oo(-оо-), öö(-өө-)n 등의 접미사들도 매우 생산적이다. 학자에 따라,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파생접미사에 대한 연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언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비슷한 점과 서로 다른 점들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 즉 음운론적인 의미론적, 통사적 등 모든 면에서의 고찰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파생어는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다. 그러나 몽골어의 경우에는 접두사가 현대 몽골어에 자립적인 관형사와 부사로만 나타난다. 비교 대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미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어느 언어에서나 접사에 의한 파생이 일반적이며, 접사에 의한 파생 가운데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접두에 의한 파생보다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법 가운데서 동사 어기에 붙어 이루어지는 동사 파생법에 초점을 두고 다른 품사에 속한 것들(명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등)은 제외한다.

몽골어의 경우에는 세밀하게 구분되거나 정리된 자료가 드문 관계로 먼저 목록을 정리해 가면서 한국어의 접미사들과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찾아내도록 한다. 기존의 논문들은 단순히 몽골어 교과서나 교재에서 나온 이론적인 것만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본고에서 제시된 접미사들과 그들의 사전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몽골어 사전」(1966)을 중심으로 했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몽골어 문자를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해 온 바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바꿔 기술했다.

몽골 문자	로마자	몽골 문자	로마자	몽골 문자	로마자
А а	Аa	Л л	Ll	Х х	Xx
Б б	Bb	М м	Mm	Ц ц	Cc
В в	Vv	Н н	Nn	Ч ч	Čč
Г г	Gg	О о	Oo	Ш ш	Šš
Д д	Dd	Ө ө	Öö	Щ щ	šč
Е е	Ye, ye	П п	Pp	Ъ	'
Ё ё	Yo, yo	Р р	Rr	Ы	i
Ж ж	Jj	С с	Ss	Ь	"
З з	Zz	Т т	Tt	Э э	Ee
И и	Ii	У у	Uu	Ю ю	Yu, yu
Й й	I	Ү ү	Ü, ü	Я я	Ya, ya
К к	Kk	Ф ф	Ff		

한국어와 몽골어 비교 연구는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두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고의 목적인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파생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연구로는 김기선(2006)이 있다. 그는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 구문 대조 연구를 했다. 그는 우선 사동과 피동문을 형성하는 서술어 구성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문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특히 사동과 피동문을 형성한 구성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몽골어와 한국어 각 구성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것으로 그러한 범주와 의미에 따라서 각 구성들이 어떻게 변별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현대 몽골어의 파생접미사는 대부분 형태론 안의 단어형성법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것도 단순히 접미사를 어기(base) 별로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우누르바양(Önörbayan 2000)에서 몽골어의 단어형성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품사(명사, 동사, 부사 등)의 형성법에 대한 논문도 거의 전무하다. 다시 말해서 몽골어의 단어형성법과 관계된 대부분의 문제가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파생접미사 목록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류와 설정기준을 확립하여 이를 통한 파생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해 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체렌허를리(Ch, Tserenkhörloo 1999)에서는 현대 한국어 조어법의 언어유형론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단 한국어의 조어법만 아니라 현대 몽골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했는데 연구

자체가 형태론의 측면에서 현대 한국어 조어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가를 기술하고 몽골어 조어법과 대비시키는 언어 유형론적인 접근을 목표로 했다. 그는 이러한 언어의 조어법의 성격과 형성과정을 통해서 각 유형의 예들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각 언어의 조어법 실현 방법의 설정 기준을 형태, 기능 분포와 의미면에서 대조를 하면서 검토했다. 그는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조어법을 대조한 결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설정 기준에 있어서 몽골어에서는 한 단어를 이룰 때 한꺼번에 2개 이상의 파생접미사가 붙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접미사가 붙을 때 특별한 제약에 따라 명사파생접미사 - 동사 파생접미사 - 명사파생접미사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붙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강선화(2006)는 한국어와 몽골어 사동과 피동을 비교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두 언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양 언어는 통사론적으로 사동과 피동의 역할이 같으며, 접미사를 붙일 때의 여러 규칙, 즉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선택하는 것도 역시 같은 교착어 간의 비슷한 점임을 보인다고 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피동 사동접미사를 어떤 어기에 붙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논의가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몽골어의 피사동접미사가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활용한다. 또한 두 언어 접미사가 겹쳐서 붙는 경우가 비슷한 점 중 하나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용례가 많지 않으며 소수의 동사에만 실현된다고 하였다. 한편 몽골어의 경우에는 그 용례 및 결합 가능한 선행 어기도 다양하다. 겹으로 봤을 때 2개의 접미사가 겹치는 일이 양 언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자 +(-이-) + (-우-) → 재우다
서 +(-이-) + (-우-) → 세우다
2. хат + аа + лга → хатаалгах
한글 : 마르+리+ 게 하다→ 말리게 하다
로마자 : чйэ Щ йй Щ лай → чйэййлайч
суу + лга + уул → суулгуул
한글 : 앉+히+ 게 하다→ 앉히게 하다
로마자 : suu + lga + uul → suulguulax

위에서 언급된 몇몇 연구 외의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파생접미사에 대한 다른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두 언어의 동사 어기에 붙어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

2.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

양 언어의 파생접미사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각 언어에서의 단어 형성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어 형성이라는 것은 단어의 확장적인 구조로서 어근²⁾ 중심으로 다른 특정한 형태소와 결합하여 보다 큰 구조의 단어를 구성하는 현상이다. 이것을 조어법(word formation)이라고 한다. 조어법에 따르면 파생어, 즉 파생접미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래에서 볼 수 있다.

단어-단일어 : 집, 나무, 신..

복합어

파생어 : 덧-신, 뵈-히다, 걸-리다...

합성어 : 집-안, 짚-신, 손-목...

위와 같이 파생어에 속해 있는 어휘들은 모두 다 파생접사, 즉 접두사와 접미사로 인해 파생되는데, 본고의 목적인 파생접미사만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파생접미사:

동사 파생접미사

—

- 어기의 통사범주를 바꾸는 것

-여기의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것

명사 파생접미미사

형용사 파생접미사

부사 파생접미사

2) 단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어근(root), 어간(stem), 어기(base)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 이익섭(1968, 1975)은 Hockett(1958)의 이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7. 이근(root) :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

예) 깨끗 - , 소근 - ...

ㄴ. 어간(stem) :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

예) 옷 -, 뛰 -...

ㄷ. 여기(base) : 어간, 어근을 포괄하는 언어형식

몽골어 단어형성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생법과 합성법이 있는 것은 한국어와 같으며,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단일어 : ger, nom, nar, us, mod...

복합어 파생어: nom-lox, mal-chin, üze-gdex, suu-lgax...

합성어: morin huur, zasgiin gazar, cag uur³⁾...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세밀하게 분류를 하는데 모음교체와 생략의 보조 방법들이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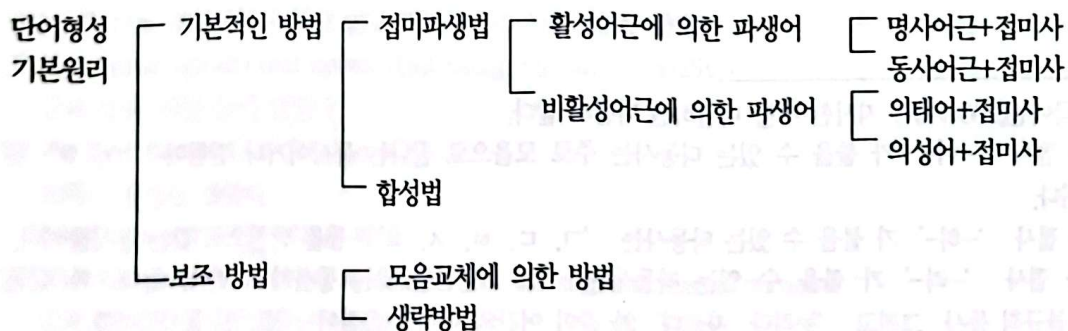
2.1. 한국어와 몽골어의 피동접미사

동사 여기에 붙어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의 대부분은 피동과 사동접미사에 해당되며 그 역할과 기능이 접미파생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는 동사 여기에 붙는 강세 접미사가 있다. 이 접미사들은 본래 동사인 여기에 붙어서 본동사에 피동과 사동, 혹은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행 어기의 문법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들이다.

피동접미사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규칙 없이 결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피동접미사 결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접미사를 붙이는 선행 어기 말음이 접

3) 한국어에서는 둘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을 합성어라고 하듯이 몽골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형성된 모습이 다를 뿐 한국어와는 다를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몽골어의 경우에는 'cag uur'과 같은 합성어는 제가꿈이 자립적인 낱말로 사용되다 결합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즉, 'cag uur(기후)' 라는 말은 '시간' 과 '중기' 의 본디 의미로는 곧바로 짐작할 수 없는 뜻을 이를 정도로 밀접하게 형성되는 관계이다(김기선 2005). 따라서 몽골어의 합성어는 띄어쓰기는 하지만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 즉 합성어이다.

4) 몽골어의 주된 문법서들에서 나타나는 단어형성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미사들 중 어느 것을 결합시키느냐를 결정한다.

〈표1〉 한국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피동접미사

접미사	어기말음 ⁵⁾	용례
① -이-	모음	감싸이다, 꼬이다, 둘러싸이다, (눈)뜨이다, 매이다, 모이다, (옛)보이다, (신경)쓰이다, (글씨)쓰이다, 잠기다, 채이다(눕아 채임), 치이다, 트이다, 패이다
	ㅍ	깎이다, 닦이다, 꺾이다, 섞이다
	ㅂ	끓이다
	ㅍ	(뒤)덮이다
	ㅎ	놓이다, 쌓이다,
	ㄷ 불규칙	들리다, 실리다,
	ㄹ 불규칙	잘리다, 짓눌리다, 찢리다
② -히-	ㄱ	(기)막히다, 먹히다(채)박히다, 적히다
	ㅊ	엎히다, 앉히다
	ㄷ	건히다, 달히다, 묻히다
	ㄴ	읽히다, 얹히다
	ㄹ	발히다, 넓히다
	ㅂ	뒤집히다, (사로)잡히다, 업히다, 씹히다
	ㅅ	꽃히다, 맺히다, 부딪히다
③ -리-	ㄹ	(물건이)걸리다, (시간이)걸리다, (병에)걸리다, (마음에)걸리다, 깔리다, 끌리다, (휘/훔)날리다, 달리다, (치)떨리다, 매달리다, 물리다, 밀리다, 붙들리다, 열리다, 올리다, (분위기)틀리다, 팔리다, 풀리다
	ㄷ	뚫리다
④ -기-	ㄴ	안기다
	ㅂ	끓기다
	ㅁ	감기다, 담기다, 넘기다, 잠기다
	ㅅ	뺏기다, 빼앗기다, 벗기다
	ㅈ	찢기다
	ㅊ	쫓기다

5) 국립국어원(2006)에서 지시한 바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피동 접사 '-이-' 가 붙을 수 있는 타동사는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이거나 받침이 'ㄱ, ㅎ' 인 동사들이다.
2. 피동 접사 '-히-' 가 붙을 수 있는 타동사는 'ㄱ, ㄷ, ㅂ, ㅅ, ㅈ' 등을 받침으로 갖는 동사들이다.
3. 피동 접사 '-리-' 가 붙을 수 있는 타동사는 'ㄹ' 받침을 갖는 동사와 '견다, 듣다' 와 같은 'ㄷ' 불규칙 동사, 그리고 '누리다, 자르다' 와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ㄹ' 인 동사들이다.
4. 피동 접사 '-기-' 가 붙을 수 있는 동사는 받침이 유성자음(ㄴ, ㄹ)이거나 'ㅅ' 인 동사들이다.

위 접미사들은 접사의 부착이 품사를 바꾸지는 않지만 통사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사적 파생법으로 처리된다.⁶⁾

〈표2〉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피동접미사

접미사(몽)	로마자	용례	뜻
-ᠳ-	-gd-	xar+gd+x→xaragdax üz +gd+x→üzegdex xöö +gd+x→xöögdöx sons+gd+x→sonsogdox zas +gd+x→zasagdax	보다 → 보이다 보다 → 보이다 다 → 쫓기다 들다 → 들리다
-ᠲ-	-d-	ol +d +x → oldox diil +d + x → diildex sons+d + x → sonsdox	찾다 → 찾아지다(*) 이기다 → 이겨지다 들다 → 들리다
-ᠲ-	-t-	av +t +x → avtax xuur+t+x→xuurtax sons+t+x→sonstox	받다→받아지다/빠지다 숙다 → 속이다 들다 → 들리다
-ᠷ-	-r-	zas +r +x → zsrax tügj+r +x → tügirex	고치다 → 고쳐지다 잠그다→잠기다/막히다

몽골어의 경우에는 동사 어기에 ‘-gd-(-ᠳ-), -d-(-ᠲ-), -t-(-ᠲ-)’ 접미사를 연결하여 만물 현상이 다른 직접적 행위의 영향 받는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태(üildegdeh hev)⁷⁾를 파

6) 동사파생법 및 그 예는 고영근·남기심(1998:202-203)을 보라.

7) Үйлдэгдэх хэв: Üildegdeh hev (피동태)

서술어가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

(1) Уул талыг цагаан цас хучив. (Uul taliig cagaan cas хучив.)

산과 뜰을 하얀 눈이 덮었다.

(2) Ах дүүг барив. (Ax düüg bariv.)

오빠가 동생을 잡았다.

서술어가 피동접미사를 취했을 때에 :

(1)' Уул тал цагаан цасан(д) хучигдав. (Uul tal cagaan casand хучигдав.)

산과 뜰이 하얀 눈으로(눈에) 덮였다^

(2)' Дүү аха(д) баригдав. (Düüd axad barigдав.)

생시킨다. 피동의 뜻을 더해 주는 피동접미사에는 ‘-gd-, -d-, -t-’ 등이 있다. 그 중
에서 ‘-gd-’ 형태를 모음과 자음으로 끝난 어기에 붙고, ‘-d-’ 형태는 ‘1’ 자음
으로 끝난 어기에, ‘-t-’ 형태는 ‘v, g, r, s’ 자음으로 끝난 어기에 각각 붙인다고 주
된 교과서들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gd-’ 형태는 나머지 2형태보다도 생산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사에 붙여 쓸 수 있다.

여러 문법서에서 ‘-r-’ 피동접미사를 피동접미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gd-(-r-),
-d-(-r-), -t-(-r-)’ 의 이 3접미사만을 제시하는데 우누르바양(C.Önörbayan 2000)에서는
이것에 대해 좀 더 다르게 언급했다. 그는 ‘많은 어학자들이 ‘-r-’ 접미사를 피동접미사
들처럼 동사어기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이 접미
사는 부사어기, 곧 의성어 의태어에만 붙어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가 아니라, 동사 어기
에도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해 주는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했다. 다음
예들과 같이 ‘-r-’ 접미사들처럼 동사 어기에 붙기 때문에 본인도 피동접미사로 본다.

가) засах + р + х → засрах	(zasrax / zasagdax)
고치다 → 고쳐지다	고쳐지다
나) мэдэх + р + х → мэдрэх	(medrex / medegdax)
알다 / 느끼다 → 느껴지다	알려지다
다) тавих + р + х → тавирах	(tavirax / tavigdax)
놓다 → 놓이다/ (몸이) 풀리다	풀리다
라) тайлах + р + х → тайлрах	(tailrax / tailagdax)
풀다 / 벗다 → 풀리다, 벗기다	벗겨지다
마) шалгах + р + х → шалгаргах	(šalgarax / šalgagdax)
검토하다 → 뽑히다, 선발되다	검토당하다
바) бөглөх + р + х → бөглөрөх	(böglöröx / böglögdöx)
(뚜껑) 닫다 → 닫히다, 막히다	막혀지다

위 예들을 통해서 접미사가 붙어서 동사의 의미가 피동의 뜻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r-’ 접미사를 붙였을 때에 (나)는 ‘알려지

동생이 오빠에게 잡혔다. 식으로 ‘-에, -에게’ 등의 처소 및 ‘낙착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를
필요로 한다.

다'의 뜻보다는 '느끼다'의 뜻이 강해지고, (다)의 경우에는 '놓이다'의 뜻보다 '몸이 풀리다'의 뜻이 더 강해진다. (마)도 역시 '검토를 받다'의 뜻보다 '뿔히다'의 의미에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 용례를 통해서 '-r-' 접미사는 피동접미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한국어와 몽골어의 사동접미사

〈표3〉 한국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사동접미사

사동접미사	어간말음 ⁸⁾	용례
① -이-	ㄱ, ㄲ	먹이다, 깎이다, 꺾이다, 눅이다, 죽이다, 속이다, 삭이다,
	ㅅ, ㅆ	붙이다, 핥이다
	ㅍ	높이다, 덮이다,
	ㅎ, ㄴㅎ	쌓이다, 땅이다, 끊이다
	모음	보이다, 태우다, 재우다, 누이다, 할퀴이다, 파이다,
	ㄹ, ㄹㅎ	들이다, 늘이다, 풀이다, 기울이다, 절이다, 졸이다, 형클이다
② -히-	ㅁ, ㅂ	앉히다, 엎히다, 잣히다, 맺히다, 꽃히다
	ㄴ, ㄷ	말히다, 밝히다, 읽히다, 얹히다, 묵히다, 식히다, 삭히다, 익히다
	ㅌ, ㅍ	입히다, 엮히다, 넓히다, 더럽히다, 눅히다, 잡히다
③ -리-	ㄷ	묻히다, 닫히다, 건히다, 굳히다, 받히다
	ㄹ, ㄹㅎ	날리다, 올리다, 끌리다, 실리다, 풀리다, 살리다, 돌리다, 뚫리다
④ -기-	ㄴ	안기다
	ㅌ, ㅍ	남기다, 굶기다, 옮기다, 넘기다, 숨기다, 감기다, 잠기다, 심기다
	ㄷ	뜯기다, 민기다
	ㅅ	벗기다, 빗기다, 웃기다, 씻기다, 빼앗기다, 뺏기다, 앗기다
	ㅌ	말기다
	ㅈ	짓기다, 찢기다, 기다, 쿋기다
⑤ -우-	ㄷ	돈우다
	모음	비우다, 끼우다, 지우다, 찌우다, 피우다, 베우다, 깨우다, 새우다
	ㄹ	일우다,
⑥ -구-	ㅅ	숫구다
	ㄷ	돌구다
	ㄹ	달구다, 일구다
⑦ -추-	ㅈ	낮추다, 늦추다, 맞추다
	ㅍ	감추다, 멈추다
	ㄹ	들추다
⑧ -이우-	모음	띄우다, 세우다, 재우다, 채우다, 태우다
⑨ -으키-	동사 일	일으키다

사에 모음조화 규칙에 준하여 연결한다.

③의 ‘-lga-, -lge-, -lgo-, -lgö-’ 변이형을 장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끝난 타동사와 자동사에 모음조화 규칙에 준하여 연결된다.

④의 ‘-uul-, -üül-’ 변이형을 장모음과 이중모음 이외의 모음과 자음으로 끝난 타동사와 자동사에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결합한다. 사동접미사들은 서로 이형태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오직 결합 조건만이 다르다. 또한 결합조건에 있어서 모든 형태가 위와 같이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즉, 불규칙적으로 단어의 특성에 따라 가끔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2.3. 한국어의 강세 접미사

한국어의 동사 파생접미사 중에 동사의 뜻에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가 있다. 그가 결합하는 동사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선행 어기말음을 고려해서 분류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특성에 맞춰서 다른 분류표와 약간 다르게 기술했다. 표에서 동그라미 (○)로 표시한 것이 있는데 3접미사 중 어느 것이 동사 어기에 바로 붙는 것인지, 혹은 동사의 ‘-아/어-’ 활용형에 붙는지를 볼 수 있다.

〈표5〉 한국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강세 접미사

접미사	결합 조건		용례
	동사 어기에 바로 붙임	동사의 ‘-아/어-’ 활용형에 붙임	
-치-	○		넘치다, 밀치다, 부딪치다, 얹치다, 놓치다
-뜨리-	○	○	깨뜨리다, 떨어뜨리다, 밀어뜨리다, 밀뜨리다
-트리-	○	○	깨트리다, 떨어트리다, 망가트리다, 흠트리다

동사 어기에 붙는 접미사들은 모두 다 동사의 범주를 바꾸지 않고, 오직 피동과 사동, 혹은 강조의 뜻만을 더해 주는 접미사들임을 어휘로 제시한 예를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다.

2.4. 몽골어의 ‘태’ 접미사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접미사 중에 행동이나 동작이 서로에게 행해지거나, 행동주가 여러 사람임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미사가 있다. 즉 공동의 뜻을 더해 주는 ‘공동태’) 와

9) Үйлдэлцэх хэв: Үйлдэлцэх хэв (공동태)

@ лц (-lc)을 동사 어기에 붙여서 행동을 같이 하거나 옆에서 그 일을 도와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태.

동작을 동시에 하거나 서로에게 하는 뜻을 더해 주는 '상호태'가 있다. 그 외에 행동이 여러 번 행해짐을 나타내는 접미사도 있다.

〈표6〉

접미사	로마자	용례	뜻
①-л-	-l-	dusax → duslax bazax → bazlax šidex → šidlex	방울이 떨어지다 → 계속 떨어지다 쥐다 → 쥐어 대다/복통하다 던지다 → 던져 대다
②-лц-	-lč-	barix → barilčax xiix → xiilčex yavax → yavalčax unsex → unselčex	짓다 → 같이 짓다(건물을~, 집을~) 하다 → 같이 하다 가다 → 같이 가다/같이 가 주다 뽀뽀하다 → 서로 뽀뽀하다
③-лд-	-ld-	guix → guildex y a v a x →	뛰다 → (여러 사람이)뛰다 가다 → 간통하다/간통을 저지르다

문장 속에서의 서술어, 즉 동사가 접미사를 취하지 않은 상태는 다음과 같다.

- (1) Дүү дэлгүүрээр явжээ. (Düü delgüüreer yavjee.) 동생이 가게를/가게에 갔다.
- (2) Мөнх зуныхаа амралтаар байшин барив. (Mönx zuniixaa amraltaar baišin bariv.) 몽흐가 여름 방학 동안 집을 지었다. 서술어가 파생접미사를 취한 후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1') Дүү дэлгүүрээр (ахтай) явалцжээ. (Düü delgüüreer (axtai) yavalcjee.) 동생이 가게를 (형과) 같이 가주었다.
- (2') Мөнх амралтаараа (тэдэнтэй) байшин барилцав. (Mönx amraltaaraa (tedentei) baišin barilcav.)
몽흐가 여름 방학 동안 (그들과) 집을 같이 지었다` 등과 같이 동반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와/-과/-(-이)랑' 을 필요로 하고 있다.

Үйлдэлдэх хэв : Üildeldex xev (상호태 접미사) -l; (-ld-)을 동사 어기에 붙여서 둘 이상의 사람, 그리고 여럿이 동시에 움직이거나, 같은 행동을 서로에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서술어가 접미사를 취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 :

- (3) Хүүхэд ахаасаа зуурав. (Xüüxed axaasaa zuurav.) 아이가 오빠에 매달렸다.
- (4) Дорж над руу ноцож гарлаа. (Dorj nad ruu nocoj garlaa.) 더르즈가 나에게로(나한테) 덤벼들었다 (싸웠다)`서술어가 동반태의 접미사를 취한 경우에는 :
- (3') Хүүхэд ах(тайгаа) зууралдав. (Xüüxed axtaigaa zuuraldav.) 아이가 오빠랑 서로 매달렸다.
- (4') Дорж над(тай) ноцолдож гарлаа. (Dorj nadtai nocoldoj garlaa.) 더르즈가 나랑 말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동반으로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며, 동반의 뜻을 나타내는 '-랑, -와/-과, -하고' 등의 접속조사를 취하게 된다.

	yavaldax šuuḡix—šuuḡildax	떠들다 → (여러 사람이) 떠들다
--	------------------------------	--------------------

①은 주로 동작이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②은 행동을 같이 하거나 서로에게 행하는 뜻을 나타낸다.

③의 주된 의미는 행위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접미사가 붙은 단어 중 소수의 파생어가 어기의 원래의 뜻보다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yavax' 이라는 동사가 '-ld-'접미사가 붙어 'yavaldax' 가 되는데, '가다'의 뜻이 없어지고 '간통을 하다'의 뜻을 갖게 된다.

3.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 비교

3.1. 한국어와 몽골어 피동접미사

한국어의 피동접미사는 여러 문법서 및 연구를 통해서 4개로 정해져 있다. 몽골어의 피동접미사에 대한 교재에서는 아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주로 -gd-(-ᠭᠳ-), -d-(-ᠳ-), -t-(-ᠲ-) 3개를 포함시키지만 본고에서는 뜻과 기능이 피동접미사와 같다는 우누르바양(Önörbayan 2000)의 이론에 따라 피동접미사에 -r-(-ᠷ-)까지 포함시켜 기술했다.

〈표7〉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피동접미사

한국어 접미사	선행 어기 문법 범주	파생동사 의미	몽골어 접미사
-이/히/리/기-	동사	피동	-gd- (-ᠭᠳ-), -d-(-ᠳ-) -t-(-ᠲ-), -r-(-ᠷ-)

동사 어기와 동사파생접미사의 결합에 대한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피동접미사의 경우:

Verb ¹⁰⁾	+	α	→	피동사
[Sem]		[피동성]		[피동성]
[동작성]				[동작성]
[서술성]				[서술성]
				[Sem1]

몽골어 피동접미사의 경우:

Verb	+	α	→	피동사
[Sem]		[피동성]		[피동성]
[동작성]				[동작성]
[서술성]				[서술성]
				[Sem1]

위와 같이 두 언어의 피동접미사의 결합 방법과 그 뜻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¹⁾ 접미사가 붙는 선행 어기가 '동사'이며, 접미사가 붙고 난 뒤에도 '동사'이다. 그리고 피동의 뜻을 더해 주는 것이지, 그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양 언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접미사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문법 범주를 바꾸지 않는 면에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한국어와 몽골어 사동접미사

한국어와 몽골어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8>에서 정리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그 문법 범주 및 의미는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어의 사동접미사가 그 수가 몽골어 사동접미사보다는 꽤 많다. 몽골어의 사동접미사들의 경우에는 모음조화 규칙에 준해서 결합

10) 앞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를 쓸 것이며 그 하나하나의 뜻은 다음과 같다.

Verb - 동사 어기

[Sem] → (의미)

[Sem1] →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파생어의 의미)

α → 접미사

11) 물론 형태적인 면에서만 봤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시점에서, 즉 음운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면에서 세밀하게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는 규칙이 있고, 또한 한 형태가 2개 혹은 4개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사동접미사가 선행 어기별로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있지만 가끔은 불규칙적인 것이 있듯이 몽골어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칙에 어긋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특징을 보면 사동접미사 자체가 그 결합 가능한 어기 말음을 정하기가 곤란한 것임이 두 언어에서 비슷한 문제인 것 같다.

〈표8〉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사동접미사

한국 접미사	선행 어기의 문법 범주	의미	몽골어 접미사
-이/히/리/기/우/추- -아우- -으키/이키-	동사	사동	-ga/ge/go/gö- -lga/lge/glo/lgo- -aa/ee/oo/öö- -uul/üül-

다음은 두 언어의 사동접미사가 선행 어기와의 결합 방식을 구조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구조적으로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접미사가 붙어서 나타내는 뜻이 활용하기 전과는 뜻의 차이를 가져온다.

1) 한국어 사동접미사의 경우:

Verb	+	α	→	사동사
[Sem]		[사동성]		[사동성]
[동작성]				[동작성]
[서술성]				[서술성]
				[Sem1]

2) 몽골어 사동접미사의 경우:

Verb	+	α	→	사동사
[Sem]		[사동성]		[사동성]
[동작성]				[동작성]
[서술성]				[서술성]
				[Sem1]

4. 결론

본고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어기에 붙는 동사 파생접미사를 대상으로 하여, 두 언어의 접미사들을 형태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해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간단하게 1장에서 정리를 했고, 2장에서는 각 언어의 동사 어기에 붙어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을 결합 가능한 어기별로 나열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접미사들 중 특성 중 비슷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해당하는 용례도 보여 주면서 그 형성하는 구조를 한국어와 몽골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어의 피동접미사 '-gd-' 는 나머지 피동접미사(-d-, -t-, -r-)의 자리에 와서 피동의 뜻을 더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몽골어 피동접미사들 중에서 생산성이 높고, 나머지 접미사들과의 교체가 가능한 접미사이다. 또한 이 모습이 바로 같은 피동접미사들끼리 서로 교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동사 어기에 몽골어의 피동접미사처럼 교체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체(sonsogdox/ sonsdox/ sonstox)는 형태적으로만 다를 뿐 서로 변이형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동사 어기에 붙는 피동, 사동접미사 외 좀 더 다른 뜻을 갖게 해 주는 접미사가 한국어와 몽골어에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동사 어기에 붙어 강세의 뜻을 나타내는 강세 접미사가 있는 반면에 몽골어에는 공동의 뜻을 더해 주는 '공동태' 와 동작을 동시에 하거나 서로에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상호태' 접미사가 있다. 하지만 몽골어의 '태' 문제는 일반 동사 파생접미사들의 내용보다는 상에 대한 기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밀한 연구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강명순(1995). "국어의 파사동 접사에 관하여". 「국어연구」 26.
- 고영근(1974). 「국어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 고영근·남기심(1998).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계곤(1978).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허웅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과학사」.
- 김기선(2006).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구문 대조 연구" 「몽골어학」
- 김보현(1999). "파생접미사 '-거리-', '-대-', '-이-', '-하-'의 의미 상관성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6). 국어 사동접미사 선택의 조건에 대하여 ". 「어문논집」 35.
- 김지은(1989). " '-답-'의 의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홍(1986). "몇 어형성 접미사에 대하여". 「백록어문1」.
- 김창섭(1992). "파생접미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 김창식(1991). "현대국어의 접미파생어". 「어문논총」 25.
- 김형배(2005). "파생사동사의 범주". 「한민족」 17
- 나은미(2005). "파생접미사의 의미 패턴 연구". 「이중언어」 28.
- 남기심·우형식·이희자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대규(1981).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 연구." 「한글」 172.
- 민현식(1984). "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 박덕규(2006).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이중언어」 32
- 박창희(2004).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형용사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선문대 석사학위 논문.
- 배희임(1988). 「국어파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백문식(2004). 「우리말 파생어 사전」. 삼광출판사.
- 송병구(2003). 「A study of the noun-derivational suffixes in modern mongolian」. 서울: 단국대 대학원.
- 송창선(1998). "-(아/어) 프리-'와 '-치-'의 기능 연구." 「언어과학 연구」 15.
- 송철의(1989). 「국어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울: 태학사.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서울: 국학자료원
-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서울: 집문당.

- 이양혜(2006). "우리말 접사의 형태론적 고찰". 「우리말 연구」 19.
- 이익섭(2006).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 최호철(1993). "어휘부의 의미론적 접근" 「어문논집」 32.
- 최호철(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 34.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사잉빌릭트(D.Sainbiligt 2005).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체렌허를러(Ch.Tserenkhорloo 2000). "현대 한국어 조어법의 언어유형론적 특징-현대 몽골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Gan Soenhua 2006).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үсмэл үгийн харьцуулал", УБ хот УБДС.
- 벌뜨(L.Bold 1986).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гавар. УБ хот.
- 브상(J.Byambasan 1975).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хэв, байдал, хэл зохиол судлал3-р боть. УБ хот.
- 브상(J.Byambasan 1977).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ууд. УБ хот УБИС.
- 롭상완당(Š.Luvsanvandan 1968).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 үг нөхцөл хоёр. УБ хот
- 롭상완당(Š.Luvsanvandan 1999).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дэд дэвтэр. УБ.
- 우누르бая(S.Önörbayan 1986).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ын байрлалын асуудалд. Хэл зохиол судлал 15-р боть. УБ хот.
- 우누르бая(S.Önörbayan 1998).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хот.
- 우누르бая(S.Önörbayan 2000).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1997).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УБхот.
-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1987).О.Ц.М.Хэлний үгзүйн байгуулал. УБ хот.
- МУБИС-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ргууль(2004).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УБхот.
- МУИС-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им(1976). Монгол хэл сурах бичиг. УБ хот.
- 더르저(Dorjoo 2004),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ичээлийн дүрмийн эмхэтгэл. УБ хот.
- 체웰(Ya.Cevel 1966),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хот.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харьцуулалт

С. Адъяасүрэн

Хураангуй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 нь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2 хэлний үйл язгуур, үндсэн дээр залган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т хэлбэрийн талаас ажиглалт хийх зорилготой байлаа. Хоёр хэл хоёул залгамал хэл учраас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холбогдох нөхцөл болоод, илтгэх утгын хувьд ижил байсан гэж хэлж болох юм. Харин дагаврыг ангилсан байдлаар нь, утгын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вэл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шинж багагүй ажиглагдаж байлаа. Тухайлбал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үйл язгуур, үндсэнд залгаснаар үйлийн утга эрчимжих утга санааг илтгэдэг дагавар байхад, Монгол хэлэнд үйлийг хамтран үйлдэх, үйлийг харилцан үйлдэх, үйлийг олон удаа үргэлжлүүлэн хийх зэрэг утгыг илэрхийлэх дагавар байгаа нь хоёр хэлний онцлог тал байлаа. Хэдийгээр утгын талаас нь гүнзгийрүүлэн судлах зорилго тавиагүй боловч цаашид лавшруулан судлавал зохилто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залгах арга, үйлдүүлэх хэвийн дагавар, үйлдэгдэх хэвийн дагавар, үйл үгийн язгуур, үндэс.

한국어와 몽골어 보조용언 구별기준*

아.나랑게를

목 차

I. 들어가기

II. 보조용언 구별기준

2.1. 의존성

2.2. 비분리성

2.3. 대용형

2.4. 논항과의 무관성

2.5. 선행 용언까지의 분리 대응

2.6.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2.7. 보조용언의 연속 사용 가능성

2.8.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2.9. 공백화

2.10. 도치

2.11. 활용 형식

2.12. 부정과 부사의 수식 범위

III.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몽골어 보조용언을 구별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어와 몽골어에 보조용언을 독립된 범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몽골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를 바탕으로 몽골어 보조용언의 특성들을 밝히고 그 구별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몽골어의 보조용언의

* 이 논문은 나랑게를(2007)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본론에서는 한국어의 보조용언 체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2가지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8가지가 몽골어 보조용언의 구별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 보조용언, 본용언, 구별기준, 복합동사, 의존성.

I. 들어가기

한국어와 몽골어는 공통적으로 조사와 어미가 잘 발달된 교착어에 속하며, 보조용언이 문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몽골어에서는 아직까지 보조용언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의 보조용언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몽골어의 보조용언 구별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두 언어의 보조용언 구별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용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과 연속 동사 구성·합성어와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현대적 의미의 보조동사 개념은 최현배(1937)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도움 움직씨는 으뜸되는 풀이씨의 아래에서 그것을 도와서 풀이씨를 완전하게 하는 움직씨'로 정의하고 보조동사 13가지, 보조형용사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용언을 설정한 최현배(1937)은 보조용언은 앞에 오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구실을 한다고 했다.

보조동사의 설정 근거로 손세모돌(1996:40-45)에서는 '구문론적 의존성, 대응형에 의한 비대칭성, 두드러진 문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강홍구(1999:30)에서는 '선행동사에 대한 보조, 동사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서술어의 후행동사로 실현, 선행 본동사에 의존성과 비분리성을 지님, 본동사나 문장에 주로 양상적 의미로 문법적 기능'을 보조동사의 설정 근거로 제시하였다.

최현배가 주장한 'V1+V2'에서 V2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것, 즉 '선행동사의 의미를 도우며 선행동사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본 연구에서 따른다.

몽골어 보조동사의 존재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몽골 학자로서 T. Pagva(1952-1955)가 연구한 「현대몽골어의 보조용언」은 현대몽골어의 보조용언을 연구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몽골어학에서는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하여 Poppe(1954), P. Byambasan (1987),

Kullmann(1996) 등에서와 같이 보조동사의 목록에 단순히 존재를 뜻하거나 계사의 기능을 하는 'bai-' (있-), 'bol-' (되-) 등만을 보조동사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baix(있다/이다)' 동사를 Š. Luvsanvandan은 보조동사가 아니라 독립 동사라고 본 바 있다. Poppe(1954:161-162)는 서술동사라는 범주 아래에 몇몇 어휘항목들의 의미와 특성을 논의하였다. P.Byambasan, C.Jančivdorj, J.Sanjaa(1987:176-177)에서는 “몽골어에서 동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는 종결어미를 취한다. 보조동사 앞에 나타나는 본동사는 연결어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명사형 동사일 경우는 주격, 여격 등의 격조사를 취한다. 몽골어의 보조동사는 이렇게 본동사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은 인도 · 유럽어족과 차이를 보인다.” 하며 몽골어의 보조동사를 인정하고 인도 · 유럽어족과의 차이를 다룬 바 있다.

몽골어 보조동사에 대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한국 학자들은 송재목(1998), 강신(2003)이다. 송재목(1998)에서는 처음으로 몽골어 보조동사 구문이 한국어 보조동사 구문과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신(2003)에서는 처음으로 보조동사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논문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겠다.

II. 보조용언 구별기준

보조용언은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원래 본동사였던 것이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가 추상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의미가 추상화되었지만 어휘적 의미가 완전히 탈색된 것이 아니다. 보조용언의 개념은 ‘문장 내에서 자립성 없이 선행하는 본용언을 도와주면서 화자, 주체의 심리상태와 양태적 요소를 내포하고(상이나 양태 의미를 첨가를 하여), 본동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동사’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어의 보조용언이 구별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몽골어의 보조용언은 구별하기가 어렵다. 보조용언은 의미적으로 의존적이고 말하는이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면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보조용언 구별 기준과 특성에 대한 논의들을 두루 참고하여 (손세모달(1996)을 바탕으로) 합성어, 복합문, 연속 동사 구성 등 표면 구조가 보조용언 구문과 비슷한 것들에서 보조용언을 구별해 내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1. 의존성

의존성이란 보조용언이 문장에서 독립된 서술어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홀로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류의 용언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일반 용언과 구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이 특성은 최현배(1937:296, 655)를 비롯한 종래의 보조용언 구별 기준 연구에서 가장 큰 특성으로 뽑는 것이다.

(1) ㄱ. 친구가 시장에 같이 가 주었다.

ㄴ. *친구가 시장에 같이 주었다.

(1ㄱ) 문장에서 선행용언이 생략되면 (1ㄴ)처럼 비문이 생긴다는 것은 '주다, 보다'가 홀로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보조용언은 서술어의 중심 의미를 이루는 선행 용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법 형태소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독립된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구문론적으로 언제나 선행 용언과 함께 나타난다.

보조동사가 본동사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문장 내에서 독립적인 서술어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선행 본동사의 동반이 요구되면 보조동사는 독립적으로 문장의 서술에 관여하지 못한다.

(2) ㄱ. Хөгшин аав нь хүүхдүүддээ үлгэр ярьж өгөв

old father 3Poss children-Dat-Refl story tell-Conn give-Past.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ㄴ. Хөгшин аав нь хүүхдүүддээ үлгэр ярив.

ㄷ. *Хөгшин аав нь хүүхдүүддээ үлгэр өгөв.

(2) 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동사는 형태나 분포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동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통사적 자율성이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에서 'өгөх'은 독자적으로 문장의 주어인 명사구와 주술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보조동사구문의 논항은 언제나 선행 본동사에 의해 결정되며 보조동사 자체는 문장의 논항의 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2. 비분리성

보조용언과 선행 용언 사이에는 독립된 다른 성분이 개입될 수 없다. 그 특성은 복합문과 보조용언 구문을 구분하는 데 필요하다. 내적 비분리성을 지니면 문장의 복합이 아니라 합성동사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조용언 구문과 합성동사 구문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합성용언과 보조용언 구문은 내적 비분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분리와 대용 등의 특성이 뚜렷하게 달리 나타난다. 합성어의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사이나 용언의 어간과 어미들 사이에 성분이 개입되지 못한다. 내적 비분리성은 낱말과 문법 요소의 결합에서도 나타나므로 내적 비분리성을 가진 모든 것이 합성어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보조용언 구문과 합성용언의 내적 비분리성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라 본 손세모달(1996)도 수긍이 간다.

내적 비분리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사용되는 것은 선행 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서-’를 삽입해 보는 것이다. 보조용언 구성은 V1과 V2 사이에 ‘-서-’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V1과 V2의 결합이 비교적 긴밀하기 때문에 수식어 등의 다른 요소도 둘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3) ㄱ. 나는 돈을 다 써(*서) (*쓰레기통에)버렸다. (김기혁 1987:13)

ㄴ. 꼬마가 그 큰 일을 해(*거뜰히) 냈다. (김영희 1993:162)

연속 동사 구성은 V1과 V2가 연결어미에 의해 접속된 구조이며 연결어미 ‘-어, -고, -어서, -고서’와 다르지 않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로 대체될 수 있다. 또 선행절과 후행절의 결합이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V2의 논항이나 수식어가 V1과 V2 사이에 개재할 수 있다.

(4) ㄱ. 나는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보았다.

그런데 합성동사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없다.

(5) 우리는 그 곳을 벗어(*서) 났다. (김기혁 1987:15)

현대몽골어의 보조동사 구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통사적인 특성의 하나는 선행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다.

(6) 7. Би нөгөө номыг сайн уншиж үзэв.

I(Nom) that book-Acc well read-Conn see-past.

내가 그 책을 잘 읽어 봤다.

Л. *Би нөгөө номыг уншиж сайн үзэв.

Д. *Би нөгөө номыг сайн нарийн үзэв.

(67-д)은 보조동사구문 'унших үзэх'의 구성에서 선행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3. 대용형

보조용언은 연속 동사 구성과 비슷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보조용언은 보조용언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대용하는 보조용언 구성과 연속 동사 구성에서는 V1만을 '그리하-', '그리-' 등으로 대용할 수 있지만, 합성동사의 경우는 V1+V2 전체를 대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V1만을 대용할 수 없다.

(7) 7. 나리가 웃고 있다. 유미도 그러고 있다. (이상 김기혁1987:21)

(8) 7. 남동생이 학교에 뛰어갔다. *여동생도 그렇게 해, 그래 갔다.

(7)의 보조용언 구문은 선행 용언만을 대용할 수 있지만 (8)과 같은 합성동사는 선행 용언만을 대용할 수 없다. 보조용언이 문장 대용형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보조용언이 구문론적으로 문장의 동사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문장과 직접 성분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담화상에서 동일한 표현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몽골어의 경우 대용화할 때 선행 주동사와 보조동사를 동시에 대용화하거나 선행 본동사와 선행성분을 대용화 할 수는 있지만 보조동사만의 대용화는 불가능하다.

(9) 7. Охидууд нь гэртээ харьж болно. Банди нар нь ч харьж болно.

girl-Pl 3poss home-Loc-Refl return-Conn become-Fut, boy Pl 3

poss also return-Conn become-Fut.

여자애들은 집에 가도 된다. 남자애들도 가도 된다.

ㄴ. Охидууд нь гэртээ харьж болно. Банди нар нь ч тэгнэ.

여자애들은 집에 가도 된다. 남자애들도 그렇게 한다/그린다.

ㄷ. Охидууд нь гэртээ харьж болно. Банди нар нь ч тэгж болно.

여자애들은 집에 가도 된다. 남자애들도 그래도 된다.

ㄹ. * Охидууд нь гэртээ харьж болно. Банди нар нь ч харьж тэгнэ.

* 여자애들은 집에 가도 된다. 남자애들도 가도 그린다.

(9ㄱ)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생략한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9ㄴ)에서는 목적어 생략과 아울러 선행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동시에 대용화하였다. (9ㄷ)은 목적어 생략과 아울러 선행 본동사를 대용화하였다. 한편, (9ㄹ)은 보조동사만을 대용화한 구문으로 인하여 비문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4. 논항과의 무관성

보조용언은 문장의 논항 수와 관련이 없다. 보조용언 구문에서 논항은 언제나 선행 용언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조용언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복합문과 구별되는 보조용언의 특성이다. 보조용언 구문 논항의 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복합문의 경우에는 V2가 상위문의 본 동사이므로 상위문의 논항을 결정한다. '주다'가 본동사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논항이 필요하다.

(10) ㄱ. 부디 앞으로는 저를 늘 주디라고 불러 주세요.

ㄴ.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ㄷ. 나도 가 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이상 손세모돌 1996:49)

(10ㄱ)은 논항이 3개이고 (10ㄴ)은 2개, (10ㄷ)은 1개의 경우이다. (10ㄱ)은 논항의 수에서 '주다'가 본동사일 때와 같지만 격관계로 보아서는 본동사일 때의 '주다'와 차이를 보인다.

2.5. 선행 용언까지의 분리 대응

분리 대응은 보조용언이 대응형으로 대치되지 않고 용언까지만 분리되어 대응형으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합성동사는 동사 전체의 대응만이 가능하다. 하나의 낱말이므로 하나의 단위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문장의 접속은 선행 용언, 후행 용언이 각기 대응형으로 대치될 수도 있고 선, 후행 용언이 함께 대응형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보조용언 구성에서 대응이 일어날 때는 선행용언까지만 대응되거나 선행 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대응형으로 대치된다.

(11) 새 구두를 신어 볼까?

ㄱ. 나도 새 구두를 신어 볼까? ㄴ. 나도 그래 볼까?

ㄷ. 나도 그럴까? ㄹ. *나도 구두를 신어 그럴까?

(11)에서 선행 용언 분리되어 대응된 (11ㄴ)과 선행 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대응된 (11ㄷ)은 자연스럽지만, 보조용언만 대응된 (11ㄹ)은 부자연스럽다.

2.6.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같은 용언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통합되는 것이 가능하다.

(12) ㄱ. 나도 고시나 한 번 봐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ㄴ. 그 사람이 미숙이를 완전히 버려 버렸어.

ㄷ. 거기다가 일단 놔 놔. (이상 손세모돌 1996:59)

(12ㄱ-ㄷ)에는 ‘보다, 버리다, 놓다’ 등이 각기 두 번씩 겹쳐서 사용되었다. 앞의 것은 본용언으로, 뒤의 것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이다. 동일 형태의 연속 사용은 이들이 다른 의미 기능을 표현한다는 증거이다.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은 접속문이나 복합문, 합성어와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합성동사는 같은 용언이 겹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접속문이나 복합문은 제약된 환경에서만 동일 용언이 연달아 나타날 수 있다.

(13) ㄱ. *비둘기가 하늘에 날아날다.

ㄴ. *애들이 신나서 뛰어뛰었다.

(13ㄱ, ㄴ)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날아날다, 뛰어뛰다'와 같은 동일 형태의 용언이 겹쳐서 이루어지는 합성동사는 없다.

(14) 한 번 말씀드려 봐 주세요. (손세모돌 1996:62)

(15) 친구가 뒤돌아봐서 (나도) 뒤돌아봤다.

(14)와 같이 연속동사는 셋 이상의 동사가 접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보조용언의 구성의 경우 제약이 심하지만 본용언 뒤에 둘 이상의 보조용언이 결합될 수 있다. 접속문의 경우 (15)이 문법적인 경우는 괄호 안과 같이 다른 주어가 상정되는 경우뿐이다. 접속문이나 복합문은 선행절과 후행절,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 동일 형태의 용언이 두 번 연달아 나타날 수 있다.

2.7. 보조용언의 연속 사용 가능성

보조용언은 몇 개가 연속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형태가 연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어의 구어에는 동일 형태의 보조용언이 연속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다른 형태가 연속 사용된 경우이다.

(16) ㄱ. 한 번 연락해 봐 주세요.

ㄴ. 글썄 나도 그렇게 해 봐 줘 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17) ㄱ. 어제 그 말은 잊어 버려 버려.

ㄴ. 나도 고시나 한 번 봐 봐 볼까.

ㄷ. ?이제 편지를 거의 다 써 가 간다.

(16ㄱ)에는 두 개의 보조용언이 사용되었고, (16ㄴ)에는 세 개가 연속되었다. (17)과 같은 동일 형태의 보조용언이 두 번 겹쳐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 그다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글에 있어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담화에 사용 되더라도 개인에 따라, 형태에 따라 수용성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 형태의 보조용언이 중첩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손세모돌(1996:63)에서 보았다.

현대몽골어 보조동사구문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보조동사가 연이어 나타나는 연속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8) ㄱ. Та түүн рүү нэг утасдаж өгч үзээрэй.

you he/she Dir one call-Conn give-Conn see-Hort.

그에게 한번 전화 줘 보세요.

ㄴ. *Та түүн рүү нэг утасдаж үзэж өгөөрэй.

you he/she Dir one call-Conn see-Conn give-Hort.

그에게 한번 전화해 봐 주세요.

보조동사 'өрөх, үзэх'가 동시에 나타나는 (18ㄱ, 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제3의 인물인 그에게 전화를 부탁하는 완곡한 요청의 뜻을 지닌 (18ㄱ)과는 달리, (18ㄴ)은 비문으로 판정된다. 이러한 예에서 현대몽골어의 보조동사구문에 나타나는 보조동사의 연속 현상에는 보조동사들 간에 상대적인 특정한 순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대몽골어 보조동사구문의 중요한 특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조동사의 연속현상에는 특정한 순서제약이 존재한다. 둘째, 연속 보조동사들에는 일정한 수량의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원어문 사이에서도 다양한 화맥에 따라 수용성이나 문법성 판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보조동사의 연속에는 어휘적 의미가 큰 것이 문법적 의미가 큰 것에 선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8.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의사 분열문은 V1+V2의 구성에서 서술의 주변부와 본질부를 분리하는 통사 규칙이다.

(19) ㄱ. 내가 먹어 버린 것은 빵이다.

ㄴ. 내가 해 버린 것은 빵을 먹은 것이다.

(20) ㄱ. 새가 날아갔다.

ㄴ. *새가 해 간 것은 날은 것이다.

(21) ㄱ. 그가 공을 집어서 던졌다.

ㄴ. *그가 해서 던진 것은 공을 집은 것이다.

(19)는 보조용언 구성이고 (20)은 합성동사, (21)는 접속문의 경우이다. 보조용언 가운데 의사 분열문 구성이 어색한 것은 ‘-어 있다’ 뿐이다. ‘-에 있다’ 가 어색한 것은 보조용언 ‘-어 있다’ 가 타동사와 결합 제약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색함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고 있다’ 로 대치함으로써 분열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의사 분열문 구성은 합성동사나 접속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9. 공백화

공백화에 있어서는 보조용언 구성이 합성동사와 비슷하다. 접속된 두 절에 ‘V1+V2’ 의 구성이 있고 V2가 공통될 때 선행절의 V2를 생략하는 것이 연속 동사 구성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22) ㄱ. 철수는 서류를 찢어 * (버리고), 영희는 태워 버렸다.

ㄴ. 물은 졸아 * (들고), 냄비는 주그러들었다. (이상 김기혁 1987:18,19)

보조용언은 선행 문장 형식에 강한 통사론적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다. 그 결과는 (22)처럼 공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몽골어에서는 선행 본동사와 보조동사 연속체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시에 출현할 경우에는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른 내포문 구성이나 접속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만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조동사의 외현적인 출현이 필수적인 한국어의 경우와는 뚜렷한 대조가 된다.

(23) ㄱ. Ах нь ном уншиж байна. Дүү нь хичээлээ давтаж байна.
brother 3Poss book read-Conn be-Pres. Younger brother 3Poss
lesson-Refl repeat-Conn be-Pres. 형은 책을 읽고 있다. 동생은 공부를
하고 있다.

ㄴ. Ах нь ном уншиж, дүү нь хичээлээ давтаж байна.

(23ㄱ)은 선행문과 후행문이 ‘지속’ 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ааёо’ 가 ‘-’ 를 매개로 선행 본동사와 밀접하게 결합한다. 동일한 형태의 보조동사를 구성성분으로 갖는 단문들이 접속되면 (23ㄴ)에서와 같이 보조동사구성은 생략되어 접속문이 된다.

2.10. 도치

도치에 있어서 보조용언 구성이 합성동사와 비슷하다. (24)와 같은 연속 동사 구성에서는 V1이 V2 뒤로 도치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동사에서는 불가능하다.

(24) ㄱ. 철수는 오징어를 불어 구워서 먹었다.

ㄴ. 철수는 오징어를 먹었다, 불에 구워서.

(25) ㄱ. 그는 물건을 다 팔아 버렸다.

ㄴ. *그는 버렸다, 물건을 다 팔아.

(26) ㄱ.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

ㄴ. *할머니께서 작년에 가셨다, 돌아.

(27) ㄱ. 나는 된장찌개를 해(서) 먹었다.

ㄴ. 나는 먹었다, 된장찌개를 해(서).

(25)의 보조용언 구문이나 (26)의 합성동사는 강조를 위한 도치를 선행 용언과 분리하여 할 수 없으나 (27)과 같은 통사적 구에서는 가능하다. 보조용언의 강한 통사론적 의존성 때문에 공백화도 불가능하고 선행 문장 형식도 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조용언 구문을 판별하는 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된다.

(28)과 같이 몽골어 보조용언도 한국어와 같이 V1이 V2 뒤로 도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29)처럼 내포문이나 접속문의 경우에는 우향도치가 가능하다.

(28) ㄱ. Би уулзах өдрөө таг мартаж орхижээ.

I(Nom) meet-Irs day-Refl completely forget-Conn leave-Past.

내가 만날 날을 깜박 잊었다.

ㄴ. *Би орхижээ, уулзах өдрөө таг мартаж.

(29) ㄱ. Би эх орноосоо цагаачлахыг хүсээгүй.

I(Nom) motherland-Abl-Refl migrate-Irs-Acc wish-Neg.

나는 고향에서 이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ㄴ. Би хүсээгүй, эх орноосоо цагаачлахыг.

2.11. 활용 형식(-었, -시)

보조용언 구문은 시제 선어말 ‘-았/었-’, ‘-더-’, ‘-겠-’ 이 통합될 때, 후행 용언에만 그 형태소가 표시된다. 이것은 통사적 구와 합성동사에 모두 공통되는 특징이다. 이는 다른 보조용언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종결어미로 끝나는 보조용언 구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30) ㄱ. *영은이가 놀이공원에 갔어 보았다.

ㄴ. *영은이가 회를 먹었고 싶었다.

(31) ㄱ. 의사 선생님께서 내 다리를 만져 보셨다.

ㄴ. *의사 선생님께서 내 다리를 만지셔 (보았다, 보셨다).

보조용언 구문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 와 결합될 때, (31)처럼 후행 용언에 그 형태소가 표시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선행 용언에 표시되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런 특성은 보조용언 구문이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와의 중간적 존재임을 드러내 준다. 김기혁(1987:7-12)과 이선웅(1995)에서도 이렇게 본 바 있다.

선어말어미 ‘-시-’ 가 결합했을 때 연속 동사 구성의 경우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V2에만 ‘-시-’ 를 넣는 것이 보통이지만 V1에도 ‘-시-’ 가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시-’ 가 절대로 V1에 결합될 수 없지만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보조용언에만 ‘-시-’ 를 넣는 것이 보통인데 간혹 본동사에 ‘-시-’ 가 들어가기도 한다. (32)과 같이 선행 용언이나 후행 용언에 모두 ‘-시-’ 가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보조용언 구문이 내포문 구성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말하자면 높임의 자질을 가진 주어가 있으면 그 서술어에는 ‘-시-’ 가 통합된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32) ㄱ. 김 선생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싶다, 보(시)고 싶으시다

ㄴ. 김 선생님은 집에 (가셨나 보다, *가셨나 보시다, *갔나 보시다

(33) Би нөгөө номыг сайн уншиж(*сан) үзэв.

현대몽골어 보조용언 구문도 (33)과 같이 시제 어말어미가 통합될 때, 후행 용언에만 그 형태소가 표시된다.

2.12. 부정과 부사의 수식 범위

부정의 수식 범위는 어떤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보조용언 구성 전체뿐만 아니라 본용언에만 한정될 수 있고 어떤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본용언만으로 한정된다. 부사가 보조용언 구성을 수식할 때도, 그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의 수식 범위와 같은 양상을 보여 준다.

(34) ㄱ. 동생이 밥을 안 먹어 버렸다.

ㄴ. 친구가 그 사람은 안 만나 보았다.

(35) ㄱ. 동생은 밥을 빨리 먹어 버렸다.

ㄴ. 동생은 빨리 걸어 보았다.

(36) a. Миний номыг битгий мартаж орхиорой.

b. Би нөгөө номыг сайн уншиж үзсэн.

(34ㄱ, ㄴ)의 경우 ‘안’의 수식 범위는 보조용언 구성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선행 용언 만이라고 할 수 있다. (34ㄱ)의 경우 ‘먹어 버리지 않았다’와 같은 해석으로 보통은 보조 용언 구성 전체가 부정의 수식 범위로 이해되지만 ‘영희 화가 나서 밥을 안 먹어 버렸다’와 같은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안 먹는 행위를 해 버리는 해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선행 용언만 부정의 수식 범위가 된다는 뜻이다. 부정의 수식 범위와 마찬가지로 부사 수식의 범위도 (35ㄱ, ㄴ)은 선행 용언에만 걸릴 수도 있고 보조용언 구문 전체에 걸릴 수도 있다. 예컨대 (35ㄱ)에서 동생이 밥을 느리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누군가가 놀렸다고 할 때, 화가 나서 빨리 먹어 버린 상황일 수 있는데 (35ㄴ)와 마찬가지로 선행 용언만이 수식 범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6)과 같이 몽골어 보조용언구문이 부정과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 본 용언에만 한정되어 보조용언이 그의 뜻을 보충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II. 맺음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보조용언의 구별기준을 바탕으로 몽골어의 보조용언 구별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보조용언 구문의 구문론적, 의미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 보조용언 구별기준으로는 ‘의존성, 비분리성, 대용형, 논항과의 무관성, 선행 용언까지의 분리 대용, 동일 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보조용언의 연속 사용 가능성,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공백화, 도치, 활용 형식, 부정과 부사의 수식 범위' 라는 기준을 따랐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몽골어 보조용언 구별기준으로는 '의존성, 비분리성, 대응형, 보조용언의 연속 사용 가능성, 공백화, 도치, 활용 형식, 부정과 부사의 수식 범위' 라는 기준을 정하였다. 이상의 기준들을 보면, 보조용언 구성은 합성동사와 달리 본동사와 보조용언이 통사부에서 결합된 것이기는 하지만, 연속 동사 구성과 비교할 때 본동사와 보조용언 사이의 결합의 긴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신(2003), 「현대몽골어 보조용언구문에 관한 연구」, 『몽골학』 15.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권재일(1986), 「의존동사의 문법적 성격」, 『한글』 제194호.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배달말』 8.
- 김천학(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 김필영(2001), 「한국어와 카작어의 보조용언 구문」, 『언어학』 30.
- 남기심·고영근(2003),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니콜라스 뵘페(1992), 『몽골어문어법』, 민음사.
- 류시중(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목정수(2002), 「숨겨진 (보)조동사를 찾아서」, 『형태론』 4권 2호.
- 박덕유(2006),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박선옥(2005), 「국어 보조용언의 통사와 의미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서정수(1978), 「국어의 보조용언」, 언어 3-2.
- 손세모돌(1991), 「보조용언 “주다”의 결합 제약과 의미」, 『한국학논집』 19, 한양대.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송재목(1998), 「할하 몽골어 보조용언구문에 대하여」, 『언어학』 23.
- 송재목(1999), 「몽골어 동사 ‘ge- (말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언어학』 24.
- 이익섭·채완(2005),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정은정(2000), 「보조용언 ‘주다’ 구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휘세인 크르테미리(2002), 「터키어와 한국어의 시제·동작상·서법의 유형적 연구」, 『형태론』 4권 1호.
- Ariunbold, Ü(2004), Orčincagiinmongolxel, Ulaanbaatar.
- Byambasan, P, Jančivdorj, C, Sanjaa, J(1987), Orčin cagiin mongol xelnii ügzūin baiguulalt, Mongol xelnii üil ügiin togtolcoo, Šinjlex uxaan yakademi Xel zoxiolyn xūreelen, Ulaanbaatar.
- Bazarragchaa(2005), Mongol xelnii ügüülber sudlal, Ulaanbaatar.
- Luvšanvandan, Š(1966), Orčin cagiin mongol xelzui, Ulaanbaatar.
- Pürev-Očir, B(2006), Mongol xelnii engiin ba niilmel ögüülberiin xuvilgal, Ulaanbaatar.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шалгуур

А.Нарангэрэл

[Хураангуй]

Уг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зорилго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судалгаанд тулгуурл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шалгуурыг гаргахад оршино.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бие даасан ай болгон авч үзэх талаар маргаантай байдаг.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төдийлөн хангалттай бу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өвөрмөц онцлог чанаруудыг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тусган илэрхийлж гаргав. Юуны өмнө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өмнөх судалгаануудыг ерөнхийд нь цэгцлэн авч үзсэн болно.

Гол бүлэг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судалгаанд тулгуурлан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арван хоёр шалгуураар шалгаж тодорхойлов. Харин үүний найман шалгуураар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тодорхойлж болох талаар авч үзэв.

Голлох үг : туслах үйл үг, гол үйл үг, шалгуур, нийлмэл үйл үг, эрхшээлт шинж.

ХА-ИЙН ИНТЕГРАЦИ: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Б.Лхагваа*

гарчиг

Нэг.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тухай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
2.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үрээнд
3.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т

Хоёр.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2. Улс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
3.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т

[Хураангуй]

Энэ өгүүлэлийн эхний зорилго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энх тайва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түүнчлэн энэ бүсийн орн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үвшин ямар хэмжээнд хүрээд байгаа, цаашид тус бүс нутаг интеграци бүрдэн хөгжих боломж байгаа эсэх, түүнд нөлөөлж буй эерэг, сөрөг ямар хүчин зүйлүүд байна вэ, тэдгээрээс аль нь түлхэц өгч, саад тотгор учруулж байна вэ, саад тотгор учруулж буй сөрөг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 ямар арга зам байж болох вэ гэдэг асуудлуудыг Европын Холбоо (EU), Өмнөд Америк (MERCOSUR), Умард Америк (NAFTA), Зүүн Өмнөд Азийн

* Доктор, УБДС багш

Холбооны (ASEAN) интеграци бүрдэх эхний үйл явцтай харьцуулан судлахад оршино. Дараачийн зорилго нь ЗХА-ийн бүсийн хоёр орон болох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агааг мөн энэ фонон дээр тавьж үзэж,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и бүрдүүлэхэд ямар нөлөө үзүүлэх боломж байгааг авч үзлээ.

Аливаа бүсийн интеграци бүрдэхэд зайлшгүй нөлөөлдөг тэр бүсийн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эм соёлын гэсэн 3 үндсэн хүчин зүйлийг энэхүү хари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ы гол баримжаа үндэс болгож, Lendberg, Hufbauer Schott нар “Integration Achievement Score “(IAS) –аар дэвшүүлсэн бүс нутагт интеграци бүрдсэн эсэх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0-5 шалгуур үзүүлэлтээр авч үзэв.

Зүүн Хойд Ази бол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а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ийн нэг гол тулгуур бүс мөн. Дэлхийн хүн амын дөрөвний нэг, GDP-ийн 22 хувь энэ бүс нутагт үйлдвэрлэгдэж байна. Харамсалтай нь энэ их нөөц бололцоо, эрч хүч, далайцаараа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энэх амгалан байдал, хөгжил дэвшилд интеграцичилагдсан нэгдмэл нэгжийн түвшин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ж хараахан чадахгүй байна. Энэ нь бүс нутаг дахь улс, үндэстнүүдийн доторх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үзэл суртал, үнэ цэнэт зүйлсийн тухай ойлголт, үнэлэмжийн ялгаа, түүхийн гунигт улбаа зэ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Гэхдээ энэ бүс нутагт интеграцийн элементүүд огт бүрдээгүй биш, бүрэлдэх үйл явц өрнөж байна гэсэн дүгнэлтийг судлагаа харуулав. Ялангуяа хүйтэн дайны үе шувтарч, хоёр туйлт систем задран, Хятад улс нээлттэй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 явуулснаар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нэгдсэн бүтэц бүрдүүл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тухай үзэл бодол, санал сүүлийн үед өргөн хүрээтэй дэвшигдэн яригдах болсон нь өнөөгийн нэг онцлог үйл явдал юм. Түүнчлэн ЗХА-ийн хөгжлийн гол гурван улс болох Хятад, БНСУ, Япон 1999 оноос олон тал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эхлэлийг тавин гүнзгийрүүлж байна.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и бүрдэх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эм соёлын 3 гол хүчин зүйлд тулгуурлан 0-5 пунктийн шалгуур үзүүлэлтээр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2005 оны байдлыг EU (1948 он), MERCOSUR (1986 он), NAFTA

(1986 он), ASEAN (1985 он) –ы интеграци үүссэн эхний үе шат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EU, ASEAN, MERCOSUR-ын эхний үе шатаас харьцангуй дээгүүр NAFTA-гийн эхний үеийн түвшинд явж байна. ЗХА-ийн бүс нутаг дотор нь аваад үзэхэд нэгдсэн интеграци бүрдэхэд нийгэм соёл түүний дара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 эерэгээр нөлөөлж, харин улс төрийн хүчин зүйл саад тотгор учруулж байгаа тийм дүр зураг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явц нь ЗХА-ийн бүсийн интерагци бүрдэхэд бүхэлдээ эерэгээр нөлөө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гэхдээ улс төр,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 идэвхтэ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сул байгаа нь ажиглагдав. Мөн Монголын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төлөвшилт Хята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оос дээгүүр байгаа боловч Япон, БНСУ-аас доогуур байгааг анхаарах хэрэгтэй болж байна.

Нэг.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тухай.

Улс орнуудын харилцан хамаарал улам бүр өсөн нэмэгдэж, бүс нутаг, дэлхийн хэмжээг хамарс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дсэн зохицуулалтууд идэвхжиж байна.

Европ(EU), Өмнөд Америк(MERCOSUR), Умард Америк(NAFTA), Зүүн Өмнөд Ази (ASEAN) дахь бүсчилсэн интеграциудад хамрагдсан улс орнуудын хөгжлийн түвшин тухайн бүс нутагтаа ойртож, нэгдсэн стандартад орж,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нь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Хөгжлийн иймэрхүү шинэ бүсүүд ч үүсэ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на.

Тэгвэл Зүүн Хойд Азид байдал ямар байна вэ, энд холбооны маягийн интеграцчилал ер нь хэрэгтэй юмуу, үгүй юмуу, тийм боломж байгаа, эсэх гэх мэтийн зарчмын шинжтэй асуудлууд зүй ёсоор тавигдаж байна. Хэрэгтэй, боломжтой гэж үзэж байгаа бол энэ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 үүнд хэр зэрэг анхаарч, ямар санал санаачилгууд гаргаж ирсэн юм бэ, тэр нь хэр

зэрэг ахицтай явж байгаа юм бэ, хойшид ямар алхмууд хийх ёстой юм бэ, өнөөгийн оло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нь нэгдсэн интеграцийн шинжтэй элемэнтүүд байна уу, байгаа аваас ямар салбар чиглэлүүдийг хамарч байгаа юм бэ, тэр нь бусад бүс нутагт интеграцийн нэгдсэн тогтолцоо бүрэлдсэн эхлэлийн шат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ямар түвшинд байгаа юм бэ? Ер нь бүсчилсэн интеграци ямар үндсэн хүчин зүйлүүдээр тодорхойлогддог юм бэ? ЗХА-д ийм интеграци бүрдүүлэхэд нөлөөлөх эерэг, сөрөг ямар хүчин зүйлүүд байна вэ, тэдгээрээс аль нь түлхэц өгч, аль нь саад тотгор учруулах вэ, түүн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 ямар арга замууд байна вэ гэх мэтийн хариугаа хүлээсэн асуудлууд ч цөөнгүй байна.

Иймд ЗХА-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ерөнхий байдал, дүр төрх, түвшинг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счилсэн бусад төвүүдийн үүсэл, хөгжил, явц байдалтай харьцуулах замаар дээрх асуудлуудыг тодруулах, судлах, шинэ гарц эрэлхийлэхэд санаа нэмэрлэх зорилгоор энэ өгүүллийг толилуулж байна.

ЗХА бол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а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ийн гол тулгуур бүсийн нэг мөн. Яагаад гэвэл, дэлхийн хүн амын дөрөвний нэг энэ бүс нутагт амьдарч, дэлхийн GDP-гийн 22 хувь энд үйлдвэрлэгдэж байна. Энэ бол асар том нөөц, ирээдүй. Харамсалтай нь энэ их эрч хүч, далайцаараа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энх амгалан байдал, хөгжил дэвшилд интеграцичилагдсан нэгдмэл түвшин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ж хараахан чадахгүй байна. Энэ нь бүс нутаг дахь улс, үндэстнүүдийн доторхи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үзэл суртал,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үнэ цэнэт зүйлсийн тухай ойлголт, үнэлэмж,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төлөвшилтийн ялгаа, шинэхэн түүхийн гунигт улбаа, холбогдогч гүрнүүдийн стратегийн бодлого, чиг шугам зэ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нь мэдээж. Гэхдээ энд интеграцчилалын элементүүд огт бүрдээгүй гэвэл, тийм биш. Бүрэлдэх үйл явц урсгалаар өрнөж байна. Сонгодог утгаараа бүрэлдэхийг ч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юм. Ялангуяа 1990-ээд оны эхнээс хүйтэн дайны систем задарч, БНХАУ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о явуулж эхлэснээр ЗХА-д хөгжлийн нэгдсэн

интеграци бүрдүүлэ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тухай үзэл бодол, санал харьцангуй өргөн хүрээтэй яригдах болсон төдийгүй БНСУ 2000-аад оны эхэнд уг асуудлыг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хоо гол зорилт болгон дэвшүүлж, нэлээд идэвх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ирэв. Түүнчлэн бүсийн хөгжлийг тодорхойлогч Хятад, Япон, БНСУ 1999 оноос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түвшин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эхэллээ. Монгол Улс ч энэ бүс нут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асуудлаарх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байнгын механизм бүрдүүлэх талаар урьд өмнө нь дэвшүүлж байсан санал, санаачилгаа 2000 онд дахин нотлосон.

Харин бүсийн хүрээ, түүнд хамруулах орнуудын тухайд гэвэл,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алд тэргүүлэх ач холбогдол өгөгчид ЗХА-ийг бүсчлэхийг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бол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теграцийг эхний ээлжинд тавигчид бүсийн хүрээг тэлж Зүүн Азиар тогтоох чиглэл баримта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хний байр суурь баримтлагчид ЗХА-ийн бүсийн хүрээнд Япон, Умар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ОХУ-ын Алс Дорнод, Хятадын Зүүн Хойд хэсгийн Heilong, Jilin, Liaoning мужуудыг, өргөн утгаар нь ОХУ, Хятадыг хамруулж байна.

Судлаачдын хийсэн дүн шинжилгээ, бусад бүс нутгийн туршлага, явцаас үзэхэд бүсчилсэн хөгжлийн систем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ойртон нягтралт, түүн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нэгдсэн механизм, нийгэм соёлын хүрээ гэсэн харилцан бие биеэ нөхсөн, нягт уялдаатай үндсэн 3 гол хүчин зүйлүүдээс бүрддэг байна. Мэдээж үүнийг зохицуулах механизм хэрэгтэйгээс гадна санаачилан тэргүүлэгч улс орон, лидер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чухал аж.

Тэгвэл одоо ЗХА-ийн бүсийг дээрх үндсэн гол нөхцөл,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н үзүүлэлтээр бусад бүсийнхтэй харьцуулан авч үзье.

1.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 Эрдэмтэн Lindberg, Hufbauer Schott нар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хоорон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лебиралчлах,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д тавих саад тээгийг арилгах, чөлөөтэй шилжиж ажиллах, валют, татварын бодлогын нэгдсэн зохицуулалт хийх, нэгдсэн бүтц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эрхэлж, түүнд саад тотгор учруулах маргаантай асуудлуудыг зохицуулж байх үүрэг бүхий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гуулж ажиллах 5 гол болзлы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 дахь интеграцийн үндсэн шалгуур үзүүлэлт болгож, 0-5 оноогоор индекслэн дүгнэх тухай (Integration Achievement Score. IAS.) санааг анх дэвшүүлсэн нь өнөө хэр гол чиг баримжаа болж буй юм байна.(1*)

Энэ шалгуур үзүүлэлтээр авч үзэхэд EU-гийн хувь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нь 1948 онд 20.9 хувь, 1952 онд 28.4 хувь, гишүүн орнуудын тоо 25 улс болж өргөжсөн 2004 онд 64.2 хувь болон өсч,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гуравны хоёр нь бүсийн дотор явагддаг байна. MERCOSUR-ийн хувь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хлэсэн 1986 онд 10 хувь, 1995 онд 19.2 хувь хүртэл өссөнөө 2005 онд 15.4 хувь болж бүсийн дотор эзлэх жин нь буурч, эсрэгээр бүсийн гаднах орнуудтай худалдаа нь өсчээ. Харин NAFTA-гийн хувьд анх үүсгэн байгуулсан 1986 онд энэ гурван орны өөр хоорондоо хийсэн худалдаа 36.4 хувь байснаа 2005 онд 43.6 хувьд хүрч нэлээд өндөр үзүүлэлттэй явж байна. ASEAN-ы тухайд гэвэл, 1985 онд анхны 6 улсынх 17.9 хувь байснаа 1994 онд 20 хувь, гишүүн орнууд нь 10 болж өргөжсөн ч гэсэн 2005 онд 24.9 хувьтай, төдийлөн өсөөгүй байна. Тэгвэл ЗХА-ийн орнуудын хооронд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1991 онд 13.9 хувь, 2000 онд 20.3 хувь, 2005 онд 23.7 хувьд хүрч, 1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20 хувиар өсчээ. (2*)

Үүнээс үзэхэд ЗХА-ийн орнуудын өөр хоорондоо хийж буй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энэ талаар бие биенээсээ хамаарах хамаарал нь интерац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д ороогүй ч гэсэн EU-гийн эхний үе, ASEAN-ы 1990-ээд оны сүүлчтэй ойролцоо, харин MERCOSUR-ээс дээгүүр, NAFTA-гаас доогуур үзүүлэлттэй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Гадаа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увьд EU 1990-ээд оны эхэн үед 60 хувь байснаа 2000-аад онд 70 хувьд хүрч өндөр үзүүлэлтээ хадгалж яваа

бол MERCOSUR 1987 онд 2.3 хувь, 1995 онд 4.9 хувь, 2005 онд 4.6 хувь орчим болж доогуур үзүүлэлттэй явж байна. NAFTA 1986 онд 27.8 хувь, 1994 онд 20.6 хувь, 2005 онд 19.5 хувь хүртэл буурч, ASEAN 1995 онд 16.5 хувь, 2002 онд 25.9 хувь, 2005 онд 9.2 хувь болон өгсөж, уруудан хэлбэлзсэн байна.

Тэгвэл интеграцийн нэгдсэн бүтэц болж чадаагүй ч ЗХА-ийн орнуудад оруулсан гадны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1991 онд 2.7 хувь, 1990-ээд оны дундуур 10 хувь, 2000 оны эхээр 5.9 хувь болон огцом буурснаа 2005 оны байдлаар 21.1 хувьд хүрч эргэж өссөн нь (3*) MERCOSUR –аас өндөр, ASEAN-тай ойролцоо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на. Харин portfolio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EU /60 гаруй хувь/ бусад бүсээс илт давуу, ASEAN, NAFTA хоёр эхний үед 10 гаруй хувьтай, MERCOSUR, ЗХА 1-2 хувьтай маш доогуур явна. EU ийнхүү өндөр үзүүлэлттэй байгаа нь нэгдсэн валютын системд шилж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нь мэдээж.

Эдийн засгийн өндөр өсөлттэй яваа Хятад, дэлхийд хөгжлөөрөө удаалах Япон, хөгжингүй орны түвшинд дөхөж байгаа БНСУ-ын бүс нутаг доторх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эзлэх байр суурь, жин, бие биенээсээ хамаарах хамаарлыг арай дэлгэрүүлж авч үзвэл, Хята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аар БНСУ-ын нэгдэх, Японы хоёрдахь түнш,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дээрх хоёр орны 13 дахь түнш, Япон нь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аар Хятадын хоёрдахь, БНСУ-ын хувьд гуравдахь түнш,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БНСУ-ын хоёрдахь, Хятадын дөрөвдэх түнш, БНСУ нь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аар Хятадын дөрөвдэх, Японы гуравдах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Хятадын хувьд нэгдэх, Японы хувьд 11 дэх түнш болж явна. Түүнчлэн 2.1 териллион доллар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тэй, 1.5 териллион долларын валютын нөөцтэй Хятад, 1.3 териллион доллар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тэй, 973.4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ын валютын нөөцтэй Япон, 728.3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тэй, 262.2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ын валютын нөөцтэй БНСУ (4*) энэ гурван орны хооронд эдүүгээ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судалгаа

үргэлжилж,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ид явагдаж байна. Энэ бол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 лебиралчлах,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саад тээгийг арилгах чиглэлд гарч буй томоохон ахиц дэвшил мөн.

Түүнчлэн сүүлийн үед энэ гурван улс дэлхийн сан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ыг бүс нутгийн хэмжээн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хамтран гэтлэн давах зорилгоор “Бизнесийн орчинг сайжруулах “Action Agenda”-г гаргаад байна. Мөн Сангийн сайд нар, Төв банкны захирлуудын уулзалтуудыг тогтмолжуулах,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ий үндэсний валютыг нөгөө талдаа байршуулах, АСЕАН+3-ийн хүрээнд санхүүгийн фонд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 Чианы санаачилгыг дэмжих, Азийн бүсийн эдийн засаг, санхүүгийн зах зээлийн мониторингийн хяналтын системийг сайжруулах, сан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ын улмаас Азийн шинэ тулгар хөгжиж буй орнууд дэд бүтцийн хөгжил,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даа алдагдлын эрсдэл хүлээхээс хамгаалах, үүнд Азийн хөгжлийн банкны (ADB) зүгээс үзүүлэх дэмжлэг туслалц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 авах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айна.

Үүнээс гадна Фукуокад 2008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д болсон энэ 3 орны д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ын үр дүнд гарс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г “ачаа тээврийн саадгүй дамжин өнгөрөх”(seamless) системийг бүрдүүлэх, байгальд ээлтэй ачаа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лийг түлхүү ашиглах, ачаа тээвэрлэлтийн үр ашиг, найдварта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тал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алаар дорвитой зорилтууд тусгагдсан байна.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хэлэхэд ЗХА-ийн төмөр замын сүлжээ нь бүс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бүрдэхэд түлхэц үзүүлэх дэд бүтцийн нэг чухал хэрэгсэл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Европын Холбоонд ч тийм байсан. Жишээлбэл, ачаа тээврийн вагонуудаа хамтран ашигла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а, энэ талаар байгуулсан энгийн гэрээ, хэлэлцээр яв явсаар төмө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ийг Европт төрүүлсэн төдийгүй Европын Холбооны эхлэл болсон Парисын гэрээ хэмээн алдаршсан 1951 оны 4 дүгээр сарын 18-ны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ийг байгуулахад томоохон түлхэц үзүүлсэн билээ.

ЗХА-ийн хувьд агаарын тээврийг оролцуулахгүй бол Хятадын Зүүн Хойд хэсэг, ОХУ-ын Алс Дорно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 нь эх газар, далайн тээврийг хослуулсан, Монголын хувьд далайд шууд гарцгүй, үүний эсрэгээр одоогоор Яп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эх газарт мөн шууд нэвтрэх гарцгүй байна. Бүс нутаг дотроо авч үзвэл, БНХАУ-ын хөгжлийн өндөр хурдац, Хятад, Яп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ачаа тээврийн асар их эргэлт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а нь хурдан, найдвартай, багтаамж ихтэй, ойрын хийгээд алсын тээврийн хэрэгслийг улам бүр шаардаж байна. Энэ бол төмөр зам юм. Төмөр замын ачаа тээвр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бүрдэж,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ох тусам бүс нутаг дотроо ч тэр, гадагшаа ч тэр үнэ тариф хямдарч,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 нэмэгдэнэ.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Пусаны боомтоос Финлянд хүрэхэд далайгаар 35 хоног зарцуулагддаг бол төмөр замаар энэ хугацааг бараг нэг дахин товчлох боломжтой гэсэн тооцоо гарч байна. Өөр нэг томоохон давуу тал нь Транссибир (TSR) - ийн болон Хятадын төмөр зам(TCR) - аар дамжин Европ хүртэл алсын зайд шууд холбогдох боломж нийт бүс нутгийг хамарч бүрдэнэ. Энэ чиглэлийн гол шугамууд нь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Солонгосын (TKR), Манжуурын (TMR), Монголын (TMGR), Хятадын (TCR) коридор бөгөөд зайн хувьд Пусанаас Берлин хүртэл TMR (10.519 км) түүнчлэн TMGR(11. 250 км) хамгийн дөт нь юм.

Эдгээр коридор, шугамууд нь өөртөө асар их нөөц боломжийг дагуул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Сибирээс Алс Дорнод хүртэлх өргөн уудам нутаг, ОХУ-ын нүүрсний 65 хувь, нефт боловсруулалтын 20 хувь, мод бэлтгэлийн 25 хувийг эзлэх байгалийн асар их нөөц баялагийг 10 мянган км дамжин туулдаг Транссибирийн коридориор жилд 100 сая тонн ачаа тээвэрлэгдэж, Москвагаас Владивосток хүртэлх тээвэрлэлтийн хугацаа 40 хоногоос 10 хоног хүртэл богиносж, тээврийн зардал 5-10 дахин хямдарсан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ЗХА-ийн бусад улс орнуудтай хил залгаа болон ойрхон байрлалтай Хятадын дээр дурдсан 3 мужийн төмөр зам Хятадын нийт төмөр замын 26.4 хувийг эзэлж, зорчигч тээврийн дөрөвний нэг, ачаа тээврийн

тавны нэгийн (5*) үүргийг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гаас үзэхэд Хятадад өөрт нь ч, ЗХА-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д ч стратегийн хэр зэрэг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айна.

Уул уурхайн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олборлолтоор олон улсын анхаарлыг татаж эхэлж буй Монголын хувьд ч төмөр замын сүлжээгээ өргөтгөх, тээвэрлэх, дамжуулан өнгөрүүлэх хүчин чадлаа нэмэгдүүлэх зорилт тулгараад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 төмөр замынхаа шугамыг баруун, зүүн далайн эргээрээ 2006 онд сэргээн холбосон нь түүхэн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хэрэг болсон юм. Ингэснээр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төмөр замын бие даасан шугам (TKR) бий болж, ачаа тээврийн шинэ орон зай үүсэхээр зогсохгүй бүс нутгийн төмөр замын нэгдсэн сүлжээний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нь болж байгаа юм. Харамсалтай нь энэ шугам бүрэн хэмжээгээр үүргээ гүйцэтгэж чадахгүй,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ачаа бараа тээвэрлэгдэхгүй байна. Гэхдээ энэ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ирээдүй өөд чиглэсэ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олбогдогч орнуудын зүгээс төмөр замын салбарт сүүлийн үед авч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болон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гаа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TSR, TCR-тэй TKR холбогдох итгэл найдварыг төрүүлж байна.

ЗХА-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га хурлын Тээврийн дэд хороо энэ бүсийн тээврийн сүлжээ бүрдүүлэхийн төлөө ихээхэн чармайж байна. Юуны өмнө TKR-ийг бүрэн хэмжээгээр ашиглах тохиролцоонд хүрэх, түүний дараагийн шатанд хамрагдагч орон бүрийн бодлогыг тодорхойлох, нэгдсэн ойлголтод хүрэх, коридоруудыг тэргүүлэх ач холбогдлоор нь сонгох, ЗХА-ийн бүсийн хөгжлийн банк(NEADB) гэх мэтийн санхүүгийн нэгдсэн эх үүсвэр бүрдүүлэх, төмө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хоцрогдлыг арилгаж, шинэчлэх, дамжин өнгөрүүлэлт, тээвэрлэлт, хил гаалийн нэгдсэн стандартчилал, мэдээлэлд орох, бүс нутгийн гаднах сүлжээнүүдтэй үр ашигтай байдлаар холбогдох бэлтгэлийг хангахад анхаарахыг дээрх дэд хороо зөвлөж буй юм байна. (6*)

Хятад, БНСУ, Японы гурвалсан хүрээнээс хальсан олон талт бусад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тус бүс нутагт өрнө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ЗХА-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га хурал 2000 онд хуралдав. Улаанбаатарт 2005 онд энэ бүсийн бүх орнуудын эрчим хүчний өндөр хэмжээний хуралдаан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эрчим хүчний зөвлөлдөх механизм бүрдүүлэхэд анхаарал тавьж байна. Мөн бүс нутгийн хэмжээнд цаг уурын өөрчлөлт, цөлжилт, шар шороон шуурга, байгалийн бусад гамшигтай хамтран тэмцэх, хүрээлэн байгаа орчныг хамгаалах,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хөтөлбөр боловсруулж хэрэгжүүлэх, байгальд ээлтэй эрчим хүчний шинэ эх үүсвэрийг ашиглахад чиглэсэ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NEASPEC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болон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ийн шугамаар явагдаж байн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рээнд базаж хэлэхэд ЗХА-ийн орнуудад бүс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ийн түвшинд зангигдаагүй боловч энэ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интеграцийн элемент зарим талаар бүрдэж, тэр нь бүсчилсэн бусад интеграцийн эхний шатнаас дээгүүр хэмжээнд явагда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Харин БНСУ-ын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д монгол, хятадын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д хята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өн тооны гэрээт ажилчид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гаа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г эс тооцвол чөлөөтэй шилжиж ажиллах нөхцөл энэ бүс нутагт одоогоор хязгаарагдмал байна.

2.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үрээнд. Европт газар нутгийн маргаан болон үндэстэн хоорондын асуудал байсан ч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н тогтолцоо, ардчилал сонгодог утгаараа хөгжиж ирсэн түгээмэл шинжтэй юм байна. Бас хөгжлийн түвшин харьцангуй жигд аж. Дэлхийн хоёрдугаар дайны сэргээн босголтын дараа эдийн засаг өндөр өсөлттэй хөгжиж, ардчилал улам бэхжсэн байна. Бас Герман нэгдэж, Зүүн Европын хуучин коммунист дэглэмтэй орнууд чөлөөт зах зээл, ардчилалын зам руу эргэсэн нь Европыг бүхэлд нь ойртон нягтруулахад хүчтэй түлхэц өгчээ.

NAFTA-гийн хувьд Мехик нөгөө хоёроосоо сул хэдий ч чөлөөт зах зээл,

ардчилалын ижил тогтолцоо нь энэ гурван улсыг холбосон байна.

MERCOSUR-ийн зарим оронд ардчилсан бус, цэргийн дэглэм ноёрхож ирснээ 2000-аад онд ардчилал,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н тогтолцоо сэргэн хөгжиж байна.

ASEAN-ы гишүүн 10 орон кончлолын ноёрхолд байсан ижил төстэй талтай хэдий ч нэгдсэн интерацид орох үедээ улс төр,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увьд ихээхэн эрээвэр хураавар шинжтэй байснаараа онцлогтой юм. АНУ-ын нөлөөнд байсан Тайланд, Филиппинд ардчилал харьцангуй хөгжсөн, Индонези, Малайз, Сингапур, Бруней хүнд сурталт төртэй, Вьетнам, Лаос, Мианмар, Камбожид улс төрийн олон намын тогтолцоо хэрэг дээрээ байхгүй, Бруней, Малайз, Сингапураас бусад нь шинэ тулгар хөгжиж байгаа орнууд аж. Гэсэн хэдий ч хүйтэн дайны үе шувтарснаар тус холбоог тэргүүлэгч гол орнуудад зах зээл, ардчилалын тогтолцоо улам бүр гүнгийрч байна.

ЗХА-ийн тухайд байдал ямар байна вэ? Яп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анхнаасаа нийгмийн ардчилал,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гтолцоог сонгосон орнууд. Монгол улс 1990-ээд оноос чөлөөт зах зээл, ардчилалын замд орж, шилжилтийн шатандаа явна. Хүйтэн дайны үеийн шувтаргаас эхлэн ЗХА-ийн орнуудын харилцаанд гарсан нааштай нэг шинэ өөрчлөлт бол БНСУ-тай Монгол, Хятад, ОХУ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БНСУ энэ бүс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идэвхтэй түншлэгчийн нэг болсон явдал юм.

Гэхдээ энэ бүс нутагт нийгмийн хоёр өөр байгуулал одоо хэр зэрэгцэн оршиж,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рацид гол үүрэгтэй Хятадад зах зээлийн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о хэрэгжиж байгаа боловч нэг нам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нь тодорхойлж байна. Умард Солонгос ихээхэн өвөрмөц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түүнийг тойрсон маргаантай асуудал эцэслэн шийдэгдээгүй байна. Ер нь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асуудал нэлээд нарийн түвэгтэй, эмзэг асуудал юм. Энэ Хойг нийгмийн хоёр өөр байгуулалд хуваагдсан нэг үндэстний өөр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ны объект болдогоос

гадна нөгөө талаар Хятад, Япон, ОХУ, Америкийн стратегийн эрх ашиг хөндөгдсөн хүйтэн дайны үеийн цорын ганц цэг болоод байна. Гэхдээ шинэ зуун гарсаар тус Хойгт бүхэлд нь авч үзэхэд урьд өмнөх үеэ бодвол зарим нааштай ахиц гарч эхлэв. Тухайлба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зогсооход чиглэсэн 6 талт хэлэлцээ явагдаж, талуудын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н үр дүнд тодорхой зарим тохиролцоонд хүрсэнээс гадна 2000 оноос Сол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ын харилцаа улс төр, цэрэг, эдийн засаг, хүмүүнлэгийн салбарт ойртон өргөжиж байгааг бид харж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1971-2007 он хүртэлх 36 жилд Умар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хооронд улс төр, цэргийн салбарт 292,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т 96, хүмүүнлэг, нийгмийн салбарт 197 нийт 585 уулзалт,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ийгдсэний 390 нь сүүлийн 7 жилд болсон байна (7*).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яриа хэлэлцээ 2000, 2007 онд болсон бөгөөд гуравдахь уулзалт энэ онд бас боло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Мөн төмөр зам, хуурай замаа холбож, агаар, усан замаа бие биендээ үе үе нээж байна. Зогсонги байдалд орсо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сэргэж байн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тай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Кесон хотод ажиллаж байна. Хэн хэнтэйгээ харилцах зарчмаа тодотгож, хамтдаа цэцэглэн хөгжих,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одит үр нөлөөг дээшлүүлэх чиглэлд анхаарч байна. Хоёр талын энэ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үе үе хүндхэн саад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ч байгаа боловч түүний ирээдүй бидэнд өөдрөгөөр төсөөлөгддөг. Энэ үндэстэн гарцаагүй нэгдэнэ, тэгэх ч учиртай. Тэгснээрээ бүс нут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ал, хамтын хөгжил дэвшилд өөрийн хувь нэмрийг оруулах нь дамжиггүй.

ЗХА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өөр нэг сөрөг тал бол зарим орных нь хооронд түүх, газар зүйн маргаан, сурах бичгийн асуудал, харилцан үл ойлголцох, үл итгэлцэх явдал бүрэн арилаагүй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Гэвч сүүлийн 1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БНХАУ, Япон, БНСУ-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яриа хэлэлцээ тогтмолжиж,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ь өргөжиж, бүс нут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д хамтарч санаа тавьж буй тэрхүү үйл явц өөрөө томоохон

ач холбогдол агуулж, найдлага төрүүлж байна. Интеграцийн нэгдсэн систем эхний шатандаа тухайн бүсийн гол цөөн орноор эхлэсэн EU, MERCOSUR, ASEAN-ны туршлага ч бий. Хэдийгээр эхлэлийн шатанд байгаа ч дээрх 3 орны уулзалтын зохицуулал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н механизм нэлээд биежиж,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охиролцооны хүрээ, чиглэл нь тодорч, тэдгээр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дүгнэх, цаашдын зорилтоо тодорхойлох явдал цэгцэрч буй дүр зураг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улс төрийн салбарт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сайд нарын уулзалт хийгд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нарын газар (TCCS.Trilateral Cooperation Cyber-Secretarial) байгуулахаар тохиролцож, 2008 оны Фукуокагийн уулзалтаар “Хятад, БНСУ, Япон гурван улсы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амтарсан мэдэгдэл”, “Валют сан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амтарсан мэдэгдэл, “Байгалийн гамшгийн эсрэг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ятад, БНСУ, Япон гурван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амтарсан мэдээ” тус тус гаргаж, “Хятад, БНСУ, Япон гурва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батласныг 2009 оны Бээжингийн уулзалтар баяжуулав.

Энд анхаарал татаж буй шинэ зүйл бол гурвалсан харилцааныхаа зарчмыг түншлэлийн түвшинд гаргаж тодорхойлсон явдал юм. Энэ тухай дээрх мэдэгдэлд гурван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эрчтэй, өөр хоорондоо нягт уялдаатай хөгжиж байгааг тэмдэглээд нээлттэй, ил тод, харилцан итгэлцсэн, хамтын эрх ашиг, соёлын олон талт байдлыг харилцан хүндэтгэсэн зарчимд тулгуурлан бүсийн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энх тайван, цэцэглэл хөгжил, тогтвортой ирээдүйг цогцлон байгуулах, зорилт, үүрэг хариуцлагыг хамтдаа үүрч, эл зорилтод хамтын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ахаа зарлан тунхагласан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гурва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т улс төр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сайд нарын уулзалт, холбогдох яамдын газрын ерөнхий захирал нарын уулзалт,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нарын газ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санхүү, эрчим

хүч, тээвэр/, хүрээлэн байгаа орчныг хамгаалах,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 соёл, хүүхэд залуучуудын солилцоо, эрүүл мэнд, спорт/, олон улсын давцан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цаг уурын өөрчлөлт, Африкийн энх тайван, хөгжлийн талаар явуулах бодлого, Азид явуулах бодлого, Умард 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асуудлаарх 6 талт хэлэлцээ, НҮБ-ын үйл ажилагаанд өөрчлөлт, шинэчлэлт хийх асуудал, цэрэг, зэвсэглэлийг хорогдуулах, үй олноор хөнөөх зэвсгийн тархалт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г.м./ үндсэн чиглэлүүд тусгагдсан байна.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үрээнд авч үзэхэд ЗХА 1990 –ээд он хүртэл интерацид огт бэлэн биш байсан бол 2000 он гарсаар холбогдогч гол орнууд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олон талт уулзалт тогтмолжин бие даасан шинжтэй болж,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асуудлаар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ийгдэж, Сол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ын харилцаа зарим үед зөөлөрч, ер нь бүс нутгийн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амты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ийн төлөөх ухамсар нэмэгдэх хандлагатай болж ирж байна.

3.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т.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ард түмний соёл иргэншил, сэтгэл зүйн онцлог, амьдралын хэв шинж, түүний ижил төстэй талууд, бие биендээ хандах хандлага,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төлөвшилт зэрэг нь энэ салбарын интеграцийн гол үзүүлэлт болох юм.

Эхлээд ЗХА- ийн бүсийн хувьд авч үзье. Бүсийн Монголоос бусад үндэстнүүд бүгдээрээ суурьшмал соёл иргэншилтэй, ихэнх нь газар тариалан эрхэлж ирсэн уламжлалтай, дорнын зан үйл,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давамгайлсан шинжтэй байна. Нүүдлийн соёл иргэншилт монголчуудын сүүлийн 50-иад жил нь уламжлалт болон суурьшмал соёл иргэншил хослосон байдалтай явж байна. Христосын ортодокс- үнэн алдартны шашинтай ОХУ-аас бусад нь буддын шашинтай, бас Хятадын күнзийн үзэл санаа энэ бүс нутгийн ард түмний дунд өргөн тархсан байна. Хэлний хувьд Урал-Алтайн бүлэгт хамрагддаг, гарвал үүсэл нэгтэй буюу ойролцоо

үндэстэн ч бий. Япон,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д хятадын дүрс бичиг олон зууны турш хэрэглэж ирсэн, одоо ч хэрэглэдэг. Хятад улс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о явуулж эхлэснээр сүүлийн үед эдгээр орнуудын ард түмэн харилцан зорчих нь нэмэгдэж,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 боловсрол, хүмүүнлэгийн салбаруудын солилцооны хөтөлбөрүүдээр дамжуулан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х, соёлын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ойртох үйл явц нэлээд ахицтай явагда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ирээдүй өөд чиглэсэ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ухамсар давамгайлж, хүүхэд залуучуудын солилцооны хөтөлбөрүүдэд дээд хэмжээнд ихээхэн анхаарал тавьж байна.

Нийгмийн сэтгэл зүйн хувьд аваад үзэхэд ЗХА-ийн дорнын соёлт улс, үндэстнүүд нь гол төлөв овог омгийн ахлах эрэмбэлэл,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ын дарангуйлал, захиргаадалтын хэв шинж хүчтэй уламжлагдаж ирсэн онцлогтой. Түүн дээр нийгмийн хоёр өөр байгуулал, үзэл сурталд хуваагдаж ирсэн бөгөөд одоо ч түүний ул мөр хадгалагдсан хэвээрээ байна.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төлөвшил Япон, БНСУ-д нэлээд өндөр, Монголд сул, Хята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 ямар түвшинд байгаа нь тодорхойгүй байна.

EU-гийн гишүүн орнуудын ард түмний хувьд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хөгжил, дэвшлийн гол эх сурвалжийн нэг болсон грек – ромын соёлын эртний их өв уламжлалтай, христос шашинтай. Бас нийгмийн сэтгэл зүй, хандлага нь соёлын энэ уламжлалаа хадгалсан илүү нэгдмэл шинжтэйгээрээ ялгардаг. Өөрөөр хэлбэл соёлын ижил төстэй талууд нь бусад интерацчилагдсан бүсүүдээс хүчтэй шинжтэй. Ялангуя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тэднийг холбон нэгтгэдэг энэхүү уламжлалаа ойртон нягтрах,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шинэ ухамсраар баяжуулж яваа ард түмнүүд юм.

NAFTA-гийн хувьд Мехсик, АНУ хоёр дайтаж байсан, газар нутгийн түүхэн маргаантай, энэ нь үе үе сөхөгддөг, нэг нь англи хэл, нөгөөх нь испани хэлтэй, Мехсикт протестан, АНУ-д католик шашин голлодог боловч хоёулаа бүхэлдээ христос шашинтнууд юм. Харин Канад, Америк хоёр бол түүх, хэл, соёлын хувьд их ойр дотно, түүнийгээ дагаад харилцаа нь

ихээхэн ойртон нягтарч яваа орнууд.

MERCOSUR-ын гишүүн орнууд Португал, Испаний колончлолд байсан, энэ хоёр хэлээр голдуу ярьдаг, католог шашинтай орнууд юм.

ASEAN-ны хувьд их сонин онцлог байдал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Шашин шүтлэгийн талаас нь аваад үзэхэд, Индонез, Малайз исламын, Тайланд буддын, Сингапур күнзийн үзлийн уламжлалтай, Филиппин католог шашинтай. Үндэстнийх нь хувьд аваад үзэхэд, тай, хятад, малай үндэстнээс бүрдсэн байна. Хэлний хувьд англи хэлээр нэвтрэлцэх авч бас өөр өөрийн хэлтэй. Өөрөөр хэлбэл, ASEAN-ны бүсийн интеграци нь нийгэм, соёлын хувьд өөр хоорондоо ялгаатай гарвал үүсэл, хэл, шашин зэрэгцэн оршсон олон талт соёлоос бүрджээ.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төлөвшилт Европт сэргэн мандалт, аж үйлдвэрийн хувьсгал, Францын хувьсгал зэрэг томоохон үйл явдлуудаар дамжин биелэлээ олж, эдүүгээ хамгийн өндөр үзүүлэлттэй явж байгаа бол NAFTA-д АНУ, Канадын ард түмний хууль, төрт ёсны үйл амьдралд сайн дураараа оролцох иргэд,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нийгмийн идэвх, оролцоо өндөр, харин Мехсик тэдгээрт хараахан хүрээгүй явна. MERCOSUR, ASEAN-ны хувьд ойролцоо түвшинтэй байгаа бололтой.

Дээрх харьцуулалтаас үзэхэд, ЗХА-ийн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дсэн систем бүрдэхэд нөлөөлөх нийгэм, соёлын хүчин зүйлийн үүрэг рол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ынхаасаа дутахааргүй байдалтай, бусад хүчин зүйлүүддээ нааштай нөлөө үзүүлэх чадвартай байдал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Тэгээд ч хэл, үндэс угсаа, шашин шүтлэгийн ялгаа гэхээсээ илүү аж төрж буй бүс нутгийнхаа цэцэглэл, хөгжил, дэвшлийн төлөө нягтарч хамтарч ажиллах нийгмийн шинэ ухамсарын төлөвшилтийн түвшингээс эцсийн үр дүн шалтгаалдгийг бусад бүсийн холбоо ялангуяа ASEAN-ны туршлага бэлээхнээ харуулж байна.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үзүүлэлт(8*) 0-5 хувиар

Үнэлэх хүчин зүйлс	EU		ACEAN		MERCOSUR		NAFTA		ЗХА	
	1948	2005	1985	2005	1986	2005	1986	2005	1991	2005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үзүүлэлт (дунджаар)	1.67	5.00	1.33	2.00	1.33	1.33	2.67	3.00	1.33	2.33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интеграцийн үзүүлэлт (дунджаар)	3.33	4.33	3.33	3.67	3.00	4.00	3.33	3.00	1.33	2.33
Нийгэм, соёлын интеграцийн үзүүлэлт (дунджаар)	2.33	5.00	2.33	3.67	2.00	3.67	3.00	4.33	2.00	3.67
Интерацийн ерөнхий түвшин	2.8	4.83	2.25	3.09	1.83	3.08	2.58	3.25	1.42	2.58

Дээрх харьцуулсан үзүүлэлтээс үзэхэд, ЗХА дахь бүс нут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дсэн интераци бүрдэхэд нийгэм, соё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чин зүйл эерэгээр нөлөөлж, үйл явцыг нь хурдасг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 харин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үчин зүйл сөргөөр нөлөөлж, тээг саад учруулж байгаа дүр зураг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Гэхдээ бүхэлд нь авч үзэхэд ЗХА-ийн бүс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дсэн интераци хараахан бүрэн хэмжээнд бүрдээгүй ч 2005 оны түвшин нь EU (1948 он), ASEAN(1985он), MERCOSUR(1986 он)-ын бүсчилсэн интераци бүрэлдсэн үйл явцын эхний үе шатаас харьцангуй дээгүүр, NAFTA(1986он) –гийн эхний үеийн хэмжээнд явж байна.

Хоёр.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ЗХА-ийн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фонон дээр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г тавьж хураангуйлж үзье.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д ардчилал, чөлөөт зах зээл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онголтыг өөртөө хийсэн даруйдаа

тэр үеийн Азийн социалист орнуудаас БНСУ-тай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1990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26-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билээ. Хоёр тал энэ онд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нхээ ойг хамтран тэмдэглэж байна. Энэ хугацаанд тус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нийгмийн амьдралын бүх салбарыг хамран 2 шатыг дамжин эрчимтэй өргөжин хөгжиж байна. Эхний шат нь 1999 онд Ерөнхийлөгч Ким Дэ Жүний Монгол улсад хийсэн төрийн айлчлалын үеэр гаргасан хамтарсан мэдэгдэлд тодорхойлсончлон “харилцан бие биеэ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е шат байсан бөгөөд хоёрдохь шат нь 2006 оны Монгол, БНСУ-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 нарын хэлэлцээгээр уг зарчмыг 21 дүгээр зуунд улам бататган өргөжүүлж, “сайн хөршийн, найрамда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үншлэл”-ийн түвшинд гарган гүнгийрүүлсэн үеийг хамарч байна.

1.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БНСУ гадаадын 148 орон, олон улсын 46 байгууллагатай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үвшинд хоёр талын 2000-аад (9*) эрх зүйн баримт бичиг байгуулсны 26 –г нь Монгол Улстай, өөрөөр хэлбэл Монгол улс тус улстай байгуулсан гэрээ, хэлэлцээр, Санамж бичгийн тоогоор эхний 14-т багтаж байгаа нь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гоод харьцангуй удаагүй гэхэд муугүй үзүүлэлт юм. Эдгээр баримт бичгийн нэлээд хэсгийг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татвар, зээл тусламжийн холбоотой, тухайлбал тус хоёр улс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1991/,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хөхиүлэн дэмжих, харилцан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1991/, Эдийн засаг,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1991/, Давхар татвар ногдуул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1992/, Агаары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1992/, Гаал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эд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1993/, Эрчим хүч, уул уурхай, эрдэс баялаг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үүд эзэл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бүтэц, зах зээл, хэрэглээний чиглэл 1990-ээд оноос өөрчлөгдөж, худалдааны шинэ түншүүд бий болсны нэг нь БНСУ юм. Тус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эргэлт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дараахан 1991 онд 8.8 сая доллар байсан бол 2007 оны байдлаар 161.1 сая долларт хүрч, 17 дахин өсчээ (10*). Тус хоёр улс хоёулаа WTO-гийн гишүүн бөгөөд Доктор Г.Мөнхнасангийн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наас үзэхэд хэрвээ энэ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FTA) байгуулвал хоёр талын худалдаа 2.1 хувиар, хоёр улсын дотоодын нийт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 1 хувиар өсөхөд худалдаа 0.3 хувиар, нэг хүнд ногдох бодит орлого 1 хувиар нэмэгдэхэд худалдаа 0.5 хувиар тус тус өсө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12*) Тэрээр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ЧХХ байгуулах бололцоотой гэж үзжээ. Мөн профессор Сим И Сөб хоёр талын тарифын давуу эрх олгос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арсан бүс байгуулах (Common Preferential Tariff Area) асуудлаар хэлэлцээ хийж эхлэхийг санал болгосон байна(13*). Энэ оноос хэрэгжих учиртай Монголын Дорнод бүсийг хөгжүүлэх хоёр улсын хамтарсан төсөл үүний яваандаа ийм бүсийн эхлэл болж болох юм.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увьд БНСУ-ын зүгээс Монголд 1991 оноос хойш 130 сая доллар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ж, тус улсын 1100 гаруй аж ахуйн нэгж Монголд, Монголын 150 орчим нэгж БНС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н худалдаа,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т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на. БНСУ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Хятад, Канадын дараа гуравт орж,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4 дэх түнш болоод байна. Үүнээс гадна Монголын хөгжилд зориулж БНСУ-аас олгох зээл, буцалтгүй тусламж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ихээхэн хэмжээгээр нэмэгдэж, 1991 оноос хойш 83.6 сая долларын зээл, 23.8 сая долларын хөгжлийн албан ёсны тусламж Монгол улс авчээ. Даланзадгадын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нэг удаагийн тариурын үйлдвэр, хатуу хучилттай зам, зүүн чиглэлийн шилэн кабелийн сүлжээ,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г хянах систем, нийслэлийн дагуул хотуудын холбоожуулалт, төрийн болон

улсын онцгой комисс, хилийн цэргийн холбооны өргөтгөл шинэчлэл, мэдээ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парк, хэд хэдэн томоохон лаборатори, шинжилгээний төвүүд зэрэгт зориулагдсан байна.

Хойшид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ийн тулд Монголын талы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нэр төрлийг олшруулах, боловсруулс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ув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худалдааны алдагдлыг багасгах, хоёр тал татварын хөнгөлөлтийн хүрээг өргөжүүлэх, Солонго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түлхүү о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ж байна. Тэрчлэн харилцан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агааг улам идэвхжүүлэх нөөц боломжийг бүрэн дүүрэн ашиглах нь ч чухал юм. Тухайлбал уран, зэс, коксжих нүүрс зэрэг Монголын эрдэс баялаг, байгальд ээлтэй газар тариаланг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мал аж ахуйн гаралтай түүхий эдийн нөөцийг Солонгосын тэргүүний технологи, хөрөнгийн давуу талыг үр ашигтай хослуулж,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ирээдүй байна. Мөн нэг талаас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Эрдэс баялагий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нөгөө талаас байгалийн нөөц баялагаа эргэлтэд оруулж хөгжлөө хурдасгах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онирхол нийцэж байгаа нь ч харилцан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давуу талыг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түвшинд баталгаажуулж өгч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боломж, ашиг сонирхлын нийлбэр байна. Үүн дээр улс төр,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болон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ын харилцааны нааштай хүчин зүйлс эерэгээр нөлөөлөх нь дамжиггү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өр нэг зүйл бол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 дэх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юм. БНСУ-д одоо 30-аад мянган монгол иргэн ажиллаж, сурч, амьдарч байгаагийн 80 гаруй хувь нь тус улсы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үүдэ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1998 оноос хойш мөн түүнээс ч цөөнгүй тооны ажилчи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уцаж ирсэн.

2. Улс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ихээхэн ойр дотно, өвөрмөц шинжийг агуулдаг. Юуны өмнө тус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улс төрийн маргаантай асуудал байхгүй. БНАСАУ-тай ч, бүс нутгийн бусад орнуудтай ч мөн тийм. Энэ нь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х,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эх, бүс нутгийн хэмжээни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рагшлуулахад ихээхэн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давуу тал юм. Мөн хоёулаа ардчилсан, зах зээлийн тогтолцоотой орнууд.

Үүнээс гадна тус хоёр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эрх ашигт холбогдох ижил төстэй, нийтлэг хэд хэдэн хүчин зүйл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аль аль нь их гүрнүүдийн хүрээлэл дунд оршиж байгаа тул тэдгээрээс хамаарал ихтэй, тэр хамаарал нь нэг орноор зогсохгүй хэд хэдэн орны стратегийн эрх ашгийг шууд болон дам байдлаар хөнддөг талтай. Хоёрдугаарт, олон талын ийм эрх ашгийн солбилцол нь нэг талаар томоохон боломж, нөгөө талаар эс боломж буюу үндэсний эрх ашигт нь сөргөөр нөлөөлөх эмзэг талыг агуулдаг. Гуравт, ийм онцлог нөхцөлд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хаа таатай гадаад орчинг бүрдүүлж,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т өөрийн гэсэн орон зай, байр сууриа эзэлж, бататгах адилхан зорилт манай хоёр оронд тавигддаг. Эцэст нь дээрх ижил төстэй талууд нь өөр хоорондоо илүү ойртон нягтра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г төрүүлж болох юм.

Өөр нэг зүйл бол улс төрийн хүрээнд хоёр орны өндөр,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давтамж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Үүнийг дараах үзүүлэлт хар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 БНСУ-ын өндөр, дээд хэмжээний айлчлал

БНСУ-д хийсэн айлчлал Монгол улсад хийсэн айлчлал

1991.03. ГЯЯ-ны сайд Ц.Гомбосүрэн

1991.10. Ерөнхийлөгч П.Очирбат

1999.10. УИХ-ын дарга Р.Гончигдорж

1999.11. Ерөнхий сайд Р.Амаржаргал
2001.02. Ерөнхийлөгч Н.Багабанди
2003.11. Ерөнхий сайд Н.Энхбаяр
2005.03. ГХ-ийн сайд Ц.Мөнх –Оргил
2006.02. УИХ-ын дарга Ц.Нямдорж
2007.05. Ерөнхийлөгч Н.Энхбаяр
2008.10. Ерөнхий сайд С.Баяр
2010.02. УИХ-ын дарга Д.Дэмбэрэл
1992. 04.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сайд Ли Сан Ок
1998.07. ГХХ-ийн сайд Пак Жөн Сү
1999.05. Ерөнхийлөгч Ким Дэ Жүн
1999.07. ҮА-н дарга Пак Жүн Гюү
2001.06. Ерөнхий сайд Ли Хан Дон
2003.09. ҮА-н дарга Пак Гван Ён
2005.09. Сөүл хотын дарга Ли Мен Бак
2006.05. Ерөнхийлөгч Но Мү Хен
2007.07. ҮА-н дарга Им Чэ Жөн
2008.11. ГХХ-ийн сайд Юү Мен Хван

Түүнчлэн бүс нутгийн бусад орнуудын нэгэн адил манай хоёр орон ЗХА-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тогтворгүйжүүлэх хүчин зүйлийг гэтлэн давахын төлөө хүчин чармайлт тавь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асуудлыг тайван замаар,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аргаар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өлөөх санал, санаачилгыг тууштай дэмжиж, эл зорилгоор 6 талт хэлэлцээний дэд комиссын зарим уулзалтыг 2007 онд Улаанбаатар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в.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тай уламжлалт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тай. Мөн Хятад, Япон, БНСУ-ын дээд, өндөр хэмжээний гурвалсан уулзалтын үр дүн бүс нутаг нэгт манай улсын анхаарлыг ихээхэн татаж байгаа. Дээрх 3 орны энэхүү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яваандаа бүсийн нийт орнуудад нээлттэй болох байх.

3.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т

Интеграцид хамгийн нааштай нөлөө үзүүлэх хүчин зүйл бол яах аргагүй энэ хүрээ мөн. Өнөөгийн өнцгөөс харахад нэг нь нүүдлийн, нөгөө нь суурьшмал хоёр өөр соёл иргэншилтэй хэдий боловч тус хоёр үндэстэн бүхэлдээ гарвал үүсэл, хэл, соёл, зан заншил, шашин шүтлэг, уламжлал, сэтгэхүй, амьдралын хэв шинжээр маш ойр төстэй үндэстнүүд юм. Соёлын энэхүү ойр төстэй байдал нь бусад салбар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лам нягтруулах, бие биедээ хандах хандлагыг илүү ойр дотно болгох суурь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өгч байна. Яагаад гэвэл түүх бидэнд бэлэглэсэн энэхүү таатай уламжлал нь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х, итгэлцэхэд шаардагддаг тэр их хугацаа, хүч чармайлтыг товчилж өгсөн билээ. Монгол Улс Азийн тэр үеийн социалист системтэй орнуудаас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БНСУ-тай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од энэ хөрс суурь нөлөөлж, түлхэц үзүүлсэн билээ.

Соёлын энэ салбарт хоёр тал 1991 оноос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байгуулж, олон тооны программ, төсөл,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Шинээр ажиглагдаж байгаа нэг зүйл бол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урсгал соёлын урсгал (한류) Төв Ази, ЗХА-ийн орнууд түүний дотор Монгол улсад хүчтэй түрэн орж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Түүнчлэн Ерөнхийлөгч Ким Дэ Жүн, Н.Багабанди нар “Боловсролын түншлэл”(Knowledge partnership)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т өрнүүлэхээр 2001тохиролцсон нь үр дүнгээ өгч, мэдээлэл солилцох, мэдээллийн парк байгуулах, Монголын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г компьютержүүлэх, хэд хэдэн чиглэлээр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 явуулах замаар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ж байна. Эдүүгээ БНСУ-д монголын 1700-аад 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этгэлэгээр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жил тутам өсч байна. Монголын 12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2500-аад оюутнууд солонгосын чиглэлээр, БНСУ-ын Данкүк,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ний их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ын чиглэлээр жил бүр тодорхой тооны оюутан элсэн суралца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нийгэмлэг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 судлалд зохих байр сууриа эзэлж,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форум”, “21-р зууны Солонгос-монголын форум” зэрэ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алгааны хэд хэдэн хамтлаг, баг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тогтмолжуулж чадлаа.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үндэс суурь ч тавигдаж эхлэв.

Төр захиргаа, орон нутгаар үл барам олон нийтийн гол гол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шууд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идэвхжих хандлагатай болж, хү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иж байна.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н зорчих, бие бие биенээ илүү таньж мэдэх, ололт амжилттай танилцах явдлыг хөхиүлэн дэмжих, зорчих нөхцөлийг нь хөнгөвчлөхөд чиглэсэн арга хэмжээг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шат дараатай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Жилд хоёр талаас тус бүр 40-өөд мянган хүн зорчиж,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тоо нэмэгдэж ирлээ.

Түүнчлэн хоёр оронд хоёуланд нь иргэний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хөдөлгөөнүү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на. Гэхдээ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 нэлээд хожуу ардчилалын замд орсон болохоор төлөвшлийн хувьд тус улсаас хоцорч яваа тал бий.

Эцэст нь дүгнэж хэлэхэд ЗХА-ийн бүс нутагт интеграци бүрдүүлэх, тэрхүү үйл явцыг түргэтгэхэд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үхэлдээ эерэг нөлөө үзүүлэх төлөв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 1*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KIER.안형도.박제훈. 2007. P-26.
- 2*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KIER.안형도.박제훈. 2007.P-38,40
- 3*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KIER.안형도.박제훈. 2007. P- 41
- 4* WWW.Mofat.co.kr БНСУ. ГХХЯ. ЗХА-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азар.
(БНСУ,Хятад, Япон 3 улс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 5* 대륙철도의꿈. 강재홍 외. 서울. P-107.
- 6*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P- 28.
- 7* БНСУ-ын Үндэсний нэгдлийн яамны мэдээлэл. 2008.01.30. Сөүл.
- 8*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KIER.안형도.박제훈. 2007. P-66.
- 9* WWW.Mofat.go.kr)
- 10*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7. Ulaanbaatar. P. 265)
- 11* Г.Мөнхнасан. Шилжилтийн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стратег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Менжи их сургууль. Сөүл. 2008. 140-р тал
- 전환기 몽골경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서울. 140면.
- 12* 심의섭. 한국 과 몽골의 경제협력. 서울. 명지대학교. 2008. 149면

동북아시아 통합 : 몽골과 한국의 관계

배, 하과((Ph.D.)

[한국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의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되어 있는지, 둘째, 앞으로 이 지역의 통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지역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은 무엇이며, 지역통합을 위해 어떤 촉진요인과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지, 셋째,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EU, MERCOSUR, NAFTA, ASEAN 등의 지역통합체들의 형성 초기 단계와 비교 연구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또 지역통합의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의 한몽 두 나라 간의 관계와 교류협력이 동북아시아 통합형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역통합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정치안보적인 여건, 기능적 경제통합 여건, 사회문화 여건의 세 가지 기본 요인을 본 비교연구의 주된 방향으로 하여, 경제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Lindberg, Hufbauer and Schott 교수들이 Intergration Achievement Score(IAS)를 통해 제시한 통합과정상의 5대 요소(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중 하나이다. 세계인구의 1/4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세계 GDP의 22%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무한한 잠재력과 힘과 규모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된 하나의 지역단위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사회체제와 이념, 가치를 달리하면서 역사의 슬픈 유산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이 지역에서의 통합의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지역통합을 위한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냉전이 해체되어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중국이 경제 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개발의 세 축이 되는 한중일이 1999년부터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통합을 이루는 경차경제문화 교류의 3가지 기본 요인을 기초하여 5점 만점으로 동북아의 2005년 상황을 EU(1948년에 형성되었음), MERCOSUR(1986), NAFTA(1986), ASEAN(1985)의 형성 초기단계와 비교하면 EU, ASEAN, MERCOSUR의 초기단계보다 비교적 높고, NAFTA의 초기단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хөгжилт

Т.Намжил*

[Хураангуй]

Өнгөрсөн зуунд Солонгост Монгол судлал,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хэл болон түүхийн чиглэл хөгжиж эхэлжээ.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хи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өргөжиж байна.

Хоёр орны аль алинд нь өвөг дээдсээс үлдээсэн түүх, соёлын үнэт зүйлсийг харилцан судлаж,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мэдээллийг харилцан солилцох, ном бүтээл бичих, харилцан орчуулах, хэвлэн нийтлэ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амтарсан экспедиц ажиллуулах, хурал хийх зэрэг ажлууд зохиогдох боллоо. Түрүүчийн үр дүн нь ч гарч байна. Залуу судлаач эрдэмтэд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ач ахмад эрдэмтдийнхээ залгамж үе болон гарч ирж байн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цар хүрээг өргөжүүлэн гүнзгийр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гэж үзэж байна. Энэ шаардлагыг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ж байх бололцоо бидэнд бий.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улам өргөжин байгаа нөхцөлд Монго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төдийгүй практик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асуудал болж байгааг тэмдэглэе.

Голлох үг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Монгол судла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профессо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октор.

Түүхийн үүднээс авч үзвэ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чууд харилцааны эртний уламжлалтай.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улс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д хорин жил болж байна. Энэ нь түүхийн хувь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 Гэхдээ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үндэс тавигдс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агуулга, хэлбэр тогтсон, өргөжих хандлага бий болсон үе, Тиймээс ч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г судлах бололцоог бидэнд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 Улсад 1970-аад оноос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аар ажиллах судлаачид бий болж эхэлжээ.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х ном зохиолоос Монголын холбогдолтой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монгол хэлээр орчуула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эрдэмтэн нарт гарын авлага болгон нийтлүүлсэн анхны эрдэмтэн б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октор Б.Сумъяабаатар юм. Тэрээ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1975/ бүтээлдээ эртний Солонгос аймаг, түүний төв Азитай холбогдох нь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учир холбогдо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арчцуулсан авиа зүй, үсэг зүйн чухал асуудлуудыг судалжээ. Түүнчлэн “Дундад зууны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13-14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1992/ гаргасан нь судлаачдын гарын авлага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ж байна.

Доктор Ц.Шагдарсүрэ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бичиг үсгийн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1996/ өгүүлэлдээ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гийн дотоод тогтолцоог харьцуулан судлах зорилтыг тавьжээ. Тэрээр Солонгос бичиг үсгийн гадагшаа нөлөөлсөн нөлөө тусгалын зам, учир холбогдлыг тодруулах нь бичиг үсгийн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 төдийгүй Төв Ази дахины олон улс үндэстний нийгэм-улс төр,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н өргө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энд үлэмжхэн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олно гэж үзэж байна гэжээ. Хэл шинжлэлийн дээрх эрдэмтэдээс гадна Академич Ч.Далай, түүх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эд доктор Б.Лхавга нар Солонгосын сурвалжийг судлах ажлыг хийжээ.

Академич Ч.Далай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ны зарим асуудлыг хөндөхдөө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г голлон түшиглэснээс гадна Монголын талын сурвалж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домог яриаг аль болохоор ашиглахыг хичээжээ. Ч.Далай, 1989 онд хэвлүүлсэ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тний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 /редактор Л.Бэгзжав/ бүтээлдээ 1990 онд Сөүл хотноо хэвлэсэн гурван бот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ыг гол хэрэглэгдэхүүнээ болгосон байна. “Зүүн гүрний цэргийн то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зэрэг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 бичгээс монголын судлаачид ашиглах болжээ.

Эрдэмтэн Б.Лхавга “13-14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үтээлдээ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хамаарал, 13-14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ухайлбал: Нийгэм улс төрийн хүрэн дэх төрийн ургийн барилдлага, түүний улс төр, соёлын нөлөөлө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н холбоо, нөлөөлөл уламжлалаас судалжээ.

Т.Намжил “Монголчуудын гэр бүлийн хүмүүжлийн уламжлал, түүнийг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орнуудтай харьцуулан судалсан нь” сэдвээ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ж /1997/ “Монгол гэр бүл” цувралы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 ба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гэр бүл”, “Монгол өрнө дорно: Гэр бүлийн заншлын уламжлал холбоо” зэрэг номнууд бичиж Монгол дах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д гэр бүлийн гэсэн чиглэлийг гаргасан байна.

Археологич, түүх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октор Д.Бая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нутагт буй хүн чулууны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ж,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нийтлүүлжээ.

Ж.Баттөр, Б.Норовням нарын залуу эрдэмтэд судлаачи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ач ахмад эрдэмтэдийнхээ залгамж үе болон гарч ир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удалгаа идэвхтэй хөгжиж байгааг тэмдэглэх нь зүйтэй. Сүүлийн үед ШУА-ийн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энэ чиглэлийн судалгааг идэвхитэй хийж эхэлжээ.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их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өргөжлөө. Хоёр орны аль алинд өвөг дээдсээс үлдээсэн соёлын үнэт зүйлс, тухайлбал сурвалж, хөшөө дурсгал, угсаатны зүй, архелогийн олон тооны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материал байдгийг бид бүгдээр мэддэг. Эдгээрийг харилцан судлах,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мэдээллийг харилцан солилцох, ном бүтээл бичих, харилцан орчуулах, хэвлэн нийтлэ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амтарсан экспедиц ажиллуулах, хурал хийх зэрэг ажлууд зохиогджээ.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тэргүүн Чой Ги Хо-гийн тэмдэглэснээр: 1990 оноос хойш Солонгосы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нийгэмлэг Монголд хамтын судлагааг Хэнтий аймаг, Дарьганга, Буйр нуур, Хархорин, Төв аймаг, Хөвсгөлийн цаатны нутгууд болон Ордос, Байгаль нуур зэрэг газарт угсаатны зүй, хэл шинжлэл, түүх, археологийн чиглэлээр хийж, дээрх судалгааны дунд судалгааны 3 боть, “Монгол судла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8 боть сэтгүүл гаргасан байна.

БНСУ-ыг зарим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Монгол Улса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 тэнхим нээж, харилцан багш нарыг урьж ажилл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 БНСУ-ын аль алинд нь бүс нут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олон цаг үеийн янз бүрийн асуудал, сэдвээр зохиогдсон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симпозиум, зөвлөгөөн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нд, эрдэм судлалын хүмүүс харилцан оролцож, санал бодлоо солилцож ирсэн нь хоёр ор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 бодитой үр дүн юм.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аль алинд н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нь хэл, түүхийн хүрээнд төдийгүй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археологи, этнограф зэрэг олон чиглэлээр эрт, дундад, эдүгээ цагийн хэлхээнд хийгдэх бо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ыг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 хэтийн төлөв их байна. Солонгосчууд гарал үүсэл, угсаатны хувьд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олбоотой, харилцан бие биедээ нэн элэгсэг дотно ханддаг, царай төрх, зан заншил,

хэлний хувьд ойролцоо, шинж төрхүүд нь Монголчууд бидний хувьд ихээхэн сонирхолтой, судалгааны чиглэлийг бий болгож байна.

Эдүгээ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Орос /Буриад, Тува, Якут/, Хятад /Өвөр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өргөжиж байгаа нөхцөл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ын ажлыг хөгжүүлэх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 практик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асуудал болж байгааг тэмдэглэе. Сүүлийн үед хоёр орны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ын эрдэмтэн багш нар, судалгааны хамтлаг,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г сонирхон судалдаг, судлах гэсэн хүмүүсийн тоо өсөх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гаа н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д ахиц дэвшил гарахад чухал нөлөө үзүүлэх нь дамжиггүй.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ыг өргөжүүлэн гүнзгийр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Үүний тулд яах ёстой вэ? гэсэн асуудал гарч ирж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лын асуудлаа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ажиллах сонирхолтой эрдэмтэд, судлаачдын хооронд холбоо тогтоох, харилцан мэдээлэл солилцох,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д оролцуулах, хамтын бүтээл туурвих зэрэг чиглэлийг баримтлан хөгжүүлэх нь зүйтэй болов уу.

Бидний гол зорилго бол Доктор Б.Сумъяабаатарын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сэнтэй адил “зөвхөн хэлний үзэгдлийг хооронд нь харьцуулан судлах хүрээнээс хальж, тэдгээр хэлийг өвлөн авч ирсэн ард түмнийх нь түүх, утга соёлын нийтлэг, угсаатны судлал, ам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 хуучны судлалын хэрэглэгдхүүнийг нийтэд нь ашиглан утга учрыг тодруулахад оршиж байна”.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테. 남질

[한국어초록]

지난 세기 한국에 몽골학, 몽골에 한국학 연구가 언어, 역사학 방면에서 시작되었다. 몽골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 몽골에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확대되었다. 두 나라 모두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역사와 문화의 값진 유산들을 서로 연구하고, 그 결과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저술, 번역, 출판, 공동 학술답사, 학술대회 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학술 활동의 결과들이 발표되어 나오고 있고, 몽골에 있는 한국연구자, 선배 학자들의 뒤를 잇는 젊은 신진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몽골, 한국 연구의 범주를 확대, 심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공동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학과 한국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학문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몽골학, 한국학, 공동협력, 학술, 연구결과

소설 모티브의 서사적 의미

-부자(父子)의 갈등 모티브

현길언*

목 차

1. 문제와 방법
2. 신화와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 2-1. 희랍신화에 나타난 부자의 갈등
 - 2-2. 한국 신화와 조선조 소설에서 나타난 부자의 관계
3.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 3-1. 인류 역사의 시작과 아버지와 자식
 - 3-2. 권력과 부자의 갈등
4.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 4-1.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 4-2. 김남천의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
 - 4-3. 이데올로기 선택과 부자의 관계
- 5.父子 갈등 모티브의 서사적 의미

[국문초록]

부자(父子)의 인륜적 관계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면서 사회 역사적 의미도 크다. 인간의 가족은 동물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서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부자의 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강화하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낳게 하면서 정치화된다.

희랍 신화와 성경에서 나타난 부자의 갈등은 아버지를 극복하려는 아들의 배신으로 나타나는데, 그 바탕에는 권력의 욕망이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러한 인간의 존재성은 사회 역사적 개념으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 같은 신화인 경우에도 한국의

* 올란바타르대학교 석좌교수

건국신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다른 국가 건국의 동인이 된다. '효(孝)'가 강한 이데올로기로 정착된 조선조 소설에도 부자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그 경우에는 아버지와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동인이 된다.

소설은 이념적 가치보다는 일상적인 현실을 추구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절대가치 이념으로 규제해 놓았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대로 실현될 수 없다. 소설에는 가족 구성원끼리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화해적이기보다는 불화적인 경우가 많다. 윤리와 제도로 부자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 무속신(巫俗神)의 일생담과 현대소설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는다. 이것은 문학의 정직성이기도 하다.

한국소설에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근대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한국 전쟁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부자의 갈등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의 배반이라는 존재론적인 측면보다는 상황과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에 아버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들의 거역은 존재론적인 문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시대와 상황을 떠나 항존한다. 이 문제는 존재론적이면서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부자의 갈등, 희랍신화에서 부자의 갈등, 성경에서 부자의 갈등, 건국신화에서 부자의 갈등, 조선조 소설에서 부자의 갈등, 현대소설과 부자의 갈등, 부자 갈등의 존재론적인 의미, 사회 역사적인 의미에서 부자의 갈등.

1. 문제와 방법

소설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허구적 서사 언어로 형상화하여 작품마다 독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그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것은 개인이 모여 인류를 이루듯이, 개별적인 작품들이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본질을 드러내는데 나름으로 기여한다.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배려로 성장하면서 차츰 사회화되고,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 독자적인 새 가정을 이루어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한 생의 여정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이 거쳐 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태어남과 성장과 사랑과 결혼과 돈과 일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소설의 모티브가 되어 작품에서 일정한 체계를 이루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성을 설명한다.

소설의 모티브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그

첫은 시간과 공간, 문화 배경, 작가에 따라 작품마다 변형되어 나타난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모티브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작품에서 구조화되어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작품은 수많은 모티브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모티브는 소설의 구조를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인간의 역사 속에 두루 작용하는 보편적인 모티브들이 다양한 서사 양식에서 어떻게 기능하여 의미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논의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작품의 문학성을 찾기 위해서도 모티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 작품의 모티브들은 보편적인 의미 외에 작품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보유하게 됨으로 작품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기호이고, 인간의 원형이면서 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의미가 유동적이며,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체로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하여 독자적인 작품 체계를 구축한다. 이 논의에서는 소설 모티브 중에 아버지와 아들 모티브를 대상으로 그 보편적인 의미를 신화와 구비전승 조선조 소설과 성경, 한국현대소설에서 논의하면서 각 장르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모티브의 사회 역사성과 보편적인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2. 신화와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인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첫째 요건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게 된다. 아들의 아버지를 잇는다는 것은 단지 종족 보존의 차원만이 아니라, 아버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므로 가문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결속과 유대감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로 확장되면서 집단과 개인의 역학 관계를 설정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효'의 문제는 가족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초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조선조 시대에는 효(孝)는 충(忠)은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면서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률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경우에 따라 외디푸스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런 이해는 개인을 가족구성원의 문제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의미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강한 윤리성을 바탕으로 유지되면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더 강화되어 왔다.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관계는 갈등과 반역의 경우도 있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념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정직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에서 읽을 수밖에 없다. 소설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념적인 인식을 되도록 배제하여 그 실상에 다가가려 하기 때문이다.²⁾

2-1. 희랍신화에 나타난 부자의 갈등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은 모두 12명인데, 그 딸들 중에 셋이 누이와 결혼한다. 그런데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아들들을 미워하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을 숨겨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부인 가이아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는 아들 중에 크로노스에게 낫을 주어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한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계획대로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린다. 그리고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차지한 크로노스는 누이인 레아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는다. 그는 누구에게도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들들에 의하여 왕의 자리를 빼앗길 운명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는 아들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린다. 이것은 그의 부인 레아에게는 큰 슬픔이었다.

레아는 제우스가 태어나자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는 제우스를 크레타섬에 숨겨놓는다. 제우스는 아버지 몰래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난 제우스는 아버지가 형들이 두려워 모두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커다란 돌을 먹여 그 동안 삼켜버린 형들을 다 토해내게 한다.

제우스도 메티스를 아내로 맞아 임신을 한다. 제우스도 예언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딸을 낳지마는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듣는다. 그는 불안해서 아들 메티스를 작게 만들어 삼켜버린다. 그래서 제우스는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혜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³⁾ 그러나 나중에는 그도 삼킨 자식들을 토해내게 된다.

희랍신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왕권에 대한 싸움으로 이어진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권력 때문이다. 이러한 부자의 갈등은 우라노스로부터 시작하여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들 부자의 갈등에서 어머니는 아들 편이 된다. 이것은 외디프스적인 것이 아니

(2) 소설은 인간과 세계의 주변적 진실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양식이다. 즉 거꾸로 인간과 세상을 인식한다. 이러한 소설의 주변성은 소설의 본질의 핵심이다. 소설의 주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현길연 『한국현대소설론』 (태학사, 2002) pp.23-26.

(3) 유재원, <그리스 신화의 세계> (『현대문학사』, 1999) p.97.

라, 모성애이고, 부부의 갈등의 원천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력을 위한 부자의 갈등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윤리적인 관계까지 파탄시킨다. 원초적 욕망은 그 욕망 자체만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권력이 첫째인데, 이것은 왕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의 욕망의 실상을 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2-2. 한국 신화와 조선조 소설에서 나타난 부자의 관계

하늘의 아들인 환웅은 늘 땅에 뜻을 두다가 결국 땅으로 내려와 조선을 건국한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와 상대되는 땅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한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의 왕권을 계승할 처지에 있는 데도 아버지를 떠나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웅의 결단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부왕과의 갈등을 빚어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아버지를 피하여 남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우게 된다. 이렇듯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된 동기가 아버지와 정치적인 갈등에 있었다.

건국신화에서 부자의 갈등은 희랍신화의 모티브와 다름이 없다. 희랍신화에서는 왕권을 놓고 부자와 피를 흘리는 대결을 펼치고, 승패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건국신화에서는 다른 왕국을 세움으로 부왕과의 갈등이 덜 비극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치적 힘과 맞섰다는 점에서 부자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부자의 갈등을 정치권력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그 관계가 본질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욕망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도 정치권력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즉 부자의 윤리보다 앞서는 존재론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갈등은 두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희랍신화에서처럼 직접 아버지와 대결함으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후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윤리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이다. 또한 그것은 구체적인 현상, 즉 조선과 고구려의 건국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건국 과정에서 아버지로 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음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면, 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이 일치 될 수 없다는 권력의 속성을 말해준다. 단군신화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나, 부여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 고

구려를 세운 것은 같은 구조이다.

이러한 부자의 갈등 모티브는 권력의 상충부를 떠나 일반의 이야기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구체화된다. 즉 정치적 속성에서 문화적인 속성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에서 부자의 갈등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무속 본풀이인 〈괘네깃당 본풀이〉⁴⁾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은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살아온 소천국은 강남천자국 처녀와 결혼을 한다. 부인은 사냥만 하는 남편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유한다. 그래서 소를 마련하여 밭을 갈도록 하는데, 결국 배가 고프니까 밭갈던 소를 잡아먹어 버린다. 여기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수염을 헐뜯으면서 무례하게 놀자, 아버지는 아들을 철갑에 담아서 바다로 띄어버린다. 이렇게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에서도 부자지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그 동기는 부부의 갈등이다. 이것은 수렵 생활을 하는 제주토박이 남편과 농경문화 속에 살아온 부인과의 갈등인데, 아들과 어머니가 한편이 된다는 점에서는 희랍신화 모티브 처리가 같다.

조선조 소설에서도 부자의 갈등이 나타난다. 조선조 시대에 충(忠)과 효(孝)는 정치적이면서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의 바탕이다. 그러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부자의 갈등은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피상적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근원적으로 갈등이 내재해 있다.

〈홍길동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자라온 길동은 아버지에게 직접 '서자로서의 설움' 말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한다. 이것은 부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조선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의 내부에는 아버지에게 대한 반발이 있다. 즉 아버지가 추구하는 조선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체계를 길동으로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길동의 선택은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부자의 관계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 부자는 곧 충과 효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조선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자체가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것은 길동이 결국에는 조선(아버지 나라, 조국)을 떠남으로서 그가 지향하는 울도국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제시해 준다. 〈춘향전〉에서도 이 몽룡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신분을 초월하여 춘향과 파격적인 사랑을 한다. 이것은 단순히 풍속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조 시대의 아버지는 동시대의 가치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소설에서 부자의 갈등은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신당(神堂)의 신의 내력담.
현용준,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 636-647.

3.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기독교의 성경은 한 종교의 경전이면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예리하게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신화와 문학적 서사의 전범이 된다. 즉 이 책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가 구체적인 서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⁵⁾ 이제 성경에 나타난 부자의 갈등 양상을 일반 신화와 허구적 서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1. 인류 역사의 시작과 아버지와 자식

성경에서 ‘부자의 관계’에 대한 기사는 많다. 인류 역사의 왜곡은 아버지로 대신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자식으로 대신하는 인간의 배반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야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피조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한 인간이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아버지를 배반하였을까? 그 과정에서 부자의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창 3:4-6)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기술자는 에덴을 아름답고 풍요하며 평화로운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아담 부부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금기(구속)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몫이라는 그 차이였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으나 선악을 구분하는 절대 권한만은 인간이 갖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 뱀은 인간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는다.

자식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을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5) 성경의 문학성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할 것. 현길언 <인류역사와 인간 탐구의 대서사>(태학사, 2008)

이 아담에게 금기를 설정했음에도 뱀의 유혹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한 불편함 즉 갈등을 느꼈다. 이처럼 인류 조상의 범죄의 동기는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인간에게 결핍된 것, 즉 하나님의 고유한 몫인 '선악을 아는 권한'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욕망은 인간의 정치적 욕망을 동반하게 된다.

반면에 아버지는 윤리적인 관계를 근거로 아들을 자신의 권위 안에 두려고 한다. 그래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윤리의식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틀로 발전한다.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소속된 인간들 간의 관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거할 수 없게 된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경우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는 절대 복종과 배반의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태초에 야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함께 일하려 했던 동역자로서의 부자 관계이다. 그 예는 인간으로서의 이삭이 유일한 예이고, 영적인 부자의 관계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이다. 후자는 범죄 이후에 왜곡된 인간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자의 관계로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여기에 해당한다.

인류의 역사는 부자의 갈등으로 인한 관계 파탄의 과정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서 자식이 독자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부자의 관계에 의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그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부자 관계는 혈연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윤리적이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계명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지마는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서도, 절대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의하여 낳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은 묘한 관계가 있다. 자식은 부모를 닮으면서도 전혀 다른 인격체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른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강한 윤리의식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성경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 받으며 성장한 자식은 때가 되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부모로부터 떠나도록 되어 있다.⁶⁾ 이것은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게 된다. 그 배신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과

(6)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창세기 2:24)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인간 최초의 가족 공동체였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카인은 사소한 문제로 동생 아벨을 죽인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갈등을 중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 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증폭된다. 그 이후 역사는 이 갈등이 극복할 수 없게 된다.

형제간의 갈등에 따른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삭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야곱은 형의 발굽을 잡고 나왔고, 장성한 후에도 장자권을 갖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린다. 아버지는 이러한 형제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잃게 된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력함과 권위의 실추는 부당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생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아들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⁷⁾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소실인 빌하를 범한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아들의 행위의 절정이면서 부자의 갈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사건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에서도 나타난다. 평소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상황을 알아보러 갔다가 평소 동생을 미워하던 형들이 공모하여 죽이려다가 겨우 목숨을 살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다. 그레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일에 그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와 부자의 윤리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와의 윤리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아버지의 권위 즉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한다. 즉 정치적인 욕구는 윤리적인 관계까지 파탄시킨다는 권력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다.

(7) 그 첫 번째 사건은 외동딸 (<창세기> 34장) 디나가 그 지방 군주 하물의 아들 세겔의 눈에 든다. 세겔은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겁탈한 후에 하물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사정한다. 하물은 아들의 사정을 듣고 야곱을 찾아가 청혼하면서, 두 부족끼리 우호적으로 살자고 제안했다. 또한 당사자인 세겔도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에게 청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치밀었으나 할례를 받을 것을 전제하고 그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할례의식을 행하고 쉬고 있는 하물 족속의 성을 공격하여 모든 남자와 하물과 세겔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와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성에서 재물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모두 빼앗아 온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결국 그 땅을 떠나야 했다.

3-2. 권력과 부자의 갈등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정치권력에 대한 부자의 갈등을 의미한다. 권력 앞에서 부자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된다. 아담이 아뱌를 배신하게 되는 동기도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아뱌의 권한에 도전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권력의 갈등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후에 부자의 갈등은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 현장에서 되풀이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의 부자 관계에서 이 문제가 나타난다.

이스라엘 왕통의 기반을 확립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정치적인 배신을 당한다.⁸⁾ 압살롬은 은밀하게 왕에 대한 반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 있다. 왕께 소송할 일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을 화유하여 그들 마음을 사로잡아 무리를 만들었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킨다. 다윗 왕은 그 반란으로 요단강 쪽으로 도망하였고, 부자간이 왕권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된다⁹⁾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가나안시대의 전성기를 이룬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르호보암은 선왕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여 백성을 통치함으로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 비운을 맞게 된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잊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민족 비극의 씨앗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이념을 계승하기를 거부한 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부자의 갈등을 일반적으로 외디프스 논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더 가깝게 되고, 아버지는 경쟁의 위치에 두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학적 측면이고, 역사적으로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뛰어 넘으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때에, 비록 죄에 의한 왜곡된 역사라 할지라도 그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왜곡된 역사의 논리성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8) 다윗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딸 다말이 있는데, 만아들 압논이 제 누이를 사랑하게 된다. 압논은 친구 요나답과 의논하여,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있다가 병 문안을 온 누이 다말을 범하고 만다. 이 사실을 안 동생 압살롬은 형에게 원한을 갖게 되면서 형제간의 관계가 파탄된다. 결국 압살롬은 부하를 시켜서 그 형을 살해하게 되고, 다윗과 압살롬은 미묘한 관계에 처하게 된다. 후에 다윗은 아들을 용서하였으나,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정치적 적수로 생각하게 된다. <사무엘 하> 13-18장

(9) 윗 책, 같은 장

4.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인간에게 부자의 윤리적인 문제는 시대와 종교와 문화를 통합하는 강력한 가치이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민족과 문화와 종교에서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 그것은 인간의 태어남과 그 성장 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혹 시대에 따라서 가족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윤리성 위해서 나타나는 부자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부장제 가족구조에서 아버지의 절대 권력은 그 행사자의 입장에서는 힘의 행사이지만 강한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가치의 면에서는 불변하는 윤리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앞서 신화와 고전소설, 또는 성서의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념이나 가치의 차원에서는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를 낳게 된다. 문학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래도 그려내놓는다. 그러면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자의 관계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한다.

4-1.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염상섭의 〈三代〉는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이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왕조시대 아버지와 근대사회를 살아갈 아들의 갈등은 부자의 원초적인 갈등보다는 변동기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극복'이라는 역사 발전의 동기와 관계된다. 조선조 말기 중인으로서 양반이 되는 것을 평생 삶의 목적으로 살아온 조의관은 세상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재물을 모은다. 그는 그 돈으로 족보를 만들어 양반의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 조선조 양반 사회의 전통을 숭상하면서, 가부장적 가족 체제를 고수하는 구세대의 전형적 인물이었으므로 양반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답습한다.¹⁰⁾ 그는 돈으로 얻은 가짜 양반이면서 왕조시대를 지향하는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 아들 상훈은 개화기 지식인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양반이 되기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숭상해 왔던 양반사회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거부한다. 그것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거부하고 논리가 새로운 세계관에 의해서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력한 지식인의

¹⁰⁾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8), p.378.

모습으로만 남아 있게 된다. 아버지 세대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서구 문화를 수용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으로 조선인에게 정치적 활로가 막혀버리자, 현실에 안일하게 안주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성(性)과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소모하여 버린다.

그 아들 덕기는 다시 초라한 지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상훈을 극복하려고 한다. 부친의 좌절을 지켜보고 그 원인을 생각한다. 손자에게 거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친의 개인주의적인 기독교와는 다른 길을 택한다. 사회주의자가 되는 일이었다. 그는 단순히 온전한 사회주의자가 됨으로 아버지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뛰어넘으려는데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을 화해시키면서 동시에 아버지 세대를 극복했다는 데서 현실주의적이다.

아버지에 대한 덕기의 배반은 당시 일제 지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사회가 발전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졌기에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이러한 아들의 배반은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감상적인 불만이 아닌 정당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배반의 논리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준비가 철저했을 때에는 역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훈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삼대>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시사해 준다.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배반은 봉건왕조시대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시대의 변화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하는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삼대>의 인물들의 아버지에 대한 배반은 시대 상황의 변모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특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아버지는 한 시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의 변화는 아버지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왕조시대의 아버지는 근대사회의 아버지인 아들에 의하여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 왕조시대를 극복하려는 근대사회의 아버지는 제국주의 일본과 만나게 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주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선택이었다.

일제 강점기 소설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극복 양식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통해서 조선의 전통 사상을 거부한 것이나, 이상의 반 전통적 양식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의 중심 세력으로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4-2. 김남천의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¹¹⁾

김남천의 초기 소설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반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소설집 〈소년행〉¹²⁾에 수록된 네 편의 작품 〈남매〉 〈소년행〉 〈누나의 사건〉 〈무자리〉는 연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소년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통해서 자아를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이 네 작품에는 주인공인 소년과 그와 대립되는 의붓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중간에 있는 누이와 어머니가 등장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인물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문제와 만나게 되면서 그 관계가 구체화된다. 그 집에는 무력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위만을 내세워 가족을 억압하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아버지가 있다. 또한 그에 맞서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이거나 주정뱅이 혹은 아편쟁이로 등장한다. 그러한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을 책임질 수 없는 부도덕하거나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미 타락한 아버지와 동거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계승해야 할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의붓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재력도 없는 무위도식하는 위인으로 기생 노릇하는 어린 딸의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나간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 자식을 학대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허상을 알게 된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온다. 한 때 누나의 도움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기도 했으나, 누나의 처지를 알고는 포기하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집을 떠난다. 도시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이 연작 작품에서, 타락한 의붓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아들의 당찬 꿈이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1930년대 진보주의 문학의 한 양식을 대신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반은 이념을 떠난 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우선 아버지가 무기력하고, 부도덕하면서 억압적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거부당해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부재한(아버지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인 의미 외에 역사의 전환을 꿈꾸는 작품의 구조를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구도로 잡은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김남천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는 미완의 장편 〈대

(11)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부자 갈등의 문제는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논의했음.

현길언, 「단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소설적 전망」, 『한국소설의 분석적 이해』, (문학과비평사, 1990), pp.212~236.

(12) 소화 13년 3월에 학예사에서 간행되었다. 앞으로 인용시에는 본문에 페이지만 밝힐 것임.

하) 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 1부에서는, 한 집안 4대에 걸친 인물들이 살아 온 역사가 펼쳐진다. 신흥 부자인 40대 박성권과 그 아들들의 중심에는 아버지 세계를 거역하는 아들들이 있고, 이러한 부자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아들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조선조 말에 박성권의 조부는 아전으로 돈을 모은다. 그 아들은 도박과 주색과 아편으로 부친이 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죽는다. 성권은 부친의 3년 상을 치르고 난 후, 마침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돈을 벌고는 한이 많은 고향을 떠난다. 무위도식하며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일생을 보낸 아버지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한다. 그는 사회적으로 행세하기 위해 첩을 얻고 돈을 학교에 기부해서 지역 유지가 되고, 계속 독특한 이재 수완으로 재산을 늘려간다.

그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큰아들 형준은 무능하였고, 반면에 첩에서 난 형길은 인물이 출중했다. 성권은 무능한 장자에게 재산 관리권을 주지 않는다. 형길은 부도덕한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갖고, 그 나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신학문을 공부하였는데, 결국 고향을 떠난다.

김남천의 다른 단편처럼 <대하> 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대립된다. 또한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이던가, 아니면 그 아들이 서자로 설정되어, 부자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면서 공통된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부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이 세대의 주체적 세력으로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새로운 역사의 주체는 아버지와는 다른 혈통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김남천의 <대하>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버지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박성권의 조부는 변동기 사회에서 돈의 위력을 알았기에 이재에 성공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면서 일생을 마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역은 당연하다. 또한 돈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만을 취하여 살아가는 박성권에 대한 서자인 형길의 반역도 정당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징적인 것은 그 아들의 반역이 고향을 떠남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부자의 갈등과 배반을 역사 발전의 한 모티브로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부자의 갈등이 사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4-3. 이데올로기 선택과 부자의 관계

이러한 부자의 관계는 이데올로기 선택이 보다 여유로웠던 해방기 사회와 분단과 전쟁으로 이데올로기 선택이 제한되었던 사회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선택했던 이데올로기가 그 아들 세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에, 아들은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선택이 문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황에서의 그러한 선택이 주는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해방기에 좌우 이데올로기 선택은 아버지의 몫이었다면, 전쟁 상황에서 아들의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선택을 통한 부자의 관계는 사회 역사적인 산물이지, 존재론 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이명준은 혼란된 남한 사회에 대한 거부 의식과 사회주의자인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남쪽 경찰의 눈을 피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삶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는 북쪽 공화국에 대해서 실망한다. 결국 그는 북쪽 군대의 일원이 되어 전선으로 나갔으나, 전쟁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결국은 남쪽 군대의 포로가 된다. 그는 포로 교환 때에는 남쪽이나 북쪽을 택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그의 선택은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전에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아버지 땅을 거부했다는 점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의 선택에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의 의지보다는, 이데올로기 선택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작품의 기본 구조가 사랑과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거부가 존재론적인 문제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문열의 〈영웅시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도 존재론적이기보다는 상황적이다. 해방 후에 좌익에 동조했던 지식인 아버지를 둔 아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버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거나 아버지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소설에서 부자의 갈등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라는 부자의 존재론적인 갈등보다는 아버지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보다 많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아들의 반역은 역사 사회적 상황 때문이지,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덜하다. 더구나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이라는 부자 갈등의 본질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자 관계의 혈연의식은 사회통합의 근본 질서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구나 아직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청산되지 않았던 한국사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이데올로기 선택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반을 존재론적인 의미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이데올로기 선택이라는 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선택이 여전히 아들에게 유효하게 남을 수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진보적인 성향과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오도되는 경우라서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상적 연좌제가 존속하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한국사회가 이데올로기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배반의 양상도 보다 근원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시대사회의 지배 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한국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모티브는 사회 역사적 상황 변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한 특징이 될 수도 있다.

5.父子 갈등 모티브의 서사적 의미

부자의 인륜적 관계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도 된다. 인간에게 가족은 다른 동물의 가족과는 달리 인간 공동체의 근간이 된다. 가족공동체는 친족 공동체를 거쳐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공동체의 결속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강한 이데올로기가 주축이 되고 있다. 그 전통이 계승되면서 집안의 문화, 지역 공동체의 문화 민족의 문화가 형성되고, 이것은 다시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부자의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로 발전해야 하고 부자의 윤리는 집단 이데올로기화하게 된다. 효는 가정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민족 집단의 중요한 가치로 정착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계명으로서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과 법과 제를 통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치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신화와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이 부자의 관계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황에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배반을 여과하지 않고 드러난다. 그러므로 희랍 신화나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부자의 갈등은 원초적이고 본질적이면서 존재론적이다. 거부할 수 없는 문제이고 상황이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의 존재성이 사회 역사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렇게 되면서 소설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신화

나 성경에 읽을 수 있듯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자의 갈등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부자의 갈등은 이러한 두 가지 사회 현상 중에서 그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조 소설에서 '효'는 공고한 가치였다. 소설은 일상적인 현상에 내재해 있는 특별한 현상을 추구한다. 그것은 반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점에서 소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부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절대가치 이념으로 규제해 놓았다 하더라도 현실을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소설에는 가족이 등장하고, 그 가족 구성원끼리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화해적이기보다는 불화적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부자의 관계를 가치 윤리로 탄탄하게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뿌리는 내리고 있는 문학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거리는 문학의 정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성경에는 계명과 또 다른 책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권하고 있지만(예베소서 6: 1-4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배반의 역사라는 점을 성경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양한 기술 양식으로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까지 흔한 통속 대중 소설의 기본 구조인 사랑의 삼각관계에서도 부모의 선택과 주인공의 선택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것은 가정과 부모와 가족을 고려하는 아버지의 보수성과 자신의 문제를 더 생각하는 자식의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의 삶과 아들의 삶은 그 가치와 현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을 빚어질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가 대립이나 극복의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인륜적 이데올로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소설의 반 이데올로기성과 호응된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자식 편에서는 아들을 대신하여 딸이라는 점에서, 그 갈등 양상은 분단시대의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 이것은 가족 구조의 변모를 의미한다. 과거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존재했으나, 오늘의 가정을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존재론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사회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희랍 신화와 성경은 부자의 갈등의 요인으로 정치적 권력의 욕망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부자의

윤리보다 앞선 인간의 욕망이므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자는 음모와 힘을 동원하여 대결한다. 여기에 대부분 아버지가 패배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의 관계는 한국 건국 신화와 조선조 소설에 와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아버지는 패배시킴으로 아들이 승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버지 세력을 벗어나서 아들이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윤리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 한국 전쟁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러한 부자의 갈등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 배반이라는 존재론적인 측면보다는 역사 사회적 의미로 선택의 당위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아버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들의 거역은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문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시대 상황을 떠나 항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론적이면서 또한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념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Романы учир шалтгааны өгүүлэмжийн утга санаа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л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Хён Гил Он

[Хураангуй]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үн ёсны харилцаа нь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оршин байх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 чухал нэгэн зүйл бөгөөд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утга санаа нь ч өргөн их юм.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гэр бүл нь амьтнаас ялгаатай зүйл нь нийгэм хамт олны нэгдлийн үндэс болохоор үндэстэн ба улс ард түмний нэгдэл байдаг билээ. Тиймээс аав хүү хоёрын ёс суртахуун, ёс зүй нь аавын эрх мэдлийг хүчтэй болгодог үзэл санааг төрүүлдэг байна.

Грекийн домог үлгэр, библи сударт гардаг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нь аавыг давж гарах гэсэн хүүгийн урван тэрслэлтээр илэрхийлэгддэг ба түүний үндэс нь эрх мэдлийн төлөөх шунал юм. Энэ нь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харилцан салгаж холдуулахгүй гэсэн оршихуйн асуудал билээ. Цаг үе урсан өнгөрч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ийм оршин тогтнох шинж нь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ухагдахуун ойлголтоор хэлбэр маягаа өөрчилж иржээ. Адилхан домгийн баатрын тохиолдолд ч, тухайлбал Солонгос улс байгуулсан домогт ч аавтайгаа зөрчилдөх зөрчил нь өөр бусад улсын байгуулагдсантай адил утгатай домгийн баатар байдаг. Аавыгаа сайн асран халамжлах үйл хэрэг нь хүчтэй үзэл санааны үүднээс бол суурьшмал болсон Чосоны эхэн үеийн үргэлжилсэн үгийн зохиолд , романд ч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гарч байгаа боловч тэр тохиолдолд хүү нь аавтайгаа өөр ертөнцийг бүтээх гэсэн нэг зорилготон болж байна. Роман нь үзэл санааны үнэ цэнээс илүү ердийн бодит байдлыг дагадаг байна. Эцэг эх ба үр хүүхдийн хоорондох харилцааг ердөө үнэ цэнэ, үзэл санаагаар гарган тавилаа ч гэсэн бодит

байдалд тэр чигээр биелэгдэх боломжгүй юм. Романд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н асуудлыг дэвшүүлэн гаргах тохиолдолд аав хүүгийн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нь эв найртай байхаас илүү сайн биш байх тохиолдол их. Ёс зүй ба системээр аав хүүгийн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г хүчтэй гаргасан гэсэн ч бодит амьдралд тэр чигээр хадгалж болохгүй учиртай. Хүний бүх амьдралын туршид ёс заншлын тухай домог ба орчин цагийн романд ийм зөрчлийг бодит байдлыг тэр хэвээр гаргаж тавьдаг. Энэ нь уран зохиолын шударга шинж юм.

Солонгосын романд эцэг эх ба үр хүүхдийн зөрчилт харилцааг янз бүрээр илэрхийлэн гаргадаг. Солонгосын шинэхэн үеийн нийгэм рүү шилжин орж, дахин Японы колони болсон үе, чөлөөлөгдсөн үе,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үе зэргийг туулаад ирсэн бүх хугацаанд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нь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утга санааг агуулж ирсэн. Өөрчлөгдөж буй цаг үед дагаж итгэхийн тулд хүүгийн сонголт нь ааваас урвах гэсэн бодит оршин байгаа хажуу тал гэхээс илүү нөхцөл байдал,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талаас тэр утга санааг хай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 юм. Чөлөөлөгдсөний дараа аавын тухай хүүгийн үзэл бодол нь бодит оршихуйн асуудалтай тогтмол холбогдож ирсэн. Гэвч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нь цаг үе ба нөхцөл байдлыг орхин давж гарчээ. Энэ асуудал нь оршихуйн болон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утга санааг агуулж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Грекийн домогт гарах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Библи сударт гарах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Улс байгуулсан тухай домогт гарах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Чосоны эхэн үеийн романд гарах аав хүү хоёры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ил.

Солонгосын зарим өгүүллэ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сан нь

Д.Нармандах*

гарчиг

1. Оршил
2. Солонгосын өгүүллэгүүдэд эмэгтэйн дүрийг хэрхэн дүрсэлсэн тухай
3. Дүгнэлт

[Хураангуй]

Бусад орны уран зохиолд дүрсэлдгийн нэгэн адил Солонгосын уран зохиол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олонтаа гаргаж бүсгүй хүний уян зөөлөн, даруу төлөв, ажилсаг хичээнгүй зэрэг нийтлэг зан чанар, үзэсгэлэн төгөлдөр царай зүс, бие бялдар гэх мэт гадаад дотоод талаас нь дүрслэн гаргасан байдаг. Түүнээс гадна Ази Дорно дахины эмэгтэйн бүрэг ичимтгий, хүлцэнгүй ч гэмээр онцлог дотоод шинжийг илүү тод дүрсэлжээ. Жишээлбэл : Хён Жин Гоны “ Гал “ , “ Ядуу эхнэр “ , “ Архины нийгэм “, На Ду Хяны “ Хэлгүй Сам Рён И “ , И Саны “ Далавч “ зэрэг өгүүллэгүүдэд 1920 иод оны үеий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эм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эзлэх байр суурь, тэр үеийн дарлагдсан эмэгтэйн нийтлэг дүр төрх ажиглагддаг. Ким Ха Гигийн “ Тэр нэгэн уулзалт “ өгүүллэгт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уршгаар хүүгээсээ салаад эсрэг талдаа баригдсан хүүтэйгээ дахин уулзаж буй эхийн тухай өгүүлж байна. Мөн У Жон Хыйгийн “ Хүрэл толь “ , Хуан Сүн Воны “ Ваар урлагч өвгөн “ өгүүллэгүүдэд бусдын төлөө гэсэн сайхан сэтгэлтэй эмгэний дүр гарч байна. Энэ мэт олон өгүүллэ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хдаа гадаад талыг товч

* 몽골국립인문대학교 박사과정.

өгүүлээд дотоод сэтгэлийг түлхүү өгүүлсэн байдаг юм. Түүнчлэн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хүлээцтэй, аядуу зөөлөн, даруу төлөв, хөдөлмөрч, хэн нэгнийг аргадан гуйсан, цөхөрсөн, зовсон зэрэг зан чанар, өнгө аясыг голлон дүрсэлсэн нь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дотоод мөн чанарын онцлогтой холбоотой юм. Эрчүүдийг бодвол юманд илүү тэвчээртэй, хүлээцтэй хандаж, сэтгэлийн хаттай байдаг давуу чанарыг ч харуулжээ. Дээрх зохиолуудын дүрүүд нь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хэв шинжит болон зан төрхийн дүр болж чаджээ.

Түлхүүр үг :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 Хён Жин Гоны өгүүллэгт гарах эмэгтэйн дүр, Ким Ха Гигийн өгүүллэгийн эмэгтэйн дүр,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гадаад дотоод шинжийг дүрсэлсэн нь

1. Оршил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бүх салбарт өргөжин хөгжи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ын уран зохиолыг орчуулан танилцуулах, судлах, Солонгост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г орчуулан танилцуулах, судлах ажлыг харилцан хийж байгаа билээ. Ингэснээр хоёр орны ард түмэн бие биеэ илүү сайн мэдэх юм. Энэхүү өгүүлэлд Солонгосын зарим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эд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дүрийг хэрхэн дүрсэлсэн тухай судалснаа өгүүлье.

2. Солонгосын өгүүллэгүүдэд эмэгтэйн дүрийг хэрхэн дүрсэлсэн тухай

Бусад орны утга зохиолын нэгэн адил Солонгосын утга зохиол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олонтаа гаргаж бүсгүй хүний уян зөөлөн, даруу төлөв, ажилсаг хичээнгүй, зэрэг нийтлэг зан чанар, үзэсгэлэн төгөлдөр царай зүс, бие бялдар гэх мэт гадаад дотоод талаас нь дүрслэн гаргасан байдаг. Түүнээс гадна Ази Дорно дахины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бүрэг ичимтгий, зарим

тал дээр хүлцэнгүй ч гэмээр онцлог дотоод шинжийг илүү тод дүрсэлжээ. Ингээд зарим нэг өгүүллэгүүдэд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дүрийг хэрхэн яаж гаргасныг дэлгэрүүлэн тайлбарлахыг оролдоё. Солонгосын реалист өгүүллэгийн эцэг гэж яригддаг Хён Жин Гоны өгүүллэгүүдэд 1920—30аад оны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мийн байдал,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эзлэх байр суурь, тухайн үе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нийтлэг дүр төрх ажиглагддаг. Жишээлбэл: “Гал” өгүүллэгт хахир хатуу хадмын гэрт өглөө үдэшгүй амрах завгүй ажиллах ядуу зарц мэт байх Сүни нэртэй эмэгтэйн дүр гардаг. Сүни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нийгэмд айлын бэр болсон ядуу дорой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хэв шинжит дүр болж чаджээ. Тодруулж уг өгүүллэгээс ишлэл авъя. “...эцэж ядарсныг илтгэх нүд нь ухархайдаа хонхойн ширгэж сүүмийн харагдана. ...Өчигдөр шөнө түүнд унтах зав ч гарсангүй. Шөнө болохоор хаа нэгтээгээс ажил гарч оройн хоол хийх, загас угааж цэвэрлэх гээд ер амьсгаа авах чөлөөгүй хөдөлнө....Өрөөнөөс гүйн гармагц хадам эхийн дуун сонсогдов. —Унтаагүй юм уу? Нааш ирээд шөл буцалгаатах. ..Өрөөнд орж ирээд хоол унд бэлтгэ...Хэдэн арван бээрийн цаана эцэг эхээ орхин энд ирж өдөржин шөнөжин үргэлжлэх энэ гашуун зовлон, тэгээд бас л өнөөдөр хадам эхэд загнуулан уйтгарлан суух энэ бүхнийг бодохоор нулимсаа тэвчин сууж чадсангүй...”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18 – 21 дэх тал) гэж дүрсэлсэн байна. Түүний хувьд эрх чөлөөтэй болох арга зам нь түймэр тавин зугтах явдал байж, түүгээр зохиолч өгүүллэгийнхээ төгсгөл, тайлалаа сонгон авсан нь онцлогтой болжээ.

Тэгвэл Хён Жин Гоны “Ядуу эхнэр” өгүүллэгт амьдрал тарчигхан ядуу нэгэн зохиолчийн эхнэрийн дүр гарна. Ядуу амьдралдаа гутарсан нөхрийгөө аргадан тайтгаруулж байгаа, энэ байгаа амьдралтайгаа эвлэрсэн, нэг их гутаж гуниагүй, эр нөхрөө хайрлаж нөхрийнхөө үгийг дагадаг жирийн даруу зантай эмэгтэйн дүр юм. Үүнийг баталсан ишлэлийг авъя.”...Энэ хоёр жилийн туршид би гэж заяагүй амьтан нэг ч мөнгө ололгүй, эд зүйлс, хувцас хунар юу байдгаа барьцааны газарт тавин амиа тэжээж явлаа. Одоо

эхнэр маань үлдсэн ганц торгон цамцаа зарахаар хайж байгаа нь энэ....Та ч гэсэн амьдрах арга ухаан сүвэгчилж болно шүү дээ гэлээ...—Бид ч бас бусдын адил амьдрах гээд үзнээ...Аан. Хэлэхэд ч амархан л даа. Гэвч....гээд эхнэрийн маань урдах царайны байдал алга болон сэтгэл нь догдолсон янзтай өгүүлэв.....Үгүй ээ үгүй. Нэг их сэтгэл зовсон ч юм алга даа гэлээ...Идэж уух, өмсөж зүүх бүх юманд эхнэр гүйнэ...Харин тэрбээр гуниг зовлонгоо мартан надад итгэчихсэн л юм даа. Нэгэн удаа, —Яагаад танд дурласан юм бол? Энэ хорвоо дээр танаас өөр хүн үгүй мэт санаж явлаа. Бидний энэ зовлон юу юм бэ? Гэж учирлах уурлахыг зэрэгцүүлэн нулимс дуслууллаа..."(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42- 44 дэх талд)

Ямар ч байсан эр нөхрийнхөө үгийг гэрийн эзэн, өрхийн тэргүүн гэсэн байдлаар хүндэтгэн үздэг дорно дахины ёс заншилтай эмэгтэйн дүр гэдгийг дээрх байдлаас тодорхой мэдэж болно. Тэгвэл зохиолчийн “Архины нийгэм” өгүүллэгт тухайн нийгэмдээ гутаж цөхөрсөн, дургүйцсэн, архинд нэлээд дуртай болсон нэгэн нөхрийн эхнэрийн дүр, тэр нөхрийг буюу зохиолын гол баатрыг товойлгон гаргахад туслах маягаар гарч байна. Архичин нөхрийнхөө уугаад байгаа учир шалтгааныг олох гэж, архи уулгахгүй байлгах сан гэсэн бодолтой бүсгүйн цухасхан гарч буй энэ дүр ч сонирхолтой юм. Зохиолын ишлэлээс уншвал та бүхэн ойлгоно буй за. “....Энэхүү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эхнэр нь ...гашуун нулимсаар нүүрээ угааж хүлээн суудаг байв.Гэсэн ч энэ бүгдийг тэвчин өнгөрүүлсээр.Нөхөр маань ирвэл ч...гэсэн бяцхан итгэлийг өвөрлөсөн тэрбээр өөрийгөө зоригжуулна...Нөхөр нь гэртээ ирэв.Нөхрийн байж байгаа байдал өөрийн нь итгэж байсантай тэнгэр газар шиг ялгаатай харагдана. Нөхөр нь үргэлж гарч орно. Архи сэнгэнүүлсээр шөнө орой гэртээ орж ирнэ. Эхнэр нь энэ тэрхнийг хийн түүнийг хүлээнэ. Хаашаа явахаараа ингэж оройтдог байнаа? Гээд бүсгүй үглэн суулаа. Түүний бэлдэж тависан хоол нь хэв хэвээрээ...Яагаад хувцсаа тайлахгүй байгаа юм бэ?гэж эхнэр нь аргадсан

янзтай хажууд нь сууна. Тэгээд хувцсыг нь арай ядан тайлж тавиад —Хэн чамайг архинд уруу татаад байна вэ? Гэж үглэв...—За эхлээд хувцсаа тайлчих. Дараа нь ярилцъя. Өнөө шөнө сайн амарчихвал маргааш өглөө давгүй ээ. Юунд үхэхээ мэдэхгүй юм шиг архи уусан юм бэ? Гэж бухимдан хэлээд нөхрийнхөө урсах хөлсийг нь арчиж өглөө....Тэрээр өөрийн нөхрийг энэ хорвоо дээр хамгийн ариун хүн гэж боддог. Иймээс хэнээс ч илүү түүнд итгэдэг. Түүний зорилго агуу бөгөөд өндрийг ч мэднэ. Архи уух болсон нь сэтгэлдээ таарахгүй хэрэг явдлаас боллоо гэдгийг ухаарч байлаа...”(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55 – 59 дэх талд) Хён Жин Гон зохиолчийн “Төмс” өгүүллэгт ядуу амьдралын эрхээр биеэ үнэлж нөхрөө тэжээж яваад эцэст нь эмгэнэлтэйгээр амиа алдах бүсгүйн дүрийг гаргажээ. Нийгмийн сөрөг бараан талыг илэрхийлэх энэ дүр, уншсан хүнд ямар нэг бодол эргэцүүлэл төрүүлэхүйцээр бичигдсэн байна. Сайн муу, сайхан муухай, зөв бурууг нь уншигчид олог гэсэндээ зохиолч ямар нэг дүгнэлт өгөлгүйгээр шууд ил тавин бичжээ. “... Түүнийг 15 нас хүрмэгц өөрөөс нь 20 насаар ах, нутгийн баянд 80 воноор худалджээ. Бүсгүй хадамд гарснаас хойш эхний 3,4 жил ингэс тэгэхийн өнгөрүүлэн яваандаа хадам нь ад үздэг болжээ. Бүсгүй хичнээн сайхан санаж ажиллавч залхуу нөхөр үл ойшооно. Энэ хорвоогийн муу бохир заваан бүхэн энд цуглачихсан юм шиг. Яахын аргагүй тэр үнэнтэй бүсгүй эвлэрэхээс өөр зам алга....Түүний амьдралаа авч явдаг нууц ажил урагштай байлаа. Нөхөр нь тэр ажлыг дэмжин зүгээр хэвтэнэ....Бүсгүйн гарт байсан хадуурын үзүүр Уань овогтын гарт шаан орж бүсгүйн хүзүүнээс цус урсан толгойгоороо газар пидхийн уналаа.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61- 64 дэх талд)

Эндээс үзвэл тэр үеийн ядуу тарчиг амьдрал, эмэгтэйчүүдийг богтлох бурангуй ёс нь бүсгүйн бодол санаа, зан аашийг эвдэн өөрчилдөг байсныг өгүүлсэн байна. 1920—30аад оны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эд тэр үеийн гунигт хэцүү амьдралын эрхэнд автсан бүсгүйчүүлийн зовлонтой, гунигтай дүрийг ихэвчлэн гаргажээ. На Ду Хяны “Хэлгүй Сам Рён И” өгүүллэгт нэгэн залуу

эрийн эхнэрийн дүр гол баатрыг тодотгох үүднээс гарна. Уг бүсгүйг багаасаа ажилсаг сүрхий, царай зүс хөөрхөн, төлөв даруу, зөөлөн сэтгэлтэйгээр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Жишээ нь: “...Эхнэр нь нөхрөөсөө 2 эгчмэд, 19 настай аж....Бэрийн хувьд эцэг нь нас барахаа хүртэл хүмүүжил сайтай орчинд нүдний цөцгий мэт энхрийлэн өсгөсөн болохоор өөрийн насанд гэхэд мэдэхгүй чадахгүй юм гэж байхгүйн дээр уулаасаа сүрхий хүүхэд учраас өөлж сэвтүүлэхийн аргагүй ажээ...царайлаг хөөрхөн, төлөв даруу, зөөлөн сэтгэлтэй,...гар хүрвэл цэврүү үсрэм дагина мэт...”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68- 70 дахь талд) гэжээ. Харин тухайн үеийн солонгос эрчүүд эхнэрээ гэрийн боол , эрийн зарц мэт үзэн загнаж зодож эрх чөлөөгүй, зовлонг байдалд оруулдаг ёс бус байдлыг гаргахын зэрэгцээ тэрхүү хүнд хэцүү зовлонг хүлцэн буй эмэгтэйн байдлыг ч давхар үзүүлсэн байна. Жишээ нь: “...эхнэрээ учир зүггүй үсдэн шал мөргүүлж “төрхөмдөө тонил чи” хэмээн хашгичан хөөж туув. Хоол авчирбал түлхэж хувцас хунарыг нь дөхүүлбэл хогийн сав руу чулуудчихна. Эхнэр нь эднийд бэр болж ирснээсээ хойш төдий л удалгүй хэнгэнэтэл шүүрс алдан, өдөр шөнийг нойтон сормуустай өнгөрөөх болов...”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75- 76 дахь талд) гэж дүрсэлжээ.

Ер нь энэ үеийн өгүүллэгүүдэд эртний эцгийн эрхт ёсны үлдэгдлийг хатуу баримталсан, эмэгтэйчүүдэд дээрэлхүү хатуу чанга ханддаг байдлыг түлхүү өгүүлсэн байна. Үүний улмаас охид эмэгтэйчүүд эрх чөлөө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хүлцэнгүй сул дорой аль эсвэл амьдралдаа гутарч цөхөрсөн , зөв замаа олоогүй яваа гэх мэт бараан дүрүүдээр илэрхийлэгдэж байдаг. Хэдийгээр бүсгүй хүний гоо үзэмж, зөөлөн сэтгэл, сайн сайхныг магтан гаргаж байгаа боловч ямар нэг гадны хүчин зүйлээс шалтгаалж гэгээлэг бус, гутрангуй өнгө аястай дүрсэлж байсан нь олон жишээгээр батлагдаж байна. Хён Жин Гоны “Аз тохиосон өдөр” өгүүллэгт хэвтрийн өвчтэй эмэгтэйн дүр бас л цухасхан дүрслэгдэнэ.

Хүн зөөх тэрэгчний ядуу, өвчтэй эхнэрийн дүр нь тэр үеийн нийгмийн

ядуу амьдрал, өвчин зовлонгийн үнэн нүүр царай болон ядуучуулын нийтлэг дүр төрхийг харуулсан байдаг. Энэ байдлыг зохиолд: “...Хатаж хуурайшсан хоолойгоо аяга тагш юмаар норгох төдийгүй өвчинд баригдсан хөөрхий авгайдаа шөл авахуйц мөнгө байлаа...Түүний эхнэр бугшин ханиалгах болсоор даруй сар гаран болжээ....Яс арьс болтлоо турж эцсэн нүүрэнд хэтэрхий томдсон гэмээр загасных шиг том нүдэндээ горьдож гуйсан оч гэрэлтүүлж “чамаас гуйя.Өнөөдөр битгий яваач дээ. Намайг ийм байхад...гэж амьсгаа давхацсан шунгинаа нарийн хоолойгоор ард үглэн хоцорсон билээ...”(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81- 82 дахь талд) гэж гаргажээ.

И Саны “Далавч” өгүүллэгт мөн л ядуу амьдралын эрхээр биеэ үнэлж нөхрөө тэжээх бүсгүйн дүр бас гарна. Энэ байдлаа нөхөртөө мэдэгдүүлэхгүйн тулд түүнд эм өгч ухааныг нь самууруулан гэрийн хорионд шахуу байлгаж байгаа тухай өгүүлжээ. 1920—40 оод оны зохиолчид нийгмийн хүнд хэцүү байдал, сөрөг талыг зохиолдоо тусгах нь элбэг байв. Ийм байдал нь солонгос гэр бүлд яаж нөлөөлж тусч байгааг харуулахыг зорихдоо гэр бүлийн нэг гишүүн айлын эзэгтэй,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зайлшгүй гарг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сан аж.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хдаа өөр нэг чухал талаас нь тусган өгүүлсэн жишээ цөөнгүй бий. Энэ бол эх хүний дүр билээ. Үр хүүхдээ өсгөн хүмүүжүүлж , үрийн төлөө бүхнээ зориулж яваа ээжийн тухай олон гарч байна. Жишээ нь : Ким Ха Гигийн “Тэр нэгэн уулзалт” өгүүллэгт дайны гамшгаар үзэл суртлын зөрчлөөс хуваагдмал байдалд улс орон орж ээж нь хүүгээсээ салж хагацаад эцэст нь эсрэг талдаа баригдсан хүүтэйгээ уулзаж буй эхийн тухай өгүүлсэн байдаг. Ямар ч улс төр, үзэл суртал хамаагүй, зөвхөн амар тайван өнчрөл хагацалгүй аж төрөх гэсэн солонгос хүний хүслийг нэгэн ээжийн дүрээр төлөөлүүлэн гаргажээ. Дээр дурдсан өргөн гүн агуулгатай дэвсгэр дээр хүүгээ гэсэн эхийн дүр тодорхой харагдаж байна. Үрийнхээ төлөө юугаа ч харамлалгүй бүхнээ зориулж буй ээж, эмээгийн тухай олон сайхан зохиолд

дүрсэлсэн жишээ дурдвал олон бөлгөө. У Жон Хыйгийн “Хүрэл толь” өгүүллэгт нэгэн эмгэний дүр гардаг. Насны бөгсөнд айл хөршийн хүүхдэд тус болох гэсэн сайхан сэтгэлтэй жирийн нэгэн эмгэнийг урнаар дүрсэлжээ. Яг ийм дүр Хуан Сүн Воны “Ваар урлагч өвгөн” өгүүллэгт бас гарч байна. Зохиолын гол баатрын хөрш, жимсний мод тарьж зүү утас зэргийг зарж амьдрах эмгэний ядарч зовсон хөршдөө юухнаар ч болов туслах гэсэн сайхан сэтгэлийг товойлгон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Сун Ён Гамыг дахиад л тамирдан унах үед жимсний мод тарьдаг айлын зүү утас зардаг эмээ ирж өвчтэй хүнийг эргэж тойрч байх хэрэгтэй биз дээ гээд өглөөний зутантай тавгыг нь түүнд ойртуулан тавив...Сун Ён Гам...өмнө нь ярьж байсан айл руу хүүгээ явуулж болох уу гэж асуулаа. Эмгэн бололгүй яахав гэв...Одоо ч гэсэн дагуулаад явж болно гэж эмгэн хэлэв....”(Ч. Цэрэнхорлоо,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зохиолын дээжис, 54- 55 дахь талд) гэж эмгэний тус болох гэсэн сайхан сэтгэлийг зохиолд тусгажээ.

Солонгосын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э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хдаа гадаад үзэмжийг товчхон өгүүлээд дотоод сэтгэлийг түлхүү өгүүлсэн байна. Дотоод сэтгэлийг нээхдээ хүлээцтэй , аядуу зөөлөн юмуу, эсвэл хэн нэгнийг аргадан гуйсан, цөхөрсөн, төлөв даруу өнгө аясыг голлон дүрсэлсэн нь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дотоод мөн чанарын онцлогтой холбоотой юм. Нийгмийн хувьсал өөрчлөлт, зовлон зүдгүүрт эрчүүдийг бодвол илүү тэвчээртэй, хүлээцтэй хандаж сэтгэлийн хаттай байдаг давуу чанарыг ч үзүүлсэн байна.

Ер нь дорны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баярлах, гуних дотоод сэтгэлийн илэрхийлэл нь дотогшоо байдаг гэж хэлдэг билээ. Үүний бас нэг баталгаа нь Солонгосын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ийг уншихад тодорхой байна. Нэгэн жишээ татахад Шин Гён Сүгийн “Сэтгэлд хоногшсон хуур” өгүүллэгт гэр бүлтэй залуутай учирсан , хэзээ ч бүтэшгүй хайр дурлалд автсан эмэгтэйн сэтгэлийг уянгалаг яруу, нарийн дүрсэлжээ. Хэдий үеийн амьдралыг зохиолд тусган байгаагаасаа шалтгаалж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хэв шинжит дүрүүд гарч байдаг. Тухайн цаг үеэ дагаад дүрсэлж буй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н үзэл бодол, байдал төрх шинж нь өөр өөр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Хуан Сог Ёны “Сампу хүрэх замд” өгүүллэгт 1950—53 оны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дараахан үеийн амьдрал дүрслэгдэж амьдрал ядуу, хэцүүгийн эрхээр тогтсон ажилгүй, замын гуанз,буудал зэрэг янз бүрийн газарт очиж янз янзын ажил хийж алдаж онож яваа нэгэн эмэгтэйн дүр гарч байхад Чэ Юүний “Саарал цасан хүн” өгүүллэгт ардчиллын төлөө хөдөлгөөнд оролцож нууцаар ном хэвлэж байсан эмэгтэй өнгөрснөө дурсан буйгаар гаргасан байна.

3. Дүгнэлт

Дээр дурдсан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ээс ажиглахад С.Байгальсайхан докторын бичсэнчлэн, “....Түүхэн тодорхой нийгмийн зан төрхийг олж харах бөгөөд дүр нь өөрийн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цаг үе, эрин зууны төлөөлөгч болж чаддаг...”-ын утгаар (С. Байгальсайхан. Уран дүрийн онолын лекцүүд , 64 дэх тал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 нь хэв шинжит дүр болж чаджээ. Түүнчлэн эдгээр дүрүүд нь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ний зан заншил, ёс суртахууны хэм хэмжээг харуулж байгаагаараа зан төрхийн дүр ч гэж хэлж болох юм. Солонгосын зарим богино өгүүллэгүүдэ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хэрхэн гаргасан талаар багахан судалснаа өгүүлэхэд ийм бөлгөө.

Ашигласан ном

1.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өгүүллэгийн дээжис. 2 р дэвтэр, Сөүл, 2000он, 18—21,31—33,53,64,78,79 р тал.
2. С. Байгальсайхан. Уран дүрийн онолын лекцүүд УБ, 1998.
3. Ч. Цэрэнхорлоо.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зохиолын дээжис. 2006.
4. Утга зохиол шинжлэл,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их сургууль, УБ, 2006.
5. Р. Уоррен, О. Уэллек, Утга зохиолын онол, УБ, 2000.

한국 단편소설 속에 여성 묘사에 대한 고찰

데. 나르만다흐

[한국어초록]

다른 국가들의 문학에 여성들을 묘사한 것과 같이 한국 문학작품에 여성들을 많이 묘사하는데 여성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함, 부지런함 등 성격의 공통성, 예쁜 얼굴과 미모 등 표면과 내면을 나타낸다. 또는 아시아, 동양 여성의 부끄러움, 순종과 같은 특성, 내면을 좀 더 많이 묘사했다. 예를 들면, 현진건의 “불”,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 이상의 “날개” 등의 단편소설에 1920년대 한국 사회에 여성의 생활, 상황, 어려움과 고생 및 공통성이 나타난다. 김하기의 “그 만남”에 한국 전쟁 때문에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묘사했다. 오정희 “청동 거울”,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 등의 단편소설에 착한 마음씨의 할머니, 여성을 묘사한다. 한국 단편소설에서는 여성의 표면적인 행동은 간단하게 나타나고 내면이 좀 더 섬세하게 묘사된다. 또는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과 체념, 고생 등을 많이 묘사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의 내면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인내심이 더 많은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국 단편소설에 여자들을 묘사한 인물형과 성격은 한국 여자들의 공통성을 잘 나타낸다.

주제어 : 한국 여성, 현진건의 단편소설에 묘사한 여자, 김하기의 단편소설에 묘사한 여자, 한국 여성들의 표면과 내면

목 차

1. 서론
2. 전개
 - 가. 家系
 - 나. 後妻의 陰謀
 - 다. 流轉과 邂逅
3. 思想과 路程
 - 가. 思想
 - 나. 路程
4. 결론
- 부록 : 원전

[국문초록]

새로 발굴한 고대소설로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고전문학의 한 소설분야로 읽혀져 연구의 한 폭이 되기를 바란다. 조선 중기의 소설이다.

사대부 후예를 말하니 조생원은 벼슬없이 그냥 생원으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아들 조영에게 出仕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비명에 감으로 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흩어지게 된다. 며느리 장씨가 천행을 낳아 후사를 잇고 조부를 찾아 如前하게 가문을 만든다는 전개이다.

사상은 불교적인 내용이 많다. 그러나 충효의 유교적 교훈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 산신과 일월성신에게 비는 道仙的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

노정은 전국팔도와 많은 사찰이 나온다. 다닌 곳을 기억해 적음으로 해서 行先圖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대체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지명과 사찰에서 由來와 설화를 곁들여 얘기함으로 흥미를 보태고 있다.

〈주제어〉 조생원, 조영, 조천행, 가계, 팔도 경치, 효행

* 울산바타르대학교 강사, 해광고등학교 교감, 문학박사.

1. 서론

조생원전 고찰은 원명이 「도청원전이라」이다.¹⁾ 한글로 적혔으며 낙자낙점이 있음을 양해바라고 있다.²⁾ 같은 이름의 조생원전과 김취경전, 쌍선기, 일락정기가 가정소설로 전해 오고 있다. 같은 이름의 조생원전은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이본으로는 필사본 張翰林傳과 蘇氏傳이 있다. 중국 명나라 浙江府를 배경으로 구성된 조선조 소설이다. 조생원전이 모방이나 아류작이 아닐까 했으나 후처의 계략으로 빚어지는 가정소설이다. 장화홍련전이나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의 모습과 비슷함도 있으나, 강원도 강릉 땅에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창작으로 추정된다. 지은이는 김자만 있고 이름은 떨어져 나갔다. 연대도 정암 조광조 후예라니 중종을 지나 조선후기쯤일 것이다. 황금사각형보다 긴 직사각형의 책이고 겹쳐서 먹물 붓으로 기록해 나갔다. 두꺼운 표지는 견뎌냈으나 지질은 닳나무 한지로 세월을 이기지 못해 해풀어졌다. 앞부분 몇 장은 많은 사람이 읽어본 듯 마모와 파손이 심하여 읽어내기가 힘들었다.

가계내용과 사건 전개를 살펴보고 사상과 노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전개

가. 가계

조선 중기 때 강원도 강릉 땅에 조생원이 살았다. 양반으로서 중종 때 정암 조광조의 후예로 가계를 중흥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다.³⁾ 휘는 기순이고 자는 중헌이다. 아들 영을 금강산 수월암에 보내어 학문을 익히고 심신을 맑게 닦아 조정암 후예답게 조정에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손자 天祐이 어렵게 자라나서 조부를 찾아 고향 강릉으로 모셔올 때 그 행실이 양반 가문의 바른 윤리성을 지닌 모습이다. 子婦의辛苦 생활 속에서도 열녀의 모습을 나타낸 것 등이 모두 조정암 후예의 명문가계를 세우려는 노력이라 보여 진다.

아내 이씨와의 사이에 조영이 태어난다. 이씨는 아들을 낳고 병을 얻어 일찍 죽는다.⁴⁾

1) 1987년 부산 중구 보수동에서 구입. 2000년 12월 5일에서 20일까지 보름간 옮겨 적음

2) 언히글시민첩지못하야낙낙점만스오니혹보난스람이눌러볼지어다 원전1

3) 난 헌년이정암지휴예라 원전1

4) 도청원리아모리술이라고온가지로악을씨되빅악이무회하고 호상으로치상하야선손하의안장하이라 원전3

조생원은 상처하고 어린 영을 데리고 노비들과 함께 적적한 나날을 보낸다.⁵⁾ 영의 생모를 생각하여 참지만 친척 없고 넓은 집안을 건사할 수 없다. 奉祭祀에 接賓事가 주부의 일이고, 음식절차며 의복마련 등 집안 대소사가 많다. 그 중에서 어린 영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⁶⁾

나. 후처의 음모

배씨에게 再娶를 했다. 아들형제를 낳으니 만이 영과 함께 처자 복이 있는 줄 알며 살았다. 조생원 不感이 되었다. 전처 아들 영이 12세이고 계모의 박대가 점차 심해져 갔으나 잘 참아 내고 효성을 다했다.⁷⁾ 조생원은 아들 영을 금강산 슈월암 설암대사께 보내 글공부를 시킨다.⁸⁾

3년뒤 영의 나이 15세 때 양양군 이화동 장진사택 閨秀와 3월 15일 혼인하기로 했다. 신혼길을 본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공명 못홀진디 즈식녀여 이거시 영화로다」

「등 을 물린 후의 원앙 심 의 누워신이 비취을 의지의 되림 갓더라 실랑의 다툼 심오 세요 신부는 십팔세라」

그날 밤 영은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모두가 놀랐으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다.

「목업는 송장을 이리 온고 저리 온고 이거시 원일이야 어미 업는 이녀 즈식 설리설리 굴녀 다투 여 영화를 보려더이 이거시 어인 일고」

아버지 조생원은 아들의 慘狀을 보고 통곡한다. 하릴없이 아들 영의 시신을 거두어 강릉으로 간다.⁹⁾

5) 각설도싱원승비호고무미독조어린즈식안고 막이안즈신이일가친 벗시없고노비등속뿐이로다 인근읍원근동 이도싱원상쳐하야단마을등고직취을날노권호는지라 원전3

6) 부모 제전이업고살림감장할슈업다또호양반의집에서봉제스접빈객을주부업시어이호리안기싱 송즈난동희 상신선이라환부되야빅운간의놀건이와무미호세상스람임식 츄의복동결환부로는못호것다 원전5

7) 양반의즈식되야부친의슬호을써나괴죄중호오나남즈세상의나서어진선싱을만디공부홀마음이잇스온이결간의 로괄냥호야주읍시면집을호직호고글공부나호야모친의유언을갑스올이다 원전7

제어린것이مم미가제엄미며제집을써나리요제마리저러호이분명설음이창천호리로다 원전7

8) 취비호 으게천금지즈을부탁호온이엇지범연호올릿가 원전9

설음당이영을다리고통스도갈아치고성성현전도갈오치면혹부쟁도의논호야영의지조비 호고천성이영민호야일 남

기호나전싱 원으로슈호이부족호이주면을삼가호고 원전11

9) 씨부전의홀마리전니업서황망이안즈시니혼불부신호는지라조부즈정신차려닐련반스호고시신을스몽꺼니여환 스불너 힘중을 단속호고직시치싱호야강릉으로가라 원전25

신부는 상여 뒤를 따라 함께 강릉 시택으로 간다. 조생원이 하인들을 시켜 따르지 못하게 했으나 한사코 동행한다.¹⁰⁾

사람들이 장진사택 신랑이 첫날밤 변사함으로 이는 奸婦의 凶計라고 수근댄다. 원통하게 죽은 신랑의 원수를 갚고 陋名을 벗고자 결심한 뒤 시택으로 들어가 수많은 逼迫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¹¹⁾

가족과 노복이 슬퍼하는 가운데 신부 장씨는 행랑방 영의 殯所를 지키고 있다. 곱을 안고 낭군을 부르며 원통해 하다가 일월성신께 남편의 두골을 찾게 해 달라고 빈다. 꿈에 낭군이 파흘리며 나타나 있는 곳을 알려준다. 시아버지 조생원께 알리고 祠堂門 안에 들어가 영의 머리를 收殮한다.¹²⁾

목불여 先山에 안장한 뒤 조생원은 며느리 장씨의 소행이 아님을 느끼게 되나, 의아하고 가족 모두에게 厭症을 갖게 되어 어디든 떠나려 한다.¹³⁾

조생원이 떠날 行狀을 차릴 때 英敏한 하인 쇠작지를 불러 함께 갈 것을 권유했다. 쇠작지는 어릴 때부터 길 걷는 일이 힘들어 따르지 못하겠다고 거절한다.¹⁴⁾

조생원은 出行을 중단하고 크게 疑懼心이 가는 쇠작지를 問招하기 시작하자 배씨부인이 쇠작지 역성을 들며 산증을 앓는 하인을 풀어주길 바란다. 더욱 吐說을 강요하자 쇠작지는 發說한다 배씨부인이 돈 천냥과 논 열섬지기 줄 것을 약속하고 영의 목을 베어오라고 시킨 것이다. 그래서 新行 때 동행하지 않고 몰래 뒤따라가 밤중에 목을 베어 와서 祠堂 안에 숨겨 둔 것이다.¹⁵⁾

조생원은 쇠작지에게 그 匕首로 배씨 두 아들의 목을 치라고 명한다. 쇠작지는 어찌할 수 없이 명에 따르고 자결한다. 다시 그 칼로 배씨를 죽이고 나자 며느리 장씨부인이 낭군의 원수를 갚고 누명을 벗게 된다. 통곡하고 또 슬피 울다가 잠이 들어 꿈결에 낭군을 만난다.

10) 강상지변나라하면목으로니집을올다/ 전상의옥황상제복두칠성삼틱육성명명지지호의누명설원비는이다흑빅
을가려쥬읍소서 원전25

11) 요옥 호고송옥 호다비씨연의거동보소손씩을쭈달리며이고이거시어인리인야양반의집즈식으로셔이거시원닐닌
고저련 형슬닛단말가네무습발명하라 원전27

12) 반신반히호야스당물을열고들어가니과연두골리되여저날장씨부인달려드려쥬미에싸고나와방성통곡호는양은
쳐량하다 원전31

13) 비씨불어니여일은마리가스전장나은신타쌀은즈식니모른다팔즈홍칙호야리련변을목전의보니세상스을다버리
고천지로집을삼고일월로벼슬삼나팔도형식으로귀경이나할거신이임지은즈식형제를다리고잘이던지못닛던지뜻되
로호여보소쑈장씨형상보기신타무죄은드강아되연불—을으지몰라이야 의닛는지라 원전33

14) 소인은호가로못가리로소이다이시로산중이잇서 을가면산중이복발호오니분부시힘못호읍난니로소이다 원전
33

15) 서밤임신혼시의만모이임이소인을불너분부호되돈일천냥과논열섬직의를줄거신니말로시형하라 원전37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天幸이라 하고 先塋祠를 잘 받들도록 이른다.¹⁶⁾

다. 流轉과 邂逅

1) 流浪

혼자 행선지 없이 떠나면서 며느리 장씨에게 살길 찾아 가라고 말한다. 장씨는 봉제사하고 천행을 키우리라 말한 뒤 떠나는 길에 엎드려 만류하다 표연히 가는 조생원은 내 제사는 오늘로 하라고 당부한다.¹⁷⁾

單騎로 떠다니면서 경포대, 울릉도, 청간정, 망양정, 죽서루, 충석정, 시중대, 삼일포, 의상대, 월송정 등 關東八景과 우산국이었던 鬱陵島를 둘러보았다. 아들 영을 잃고 두 자식을 죽였으며 쇠작지 하인의 자결하는 장면을 확인 한 뒤 후처인 배씨 부인을 살해하였다. 출행전에 일어난 갑작스런 일련의 일과 후손을 잉태 했다는 누명을 벗은 며느리를 홀로 두고, 집안에 들이닥친 橫厄과 復讐로 실성하다시피 답답한 가슴을 쓰러 내리며 여행으로 속을 풀고 있다.¹⁸⁾

아들 영이 3년간 공부하던 금강산 수월암을 찾아가 설암대사를 찾았으나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 장안사, 마의암, 보덕암을 살펴보고 한양으로 간다. 인왕산, 삼각산,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열두 사찰을 찾아 영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송낙사 굽어보고 두문동을 거쳐 평양성에 들어간다. 기자와 단군시절의 도읍지에 대한 수천년 역사를 회고하고 연광전을 거쳐 모란봉과 능라도를 바라본다. 황해도 수양산과 함경도 골용산을 지나 백두산에 올라서 흑룡강과 두만강을 굽어본다. 수원으로 내려와 대용누각과 뇌래각, 요누사를 지나 전라도 덕유산과 월출산을 지나 도강사 살피고 달아산의 이화사와 해남의 한등사를 거쳐 송광사를 보고 제주도로 건너간다. 영주각을 지나 한라산을 올라간다. 동래로 들어와서 대마도 일광산을 멀리서 보고 안동읍을 지나 경주읍내 반월성을 구경한다. 태백산 식산절과 가야산 해인사를 보고 홍유동폭포와 팔만대장경을 살핀다. 낙동강을 따라 진양성 축석루의 의암바위에서 충절 논개를 생각하고 노랑바다에서 또다시 충절 충무공을 회고하면서 하동 악양루를 보고 동정호 굴원을 떠올린다. 지리산 쌍계사, 칠불사, 옥룡사, 홍국사를 두루 살펴본다. ¹⁹⁾

16) 불상하다 은늑을싱각하야슈을갑푸이설이우지말고천금귀체를안보호오천늘갓치스랑하며하느마리낭주의계
년의 혈육이 처신니천형으로남즈을늑을진덴선영스을밧들가본이나이다 원전41

17) 조생원이가간스을과작그겨전장호고녕별호고저늑면셔네싱전의늑제스을오날노님제하라 원전43

18) 간시년늑오이간성은천간정요을진은망양정요삼 은 셔누라통천은축성정이라 원전45

19) 저 보소빅팔염주목의결고소란즈을턱의밧쳐미타불하이극락세계이안인가그령저령귀경호고옥용스귀경하
고 홍국스을힉흔니라 원전51

2) 邂逅

며느리 장부인은 가장 잃고 孀父 집나간 후에 천행을 낳아 키운다. 시부 安瓘 걱정으로 지낸다²⁰⁾

장부인은 아들 천행이 6세가 되자 조생원의 家門을 익히도록 世家譜와 효성을 가르친다. 10세가 되어서야 조부 조생원을 찾아 나서게 한다. 조상을 위한 일에는 厄運이 없으니 乞行하며 다녀오라 이른다. 帳籍 한 장을 품고 집을 떠나는 천행은 먼저 緣由가 있는 금강산 수월암을 찾는다.

한양 성종과 함경도를 거쳐 충청도와 전라도의 월출산, 무주, 은진, 강경, 군산, 법성, 계룡산 각 사찰과 천은사, 화엄사를 지나 운봉으로 간다. 경상도 태백산을 보고 부석사, 통도사, 하린사를 들러 묻고 찾아보고 하여 풍주포, 마산포, 진양성, 삼천포, 통영, 거제를 들고 나서 장성으로 가면서 쌍계사, 칠불암으로 들어간다.

다시 전라도 송강사, 서남사에 들러 스님께 물어 겨우 알게 된다. 병중에 있다가 남해로 내려갔음을 알았다. 실로 다닌 지 6년만이다. 홍국사에서 조부 조생원께서 몇 달 머물다가 남해로 갔음을 搜索聞으로 알게 된다.

천행은 좌수영에서 남해로 건너간다. 조부 조생원은 남해 용문사에 있다가 화방사에 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신을 삼아 생계를 잇고 있었다.

한편 조생원은 10월 15일 손자 천행을 극적으로 만나 16년간 집을 나가 流轉했으니 先塋에 불효함을 후회하고 손자 천행과 며느리 장부인을 버려 둔 것이 모두 죄송하였다.²¹⁾

조생원은 남해 화방사에서 손자 천행을 만나 감격해 하며 며느리 장부인을 열녀 효부로 칭송했다.

祖孫이 곤양, 화개, 구례, 남원, 모수역, 전주, 남이, 여산, 은진, 뇌성, 공주, 금강을 건너 천안, 성환역, 직산, 진위성, 오매장터, 수원, 과천을 두루 구경하고 송례문 보고 한양성을 지났다. 강원도로 접어들기 위해 동수, 양주, 회양, 양천을 지나 춘천을 올랐다가 원주 감영을

20) 아가아가우지마라이부임네아난야조부임네아난야부조도너스실타성세도너스실타비려먹거도네아비가사라지면 무신한이잇슬손야절통호고가련하다가운이불길하야이모양되야난가팔즈가홍악하야이지경이되얏난가남군임은업거이와조부임은슈월을언약호고가시더이 어넉가살아난가니손즈을모르시고어되로가게신고 원전51

21) 과연너의호 이로되네너엇던이히며엇던호일리아눈물을흘리거날그제야천행이즐아리셔며양천통곡복지하야엿조

나는강원도강능터즈면독용초스아비웁더이정미삼월십오일의양양짜장진스되흔스흔 날밤의비명횡스아비이른을복즈로소이다 원전61

지나 대관령을 넘고서야 강릉 읍내를 들어섰다. 열녀 효부인 자부 장부인은 백발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 장부인이 시부께 사연을 말하고 서러워서 슬피 울었다. 조생원도 다닐 때 충청도 윤생원과 영남 안동땅에서 도움 받은 애기로 긴 나날을 보내며 懷抱를 풀었다. 천행의 술한 고생담도 들었다. 판수에게 점을 쳐서 남녘에 있다는 말도 하면서 이후는 행복하게 살았다.²²⁾

3. 사상과 노정

가. 사상

유불도의 사상성을 찾아보면 먼저 유교적인 내용이다. 정암 조광조의 後裔를 강조하고 있다. 중헌 조기순은 生員로 불리는데 小科 終場에 급제한 선비로 孔孟을 닮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유교적 도덕성이 있거나 四書五經을 배운 사람이면 생원이라 불리었다. 조생원은 선비풍의 사람이다.²³⁾ 그 아들 조영도 부친의 유교적 도덕성에 젖은 사람이다. 양반을 말하며 부모 슬하 떠나기를 꺼리고 있다.²⁴⁾ 조생원은 아들 영에게 중국 역사책인 通史를 가르치고 성인의 높은 윤리성을 강조한다.²⁵⁾ 영의 부인도 첫날밤에 남편을 따르는 婦德을 말한다. 칠거지죄와 삼종지례로 조씨 門中을 위할 것이라 맹세한다.²⁶⁾ 양반의 갈 길은 나라와 군주에게 충성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²⁷⁾ 조생원 손자 천행으로 하여금 先塋奉祀를 시켜 양반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한다.²⁸⁾ 또 퇴계 이황 선생의 도덕을 찬양하고 있다.²⁹⁾

중국 성현과 儒家의 인물을 말하고 忠節의 삶을 교육한다. 孔子인 대성현 문선공도 인간의 속성인 조급함이 있음과³⁰⁾ 孟子 유년시절에 어머니의 三遷之敎로 성장했고 문장가

22) 두눈이온전호고이팔 춘되거드면슈말이올머다하며스라게신조부님을조고만호조선국의아모리호덜못츠지라 그제야판슈에점을간 혼니판슈호느마리히 남천의이전딘년이라호더이과연남호씨의셔만너지이그점이마져또다 서로 셔름으로우지지고춤을추고천힘이올만지면서무변장슈호야유즈유손호고게게싱싱호올리라 원전69

23) 조생원은외당의거쳐호이세소호일은엇지다성언호리요 원전7

24) 양반의즈식되야부친의슬호을써나괴죄 호오나 원전7

25) 영을다리고통스도갈아치고성성현전도갈으치면 원전11

26) 칠거지죄와삼종지례를디강알고 원전21

27) 옛글의호여시되망국지디부느불가이드선이요픽군지장은불가이어용이라 원전 43

28) 천행으로포틴호야남즈을나아시며선영스도합거시요 원전43

29) 퇴계선싱호도덕칠십일쥬빛나신이 원전67

들도 凡人에서 孔孟을 배움으로 凡常人을 넘어 대인이나 군자가 되었음을 말한다.³¹⁾ 순 임금의 아버지는 頑固했으되 아들이 三皇五帝 중의 한분으로 세상에 명성을 날렸다. 이렇듯 학문하는 자세와 공맹을 본받음이 인격형성의 바탕임을 아들 영에게 가르치고 있다.³²⁾ 나아가 굴원의 충절을 본받아 유교의 君臣有義에 이념을 갖도록 한다. 婦德을 높이기 위해 왕소군의 자질을 涵養시켜 조생원 가문에 헌신 봉사하도록 訓育 또한 잊지 않았다.³³⁾

불교적 내용은 流轉하는 곳곳이 伽藍이다. 29개의 사찰이 나옴은 우연한 행선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생원 아들 영이 마을 鄕校나 書堂을 외면하고 금강산 수월암으로 글공부를 떠난다.³⁴⁾ 또 사찰에서 불전에 경배하는 내용이 나온다.³⁵⁾ 금품을 布施하고 무수히 發願하는가 하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전에 천만번 축원한다는 구절도 있다.³⁶⁾ 극락세계로 가던 죽은 어머니가 非命橫死한 아들 영을 만난다는 말은 불교적 내면세계에 심취된 듯하다.³⁷⁾ 영의 아내 이화동 장씨도 죽은 남편을 부르면서 往生極樂을 기원하는가 하면³⁸⁾ 絶景을 볼 때도 조생원은 극락세계라고 칭송한다.³⁹⁾ 경상도 합천 해인사 경내에 있는 팔만대장경각을 보고 烏鵲이 찾아들지 못함에 경이로움을 갖는다.⁴⁰⁾ 조생원 자부 장씨는 아들 天幸을 보내며 살아있는 嫗父를 찾아 모셔오게 할 때 조상을 위하는 일에는 厄運이 없음을 말한다.⁴¹⁾ 부처의 가호와 조상신의 陰德이 있음을 비치는 卍靑이다.

도교적 내용도 보인다. 동해 신선인 적송자가 백운간에 나타남을 표현하고⁴²⁾ 후사 잉태를 위해 산신께 축원함이 나온다⁴³⁾ 무산선녀가 구름타고 내리는 것이며 진시황이 학을 타고 옥경대로 가는 얘기⁴⁴⁾ 와 옥황상제에게 특별휴가를 받았다는 구절⁴⁵⁾이 있다.

30) 뒤성지성문선광도벽에조발호고도덕명현은여조도누한이요 원전29

31) 옛날땡즈의어무임도삼천지고호야니서성현아들되여넋고니 연은광간 저보고천호문장되얏신이네도또호심씨호야조선문장되야셔라 원전9

32) 임군아부임은후처의디혹호야 임군육기가고든정도름호야잇고 원전3

33) 빅초호지시집가던왕소군이서름넉달너서름의더호리가 원전65

34) 절간으로괄랑호야주읍시면집을호직호고글공부나호야모친의유언을갑스올리라 원전7

35) 붓체입게적배호고 원전9

36) 메역전물을불전의을녀놋코무수히발원호다가이미타불관세임보살천만번 원호고 원전15

37) 극락으로가는 의즈식영이나을보고어디로도라가며통곡호고 원전23

38) 낭군임은눈을갑고 낙세계도라가오 원전41

39) 보불십유호는풍속갈천세겨시절이요극락세계이안닌가 원전47

40) 팔만디장결갈문의오작이뫏안진이허무지도안이로다 원전49

41) 조상을위호야호는일은익운이업논이라괴리알나 원전55

42) 안기침 송조난동희상신선이라환부되야빅운간의늘건이와 원전5

43) 산신임씨 원호고 원전9

44) 무산선여구름타고양디상의나리난듯진왕이학을타고옥경디을힝호는뎡 원전19

청버들꽃과 武陵桃源의 설화며⁴⁶⁾ 북두칠성과 삼태육성에 빌어 누명 벗게 해달라는 장씨 부인의 기원이 모두 선교와 도교적이다.⁴⁷⁾ 일월성신께도 빌어 解冤을 바라고 있다.⁴⁸⁾

나. 노정

행선지를 따라가 보면 조생원과 손자 천행이 비슷한 길을 가는데 전국을 돌아오는 내용이 다. 조생원은 서리고 얹힌 가슴을 풀기위해 팔도를 유람한데 반해 천행은 조부를 찾아 강릉으로 모시기 위해 전국을 搜所聞하며 다닌다. 祖孫의 행로는 강릉에서 출발하여 양양, 삼일포, 대관령 등 19곳의 강원도 지명이 나온다. 경기도로 들어가면서 한양성, 과천, 양주 등 5곳을 지나고 황해도의 도갈령과, 두문동을 지난다. 평안도는 평양성과 모란봉 능라도를 구경하고 함경도는 회령과 종성을 거쳐 충청도로 들어간다. 부여 낙화암, 은진, 천안, 오매장터 등 11곳을 보고, 전라도로 들어가 15고을을 지나간다. 무주, 해남, 강경, 구례, 남원, 전주 등이다. 제주도와 대마도, 울릉도도 건너가 한라산 기슭을 살펴보고 경상도 21곳을 두루 돌아 가장 많이 보고 남해에 머물게 된다. 또 천행도 조부를 남해 터자면에서 만난다. 울진, 안동, 경주, 마산, 통영, 거제, 하동, 화개 등이 나온다.

사찰도 29곳을 찾아가는데 강원도 5곳, 경기도 4곳, 전라도 7곳, 경상도가 가장 많은 13곳이다. 수월암, 낙산사, 송낙사, 한등사, 송광사, 화엄사, 해인사, 홍국사, 부석사, 통도사, 쌍계사, 화방사 등이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제주도의 사찰은 빠져있다.

4. 결론

새로 발굴한 고대소설로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고전문학의 한 소설분야로 읽혀져 연구의 한 폭이 되기를 바란다. 조선 중기의 소설이다.

사대부 후예를 말하니 조생원은 벼슬없이 그냥 생원으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아들 조영에게 出仕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비명에 감으로 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흩어지게 된다. 며느리 장씨가 천행을 낳아 후사를 잇고 조부를 찾아 如前하게 가문을 만든다는 전개이다.

사상은 불교적인 내용이 많다. 그러나 충효의 유교적 교훈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다. 산신

45) 일전의옥황상제명령으로특별리방속호와 원전23

46) 버들꽃과무릉춘수육성꽃튼은은이논이다가 원전23

47) 전상의옥황상제북두칠성삼태육성명명지지하의누명설원비논이다 원전28

48) 천상일월성신임계불원호오니일월성신일체로강임하야 원전29

과 일월성신에게 비는 道仙的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

노정은 전국팔도와 많은 사찰이 나온다. 다닌 곳을 기억해 적음으로 해서 行先圖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대체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지명과 사찰에서 由來와 설화를 곁들여 애기함으로 흥미를 보태고 있다.

원전

도성원전이라

金00

히동 도선국 강원도 강능 싸의 혼 사람 ---난 헌년이 정암지휴예라 천성이 지성---명승지 다만 차자단이던 이가 0이 빈한하---씨 가장다려 이른 말리

“티장부 세상--- 빅의 공을 세워 유방빅세 못하---함포고복하면 제역이 하유어으 직이 로음---부셔로 텅세하고 킁 을 씹씨면 희가 못하야---” (1)

-티하야 십식만의 희복흔이 활달한---관옥갓고 위염이 현돌하야 스람마당 칭찬---영의 나 히 육세되믹 부인이씨 우연 득비하---낙누하고 한습지고 혼난 말리

“영아---천각이 되것고나 익고 조흔성세일---고설어 말고 공부 즐하야서 문초의 빗치 ---계하라”

“또 혼 손으로 가장의---시오 영의 나히 십오세 되고---여혀신이 호스로 성취하소”

“호탕---못지니고 직취을 한지라 도조강지며 싱각하야 즈식으게 설게 마오 임군 아부임은 후쳐의 덕하야 임군 육기라 고든정도름하야 잇고 안0의 아부엄미 엄동설흔 춘바람의 팔디 꽃술웃초음 늦코 윤빅이 이부엄미 우의 별즈부라 호고악명을 0피신이 임즈도 고금스를 싱각하야 즈식으게 설리마오”

도성원이 아모리 슬이라고 온가지로 악을 씨되 빅악이 무회하고 온가지오 공쥬위도 천고빅을 00 다 호상으로 치상하야 선순하의 안장흔이라

각설 도성원 승빅하고 무미독즈 어린 즈식 안고 막이 안즈신이 일가친 벗시업고 노비등속 켜이로다 빅집스를 부인과 이논하야(3) 세간을 일워늦코 날바리고 어디 간고 크닥헌 빈방의 어린 즈식 안고 누어신이 눈물제워 못살것다 그런고로 불마일식 지너여 인근을 원근동이 도성원 상쳐 하야단 마을 듯고 직취을 날노 권하느니라 전쳐를 싱각하야 직취을 홀 마음이 업시되 부모 제 전이 업고 살림 감장홀 슈 업다 또 혼 양반의 집에서 봉제스 접빈객을 주부업시 어이하리 안기싱

송즈난 동히 상신선이라 환부되야 빅운간의 놀건이와 무미흔 세상 스람 음식 츠 의복 동결 환부로는 못하것다

천스 만퉁 싱각다가 비씨문의 직취하야 삼일후에 신행흔이 고정은 무쳐소요 신물은 도화지라

슬푸고 정든 사람 구비구비 싱각던이 동상화촉 질고 진밤의 정든 임과 잠을 잔이 전쳐 싱각 전이 업다

비씨부인---지인이라 도이에서 밋지 못홀너라 인햐 아들 형제를 탄싱흔이 이웃 사람과 노복들리 극기 도심햐 지너던이 호오나 도부즈 너렴의 비씨부인 불헝홀물 디강 짐작햐 지너던이 이리 별노 업신이 물은 부스홀고 의심업시 지너더라 그러햐나 즈식 두고 무삼 설음을 당홀가 쥬야 근심햐 원근간 출입을 0으로 못햐더라

세월리 여류햐 도싱원 언세가 스십여세요 영의 나히 십이세라 스방의 엄마 노와 어진 규양 슈탐홀되 비씨부인은 너렴의 흥게 틈심햐 성취홀 마음 전이 업다 비씨부인 불칙지심을 자아니여 제 혼즈 싱각홀되 영의 나히 점점 장성햐면 장즈라 호고 가간 절 디소스를 제마음디로 천편햐면 너 괴출은 정영이 월음을 당홀지라 호고 영의게 구박이 즈심햐나 영의 본심이 후홀고로 (5) 부모게 호성이 지극홀고로 추호도 제는 그런 니식이 업느니라

조싱원은 외당의거 처흔이 세소홀 일은 옛지다 성언홀리요 비씨 심정보소 강진세목 장성마포 분쥬 명쥬 필필리 사들려서 제 즈식 제 의복은 낫낫치 지어니여 온갖 호스 찰난홀되 영의 의복 불작시면 부즈의 즈식의나 안과 박기 현거시라 온갖 음식 갓초햐 제의 모즈 포식홀되 영이논 고기 혼점 술 혼잔도 안이 준다 그러햐나 영은 지성으로 제 모친과 갓치 호성이 지극홀이 어린아히 불상햐다 그 부친 목전의는 음식 의복을 별노 사랑햐야 지 괴출갓치 익홀햐나 문박기만 나가면 베락갓치 구박홀고 눈살 준이 영의 열골 슈 햐야 오육월 엄천도 춘바람이 절노 난다

조부즈 호로밤은 즈식 영을 다리고 글즈도 갈르치고 고금스를 은논햐다가 즈아방의 문논 말리

“네 열골리 슈 햐야 병이 나게 되얏신이 너 마음이 비창햐다 네 게모가 아무 거시라도 네 동심갓치 사랑햐면 제 괴출갓치 여기던야 즈서이 마을 햐라”

영은 본심이 쥬홀 고로 부친을 쇠기지 못햐야 묵묵부답홀고 체음 즈탄햐며 눈물을 흘이면서 햐는 마리

“양반의 즈식되야 부친의 슬홀을 썩나기 죄 호오나 남즈 세상의 나서 어진 선칭을 만네 공 부할 마음이 잇스온이 절간으로 팔랑햐야 쥬옵시면 집을 호직홀고 글공부나 햐야 모친의 유언을 갑스올리다”

부친이 낙누홀고

“그러햐라”

호고 심의 밋친 마음이 제 어린젼이 엄미가 제 엄미며 제 집을 썩나리요 제 마리 저려홀이 분명 설음미 창천하리로다

탄싱흔심으로 진진 밤을 게우 식와 횡장을 츠일 의 춘츰의복 갈아 엮코셔 칙을 갓(7)츰위 금강산 슈월암을 츠즈 간이 산은 천봉이요 물은 잔잔 벽계슈라 양유 집푼 고딕 황금갓탄 저 씨쫄리 실푸다 저 뒤견이 무슴 셔럼 품어관디 환우싱을 즈으닌다 빅운홍슈 집푼 곳디 늑고

늘긴 노중 이 시문을 급피 열고 혼 걸음에 닐여와 합장 비에 후에 속직을 인도하야 직탐의 좌
정하이 세상스 쉼갓타야 호 천지 여그로다 노승의 당호는 설암이요 심명은 지선니라 원너 이
은 관암보살 후에로서 염불공부 지극하이 세상 사람하난 마리 싱불리라 혼지라

조성원이 되스다려 일은 마리

“너 성세 요부하야 주식을 고등으로 글을 전퍼하고 놀기만 심을 씨이 일어하고 어이홀리 존
스의 덕택으로 수삼년만 갈아치웁소서”

설음이 합장 비레하고 닐음 마리

“취비혼 으게 천금지주를 부탁하온이 었지 연하올릿가”

조부주 영을 불너 단속하고 누누이 닐은 마리

“옛날 링즈의 어무임도 삼천지고하야 너서 성현 아들 되여 닛고 니 연은 광산 저 보고 천
하문장 되얏신이 네도 쏘흔 심씨 하야 조선 문장되야셔라”

붓체임게 직비하고 산신임씨 원하고 빙양 돈을 시주하고 설암당씨 하직하고 영의 손을 잡고
낙누하고 경계하면 담당밧게 나서 온이 눈물리 소스나고 목이 막히고 기리 으득하다 품안에 얼른
주식 육세에 어미 일코 근근이 러너여 십여세를 워씨이 계모의 만너 막흔 금강산의 부주
두리 혼기 와서 제 혼자 을 주고 나 혼쳐 둘러간이 천지가 아득하고 설음설음 돌아보와 손으로
갈으치며 어서 도라갈라 혼니 영이 혼는 마리

“부디 부디 아부임은 으령이 형쳐하옵소서(9) 불효주 영은 들어가는이다”

하며 낙낙중송 비게 안고 옥면의 흘이는 눈물을 일리 싣고 저리 씹는 겨동 춤마 보기 슬어 나
죽것다 일월리 무광하고 산이 요열하제 이너 눈에 피가 느다

글리 저리 돌아 와서 날리 가고 달리 간이 흥 의 썩닌 슈심 점점이 떨어간다 얼골리 눈의 암
암하고 말소리 귀의 청청하니 이질 줄리 전이 었다

각설리라 설음당이 영을 다리고 통수도 갈아치고 성성현전도 갈으치면 혹 부쟁도 의논하야 영
의 직조 비 하고 천성이 영민하야 일남 기하나 전싱 원으로 슈흔이 부족흔이 주면을 숨가하
고 천인술 근피하라 이되야 입산불출하고 염불공부하거드면 연슈을 하련이와 호가 주제로서
되기가 슈을춤이 세월이 무정하야 어연간 슈연이라

조부주 영을 산 의 두고 연연불망하고 주야 한탄하더라 잇싸에 비씨부인 전모의 능을 열고 영
의 혼슈--낫낫치 귀-흔이 영초단강월스며 운문되도무갑스며 일광단모초단 통히단 흥세주홍갑스
며 흑전홍전 오식전과 홍슈주녹슈주물명주며 한손세포 황제포며 서양목양달양고양나이강진세목퇴
영세목왜포 춘포히남포며 갓초갓초 가득 었코 쏘흔 능을 열고 본니 북도달비안성유기식별갓던 요
강디와 슈금지환 옥지환을 갓초갓초 다 었혀거늘 욕심 만코 시기만 혼 비씨부인 건물싱심하야 욕
심미 절노 나서 낫낫치 눈여기 보왔싸가 그와 방스흔 물건을 스셔 그 슈을 었혀두고 조흔 것 쏘
바니여 제의 주식 주라하고(11) 심치부하야 을 의 조부주 하로난 초당의셔 조우던니 망쳐 잇

찌 눈물을 흘리고 흐느 마리

“죽식 영의 혼슈 물건 너 손으로 싸고 싸서 집피 집피 두워던니 요악흔 비가연이 낫낫치 열 너녀 제 죽식 주라 흐고 주야로 작간흔니 중문열려 보와 낫낫치 상고흐오 쏘흔 영의 나히 심 오세가 되앗신이 성취흐오”

흐거날 놀너 썩달으니 남가일몽리라

망쳐을 심각흔이 눈물리 소스나고 쏘흔 임종시에 유언을 즈몽햐 영의 나를 세알린이 십오세 라 이날노 슈월아 설음 디스씨 편지흐고 스환을 보너이라 이 의 설음당이 불전 부형흐고 염불 노 발원흔이 송정의 빅하이 우짚고 - 소리 동구의 들리거늘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엇서흔 사람이 편을 --써어보니 흐엿씨되

“어연간 슈언이라 근미신 글너에 티범주 괴체 편안흐시면 죽식 영도 무스흐올잇가 소제는 용 렬흔 세상의 빈부간다스와 가지 못흐올썬덜러 부즈 상봉이 자지면 마음이 손상하올스 세고로 가 읍지 못흐니 엇지 일운이라 흐올잇가 쏘흔 분주흐와 못가오니 허물치 마옵소서 쏘흔 다름이 안이 라 죽식을 십연이라도 디사 법좌의 못 두릿가만은 연의 상제흐고 지취갓지 흐엿던이 제의 게모 회과 주척흐고 쏘 부즈간 정의에 오릭 글러 살 슈 업고 제의 심모 임종시에 유언흐되 오세 되거 든 성취하라 흐온이 엇지 아쳐라고 언약을 위반흐릿가 슈연 상제간 정의에 보너지 쟁쟁흐오나 속 키 보너지소서 매역 열단흐고(13) 돈 빅양을 보너지오이 덜엽다 마옵시고 선스의 보퉁여 씨옵소서 무 인이월십오일 속석기 언 비상흐노라”

흐야거날 설음당의 거동 보소 옥탕의 모욕흐고 고갈 씨고 칠근개스 썰쳐며고 매역 전물을 불 전의 올녀 낫코 무슈히 발원하다가 이미타불 관세임보살 남무관암보살 천만번 원흐고 답잡흐엿 씨되

“일만일천 늙픈 고디 빅운 혼슈 벳을 삼아 세월을 보너던니 쓰박기 일장 서간이 시문을 쭈다 린이 임당의 빗치느고 감겨흔기 청양업으나 혼인은 일운지디스오니 그 성명공부로서 엇지 디스를 뇌각하리요 영운의 골격이 준흔 장부요 팔즈을 살페 보오니 전심 원으로 세상의 상계나서 천익 이 잇신이 십연 육 이 되야 극락으로 발원흐면 팽조슈흐엿만은 일직 성취흐면 슈분에 히가 되온 이 빅번이나 익달고 답답흐여이다 소종지물은 정으로 포흐엿신이 황송흐와 박기 무렵흐여이다 슈 월당 소승지선은 지비라”

흐엿더라 월암당이 제주 영을 보너지 가는 길을 바리보이 익연흐고 연연흠미 이기지 못햐 도려여 안니 본젼만 못햿더라

조부즈 영의 손을 잡고 별노 사랑흔이 조흔 마음이 도로여 슬픈지라 영이 디스의 편지를 올리 거날 기뻐흔이 흐엿씨되

“정심 원으로 팔즈의 살리 흐야신니 성취불과하다”

흐엿겨날 조부즈 디소흐고 일은 마리

“조조의 팔십만 디병이 병강의 소화함이 군스마동 전성죄며 진항줄 사십만인이 장 의 무썸
려신이 사람 마동증형인야불도 허무지설을 었지 다 밋들소야(15)”

이날로 믹즈을 햏야 양양짜 이화동 장진스 덕의 어진 귀슈 잇단 마을 듯고 혼햏이 햏락햏
난지라 삼월십오로 정혼햏이라 조부즈 혼슈을 츠일 의 망쳐의 장을 열려본이 채단광월화갓치 잇
사나 사람의 슈 지닌난지라 의심햏고 괴이이 햏야 비씨다려 무은디 비씨 엇즈오디

“혼인 박두햏고 물건이 투식햏면 종즈중부기혼이라 쏘햏 부즈 기구로서 남의 취소햏가햏야보
와쌈던이 물건이 변치안니 햏옴기로 그디로 너햏는이다”

남즈는 외각이라 비씨 마을 올히 듯고 몽스을 이 더라 도지요요 춘삼월 신흔 길을 츠일 의
측두눔들 불너니여 -나을눔 부 햏눔 낫낫치 배판햏 제 니도 가자 네도 가즈 서로 닛토와 도와
햏되 괴 의 쇠작지라 햏는눔이 우연이 참변햏고 순중치 안이 햏이 부지곡절로되 조부즈 녀렴에
심히 괴햏햏는 의심업시 분부햏고 길을 직촉햏 제 실당 칠레 보소 외올쓰기 망근 디모관즈 삼빅
줄 통제랑의 갑스 갓근 달라씨고 빅방 슈쥬 누비바지 빅슈쥬 누비 비즈 디모단초 달라 씨고 옥식
측포 큰 창옷과 십이 햏산모슈 도복 썸쳐입고 갑스 복근 밋슈잇게 눈에 썸고 송도 초린 여측로
가지 가고 통디단 햏리근운 디단 조햏 도리측치 쥬햏스 가진 밋담 달라 측고 즈쥬 갑스 선초 들
고 상장 승교 유옥교의 포 햏장 둘너 치고 천금 준마 독교햏야 두려시 올나타고 요각 치레 보
소 실당 햏스 저려햏 제 상각햏스 엇더햏고 지직비눔 판디 지고 소릭 조햏 역측햏 햏인 쌍쌍이
갈나서 서원 마성 측화햏니 햏인들리 칭찬햏되

“세상의 부귀공명(17) 못햏진디 즈식니여 이거시 영화로다”

경포디 햏햏고 양양지경 바릭보니 낙스스 저기로다 낙산스 저 들라 인간 빅세 열미관디
측을 햏송햏고 동방화측 모의냐 그령저령 이화동을 다다른이 진스딕 질지비가 오이햏에 마조
나와 스초롱 화측썸즈쌍쌍니 갈나서서 가난 기을 인도햏야 익무갓튼 햏임덜은 정반상을 눅피들
고 스-의 죄기햏이 강원 갑스 도입초의 장관이 이만햏메 직미가 이만햏라 빅석의 들려서서 디연
을 귀경햏이 빅포 햏장 둘너 전안상 비셜햏제 녹의햏상 햏임덜은 죄우의 버려서고 슈모는 월노을
둘리오고 승비잔 권햏 제괴 엇지 안이 죠햏시고

각설니라 예필 후에 요괴은 녀단은 스쳐햏고 실랑은 정침으로 드러간니이 을낙서산 햏햏되야
등측이 휘햏햏디 물상을 물린 후의 큰밥상 드리거날 상치려 살피본니 아름다운 고은 톡도 팔즈
산이 미쥬분성 다스리고 햏치단 삼식도화 미진봉이 더욱 좃타 좌우의 월구타운제석으로 느
리고 용장봉장 팔모측의 옥픽 월픽 디방전 만햏장도칼의 보릭디단속저고리 도리도리 불슈겨 저고
리 딛햏디단 진쥬미빅박 수쥬고장바지 물명쥬 속거시면 포량슈쥬 잔술바지광월스갓치밋면 인물평
풍 좌우의 갈나치고 슈톡햏고 안즈신이 그 열골톡도는 세상 인물 안니로다 무산션여 구름타고 양
디상의 나리난 듯 진왕이 햏을 타고 옥경디을 햏햏는뎡 햏당화 햏가지의 측풍을 못이기에 햏정미
토햏는구나

삼척정지울지고(19) 복두두우 직촉하야 밤이 점점 집퍼든다 밤춤을 다시 너여 두리 안자 요구
하고 침금으의 나와 돌려 등촉을 물린 후의 원앙 심 의 누워신이 비취을 의지의 되림갓더라 실
냥의 늑히 십오세요 신부는 십팔세라 음양지낙은 고금이 달을손야 칠월칠석일의 건우직여 만년
듯 만 산 노장 이 승자를 어리난 듯 두 몸미 혼몸 되야 누워신이 가득흔 이너 사랑 염치를
가을손야

신부다려 이른 마리

“너 본디 부사 용의 즈제라 호가진 즈제라 하야도 십세 전의 모친 일코 계모의 구박만니금강
산 슈월암을 올라가서 슈연을 공부하다가 부친의 명영으로 임지의게 연분잇서 부모형제가진문의
달갓탄 불회 남아 호스취쳐하이 그안니 연분인가 빅련을 히로하야 삼십연분구지미자 유즈유손하
올리라”

신부 이른 마리

“너 아모리 --라도 칠거지죄와 삼종지예을 티강 알고 링성요 노푼 형술 옥경의 구든 절기
썩박기 예렵습고 춘경춘하 가간스와 싱남싱여 여즈스는 원디로 홀거시오 부모임게 호도하고 형
제간의 우익하고 일가친 화목하며 제스 절 스당쳐려 낫낫치 홀거시오 침선방 고훈 차제 어
렵지 안이하나 난화즈부인리라 계모임의 정정이 편벽피거홀여인과 조석으로 번기하다호오니 씨부
인 만세후의 정영이 화근을 당홀 거신이 임군 썩을 바드 불격간하옵소서”

각셜리라 조부즈 이날 밤의 친스돈과 흙미 안즈서 금고스도 설화하고 간간이 주호로 취포하고
등호의 조우던이 비몽간의 어딤로 가다가 망쳐 이씨 호련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혼숨지고
우는 마리(21)

“너몸이 전칭의 죄옥지 하야 슈말이 풍도지옥의 드러가서 십년을 갖쳐닷가 일전의 옥황상제
명영으로 특별리 방속하와 극낙으로 가는 의 즈식 영이 나올 보고 어딤로 도라가며 통곡하고
실패 우이 이일을 엮지 하며 너 쏘흔 세상을 못다 슬아 원흔이 되야 너 즈식이 이려하이기여보
세 가련하고 디장부라 즈충하면서 처즈노복가스죇체그리호오 유명이 현슈하야 정담을 못다하고
계영전의 간다하고 무슈히 통곡하거날”

소시쳐 놀니 씨이 한출 비하야더라 몽 스 흥참하이 호스다마하다 어이하야 그러하고 혼미
의 안저드이 안으로서 야경소리 들리거날 스돈을 소리하여 두워 결음의 니다라셔 념치를 다 바리
고 너정으로 드러간이 신부 침방안의 --소리썩이로다

초설 신부 이날 밤의 움가지로 담화하고 침금으로 드러가서 줌자라고 비게 든이

“스 호접 모이되야 문경창포 너린 물의 일엽편주 홀리 저어 낭군과 흙미 올라 실냥은 재미을
들고 신부는 뇌을 저어 동정츄월 소송아우의 역역키 귀경하고 위성조우음싱진직스 버들꽃과
무릉춘수복성 싯튼 은은이 논이다가 닐진광풍 이려노고 온기 즈옥하고 천지가 뒤눕는듯 두손가락
마조 줌고 비우의 두리 안즈 흙미 즈하야던이 실냥은 풍풍의 썰려져 망망디히 지폰 물의 비류

되야 상천하고 용의 식고는 썰려져 너 몸의 감겨늘”

놀너 기달으니 방안의 와연니 누어는지라 잠떨어 일어느셔 모친을 급피 불너 이른 마리

“이 일리 어인 일고”

떨며

“병 안의 가보시오 이거시 꿈인야 침시야(23)”

모친도 떨며 가 이 요란하야 씨부 친부 일가친 이 형승 분연 후의 조부즈 모양보소 정신업서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양천통곡 달려들어 목업는 송장을 이리 은고 저리 은고

“이거시 원일이야 어미 업는 이너 죽식 설리 설리 굴녀너여 영화를 보려더이 이거시 어인 일고”

통곡하미 뉘가 안니 눈물 머검의리요 순천이 흠누하고 옥석도 무식홀 제 군 영의 피가 눈이 조부즈도 것구나 가 제인이 아무리 진정흔덜 먹이 업는 송장리라 약으로 구안하며 친 딸리 신부타려 날은 마리

“양반의 집안익서 이변과가 어닌 일고”

스부지 처소로서 보지 못흔 씨부전의 홀 마리 전니업서 황망이 안즌신니 혼불부신하느니라 조부즈 정신차려 날런 반스하고 시신을 스물꺼너여 환스 불너 형중을 단속하고

“직시 치형하야 강능으로 가라”

홀 제 신부는 발상하고 상예 뒤에 사라오니 조부즈 하느 마리

“거스하—로다 강상지교변니라 하면 목으로 너집을 올다”

하인 불너 물이친덜 혼스하고 사라 올제 올면불면 하느 마리

“전상의 옥황상제 복두칠성 삼티육성명명지지하의 누명설원 비는이다 흑흑을 가려주옵소 서”

직금 즈 혼덜 발명무로하야 오직은 목심을 보존타가 설원 후의 스침을 판단하고 그로 망스하고 상예 뒤를 팔아가니 조부즈 구박은 고스하고 노복의 구박이 죽심하되 혼스절단 사라간이라

상하 인민 친 들리 장진스되 신랑이 익스하야 잔말을 듯고 간부 흥게라 하고 구석구석 숨을 본다 신부의 빅옥갓탄 절기(25) 송빅 가친 미친 맛음 빅변 고 쏘 어도 괴는 섭지 안니 하야도 누명을 벗지 못하고 원통이 은 실낭 빅연을 괴약하야 낭군의 원슈을 아모조록 갑푸리라 하고 심 의 텅세하고 발섭도도 분흔마음 근 낭군 사라와서 씨가로 드러간니 구비구비 미친 마 음 눈물이 안이 누고 피가 절노 소스느다 요욕하고 숨옥하다 비씨 연의 거동보소 손색을 주달리며

“이고 이거시 어인 리인야 양반의 집 죽식으로서 이거시 원닐닌고 저런 형슬 닛단 말가 네 무 슝 발명하라 네 왔단 말가 천지두식외에 날런 변교 닛단 말가 발명하라 네 왔느야 무 하라 다라 온다것을 하거드면 부지하경이요 장가 멸문지환을 당홀 거시로되 틱집 싱원임이 인즈후덕으로 근

양 도라오니 네 소견의 오직 조와 이곳까지 사라온다”

온가지로 구박하고 씨부도 구박하며 노복년덜 엇디홀가 등미려 처니치거늘 신부는 홀일업서 문박과 쫓겨나와 정신노코 누워던니 니몽간의 낭군이 드러와서 목을 은고 하는 마리

“불상흔 우리 은히 부디부디 은심하야 목심을 보전하고 아무리 구박하되 구박으로 우지마 요”

놀리 씨달으니 남가일몽리라 남녀노소 전인들리 뉘 안이 녹누홀리 뉘외관직 가초하야 힝낭방 의 빈소하고 조부즈는 음식을 전퍼하고 주야 통곡하며 신부는 괴만 바리고 빈소의 누워신이 화 초췌이서이실봉지봉지 눈물리요 월출동영 우는 식은 무슴 서럼 품여과되 밤식도록 우지지며 비회를 죽아니아 조부즈 탄식하되

“니팔즈 무승하야 소연상체하고 유세동을 품의 품고 설리설리 글여니여 하즈 성취(27)타가 뜻박과 닐은 악참을 목전의 본단말가 절통하고 분하도다 설암당의 마을 들어든덜 일언 변을 면홀 거설 고집하야 고집을 켜우다가 일헌 변을 당하야신이 가운데 불힝하가 명이 괴췌인가 되성지성 문선왕도 빅에 죽조 발하고 도덕 명현 은여즈도 누한의요 스하이 옛날노 불작시면 닐련 일리 닐 거이와 뉘 설음갓탈손야”

주야로 죽탄하더라

각설리라 신부 장씨부인 빈방의 거쳐홀 제 가 혼원이 천디하고 구박이 죽심하되 그 의 즈미 와서 빈소의 드러가서 곱을 베고 조하드이 비몽간의 서방임을 부르면서 각골지 통분흔 누설을 뉘보고 설원하리

“명천이 감동하스 선옥 괴별하옵소서 천날 밤의 가장 만니 변기갓치 이별하 의 흥참하고 불상하게 이별하이 설음니 참천하야 천상일월성신임게 불원하오니 일월성신 일체로 강임하야 낭군의 두골을 찾게하옵소서 구천의 도라가신 씨모임도 아무리 유명이 현슈하오나 일체로 강임하야 싱전의 익홀하던 은달 싱각하야 머리를 츠즈 주시고 박명하 뉘 신세도 불상이 여계서 누명을 벅게 주옵소서”

무슈이 빌고 정신이 아득하야 업더저든니 뜻박과의 낭군의 머리 빈소의 들어와 살갓튼 피췌과 사의도 썩러지고 चु미의도 무든지라 사당문을 열고 호련이 드러가거늘 장씨 두골을 쫓츠 팔라단 니다가 두골을 거머잡고 업퍼지락 잡바지락 통곡 소리의 놀니서 깨다른이 몽스가 쳐랑하다

염치불고하고 죽야밤의 씨부임(29)제 노아가서 문박과 꾸려안즈 지성으로 비는 마리 “니 아모리 박복하와 만만금 빚싼 가장 천날밤의 익스하고 이 집안의 부지하야 쇠끼 쭈을 무름씨고 잔명을 보존하나 무신 닐치로 씨부임전의 비을잇가만는 지극키 올을 말숨이 잇스오니 종용이 드러보옵소서”

조부즈 심취 의 메나리라 하느소리 몸 리가 절로 난다

“뵈기도 닐스 실코 듯기도 닐스 실타 무신 일리 간절하이 봄 의 드러와서 요악하고 승옥하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나스 실타”

“하며 구박이 무슈히 되 지성으로 익설하니 조부조 천만번 생각싸가

“그러하면 말을 하니

장씨부인 단정이 쓸려안주 엿자오되

“빈소에서 누명을 원하고 혼미 의 꿈을 꾸니 낭군의 머리 빈소의 드러왔다가 도로 나가서 온집안을 두류 단이던이 스당문을 열고 드러 가온니 아무리 박명하고 불회하는 소녀의 चु미의 피 을 보시고 마당의 나와 피무든 혼 을 보시고 허스라 여긔지 마옵소서 낭군의 머리를 찾거든면 퍽변 고 또 어 이너 몸은 앓잡지 운이 하여이다”

조부조 녀림의 소징하고 언어가 맛당치 못하되 은 죽식을 위하야 허허실실로 요행이 멀리을 츠질가 하야 등에 불을 붙이고 스면으로 둘러보니 과연 피점이 의복에도 못하고 곱우에도 못하고 마 당의도 썰려서 도로 마동 썰린지라 디강 그만 보와도 반신반히하야 스당문을 열고 들어가니 과연 두골리 뇌여겨날 장씨부인 달여드려 चु미에 싸고 나와 방성통곡하는 양은 처량하다 순천초목이 우는 듯 일월리 무광하며 조부조도 혼비혼산 저런 의 두골을 츠즈낫코(31) 괴절하야 업더지고 장씨도 불성닌스하느니라

가 이 혼동하야 안는 알거이- 다른 이야 엿지 다 알리요 모다 혼곶하여 황분주하더라 빈 소이 드러가서 곱을 다시 씻고 목을 너여서 염십하야 선산하의 안장하더라

각설리라 조부조 그제야 신부는 무죄하고 필유곡절리로다 녀집 문운이 불길하야 일언 번이 낮 또다 비씨 불너니여 일은 마리

“가스전장 나는 실타 짚은 죽식 녀 모른다 팔죽홍칙하야 리련 변을 목전의 보니 세상스을 다 바리고 천지로 집을 삼고 일월로 벼슬삼아 팔도형식으로 귀경이나 할 거신이 임적은 죽식 형제를 다리고 잘 이던지 못넋던지 뜻되로 하여보소 또 장씨 형상 보기 실타 무죄은 디강 아되 연불을 으지 몰라 이야 의 닛느니라”

집안을 하직하고 형장을 츠일 의 천금준마 다 바리고 장미혜만 포즈로 하닌을 톱출홀 제 영민흔 쇠작지눔을 불너니여

“네와 흠기가 몇몇히을 지녀도스지동고하야보자”

흔이 쇠작지 엿소오되

“소인은 흥가로 못가리로소이다 익시로 산중이 잇서 을 가면 산중이 복발하오니 분부시형 못하옵난니로소이다”

조부조 녀림의

“니 늬미 필경 흥게흔 마음을 먹고야 괴 스단하야또다”

올화로여- 여취하야 천지를 분간치 못홀 지음의 이눔 슈츠불선거형하야 분괴 디발하야 노소노 즈을 불너니여 쇠작지 자브드려 스방의 말둑 박고 스지를 갈나미고 스모장으로 무슈이 쭈달리고

장으로 발장심의 박고 베타갓치 추살하며

“너드르라 서방 임 신흔시의 네놈이 증병하고 은이 오기도 늬니요(33) 너 신흔 심스 불평하나 완경츠로 갈라하고 네게 분부흔지 신흔 증병하이 무신 흥게로 상전의 영을 거역한다 네 갓 탄 늬은 천지를 모르는 늬년이 살녀 무엇하리요”

무슈히 쭈달리며 하느 마리

“천하스이 친직을 반니라 닌군이 판탕지세를 당하며 신즈지도리의 슈화를 무름씨고 익비가 급흔 일을 당하면 즈식의 도리의 슈화를 피치안니하고 상전이 곤박흔 지경을 당하면 노즈의 도리의 스싱을 도라보지 은이하느 법이어날 네 양역지 도리의 유병무병간 증탈하고 네 죄목은 불가증상이요 괴설치 못할 죄닛는 네놈을 살여두위 무엇하리요 춘과부 슈결하고 만금직산 두고가이 상늬의 욕심리라 하느 거시 천지를 분간치 못하고 무도흔 늬 동심하야 죄물 도 홀 마음을 두것나 네 무신 흥게 닌는 거신니 괴 전의 바로 알로라”

하이 비씨 나와서 조싱원게 간 하야 마을 하되

“옛지 네만흔 늬이 하감싱심으로 상전임의 출입시에 추종을 안니 하올잇가만는 들른니 손중으로 알난 모양이로되 기로씨 증변하느 것신니 어 맛당하오나 가 지변고이 만하오니 아직 안서하옵소서 천금기체를 진 하시고 일후을 보옵소서”

익결하거날 조싱원이 더욱 뒤로하야 일은 마리

“집안니 일러하기로 과상지변이 낫또다 거외의 불원니하고 부인은 -하니 물언외하고 닌는 거시 올커날 남즈의 울화지심과 술성발광지녀와 사환늬이 천지를 분간치 못하느 죄을 다시려 살발싱은늬의 저단이언날 부인은 무엇하리 외당것지나와 너의 분을 막그려 하이 옛지 분치 안니 하리요 쌀니 드러가오”

하며 호령을 상설갓치 하며 철장을 닌여 박고

“네 죄은 네 알 써신니 말로 알로라”

하신이(35) 쇠작지 늬이 할 슈 업서 그제야 옛즈오되

“소인이 양역지도의 슈화지 인덜 옛지 피하오릿가 바로 알오올거신니 살녀쥬옵소서 무신 말난다 천지간 덕역부도 강상지죄을 짓고 옛지 살기를 바리리요 서방임 신흔시의 만모익임이 소인을 불녀 분부하되 돈 일천냥과 논 열석직의를 줄 거신니 너 말로 시형하라 하시고로 서방임 성흔하며 싱원임 만세후의 장즈라 하고 가스를 전장하면 당신 괴출 형제는 간하야 괴흔을 정영이 당할 거시요 신흔 너의 신세 옛지 될 줄 몰으고서 시이 닌씩을 등하야 덕스를 도모하라 하시고 너게 비슈겸이 닌신이 니 칼노 가지고 식질의 가지 말고 증병하고 집의 잇다가 뒤을 짜라가서 이 화동 근처의 몸을 감초와 야밤의 닌 식을 터서 담을 녀며 들어가서 서방임 목을 베히 가져오라 하시고 이 물을 너만 알고 입밧게 닌지 말나 성스 곳 하거드면 네라도 오직 조하야 천금직과 열석직과 논가지고 속양셔 살거드면 네 평싱이 작작할 거시요 집도 휘환이 업실 거시이 의심물고

너물티로 헝헝라 스름 헝낫 업거드면 네도 좇코 너도 좇코 신부라도 간부의 헝겨라 홀 거시니
네겨요직보원홀리 천날밤의 서봉 임 일코 춘의 홀로 슬거는야 기 헝야 슬노 가면 네게 광겨홀
야 천언만언헝읍기로 만스 무지 상환놈의 소견의 지물만 욕심너여 괴물을 오리 듯고 강상지죄를
헝헝어스오니 옛지 슬기를 브릭익가몬는 소(37)님 놈의 강상지죄는 천지실영이 절노 알아
거신이 임무 는 놈이 옛지 불상흔 익씨님의 누명을 안니 발명헝올잇가 소인 나어서 괴 줘음
소서”

헝니 조부즈 이말듯고 이욕키 아모말도 못헝다가 정신을 슈십헝야 이른 마리

“정영이 그러헝다”

쇠작지 알오되

“염문지헝의 옛지 그른 말슴을 추호나 쇠기린가”

비씨부인 불너너여 그놈의게 분부헝와

“앗가헝던 말을 낫낫치 다시 헝라”

쇠작지 비씨을 바리보며

“요보시오 만눌이임 당신 말 드러더이 무죄흔 설운 목심 속절업시 계되이 그안니 절통헝
오”

비씨가 무류헝야 열골리 팔빰치 되야 거무락 푸르랴다가 헝말도 못헝다 조부즈 분부헝되

“네게 비슈가 낫다헝이 가져오라”

쇠작지 제 권식 식겨 가져와거날

조부즈 호령헝되

“네가 상전을 거신이 그갓- 비씨씨 노흔 주식 형제를 헝티 문제세우고 헝칼로 버히라”

쇠작지 헝는 마리

“을 쟁을 당헝야 환장이 되야 이 지정을 당헝여쓰오니 옛지 소인이 을지라 또 죄을 헝
올릿가 두 도련임이야 무슨 죄 잇는익가 소인이나 여읍소서”

조침원 분부헝되

“네 옛지 너 분부는 종시 거역헝이 더욱 을 놈이로다 그 소임을 두워 무엇헝리요 엄미
괴는 거시라 너 장즈을 제즈식 위헝야 거신이 제 주식을 옛지 살여 두며 옛지 제 제을 옛지
슬이리요 불가불 서봉 임 보원을 익씨임이 갑즈흠 쏘 가 의 변교날 거신이 너무 익비되야 주식의
원슈을 갑지못헝라 어서 괴라”

헝이 쇠작지 헝틸업서 양천 통곡헝는 마리

“불상헝다 불상헝다 어린(39) 인싱 엄미 죄로 으니 그안니 불상헝가”

비슈을 농피 들고 헝변 버닌 후의 그 칼노 제목을 버혀 직결치스헝난지라 조부즈 여광여취헝
야 헝거름의 썬여너려가서 그 칼을 농피 들고 비씨을 잡아너야 낯은 마리

“네 죄는 네 아논야 불칙흔 교변을 자아닌이 네 연을 엇지 슬여두리요”

흐면서 쏘흔

“네 주식 귀는 거실 보와신니 그 형상이 엇더흔다”

비슈을 늑피 들고 비씨 목을 치어 섬광을 좇츠 놀려지느라 형천이 날빋틀 가리오고 일월이 무광흔지라

장씨부인 달어들려 그 연놈의 비을 갈나 간을 닢여 씨부며서 여광여취 춤을 추이 그 안니 상괘 홀리 쏘 연놈의 간을 들고 낭군의 무덤예을 나가서 낭군을 불으면서 호천통곡 우느 마리

“삼부팔모 소 하나 녀즈의 도예 가장박괴 쏘 닢느야 숨악흔 빅연이 쇠작지눔 부동흔야 불상흔 낭군을 겨 원혼이 되얏더이 천우신조흔야 슈문 일리 닢타나서 도 누명을 발명흔고 셔뵈임도 불공딤천지원을 씨부임씨읍서 연놈을 보슈흔와 연놈의 간을 닢여 와스오이 아무리 구천의 도라갓스오나 낭군임은 눈을 감고 낙세계로 도라가오”

불상흔 우리 낭군 구천의 흠기 가서 이싱 년분 다시 미즈 빅연히로흔야 유즈유손흔야볼가 익통흔고 혼절흔고 누워더이

혼미 의 낭군이 갓티 안즈 만신을 만지면서

“불상흔다 은 닢을 싱각흔야 원슈을 갑푸이 설이 우지말고 천금 귀체를 안보흔오”

천늘갓치 스랑흔며 흐느 마리

“낭즈의게 닢의 혈육이 처신니 천형으로 남즈을 닢을진딘 선영스를 밋들가본이니이다”

흐며 흐직흔거날 황홀리 닢려느이(41) 분상압페 노왔던 간을 디명이가 물고 가는지라

각셜 조싱원이 일시에 삼스 닢을 기고 심스를 싱각흔이

“스괴 스괴스흔야신이 세상출도 못홀지라 흐고 장씨 형상 보괴 실타 네가 무슴 죄가 닢단말가 닢집 가운데 불 흔야 빙설갓탄 네 몸의 누설을 닢퍼신니 그도 쏘흔 닢 죄로다 이팔춤춘 허송말고 이-간가지고 기 흔야 슬노 가라”

장씨 엇즈오딤

“옛글의 흔여시되 망국지딤부느 불가이도션이요 픽군지장은 불가이어용이라 흔이 슬으느덜무엇흔며 천지간의 그려흔 운호 두고 엇지살려가며 쏘흔 날밤의 낭군과 잠을 즐딤 몽스도 잇실쥔덜려 가운부절하야 천형으로 즈식을 닢아시며 형화홀 거시오 그치지 안니흐면 엇지 슬괴을 브릭잇가”

조싱원이 가간스을과 싹그겨 전장흔고 녕별흔고 썬느면서

“네 싱전의 닢 제스를 오날노 닢제흔라”

흐고 춘추의복 녀간느서 상의 싸서 늦코 우황즈황 금편위 경보 갈나사고 장망혜로 스당의 흐직흔고 집을 썬날 의 장씨부인 거동보소 씨부임전의 업져 비느 마리

“바느이다 비느이다 제발 덕분 비느이다 부운갓탄 이세상의 부모임씨 싱계 느셔 십팔세 머근

후의 조씨문의 연분되야 부운갓치 연분이 상설갓치 이별하고 아직 가지 슬피는 몽 수도 낮거이
와 불상흔 낭군— 지성으로 지닌다가 천형으로 포틴하야 남즈을 나아시며 선영수도 할 거시오
씨부임도 오날날 선영을 흐직하고 부운갓치 나가시면 불회흔 인심이 엇지하야 슬나흔잇가 제
발 덕분 가지마오”

빌괴을 무슈이 흐되 조싱원 실성흔 사람되야 엇지 그 말을 취신힌리요

“너 엇지 가 의 유식하리요 슈월만 도라 단이다가 도라(43)오거신이 조이 잇거라”

흐며 썰척 나갈 의

“그러하면 복직이나 드러가옵소서”

“아서라 노즈란 말 듯기도 신탈”

단기로 썬가이 그 형식이 가련하다 경포되 잠간 올라 지닌 일을 싱각하이 비회를 금치못하
야 덕성통곡 신평 울고 일엽편주 흘리져어 풍낙 의 포요타가 근근이 득달하이 초소위 올임도라
산세를 둘러보이 조선지슈괴로다 스북이 주회로서 스면석각싱어되다 별유천지기벽하이 우산국이
이안이야

간시 넉오이 간성은 천간정이요 올진은 망양정이요 삼 은 설누라 통천은 축성정이라 육모
팔모 작은 들은 슈북장 집픈 물의 뉘 조화로 세워 노고 형극은 시종되며 고성은 삼일포라 녕늑
신선 어디가고 스천성만 노노교 양양지노천스 의상종스 득도쳐요 평히 월송정은 송지명성지이라

관동팔경 다 본후의 금강산 드러가니 산슈도 절싱하고 스찰도 더욱 좇타 신월촌 도라드려 이
고기 너머와셔 단발영을 나가이 나난세 크되 왕단발쳐라 장은 잠관 보고 장은사를 드러가이 날쥬
문 박천교은 반공의 소스 잇고 용읍누 종강은 천을 교와 잇고 마의암 보터음 다 본 후의 슈
월암 초즈가이 설암되스 어디가고 달은 만 낮는지라 그 다려 노선스의 말을 무르이 그 이
엇즈오되

“노싱은 슈월전의 도라가시고 유겨을 모세다”

흐겨늘 유겨을 살펴보이 흐여시되 막비가운이라 치지호호하야겨늘 통곡하고 다투와셔

쥬천을 너머드려 경괴을 치치달나 왕도를 귀경하이 난왕손은 삼각산이 쥬산되야 잠두로 통빅하
고 왕심은 용되고 등구제는 빅호로다 혼양성 구버보이(45) 호결용은 북군을 교와넛고 혼강
종남손은 여천지무궁이라 닌성전 노푼 각오현점남풍시의 빅각스 둘러시이 닌삼천티슈하고 송페세
겨 금탕이요 도불십유흔는 풍속 갈천 세겨 시절이요 극낙세계 이안닌가 남은산성 귀경하고 북안
순성 십이스를 역역키 다 본 후의

괴성부 득달하야 송늑스 구어보이 막하다 도갈영의 오작이 우지지고 두문동 들어가이 칠십이
현간고전리 업고 스 만 노마더라 평양성니 내려가이 명성지이라 희흔하다 단군 연 괴즈 연이

년 도읍이라 연광전 올라가이 분벽도 더욱 좇타 장성일면 요요쥬오 덕야 동두점점스를 삼손은
발낙 모란봉이요 이슈은 분 능나도라

황히도로 도라 와서 슈양산 석피의 빅세 풍 싱어넛고 그르령을 너머 가서 흥경도 구벼보이
골용손 날지미이 빅두산 디아구나

빅두산 가는 의 만불통지하니 상봉을 올라가서 스면을 망견하니 빅이슈틱 돌너논디 뇌성풍
우 디작하고 디막슈홀디너려 북으로 흑용강되야 닛고 동으로 두만강되야셔라 경물을 안즈보이 조
선원정시라닐신이 피류하니 조선지경멀이 왔다 공손야월 두전성 귀촉도를 닛숨으이 슬프다 저식
소리 날과 갓치 불려귀라 눈물이 절노나 안니 울고 어이하니

도로 닛려 슈원을 주브 드려 동장 서장 되용누각 뇌릭각 다 보고 요누스를 나가이 단종디왕의
낙화암에 안즈 옛일 싱각하니 경군닐칙 절디가인 꽃갓치 셔려져서 홍슈(47)녹원 미친원하니 물소
릭 오렐하니

절나도 내려와서 무주덕유산과 영암월출산은 도강스 디찰이요 빅진의 달아산은 이화스가 큰 절
리요 히남은 흥등사가 디찰리라 칠산벽닥 도기배는 풍의 쫓틀 달고 북을 둥둥 울이면서 익이일
성 흥노소리 원포귀 이 안닌가 서남 송광스 다 본 후의 좌슈영서 빅을 타고 빅진의 도라와서

풍 다시 만니 이 벽닥 건너지이 탐닉국이 여기로다 별도의 잠간 쉬여 영주각 열년 보고
할니산을 올라가이 장군석 오식도리 천작으로 되야넛고 고부 양싱 구무 슈 년이 지너지되 직
금지 완연하니

슈일을 슈유타가 일진 풍 다사 만니 동니을 느려오이 경상칠십일쥬쥬로흥이 여기로다 디마도
일광산은 구름박고 눅피 닛고 삼빅명 왜국눔덜 삼식-----하니 그도 쏘흔 장관리라 안동읍 도라
드려 상선을 구벼보이 의관이 빅하니 경주읍니 도반하니 반월성을 나가이 실나국 일천년 나문
거시 봉황디라 티빅산 드려가서 식산절의 연하니 의상족스 시문의 무슈 년이 지너지되 스시장춘
흔빛치요 기아산 드려가서 히인스 귀경하니 흥유동 폭포소리 빅일리 뇌성이 안이며 희고 흰 돌마
등방 빅슈령제명하니여시이 반조정이 분명하니 팔만디장경 갈문의 오작이 못 안진이 허무지도안이
로다 칠빅이 늑동강은 명지도모홀 디나려 좌우도로 갈나고나 진양성 내려와서 축성누 올라보이
군산은 막하고 장은은 오열하니 침도산의 남진왜난의 늑기늑기려고 만고방의 의음바회 녀즈 충
넬(49)이 장하니도다 삼천이 느려와서 배을 타고 흘너가서 노량강 다다르이 충무공의 회도랑 슈전
은 제일리요 하동을 치치달나 악양누 구벼보이 광랑지고군이요 일두지여 풍리라 옥양누 봉황디는
천작으로 교와 잇고 흥순스 쇠북소리 직회를 돕는지라 일낙서산 황혼되야 동정호 발근 달은 굴원
의 충절인가 명당이 도다오고 반쥬의 고은 점은 익항녀 영의 눈물이요 어촌의 어부들의 낙디을
들어머고 깔디 슈풀 츠자든이 소상야우 이안니며 원포귀 더욱 좃타 이안니 팔경이며 쌍계 칠불
스를 나가이 칠불암 저 보소 빅팔염쥬 목의 결고 소란즈을 틱의 밧쳐 익미타불하니 극낙세계
이 안인가 그렇지령 귀경하고 옥용스 귀경하고 흥국스를 흥하니라

각셜 장부인 가장 일코 씨부임 느간 후의 눈물노 세월을 보너지이 오륙식이 지너지이 포틱을
가진지라 십식만의 히복하니 형용골격이 그 아비 음상하니 일흠을 천형리라 지어시이 장씨부인

유복조를 탄싱하고 막힌 빈방안의 어린 즈식 누여놋코 흘련이 싱각하이 누물리 절노 소스 침금
이 논지라

“아가 아가 우지마라 아부임네 아난야 조부임네 아난야 부즈도 닥스 신타 성세도 닥스 신타
비려먹거도 네 아비가 사라시면 무신 한이 잇슬손야 절통하고 가련하다 가운이 불길해야 이 모양
되야난가 팔즈가 흥악해야 이 지경이 되야난가 남군임은 업거이와 조부임은 슈월을 언약하고 가
시더이 어넌가 살아난가 니 손즈를 모르시고 어딤로 가 계신고 주야장 진진밤의(51) 잠잘 리
전이 없다”

주야밤 일러느서 정화슈 질어놋코

“비논이다 비논이다 하날임게 비논이다”

칠성임게 슈하고 비논 마리

“나가신 씨부임 사라난가 어논가 만일 술아거시면 쉬 오게 하옵소서”

일년삼백육십일의 밤마동 추원한다 주야 지성으로 비논 마리 정성으로 추원하이 처넌인덜 옛지
안니 감동할가

세월리 여류해야 천형의 나히 육세라 부인이 다리고 흥상 하는 마리

“네 으부임 휘즈는 으모즈 으모자요 강능 장 은 일러일러하이 명심불망하라”

하고 주야 갈의치이 천형이 영민해야 비록 육세동이라도 어륜을 당홀네라 열 살을 먹근 후의
장씨부인이 천형다려 일은 마리

“가운이 불길해야 네 조부임이 년의 상비하고 직취을 비가연의게 하이더이 천하 흥악흔년
으로서 노즈 쇠작지라 하는 놈과 부동작교해야 네 부친이 장기온 날밤의 일어일어하고 그 후의
천우신조해야 년놈을 다 이고 인해야 네 조부임이 율화를 전디지 못해야 슈월 나가서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오마 하시고 씨느시더이 이제가지 안니 오시이 사싱존망을 몰나 주야 답답하며 네
도 알건이와 괴히로부터 직금 열히을 주야 밤의 나가 정화슈 질 어놋코 천상임과 북두칠성 삼티
성 갓갓지로 추원하여시되 노천이라 무심하되 설마 살아겨웁신 제 위시야 네가 누무 즈손되야
십세 되야신니 조부임의 스싱존망을 아지못하고 옛지 즈손이라 하고 선영 봉스를 하거논야 네가
져만치 영민하고 옛지 츠자 가지 안이 하리요 집을 하직하고(53) 조부임을 츠자 모시게 하라 지
성이면 감천니라”

하이

“정성이 지극하면 만고 정성이 부족하면 못만느리라 명심하라”

하고 나라도 어린 즈식을 부지겨쳐 보닌 후의 마음을 옛지 진정하리요

“조상을 위해야 하는 일은 익운이 업느이라 괴리 알나”

하이 천형이

“모친천의 오육세보텀 지금 흥상 하신 일과 이리논 말슴을 텅강 짐작하옵건이와 즈손지도리

의 일시털 머무리잇가 지금 나갈거시니 횡장을 슈십햐야 주옵소서”

“하이 부인이 답왈

“네 마리 그러햐면 직일 발햐햐라 햐직 의복 다 바리고 장 햐장만 품의 품고 나가라 햐 직을 주즈햐햐덜 씨다가 돈업시면 엇지 햐며 의복 주즈햐햐덜 옷업시면 엇지햐리요 니곳보텀 어더먹고 어더입고 십년을 위햐햐고 조부임 모셔오라”

익비업는 유복즈을 제 햐츠 보니고 에미 심장 엇디타 햐리 시시로 목이 막켜 햐말 전이 업다 모욕지계햐고 햐날임계 원햐고 칠성임계 제스햐고 손신임계 순제햐고 비는 마리

“천햐햐으로 삼계신이 천햐햐리라 일햐햐지여 십연을 셤리 키워 조부임 츠지라고 십연을 위햐햐고 팔도강산 보니오니 명도 질고 병도 업게 햐옵소서”

천만변 원햐고 가스를 전햐햐이 슈천석군이랴 햐더라

각셜리랴 천햐햐이 모친게 햐직햐고 장 햐장 품의 품고 햐직업시 입던 옷만 입고 나션이랴 금광산 니외손의 제각스를 두르두르 츠즈드려 슈월암을 올라가이 상의 식겨시되

“강능 조천햐 햐견리랴 십연 전의 이견디인이라”

두려시 붓쳐노코

“셜암당은 셔햐노랴”

햐여신이 다려 이 듯절 무른디

“이절이 닛는 노승의 유계라(55) 소승들은 년소햐야 자상니 모르늑이듯”

천햐햐이 심어 탄복햐고 모친 말삼이 올토다 천늘밤의 일리괴을

“계모의 구박을 전디지 못햐야 슈월암의 슈년 공부햐엿다”

햐든이 이 절이 그 절리리오다 보지 못햐 아부임을 싱각햐이 신세가 처랑햐야 눈물리 절노 는다

의 계칙은 햐직햐고 거리 거리 비려먹고 출여 사람마등 못난 마리

“강능 조쌍원이요”

햐자는

“안이로다”

햐고 햐자는 윗고가는지랴 방셔을 만들라 방방곡곡 촌촌이 부쳐가며 조부임을 찾는지랴

햐양성 치달나 걸리리 방 붓치고 심방햐되 엇지 소식을 아리요 햐경도 너머 가서 방방곡곡 다 차지되 소식기 맹연햐다 어린 아햐 모친을 햐식햐고 나와서 조부임도 못 만니고 은 부친을 싱각햐이 통곡햐면 눈물노 을 가이 가는 햐인더리 뉘안이 낙누햐리 도로 회성햐야 오며 조부의 종 을 탐지햐더라 그령저령 일년만의 경그지경 들러와서 고흐소식 알나햐덜 누가 일너주리 막햐 닛 신세야 이집 저집 비려먹고 방아실도 누워자고 나이 식면 비려먹고 밤이 오면 어이햐리 동 강변 노퍽 어덕여단즈 신세를 즈탄햐고 셤리 울고 즈고 간다

충 도 내려와서 각처이 심방하고 월출산 무주 은진 강경이 군산 법성이을 두로 두로 다 차지
되 중 이 업는지라 녀막집의 불녀키와 주막집의 물질기와 썩썩지계 이을 흐되 밥 혼 술 썩이로
다 절간으로 차주 드러 계용순 각절리며 천은스 화음스(57)며 그리 저리 다 차진 후의 운봉으로
너머가서

경상도 칠십칠십닐쥬 방방곡곡 마동 차질 제 툇빅산 부석스며 통도스 흐닌스며 괴포로 차주너
려 풍쥬포 마산포며 진양성 두로 도라 삼천이로 내려와서 통영 거제 다 본 후의 장선으로 올라
와서 하동 뒤치너려 두로 광문하고 쌍계스 칠불암을 두로 두로 차주오이 세월리 여류하야 어연간
육년리라

송강스의 비려먹고 서남스 너머가서 두루두루 살피다가 소승다려 묻는 마리

“이절의 혹 강원도 조침원이라 흐는 노인이 니너던잇가”

노승이 답왈

“춘간의 강원도 강능 조침원이라 흐는 양반이 절의 와서 병이 나서 슈월 이절 이서 머무다가
병이 나스서 경상도 남히로 가신다 흐더이다 옛지 그리 묻는잇가”

“즈년 알 널리 잇서 문노라”

흐고 육년만의 가부야 마을 자서치 못흐되 강능 조침원이라 마을 드른이 금시 --니라 신긔하
다 그날밤을 지내고 흥국스 잠간 쉬여 그 연유을 무른디 과연 조침원니라 흐는 노인이 녀기도
슈월 유하다가 남히로 가 괴정영차겨날 좌슈영 내려가서 가는 비을 비려타고 남히로 형하이라

각설리라 조침원이 남히을 건너 용문스를 귀경하고 화방스를 드려와서 제주 오육안을 다리고
글도 가라치고 혹 신도 삼무이 이식 구쳐흐미 업시나 신세를 싱각하이 비창흔 마음을 칭양치 못
하야 눈물노 세월을 보너더라

각설리라 낫새는 동시월 망간이라 월명창외의 기력과 소리 각창흔등의 즘을 날우지 못흐더이
문득 비몽간이 흐 동주 엽페 안지며 흐는 마리

“소조은 강원도 강능 스웁더이 조부임을 모시려 와논일다”

흐거날 흐 반가와 씨달른이 남가일몽니라 싱각하되

“너 온지 어연간 십오년이라 가화공참하기로 집을 흐직하고 이 지경이(59) 되여시나 선영을
박디하이 불호막심하도다”

흐고 탄속유체하더이 문듯 동주 고평되

“엇던 슈주 강원도 강능 스노라 흐고 선침임을 보와지라 흐난이다”

조침원이 싱각하되

“너 싯하의 삼 히동이 업고 일가친 이 업거날 엇던 아히가 늑을 좇논고 닐신이요 하야 너
몸 혼나 썩이로다 뉘가 잇서 차주지며 너 늑온지 십육년이라 그곳 아히 옛지 아라 찾기이되로다
그런 말 다시 말노”

상자 아히 그딤로 전히이 천히이 이말을 듯고 바로 드러가서 노인 전의 비레하고 단정이 꾸려
안주 엿조오되

“소동이 엿조을 말슴이 잇스와 왔느이다”

노인이 답알

“무슴 마리오”

히디 천히이 엿조오되

“노인임계옵서 본디 어디 계시옵시며 존호은 뉘시잇가”

노인이 답알

“넉난 강원도 사람이라”

하고

“넉성은 조가라”

히며

“네는 어디 잇는 아히관디 즈상이 문느요”

천히이 반신반히 히야

“소동도 강원도 강능 짜의 잇는 아히로소이다”

“네 성명은 무엇시며 네 부형은 뉘라히난다”

“소동은 모친 복 의 상계 세상의 부친은 작고히--- 명은 천히이옵고 나흔 십육세로소이다
황송히오나 노인의 존호는 무어시온지 아라지이다 ---”

“아히 노인의 일홈 아라 무엇히리”

천히이 다시 엿조오되

“노인의 휘주는 괴즈 즈며 즈는 즈현즈신잇가”

그제야 노인이 디경디히 히야

“과연 그러히다”

또 엿조오되

“즈제의 명주는 영즈온잇가”

“그러히다마는 네 엿지 즈상이 아느요”

천히이 몸의로서 글썽 종히을 뉘여 올리면서

“이 호 이 노인의 장 이온잇가”

노인이 눈물을 머금고 알

“과연 넉의 호 이로되 네는 엿던 아히며 엿터흔 일리야”

눈물을 흘리거날 그제야 천히이 쓸아리 서며 양천통곡 복지히야 엿조오되

“나는 강원도 강능 터즈면 득옹초스옵더이 경미 삼월 십오일의 양양 짜 장진스되 혼스흔

날밤의 비명횡스 아비 이른 유복조로소이다”

노인이 놀리면서

“네 마리 정녕 그러하면 너 손주가 실향다 이 일리 어닌 일고 썸닌야 썸시야 썸이거던 썸
지말고 명천감동흔가 순천이 도이신가 조상 살피신가”

조부 손주 서로 잡고 통곡흔는 마리

“네 아비 은 날의 네 어이 상겨는야 천우신조 조타흔야 천형으로 싱겨구나 십육연을 실성
흔야 단이다가 남히 화방스 부체님이 나올 지시(61)흔야신가 반갑쪄다 반갑쪄다 너의 손주 반갑
쪄다 영의 아달 반갑쪄다”

흐르논이 눈물ियो 날히날비 반갑쪄다 반가온 의 천형이을 만지면서

“불상흔다 불상흔다 네의 어미 불상흔다 녀여로다 녀여로다 우리 지부 녀여로다 회녀로다 회
녀로다 유복자 네을 나아 십연 양유 너손조라 십세된 어린 조식 호성이 지극흔야 십연 을 경영흔
야 팔도 강산 날 츠즈서 육연만의 서로 만네 네 열골 너 안논야 너 열골 네 아논야 천신이 감동
흔고 윤기가 지 흔야 이 지경의 네 와서 조손이 서로 만네 절손이 게 홀 줄을 엇지 뜻흔리요
조심원이 유복흔야 이 손주 싱겨고나 네 어미는 엇지 살며 가스논 엇지 흔논야”

천형이 엇조오되

“어미는 너 을 췌까지 무고흔웁고 어미의 영을 바다 이 지 조부임을 츠지라고 방방곡곡 다
츠질 제 어연간 육연이오미 그 후로는 사심존망을 아지 못흔웁논이다 답답흔오며 천심으로 낫다
흔야 천심이라 일흠지엇논이다”

조부가 손주를 압페 안치고 나실 훈타이면서 질기고 질거흔이 스 제송이 뉘안니 낙누흔며
사람마등 안니 질겨흔라 만산 화초 의 춤을 춘다

슈일 유련흔다가 손소 ---그 형으로 도라온이 고목이 싱화안닐런가 강원도 천여 리을 호로
올나가져드면 조부---올만의 간다말고 이복을 보작시면 조부도 거어지요 손조도 거어지라 조손
이 서로 ---비러먹고 히식으로 잠을 자면 나실 서로 맞디이고 보고 보고 다시 본이 잠흔숨 안
니온다 ----던이 밍쳐- 강능부 이실을 닐식으로 경영흔고 남히로 건너와서 곤양진네 ---회기
지네 구례로다 남원 지경을 드러 오슈역을 얻넌 지네 닐실 지네 전주로다 남이 지네 여산이오 은
진 뇌성 지네 공주 금강니 건너구나 천안지경을 나셔서 성환역을 얻넌 지네 직산삼거리 올나가서
진위성 잠간 보고 오미장터 화흔고 슈원읍네 숙소흔고 과천 갈미신방을 지네 숨예문 반갑쪄
다 혼양성이 저기로다

강능쥬 츠즈가서 옛날을 절화흔고 직일 발행흔야 너려갈 제 동슈넋다라서 양쥬을 지네구나 회
양지네 양천 지네가서 춘천을 얻넌 지네 원주감영 다 지네고 십이영 늪꾼 고기 옛보던 손이로다
덕결영 급피 올라 강능읍네 살피보니 반가온 의 마음이 슬퍼흔야 통곡후의 하날님께 원흔고
산신님께 원흔고 동서남북 제슈흔고 고행으로 내려오니 손도 옛보던 손이요 물도 옛보던 물리

로다 강산고택 드러가이 신부신혼시에 보던 주부 빅슈가 되얏구나

장씨부인 거동 보소 어린 다시 아모 말도 못하다가 씨부전의 복지 통곡왈

“슈식만의 도라온마 언약하고 가시더이 십년이 되도록 소식이 돈절호와 십세 먹근 즈식을 부지겨쳐 보닌 후의 쏘 육년이 지니가되 동 이 망년호와 주야로 원호는 의 앓가까지 반겨듯고 제역등와 위로호야(63)지 우금지 지니더이 천만외의 빅발 존안을 디면호이 직금 스와도 녀호이 업는이다”

노년이 혼손으로 주부 잡고 쏘 혼손으로 손즈 잡고 식로 통곡호이 뉘안니 낙누호며 뉘안니 칭찬호라 장씨부닌 호는 마리

“아부임 님 말씀 드러보시오 춘의 상부호와 주장 업는 이 집안의 나지면 슬림살기 십연을 경영 근심으로 지니오니 얼굴리 초초호와 빅발리 절노 나오니 니팔 춘 절문 과부 크다큰 빈 방안의 뉘가 잇서 위로호며 어느 친 님서 담화호며 빅스가 직미업시 그만 바리던이 주야 밤의 이려나서 밤 혼술 겨우 먹고 이 집을 싱각호니 혼심니 절노 나고 통곡호니 셔림이 칭양업고 즈식 나키 바리어니 십식만의 회복호야 즈식을 나히 뇨코 품안의 품고 안즈 주야로 원호는 마리 상 슈호겨 제도하옵소서 호고 씨부님과 가장 싱각 전년이 즈식의겨 정을 쏘다 삼스세 먹근 후의 시시로 보고 익비라 부르는 소리 님 간장이 석년 털 안니 울고 어이호리 십세를 녀니여 씨부님 츠지라고 독혼 마음 지어니여 노즈 일푼 안니 주고 의복 혼불 안니 주고 슈단신 보닐 계 어미 속이 엇더컨소 동희슈로 용지연의 먹을 갈고 금강산을 붓슬 잡아 천일장지의 이니 셔름 씨주흔덜 엇지 다시 올잇가 십구년 복희상의 혼 -의 이별호던호리으 셔름난덜 님 셔름의 지니며 빅초호지시집가던 왕소군이 셔름난덜 님 셔름의 더호리가 춘풍도리화기야의 츠우오동영낙시의 부친 싱각 낭군 싱각 즈식 싱각 무궁무궁 가련호고 그러구려 춘이 절노 가고 빅발리 절노 난이 가스도 막호고 신세도 처량호며 영영 울며 마을호이 조노년이 반가운 의 비창호지라”

주부를 위로호야 이른 마리

“엇지 다 성련호리요만은 님의 셔름 들어보라 고루게각 조흔집과 금의-- 다 바리고 회령 중성 피조밥과 교야리만포귀벼보이밥을 근근이 비려먹고 씨갓 모양으로 엄동설혼 계우 지니 봄리 도라온덜 춘복을 뉘가 주며 팔도로 단이면서 비려먹고 고상호 것부시로는 기록지 못호리라 호고 춘 도 윤싱원이 날을 보고 칙은호야 오슬 베휰 날을 주고 노즈도 후이 준이(65) 그 안이 은닌이며 영남견네 안동은 그 쏘호 후풍이며 천년호 만신 사람 사람 마동관디호고 집집이 후디호이 퇴계선싱 호 도덕 칠십일쥬 빗나신이 님심도 도커이와 그 쏘호 고상이라”

천형이 엇자오디

“님 말씀 드러보시오 십세 먹은 아히 어미 영을 밧즈와서 조부님을 츠지라고 팔도강산 단일의 고상호것드려보요 거리저리 비려먹고 동너동너 단일 의 읍너로 드러가면 행방 아전물은 츠스로 천겨호고 도방으로 드러가면 주닌마동 스환으로 천겨호고 절간으로 드러가면 현신당 노장

놈 상주로 난권하이 일심의 먹은 마음 조부임을 보라하고 어미 영을 바다거던 제 일신 편타하고
남의져 의탁할가 거리거리 방부치고 슈원 거동 능형시의 식면을 둘러보되 조부님 용 모르거던
늬을 보고 못즈할가 문무장상 다가 자제 서스 별감 주식들은 조흔 의복-- 아비엄아 부르면서 형
제간의 손을 잡고 노는 양을 퍽변이느 불벼 보며 니 일신 도라보면 조부 일코 아비 업서 현 퍽
결 현의복 부즈지를 가리오고 어덕 밋퍽 안주신이 선진드러올 제 독하도다 도감 령독하도다 등치
로 후리면서 발길노 차고 간니 닉신세 엇더하오 다갓탄 사람으로 천지간의 갓치나서 엇더하 아히
들은 상천의 선하야 아 -어미 갓초잇서 조흔 의복 호스초고 서로 마구 호달마 의복 갓초하고
단이난디 날갓탄 아--은 무슴 죄로 아비도 복 의 이별하고 사라계신 조부님도 스침을 아지 못
하야 맛니 보기가 어렵고 홀노 계신 엄무님도 괴르워 진닌이 팔즈도 무상하다 익고익고”

통곡하이 엇던 판슈 혼놈 압페 와서 작지로 건드리며

“이겨시(67)무어시야”

히기로 닉 마리

“사람이라”

히이 날다려 문는 마리

“--즈 무슴 일노 이디지 설원하느요”

실상으로 설화하이 판슈----

“고 혼말 네 팔즈 닉 팔즈의 비홀진디 네는 곳 영화스 뒤감이로다”

닉말을 드려보

“----의 부모 일코 일가친 바이 업고 근근이 비려먹고 단이다가 어진 판슈를 만니 점와-
비와 닉여 혼푼 두푼 돈을 모와 슈천금을 모와 늦코 계집 혼나 만니여서 집푸고 압푸고 가는 길
을 제손으로 닉도하고 전곡을 제손의 막계던이 가장 기물 의복 등절 다 가지고 다라느이 닉와 함
기 찻단말고 눈업는 닉몸은 세간을 일조의 탕포하이 닉서름 갓탈손야 두 눈이 이거던면 그 녀을
싱각하리 눈업서 판슈 된이 압푸로 지닌간텔 그 어이 안단말고 네갓탄 서름은 호스로다 두 눈이
온전하고 이팔 춘 되거드면 슈말이을 머다하며 스라계신 조부님을 조고만흔 조선국의 아모리 혼
텔 못 츠지랴”

그제야 판슈게 점을 간 혼니 판슈 하느 마리

“히 남천의 이견디닌이라”

히더이 과연 남히 짜의서 만니시이 그 점이 마져쫄다

서로 서름으로 우지지고 춤을 추고 천형이을 만지면서 무병장슈하야 유즈유손하고 계계싱싱하
올리랴(69)

언히 글시 민첩지 못호야 낙즈낙점 만스오니 혹 보난스람이 놀너 불지어다

직주 부족호야오셔 낙점만스오이 보는 사람이 놀너 보옵소셔

무술이월슈무나아날 등셔을 호직리라(70)

척주--- 척長 슈가 參拾伍長니라

此丹章數參拾伍章리라(71)

Жусэйнвон түүх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Кан Шин Гү

[Хураангуй]

Энэхүү өгүүллэг нь сүүлд шинээр нээсэн эртний уран зохиол бөгөөд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нд танилцуулахыг зорьж байна. Эртний уран зохиолын нэгэн өгүүллэгийн төрөл бөгөөд олон түмэнд танигдан судлагдаасай хэмээн хүсч байна. Цаг тооны хувьд Жусоны дунд үед хамаарагдах болно.

Язгууртаны үр удмыг хэлэх ч гэлээ Жусэйнвон нь ямар ч хэргэм зэрэггүй сэйнвоноор амьдарч байсан. Өөрийн хүү Жуёныг хэргэм цол авахад нь хамаг хүчээ дайчилж байгаад хүслээ гүйцээж чадалгүй хорвоогоос хальж гэр бүлийнх нь үе нь тасарч байна. Бэр болох Жан нь хүү Чонхайг төрүүлж үе удмыг нь залгамжилж өвөг эцэг дээр нь очоод урьдын адил гэр бүлээ төвхнүүлж буй үйл явдал өрнөнө.

Зохиолд буддын сургаалийн үзэл санаа шингэсэн байна. Гэвч үнэнч байдал, ачлал гэх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ь голлох агуулгыг илтгэж байна. Уулын бурхан ба нар сар одны бурханд залбирч буй итгэл бишрэлийн шинжтэй дүрийг ч гэсэн харуулж байна.

Зохиолд аялаж буй газар нь 8 аймаг ба олон сүм хийд гарна. Явсан газруудаа санан тэмдэглэхэд аялалын замд таарахгүй газар ч гэсэн байна. Гэхдээ өргөн цар хүрээтэйгээр тодорхой шинж байдлыг харуу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газар усны нэр ба сүм дуганы үүсэл, үлгэр домгийг оруулж ярьсанаар үйл явдлыг илүү сонирхолтой болгосон байна.

Голлох үгс: Жусэйнвон, Жуён, Жучонхэйн, гэр бүл, найман аймаг, ачлал

한몽 민담의 화자 성격과 정신문화 고찰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 물새」¹⁾와 몽골의 「세상의 세 망상가」²⁾를

중심으로

이탄미*

목 차

1. 민담의 창의적 반응—화자와 구술자 혹은 독자(청자)의 대화
2. 한·몽 민담의 대비—제재와 주제의 변주곡
3. 민담의 화자 대비—제재의 음가(소리)와 의미
4. 한·몽 민담의 배경과 전개—화자 성격 대비
5. 한몽 민담의 개연성—자연과 언어, 문화의 교감
6. 한몽민담 화자의 개연성과 정신문화

[국문초문]

민담은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언어와 문화 생명체이므로 정신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특히 지역 흥미에 따라 창의적으로 반응하므로 화자와 구술자 혹은 독자와의 문학적인 대화를 이룬다. 민담을 대비해 보면 그 문화와 언어 또한 친숙해지므로 외국어 화자로서 타문화를 변별하면서 언어도 깊이 이해,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유사한 제재를 사용한 한몽민담 가운데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와 「세상의 세 망상가」를 중심으로 화자의 성격을 대비하여 보았다. 유사문화권으로 대비되는 한국과 몽골이라는 점에서 제

* 올란비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1) 본고에서 대비하는 한국민담은 최근학편(『한국민담사전』, 문화출판공사, 1994, 4, 112~3쪽)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경상남도 함양본(『최화웅외, 『영남구전자료집3본』, 박이정, 2003, 5)과 양양지역의 설화(두창구, 국학자료원, 2004, 5), 서울에서 채록된 『한국구비문학대계1집1책』 (148~150) 본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동화로 활용되는 경우는 「물새와 개미와 메뚜기」 등 제목이 바뀌기도 하였다.

2) 본고에서 대비하는 몽골의 민담은 데.체렌소드님 편저(이쉬, 가담바·데.체렌소드님, 『몽골민간구비문학선』, 올란비타르시, 1978, 12, 143쪽)를 사용하였다.

재와 주제가 변주하며, 문화의 동질성과 유사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제재와 화자의 성격, 배경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민담의 화자 개미와 매미, 메뚜기와 박쥐, 물새와 두루미가 대비되는데, 이는 제재의 음가와 의미가 유사하여 물새와 두루미, 메뚜기와 박쥐, 개미와 매미가 제재의 속성만이 아니라 선택되는 이유에서도 일정 부분 상호관련이 있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한국민담의 배경공간에서 몽골의 민간신앙이 보이며, 몽골민담에 나타난 매미가 한국의 매미 유래에서 나타난 성격과 거의 일치하였다.

두 민담의 배경에서 유사성과 차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데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연과 언어, 문화의 교감으로 얻은 상호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과 행동, 주제 의식이 다르다는 데서 한국과 몽골의 사고와 목적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변별성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되 뿌리깊이 문화가 오래 교류하면 각 민족권 내에서 고유한 문화권으로 재창조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민담, 창의성, 화자, 음가, 개연성.

설화는 원시 고대부터 그 지역의 지역민 사이에서 발생하여 이야기로써 구전하여 오다가 구술자의 담화로써 문자로 채록되어 현대에도 전해진다. 이는 그 지역 현지인은 물론 후대의 지역민과 먼 이국인들에게도 읽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속성을 알려 주므로 고대로부터 흐르는 정신세계의 총체적 성격을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므로 고대 설화는 다민족이거나 어떠한 종족이라도 관계를 맺으면 열린 상황에서 청취와 독서로써 민족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의미소로 활약한다. 이에 그 지역 민족의 독특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향유한다면 개별적으로는 물론 인류학적으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유의 정신문화의 밀도를 음미하게 될 것이다.³⁾

이를 그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각각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고유 장르가 발생한다. 신화는 인류학적으로 그 지역민의 기원과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 주며 종족의 기원과 문화를, 전설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인자(因子)를 나타내는 물리적 지형을 매개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민담은 인류의 기원과 원형을 나타내 주며 그 지역민의 흥미에 따라 창의적으로 반응하므로 매우 독특한 형질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 지거나 현재도 형성해 가고 있는 설화가 민담인데, 지역 특유 성향에 따라 제 나름의 고유한

3) 이부영, 『한국민담의 정신분석』, 집문당, 2000.12. 22쪽 재인용. (본프란츠, “음은 언젠가 정신의 비교해부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는 민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략) 민담에는 그런 특수한 문화적 의식적 자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기본적 정신적 유형을 더욱 뚜렷하게 반영한다.”

것으로 변별되어 독창성 밀도가 높은 창작 문학을 이룬다.⁴⁾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서 민담을 매개로 화자와 구술자 혹은 독자(청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호응하므로 지역특성과 문화를 가장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기질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1. 민담의 창의적 반응—화자와 구술자 혹은 독자(청자)의 대화

민담은 고대로부터 발생하고 오랜 연원으로 지속되어 온 언어와 문화의 생명체이므로 정신 문화의 기원과 원형을 밝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원 그 민족의 변별성을 밝히는 데에 매우 효율적인 단서로서 사용된다. 민담은 이미 인류사적으로 기원하여 그 민족의 원형적인 이야기로써 지역민에게 널리 회자되면서 각기 특유한 형태를 이루고 그 지역의 문화적인 화소를 보여주는 등가물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상상의 모체로 자라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거듭 굴절하여 이야기의 화자와 현실의 화자가 지속적으로 만나므로 제3의 창의력을 발아하여 복잡한 현대 독자들에게 다양한 성향이 나타나는 세계관, 문화 기호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이루게 된다. 노소를 막론하고 흥미를 가지도록 재편성되므로 교훈적 가치 또한 새롭게 재조명되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폭을 초월하여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투영되므로 이는 현대인들에게 늘 새롭게 다가온다.

게다가 민담의 독자 혹은 청자들이 자기중심의 독특한 수용적 입장을 취하여 새롭게 기록해 나간다면 민담은 문학으로서 문학외적인 상황에 자연스럽게 동화하여 독자의 정서에 탄력적으로 순응하며 예술적으로 정화해 가는 기능을 할 것이다. 작가와 독자가 동일하게 화자적인 반응을 하기에 끊임없이 창의적 역동성을 지니는 것이다. 각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모국어로 변별하고 타국어와 대비하므로 특이한 공감의 단서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포괄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지시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며 문학적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그 모국의 민담에서 이국의 문화를 대비하면서 그 근원으로 회귀하여 상호 소통하고 모국의 문화적인 특이성을 변별하여 깊이 있게 추체험할 수 있게 한다. 특별히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실제 다가오는 민담은 인류보편적인 원형과 기원을 연상하기 이

⁴⁾ 成耆說, 『한국설화의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1.

전에 낫설은 타문화 속의 언어를 친숙하게, 모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에 민담을 접하되 서로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국은 물론 각 민족의 문화 특성으로서 모국 문화를 상기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감대를 획득한다.

일반적으로 정착민들이 자신의 삶의 내역을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기록하여 그 문화와 역사를 문자로 보존하는 것과 다르게 몽골인들은 유목생활로서 지역을 옮겨 다니는 거리만큼 정보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창의적으로 화답하는 삶으로 훈련되어 왔다. 이동하는 화자의 일상 속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창의적으로 구비전승하되 일정 부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침식되므로 독특한 구술문화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몽골은 구비문학의 보고(寶庫)로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인들 사이에 민담과 서사시, 노래의 기원을 소호르 타르바라는 신화의 문화영웅과 관련지어 언급하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중략) 소호르 타르바가 몽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민담을 구연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이후로 몽골인들 사이에서 민담을 구연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한다. 소호르 타르바처럼 에를락칸의 나라에 가서 이야기와 노래 재주를 갖추고 돌아온 그러한 주인공이 사람들 사이를 순회하고 그들에게 노래와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화소는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⁵⁾

이러한 환경에서 몽골의 민담이 더 활성화될 이루므로 그 지역과 화자, 청자에 따라 이야기가 변모하여 몽골 특유의 독특한 형질로서 만들어질, 문화적 가독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몽골의 민담은 그것이 어디에서 전해져 왔든지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 상황을 넘어 몽골 내부에서 변모할 상태로 옮겨져 더욱 풍요롭게 재생산해낼 수 있는 창작자적인 동기를 함유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의 함량과 그 속성에 따라 비례하여 고유한 형태, 형식을 만들어서 한 생명체로서 살아 숨쉬는 발아체로서 독자들에게 문화적인 감수성을 촉발한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문학이 그러하듯이 민담이 지속해 오는 동안 역사의 무게를 정화하여 삶에 활기를 일으키는 쾌락과 교훈의 자원으로서 활용 기능을 충분히 지닌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는 다양한 민담 속에서 그 화자의 성격을 감지해 보면 그 지역민의 특이한 속성과 정신문화도 깊이 통찰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몽골의 경우, 인류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동일 계열로 분류되고 고려시기에 150여 년간 상호 교류해 온 역사적 관계를 상기해 볼 때, 이 민담의 대비 작업으로써 양국 민족이 상호관련하여 파생한 문화 특

5) 센텐자빈 돌람(이평래 역), 『몽골신화의 형상』, 태학사, 243쪽 일부 재인용(가담바·체렌소드님, 1978, 141쪽).

성의 근원지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민담을 대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화자로서 혹은 다른 이야기에서 출발했으나 상대적으로 독특한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정신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한·몽 민담의 대비-제재와 주제의 변주곡

이미 널리 논의되고 있듯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알타이어계 문화를 이어받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가 몽골의 문화 형질과 유사함을 담보한다는 의미이다.⁶⁾ '알타이'라는 어휘에서 보이듯 알타이신앙이라고 명명하는 태양숭배 사상에서 기원하여 '알'(삼국시대 설화에서 알려진 알 후손과 '알지')과 '금(몽골어 [알탕])' 숭상 문화가 두 민족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몽골과 한국, 티베트 설화에 나오는 신화의 주인공들이 금, 은이 나무꾼 안에 떠내려가다가 누군가 건져낸다는 묘사⁷⁾에서 문화가 상호접목하면서 다시 분화해 가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흥미롭게도 밝음과 금빛 붉은 태양을 나타내는 한국의 고대노동요이며 알탄생설화인 「구지가」, 「바보온달」에서 어리고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난항을 해결하는 데 지혜로운 아내로 금패물을 사용하며 자유로이 이야기를 펼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넘고 금기를 초월하여 이루어내려는 가족 간의 만남으로 천상의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호박죽(혹은 단팔죽) 등에서도 한·몽민담의 상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민담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분량으로 보면 본고에서 실마리로 찾은 지점은 극히 미미한 사례일 테지만, 1950년대에 몽골과 내몽골에서 채록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몽골 민담집⁸⁾과 한국민담집⁹⁾에서 그 구체적인 민담 사례를 대비하고자 한다. 몽골민담¹⁰⁾ 가운데 한국의 그것과 작품의 화자와 제재 성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담은 아래와 같이 여섯 편이었다.

6) 한·몽교류협회, 『한·몽교류천년』, 995.12.

7) 삼필덴디브, 「몽골과 한국 구비문학의 관계 문제」, 『몽골구비문학약사』, 울란바타르시, 2002, 93~106.

8) 주채혁 역주, 『몽골구비설화』, 백산자료원, 1999.3. 이안나 역,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2007.1. 이평래 역, 『몽골민간신화』, 대원사, 2001.4.

9) 최근학편, 『한국민담사전』, 문화출판공사, 1994.4.

10) 데. 체렌소드넴 편저, 『이쉬, 가담바·데. 체렌소드넴, 몽골민간구비문학선』, 울란바타르시, 1978.12.

〈표1:한몽 민담의 공통 화자와 제재 대비표〉

	한국	몽골	공통 화자와 제재	채록지
1	나무꾼과 선녀	사냥꾼과 백조	나무꾼, 사냥꾼과 날개옷	몽골
2	(금강산선녀 설화)	모래언덕나라	백조와 날개옷	내몽골
3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상황을 대하는 곤충과 새	몽골
4	바보온달	조홍마	현명한 아내와 모자란 남편, 말	내몽골
5	홍부와 놀부	황금매	선과 악을 전하는 새와 씨앗	내몽골
6	여우와 토끼	호랑이와 토끼	먹이를 차지하는 지혜(속임수)	공통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¹¹⁾와 몽골의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를 제외하면 위 대비표에 나타난 여섯 민담들은 이야기가 유사한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놀이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화자 사이에 있는 금기 혹은 문제해소 장치들을 양국 민담의 대비 요소로 활용하면 각 민족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담제목에서 화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와 몽골민담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를 대비하여 그 화자 성격과 배경 등에서 각 민족의 정신문화를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대비하고자 하는 한 몽골민담을 두고 한국어로는 각각 다르게 번역한 세 경우가 있어서 이를 단계적으로 모두 활용하려고 한다.¹²⁾ 동일한 민담이라도 수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번역자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이 다른 데서 오는 문화 해석의 차이나 외국어로서 단어 설명이나 이해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외국어로서의 문학인 양국 민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대안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와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를 대비하면 제목의 표현 방법이 다

11) 이안나 역,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2007.1

12) 이미 번역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안나 역(「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2007.1, 75쪽)과 이평래 역(「몽골민간신화」, 대원사, 2001.4, 131쪽)을 기본으로 하되, 전자는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이고, 후자는 「세상의 세 걱정꾼」으로, 의역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기본 연구 텍스트로 활용하되, 주텍스트는 필자가 번역한 「세상의 세 망상가」를 사용하기로 한다.

르나 그 내용으로 보면 유사한 제재, 화자를 사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전개 내용에서 동일한 화소일 가능성을 내포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 구조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민담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 준다. 다른 지역, 다른 문화에서 비롯하는 구술자에 따라 각각 독특한 이야기로 흐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려 있으므로 그 환경 요소에 따라 독특한 민담을 형성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공통점, 차이점을 경계로 양국의 독자들에게 세계관의 기원과 모태를, 모국의 교훈과 미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상기하여 고유한 민족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민담의 화자 대비-제재의 음가(소리)와 의미

양국 민담의 이야기 내용에 접근하기 이전에 각 제재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그 제재 음가의 성격을 알아본다. 이를 독자로서 번역하면서 발생하는 관점과 두 민담의 화자들이 활동하는 무대와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전개상황을 서로 대비하여 화자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에서 한국과 몽골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한몽민담의 공통 화자와 제재 대비표에서 거의 일치하는,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를 몽골의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와 비교해 본다. 우선 제목에서 세 화자가 나오는데, 이 상상력은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한 데서 형상화된 인물들이다.¹³⁾ 민담은 대부분 이야기의 제재에 따라 제목이 대략 만들어지는데, 몽골의 경우는 주제 의미로, 한국의 그것은 화자 자체가 제목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의 화자가 메뚜기와 개미, 물새로 제목을 노출한 반면, 몽골은 그 화자가 세상의 과대망상가 혹은 세 걱정꾼으로 대체하였다. 채록자가 그 민담을 단일한 이야기 구성체로서 채록하면서 몽골이 그 내용에 주목하였다면, 한국은 그 화자에 게서 제목을 착안한 셈이다. 한국의 민담이 소재 자체에서 이야기의 흥미를 유발하였다면, 몽골의 그것은 화자의 성격을 표면적으로 노출하여 그 내용을 암시하였는데, 각각 구술자 혹은 화자의 인식으로 얻은 제반 현상을 청자 혹은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불러내려 하고 있다.

몽골민담에서 등장하는 걱정꾼이며 망상가인 세 가지는 두루미와 매미와 박쥐다. 이 화자들은 한국과 몽골 양 지역에 모두 있는 생명체로서 날아다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조류와 곤충, 설치류인데, 모두 날개를 가졌지만 땅에서도 집단적으로 살아가며 우화에 흔히 등장하는 제재들이기도 하다. 한국이 곤충(개미와 메뚜기)과 날짐승(물새)이라면 몽골은 날짐승(두

¹³⁾ 세덴자빈 돌람, 앞의 책, 209쪽.

루미)과 곤충(매미)과 설치류(박쥐)이다. 이들은 곤충과 금수(禽獸)를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화소를 내포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므로 이에서 어떤 일정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두 민담에서 이야기 구성체의 중요 요인인 화자를 대비하되 세 번역이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제재가 거의 일치한다는 관점으로 화자의 등장 순서를 유념하되 다시 계열별로 조정하여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2: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걱정꾼)」 화자 대비표〉

한국			구분	몽골			대비요소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제목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걱정꾼)			상징
①개미	② 메뚜기	③물새	화자	두루미	매미(여치)	박쥐	음가
			계열	매미	박쥐	두루미	동일시

〈표2-1: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화자와 계열 대비표〉

항목	한·몽 민담의 화자와 계열 구분	제1화자	제2화자	제3화자
1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의 화자 등장 순서	개미	메뚜기	물새
2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의 화자 등장 순서	두루미	매미	박쥐
3	두 민담의 화자 계열 조정한 화자 등장 순서	매미	박쥐	두루미
4	「세상의 세 걱정꾼」의 화자 등장 순서	두루미	여치	박쥐

위의 〈표2〉에서 한국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화자의 등장에 따라 그것과 동일시할 만한 몽골민담의 등장 화자를 배열하였다. 양국 민담을 화자가 등장하는 순서로 가지런히 놓고 보면, 한국이 개미와 메뚜기, 물새라면, 몽골에서는 두루미와 매미, 박쥐로 대비된다. 한국의 개미가 몽골에서는 매미로, 메뚜기는 박쥐로, 물새는 두루미로 대비된 것이다. 이를 다시 계열별로 배열할 때, 개미와 메뚜기와 물새가 매미와 박쥐, 두루미로 대별된다. 그러므로 개미는 매미로, 메뚜기는 박쥐로, 물새는 두루미로 대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소리’에 민감하게 호응한 것으로 보고 한국이 개미 [쇼르골즈]-메뚜기[차르차]-물새[오스니 쇼외]로, 몽골은 [토고르(두루미)]-[골리오(매미)]-[사승 바가회(박쥐)]로 발음하므로 몽골어든 한국어든 구술자와 청취자 혹은 독자에게 동일하게 반복하는 소리의 변화를 들려준다.

한편 한국에서는 두루미나 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학을 청렴결백한 선비로 상징하는데, 이를 몽골에서는 [챙 토고르]라고 명명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것과 의미 상관성이 있다. 몽골어 [챙헤르]가 ‘푸르다’이고 [체베르]가 ‘청결’, [체베레헹]이 말끔하다, [체베르 쇼드락]의 ‘청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데서 개연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몽골 [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학’으로 명명된다는 점에서 이는 ‘맑고’, ‘깨끗한’, ‘푸른’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몽골어가 소리언어로 일정 부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해 주는 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더 접근하기 위해서 몽골민담의 원문과 본인의 번역문 「세상의 세 망상가」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세상의 세 걱정꾼」으로 번역한 이평래 역본¹⁴⁾을 보면 매미를 여치로 번역하였는데, 이를 몽골어사전에서도 몽골어 [골리외]라는 음가를 가진 것을 매미인지 여치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2-1>에서 보듯이 제2화자인 메뚜기와 대비되는 곤충으로서 여치를 상정한다면, 개미는 박쥐로 대비된다. 매미가 여치로 번역된 것으로 대비하여도, 개미와 메뚜기는 여치와 박쥐로 대체되어 개미와 여치가 대비되고, 메뚜기는 박쥐와 대비하게 된다. 또 개미와 메뚜기, 여치가 곤충으로 대비될 때, 물새는 두루미로 대비되면서 박쥐는 이들의 양면성을 지닌 설치류이면서 날짐승이라는 점에서 메뚜기와 박쥐의 특성, 즉 각 지역의 현장에서 두 관계를 포괄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루미 역시 몽골에서는 물에서 살되 홍수 발생 가능한 지역에서 여름을 나며 풀과 물이 있는 지역의 날짐승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박쥐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물새이든 두루미든 물과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을 먹이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박쥐의 양면성을 상기하게 한다. 두루미가 자연 속에서 포식자로서 상징하는 바가 있기에 학이 주는 의미와 다른 배반적인 상관성을 일정 부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앞서 제기한 대로 대비하는 생명체 이름의 음운을 대비하면 하나의 개연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그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학과 여치가 아닌 두루미와 매미라는 화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제기한 대로 선비는 학으로 상징되는데, 포식자로서도 연상될 수 있다면 다음 매미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매미의 유래」에서 그 관련성을 설명해 줄 것이다. 두 민담 배경에서 각각 한국이 농경지라면 몽골은 유목지로 대별된다. 이는 이미 몽골민담의 배경 이해에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 보통명사로 칭하는 물새인 반면 몽골은 두루미로 명명되었고, 메뚜기가 박쥐로 대비되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대응하는 지역민들과의 관계 이면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한국과 몽골 지역, 그 문화 형질이 서로 다름을 시사해 주는데, 전자가 한국인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풍부한 자연물인 곤충이나 물새로 표현되었다면, 몽골의 그것은 매미와 박쥐, 두루미로 나타나서 이 지형에서 파생하는 문화 성격을 가늠하게 한다. 한국이 수량이 풍부한 지형에서 비롯한 농경문화의 자연환경을 연상하게 한다면 몽골은 그 지형인 동굴이나 산악, 고원지대임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¹⁴⁾ 체렌소드눔(이평래 역), 앞의 책.

이들은 물론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생명체들이라는 점에서 또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자연물로서 공유하는 동질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호응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어떠한지를 예견할 수 있다. 몽골이 한국의 물새를 두루미로 구체적으로 명명한 것에서 사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의식을 엿보인다면, 화자의 관계에서도 긍정성이 보인다.

반면 한국이 물새를 보통명사로 명시한 것에서 물새를 바라보는 화자(구술자 혹은 지역민)의 의식, 즉 먼 거리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이며 부정적인 관계도 엿보인다. 한편 물총새라고도 불리는 물새는 생활조건이 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새의 총칭이면서 물가에 사는 여름새로서 민물고기나 양서류 따위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에서 물새가 박쥐와 같은 이중적인 화자 요소를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풍부한 강수량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들을 수확하는 자연인과 그와 관련하여 살아가는 자 혹은 방관하는 자의 시선으로서 물새를 바라본 것이다.

물새처럼 농어촌지역에서 농사나 고기잡는 농어민들이나 그 지역민에게도 적일 수밖에 없는 생명체가 또한 메뚜기이며 유목지형의 박쥐라는 점에서 화자와 반응하는 부정적인 관계를 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이 메뚜기로 명명된 것과 대비되는 것이 몽골에서는 박쥐라는 점을 눈여겨보면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보인다. 독자의 상상력은 화자가 등장하는 시작부터 이미 감정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 놓이는 데 그 배경이 작용하므로 자기 내면에서 세 민담 속의 화자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상황 의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의 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를 분석하기 전에, 「세상의 세 걱정꾼」¹⁵⁾이라고도 번역되는 몽골의 민담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¹⁶⁾로 번역된 전문을 먼저 인용해 본다.

두루미는 자기가 지구를 힘껏 밟으면 지구가 내려앉게 되고, 많은 동물들이 그 함몰된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땅을 조심스럽게 살살 밟는다. 그것은 자기가 지구를 세게 밟으면 지구가 내려앉게 될까봐 그렇게 걷는 것이라고 한다. 매미는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이게 되어 모든 생물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높은 들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한다.

박쥐도 하늘이 무너지고 동물들이 멸종될 것이라고 걱정스러워하면서, 높은 곳에 매달려 위를 향해 하늘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 한다.(밑줄 필자)

15) 체렌소드넴(이평래 역), 『몽골민간신화』, 대원사, 131쪽.

16) 데.체렌소드넴 편저(이안나 역), 위의책,

이 번역문은 원문에서 사용한 직접화법의 구술법을 풀어서 간접화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이야기 내용을 독자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이나 단어와 구성에서 단순한 구조를 이룬 「세상의 세 걱정꾼」은 문맥의 호응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독자들에게 뚜렷하고 쉽게 전달된다. 번역자가 먼저 원문의 문맥을 알고 파악하여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 그 내용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 듯하다. 이 두 번역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도를 표면화한 것이다.

두루미가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거리는 이유는 만일 자기가 힘차게 밟으면 세상이 무너져 많은 동물들이 구렁이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또 여치가 조약돌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떠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기 위해서다. 그리고 박쥐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하늘이 무너져 모든 동물이 멸종되어 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하늘을 살피기 위해서다.¹⁷⁾(밀줄 필자)

밀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루미가 세상을 '걱정' 하고 여치가 또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라면, 박쥐는 앞서 한 두 행동을 합한 듯 '걱정 때문에 살핀다'는 이야기로써 내용 구조를 명확하게 전달받도록 표현하였다. 각각 두루미와 여치의 행동에서 박쥐가 더 포괄적인 활동을 하는 생명체로서 두 생명체의 양면성, 즉 박쥐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의미로서 '걱정'과 '살피는' 일로 발전한 것이다. 박쥐가 두루미와 여치의 활동을 함께, 혹은 동시에 '걱정하고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 시선이 발전하여 그 시야를 확장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박쥐의 양면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치와 매미는 들판에서 살되 각각 돌 위와 나무 위에서 사는 것으로 구분되나 수놈이 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한국적인 시각을 감안한다면 매미가 선택된다. 박쥐는 두 생명체를 포괄하는 날짐승이며 땅을 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과 대륙을 오히려 배제하여 땅 위이며 하늘 아래 높은 곳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하고 있으므로 박쥐에 대한 특이한 접근도 감지된다.

4. 한·몽 민담의 배경과 전개-화자 성격 대비

두루미, 매미, 박쥐는 모두 물에서 사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두루미가 한국에서 겨울을

¹⁷⁾ 체렌소드눔, 위의책, 131쪽.

나고 몽골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서 한편으로 다음 몽골의 지형을 감안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인들은 흔히 몽골이라 하면 초원과 사막을 연상하고 있지만 몽골에서 사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다. (중략) 중부지방에 위치한 산지 북면에는 삼림이 희박하다. 몽골북부 지방은 삼림사이에 산림초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그 지방의 전형적인 경관이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산지는 주로 북면 쪽으로 삼림이 치우쳐 있으며 남면은 초원 내지 반항막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몽골 알타이산맥의 남면 즉 이르티쉬 하원에는 삼림이 무성히 우거져 있다. (중략) 봄에는 홍수가 적고 여름에 홍수가 집중된다. 폭우나 큰비가 내린 다음 수위는 1~2일 내로 급속히 상승한다. 몽골의 산지하류는 유속이 빠르고 낙차가 커서 종종 재해를 불러일으킨다. 셀렝게강 유역의 일부지대는 강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영구동토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셀렝게 하류는 홍수 때 아주 급속히 물이 불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⁸⁾

민담이란 지역과 화자의 조건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과 성격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위의 인용은 몽골의 지형이 사막지역이 극히 적은 산림초원이며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사는 생물이 바로 두루미와 매미, 박쥐이며, 이들은 다시 한국의 개미와 메뚜기와 물새로 대비된다는 점에서 양국에서 대표하는 생명체로 보고 그 특성을 상기하고자 한 것이다. 즉 몽골의 두루미는 특히 강수량이 풍부한 곳보다 물이 약간 있는 물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겨울을 나고, 몽골에서는 여름을 나는 대형의 겨울새라는 점이다. 두루미는 한국에서 긴 겨울을 보내고 남은 짧은 여름을 몽골에서 보내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홍수를 염려하는 일이란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 몽골의 두루미가 비교적 포근한 한국의 긴 겨울에서 놓여남과 동시에 또 다른 고국에서 보내는 여름절기가 짧은 만큼 그 안타까움은 우울함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와 대비되는 한국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옛날에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가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개미는 밥을 마련하고 메뚜기와 물새는 찬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미는 들로 나갔다. 마을의 아낙네가 밥을 머리에 이고 들로 가고 있었다. 개미는 그 아낙네의 속옷 속으로 들어가 여인의 넓적다리를 힘껏 물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머리에 이고 있던 밥광주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개미는 재빠르게 흘린 밥풀을 주워가지고 달아났다.

메뚜기는 개울 옆 풀에 올라 있으니 물고기들이 메뚜기를 먹으려고 모여들었다. 지키고 있던

18)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1999.5, 249~50쪽.

물새는 순간 날쌔 숨쉴로 고기를 낚아챘다. 메뚜기와 물새는 서로 저 때문에 고기를 잡았다고 자랑을 하다가 드디어는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다투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너무 웃어서 개미의 허리는 잘쭈뼛했으며, 물새는 메뚜기의 이마를 호되게 때렸으므로 뒤로 젖혀졌으며, 이때 메뚜기가 물새의 부리를 잡아당겼으므로 물새의 부리는 길어졌다고 전한다.¹⁹⁾(밑줄 필자)

한국의 민담을 보면 두 민담에서 각각 출현한 세 화자가 동일한 계열로 상호대비할 수 있을 만큼 일정 부분 동질감과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활동으로, 몽골의 그것은 사건자체보다 생각 혹은 망상의 전개로 나타났다. 민담 화자가 동일하게 출현하지만 한국의 매미와 메뚜기, 물새가 활동하는 무대가 들판과 개울 옆 풀이라는 점에서 한국 지형의 특색을 나타내지만, 몽골은 두루미와 매미와 박쥐가 사는 곳이 전자와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산, 언덕이다.

이제 두 민담을 화자인 등장인물의 활동으로 파악하되, 시간과 화자, 장소, 화제, 활동, 결과, 현상, 상황 해석 등 배경을 중심으로 나누어 일정한 화소로 대비하고자 한다. 화자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소문장 화소로 구분하여 서사적으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이룬다. 이 대비에서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문제적인 상황으로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이거나 차이점이 있으면 ○로, 그러한 요소가 일부 보이면 △로 표기하였다.

항 목	구분	한국			몽골			공 통	차 이
1	제목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	○
2	시간	옛날			현재(열린 시간)			*	○
3	화자	개미	메뚜기	물새	두루미	매미	박쥐	○	○
4	장소	들	개울 옆		땅	높은 돌 위	높은 곳	△	○
5	화제	잔치를 벌이기로 함(도움을 주려함)			세상(지구와 동물)을 걱정함.			△	○
6	활 동	①	밥을 마련	찬을 마련	지구를 힘껏 밟으면	세상(+문맥 화자)이 물로 뒤덮이게	*하늘(+문 맥화자)이 무너지고	*	○
		②	들로 나감	개울옆 풀로				지키고 있다	*
		③	아낙네(+보	물고기(+보	날쌔	지구(+문맥		*	○

¹⁹⁾ 최근학편, 앞의책, 112~113쪽.

		조화자). 밥 을머리에이 고 들로 가고 있었다.	조화자)들 이 메뚜기를 먹으려고 모임	숨씨로 고기를 냇아쳤다.	화자) 가 내려앉게 되고	되어		
		④ 아낙네 속옷으로 들어가 넓적다리를 헐것 물었다.	*		많은 동물들(+문 맥화자)이 그 함몰된 곳으로 떨어질 것	생물들(+문 맥화자)이 물에 빠지는큰일 을 당하게 될 것	모든 동물들(+문 맥화자)이 멸종할 것	* ○
		⑤ 깜짝 놀란 여인(+보조화자)은 머리에 이고 있던 밥광주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지구를 세게 밟으면	*		○ ○
					~이라고 걱정스럽게			
7	결과 현상	① 재빠르게 흘린 밥풀을 주워 달아났다.	서로(두 화자) 고기를 잡았다고 자랑을 하다가 싸움(+문맥화자)이 벌어졌다.		지구(+문맥 화자)가 내려앉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건는다.	높은 돌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위를 향해 하늘을 살펴본다.	○ ○
		② 다투는 풀(+문맥화 자)이 우스워 너무 웃다가	물새의 부리를 잡아당겼으 로	메뚜기의 이마를 호되게 때려서				○ ○
8	상황 해석	허리(+문맥 화자)가 잘쭈해졌다.	뒤로 젖혀졌다.	부리(+ 문맥화자)가 길어졌다	(지금도)조심함			○ ○

〈표3: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배경과 등장인물 활동대비표〉

이는 두 민담의 유사점과 차이점 정도를 설명해 주었다. 먼저 화제가 벌어지는 장소와 시

간으로 두 민담을 대비해 보면, 활동하는 무대 성격이 나타난다. 화자의 활동무대로 지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화제로도 연결되어 양국 민담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민담에서 개미가 들에 있다면, 메뚜기와 물새는 개울 옆에 있으며, 이 장면은 나지막한 지형의 자연적 구조를 연상하게 한다. 몽골의 두루미와 매미, 박쥐는 피조물로서 상상으로 자연만물을 염려하며 그들과 일치되는 친화성을 표현한다. 자연만물 속에서 그를 대언하듯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연 전체를 상대로 사고하는 데 자아와 세계가 일치하는 시적인 현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제 민담의 전개상에서 개미와 메뚜기와 물새가 함께 잔치를 벌일 때, 개미가 제1화자인 입장에서 문제-잔치 혹은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첫 번째이지만 세 화자가 모두 순서대로 해소자로 나서며 지역에 따라 구하는 식량이 밥이나 새우젓도 되고 등장하는 물고기도 잉어나 메기 등으로도 나타났다. 한국민담 이본에서 화자가 목적과 순서, 물고기 종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²⁰⁾ 그런데 이본에서는 몽골의 경우는 그와 유사한 곤충인 매미뿐만 아니라 다른 두 화자인 두루미, 박쥐도 세상을 걱정하는 생명체로 나타난다. 이들은 또한 개미를 제외하면 날면서도 자신의 생존 배경인 한국이 지상(땅과 개울)에 속한 환경에 지배당한다면, 몽골은 땅과 하늘, 전 지구를 염려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과 몽골 민담에서 한국이 시간과 화제에서 막연한 시기로 설정된 옛날, 그 어느 날에 잔치를 벌이기로 하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몽골은 그 시간과 화제가 세상 즉 지구와 동물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데서 이야기를 맺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는 자연을 대하는 피조물들, 즉 몽골인에게 투사된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로서 자연세계에 자신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한국이 자연 속에서 일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면 몽골의 그것은 자연 전체와 동일시되어 관계 대상들과 자연친화적으로 일치된 조화를 이루었다. 관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일상적인 삶의 구조를 초월하여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의식으로 서사를 이룬 것이다.

한편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나 자연, 보편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는 옛날 과거 어느 시간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그리고 있어서 사건이 있었을 법한, 증거가 남는 전설적인 요소를 보인다. 이는 이 한국민담이 증거를 남기는 데, 몽골민담은 운동-현상-관념을 드러내고 있어서 두 민담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신화적인 성격으로 교감하는 정서가 깃든 전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민담 공간이 몽골문화에서 나타나는 “외형(형상)과 운동(활동)이 현상(사물)으로 나타나

²⁰⁾ 각주 1)참조.

관념(의미)이 담긴다”²¹⁾는 통합구조를 함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산이 터를 잡는다든지 물의 세침과 풀이 뾰족하게 돌아난 것은 그 안에 숨은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데²²⁾, 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의 활동공간이 몽골의 민간신앙을 보이는 활동공간의 속성과 같다는 점에서 일면 유사하다. 다른 내용의 다른 구조일지언정 한국민담 배경의 무대가 풀이 있는 들과 개울 옆이라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몽골의 민간신앙 풍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미와 메뚜기와 물새」 배경 공간은 몽골의 민간신앙을 엿보이는 살아있는 공간, 민간신앙의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국민담의 화자 활동 공간이 몽골의 민간신앙이 숨쉬는 공간과 일치하고 있기에 그 속에 몽골의 정서적 속성이 전이, 심화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두 민담이 다른 사건으로 이루어진 서사였으나 다른 지역과 구조 속에서도 일치하는 정서적 공감대를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5. 한몽 민담의 개연성-자연과 언어, 문화의 교감

앞서 제시한 한몽민담의 유사성, 즉 체재의 특성과 음가, 내적 정서,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찾도록 본인이 번역한 「세상의 세 망상가」를 인용해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두루미는, “내가 세계 걸으면 세상이 무너져 떨어질 것이고, 많은 생물이 그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 가라앉을 거야.”라며 부드럽게 걷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건들건들 걷는다네.

매미는 “물로 대홍수가 나서 홍수난 물에 생물이 빠져서 난리를 당하게 될 거야.”라며 높은 데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에 단단한 돌에서 내다본다네.

박쥐는 “하늘이 무너져 생물이 목숨을 잃을 거야.”라고 높은 곳, 그쪽으로 바라보며 매달려서,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네.²³⁾ (밑줄 필자)

원래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세 망상가」 원문에는 편저자가 ‘베. 리첸의 『몽골민담집4』 30쪽에서 인용했으며, 1936년 1월 31일에 고타이라는 53세 사람에게서 채록하였

21) 센덴자빈 돌람(이평래 역), 앞의 책, 35쪽.

22) 센덴자빈 돌람(이평래 역), 위의 책, 33쪽.

23) 이쉬,가담바데,체렌스드님, 『몽골민간구비문학선』, 울란바타르시, 1978.12, 143쪽.

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이는 동물민담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생명체를 동물적 요소로 파악하여 활성화 의미를 둔 듯하다. 그런데 본고는 앞서 제시한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라고 번역한 것에서 ‘망상가’ 란 이미 비대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란 의미이므로 ‘과대’ 라는 표현이 없어도 될 것으로 보았다. 몽골어로 [이흐 사닐탕]이란 ‘생각을 많이 하는 자’ 이기에 ‘망상’ 이라는 어휘 속에 이미 ‘많은 생각’ 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으므로 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다고 보아 ‘망상가’ 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골어가 음성언어으로써 문학에서 각운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고유한 음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의를 가질 때, 「세상의 세 망상가」 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몽골어 특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토고로, “나마익 창가 기쉬게웰 가자르 델히 츠러흐 비이, 얼릉 엠 테르 침오르 히 르 오 르쭈 오나흐 비이.” 게즈 즈으롱 기식기즈 배이가 안 인 게즈 게등 고등 기시겔렉 융젠 빌레. “](밀줄 필자)

이러한 몽골어 발음 소리를 듣고 밀줄 친 부분을 주의하여 들어보면, 한국어에서 유사 음가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처럼 몽골어에서도 유사 음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서 한국어와 몽골어가 유사한 음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같은 율조를 느끼게 하는 듯 반복하는 유형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외국어 화자로서 외국어로서 만든 한국어 번역 문장에서 어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번역하였을 때, 몽골어와 같은 현상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두루미 화자의 전개가 나타나는 부분이 한국어의 음가 구조와 유사한 현상을 드러내었다. 이는 서로 음성으로나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치된 현상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유한 상황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과도 일치하였다.

「세상의 과대망상가」 로 배경과 현상, 화자의 성격을 분석한 <표3>의 경우에서 환경과 현상이라는 한국과 몽골의 개연성 요소를 더하여 「세상의 세 망상가」 번역본으로 다시 서사의 화소 단위로 도식화하면, 이전과 다른 <표5>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항목	구분	한국	몽골	공통	차이
1	제목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망상가	*	○
2	시간	옛날	현재	*	○
3	장소	들	개울 옆	땅	단단한 돌 위 높은 곳
4	환경		세상	물	하늘
5	화자	개미	메뚜기	물새	두루미
6	화제	잔치를 벌이기로 함(도움을 주려함)	자신의 행위로 문제될 세상과 생물을 염려함	△	○
7	현장	준비를 위한 탐색	지면과 세상	물과 홍수	하늘과 멸망
8	활동	① 밥을 마련	찬을 마련하기로 함	세계 걸으면	물로
		② 들로 나감	개울 옆 풀로 지키고 있다	대홍수(+문맥화자)가 나서	하늘(+문맥화자)이 무너져
		③ 아낙네(+화자), 밥을 머리에 이고 들로 가고 있었다.	물고기(=화자)들이 메뚜기를 먹으려고 모이	날쌔 숨쉴 새가 없다. 고기를 낚아챘다.	홍수난 물에 생물(+문맥화자)이 빠져서
		④ 아낙네 속옷으로 들어가 넓적다리를 힘껏 물었다		많은 생물(+문맥화자)이 그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 가라앉을 것	생물(+문맥화자)이 목숨을 잃을 것
		⑤ 깜짝 놀란 여인(=보조화자)은 머리에 이고 있던 밥광주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염려함	
9	결과 현상	① 재빠르게 흘린 밥풀을 주워 달아났다.	서로(두 화자) 고기를 잡았다고 자랑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부드럽게	높은 데서 그쪽을 바라보다
		② 다투는 풀(=문맥화자)이 우스워 너무 웃다가	물새의 부리를 잡아당겼으므로 메뚜기의 이마를 호되게 때려서	건들건들 걷는다.	단단한 돌 위에서 내다본다.
	상황 해석	허리(+문맥화자)가 잘쭈뼛졌다.	부리(+문맥화자)가 길어졌다.	(지금도 동일한 행동을 한다.)	

〈표5: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세상의 세 망상가」 배경과 등장인물 활동 대비표〉

「세상의 세 망상가」에서 세 화자는 자신의 행위로 문제될 세상과 생물을 염려한다. 이를 화자의 음가와 문맥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조화자까지 확대하여 의미를 구별하여 보면 양국 민담 화자 성격으로서 다음과 같이 각각 독특한 세계관을 추출할 수 있다.

〈표6: 한·몽민담의 화자 형상과 성격 대비표〉

구분	한국			몽골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			세상의 세 망상가		
화자	개 미	메 뚜기	물새	두루미	매 미	박 쥐	두루미	매미	박쥐
보조 화자	아 낙네	물 고기	*	*			*		
	여인								
문맥 화자	다 툼	*	*	지구	세 상	하 늘	세상	대홍 수	하늘
	허 리	메뚜기 물새 대응		많은 동물들	생 물들	동 물들	많은생 물	생물	생물
	*	*	부리	지구	*	*	*	*	*
관계	생물과 다툼, 변화, 조소			대자연과 많은 생물, 동물 재앙			대자연 생물 재앙		

몽골민담 이본을 화자별로 대비하여 보았을 때,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와 달리 몽골의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와 그의 이본인 「세상의 망상가」는 보조화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자가 문맥화자로서 지구, 세상, 하늘, (많은) 동물, 생물들이 나타난다면, 후자는 세상과 대홍수, 하늘, (많은)생물들로 드러났다. 이는 문장의 주인공으로서 민담의 분위기를 환기하며 이야기의 주된 제재로서 화제를 이끄는 요소라는 면에서 이야기의 주된 주장, 서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과대망상가」가 지구와 세상, 많은 동물, 생물들, 지구를, 「세상의 세 망상가」는 세상과 대홍수, 하늘, (많은)생물들을 특수 주체로 삼았는데, 이 상징에서 전자는 지구와 동물성, 생물성이 강조되며, 후자는 세상과 하늘, 대홍수, 생물들이 강조된 셈이다. 이에서 번역의 관점과 해석에서 다른 문학적 혹은 문화적인 성격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보조화자로서 아낙네(여인), 물고기 화자가 더해지는데, 문맥화자로서는 다투는 골과 허리, 메뚜기와 물새 대응, 부리가 나타났다면, 몽골은 보조화자가 없이 문맥화자로서 세상, 대홍수, 하늘, (많은)생물들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난다'는 점에서 상반된 관계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활동으로 단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몽골은 관념으로 전지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이들의 활성화의 근원이 사람과 물고기, 싸움으로 대응하였다면, 몽골은 우주적 배경과 생물의 재앙으로 분리되는 지점일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는 각각 추구하는 그 실리적인 목적이 다르므로 그 상황에 반응하는 주체의 특성 활동이 달라졌음을 반증해 준다.

일반 민담들이 대체로 의인화로 나타나는데, 한국이 구체적으로 활동한다면 몽골은 그 대상들이 역시 자연과 일치된 반응을 보인다. 한국의 자연물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계와 투쟁 활동을 하는 반면, 몽골의 그것은 활동-현상과 관념이 일치하려는 듯이 자연물과 합일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 자연에 대응하는 태도 차이가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과 몽골은 각각 투쟁과 조화의 양면성을 제 나름의 소재 영역에서 독창적으로 보였다.

번역에서도 민담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마련인데, 여기에 사용된 어휘들이 무의식의 원형으로서 배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담의 새로운 해석이 발생한다.²⁴⁾ 즉 번역자가 민담의 다른 구술자로서 새로운 민담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자가 지구와 세상, 하늘로서 많은 동물과 생물을, 후자는 세상과 대홍수, 하늘로서 (많은)생물을 염려한 셈이 된다. 이들은 각각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로 다가왔다면 자기 존재 무게를 넘는 대상을 향해 매미가 우려하듯 직접 닿는 세상의 배경인 하늘로써 광대한 대지 영역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루미가 세상을, 매미가 대홍수를, 박쥐가 하늘을 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념할 요소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을 초월한 자연공간과 생명체 범위인 세상과 대홍수, 하늘, 생물을 염려했다는 점이다. 특히 두루미는 물을, 박쥐는 하늘을, 매미는 홍수가 날까 걱정하며 물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민담 「매미의 유래」를 보면 이 정황을 풀어낸 것처럼 일치하는 물증을 찾을 수 있다.

옛날에 과거를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선비가 있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어 그의 아내가 매일 피(피)를 뽑아다 말려서 찜어 먹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를 뽑아다 명석에 말려 놓고 또다시 피를 뽑으려 나갔는데, 마침 소나기가 내려 피를 말려 놓은 명석의 피가 씻겨 내려갔다. 그런데도 선비는 공부만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고

24)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2000.12, 26쪽.

말았다.

그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여 금의환향하는 것을 우연히 어느 시골에서 본 아내는 울며불며 애원을 했지만 선비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서숙(黍稷)을 쏟아놓은 후 그것을 주워 담으면 용서해 준다고 하기에 열심히 주워 담았지만 그 동안 선비는 떠나고 없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넘어져 끝내는 죽고 말았는데, 그곳에서 아내는 매미로 변신하여 커다란 미루나무 위에 올라가 매암매암 울었다고 한다.²⁵⁾

이 한국민담 「매미의 유래」에 나타난 매미는 그의 남편이며 가정이 집안을 돌보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희생자로서 선비와 반대 국면에 놓여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을 상징한다. 이는 몽골의 매미가 염려하는 슬픔, 두려움의 감정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매미가 여름 기간, 특히 자신이 성체가 되기까지 준비되는 시간보다 짧은 기간에 살며, 비가 많이 오는 절기에 산다는 측면에서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의 속내와 닮았다. 더욱이 한국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에서 본 개미와 아낙네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여서 흥미롭다.

이 민담에서 개미는 지혜로운 피로 아낙네의 치마 속에 들어가 다리를 물면서 밥을 얻는데, 곧 여인은 개미에게 당하는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약자임을 반영하는 화자이다. 「세상의 세 망상가」의 매미가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화자의 여인처럼 당하는 두려움의 인물이거나 혹은 반대편의 개미와 적대적인 성격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매미의 유래」에 나오는 아내와 선비는 반대로 개미와 아낙네이며, 이들의 대비는 곧 한국이 인간과 자연 생물 간의 투쟁관계라면 몽골은 우주관과 동생물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매미는 한국의 한이 서린 정서로 몽골공간의 민담화자로서 서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대비한 두 민담에서 더 나아가 「매미의 유래」에서 보이는 매미는 몽골의 매미가 가진 화자 성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몽골과 한국의 지형과 이야기를 함께 사용하여 단일한 화자 성격을 이루어 낸 듯하다. 마치 이야기 속의 화자 성격에서 서로 일치하거나 상반된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한국과 몽골의 원형적인 요소로 삼고, 상관성을 역추적하는 단서로 적용할 만하다.²⁶⁾

한국의 민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를 「세상의 세 과대망상가」이나 「세상의 세 걱정꾼」, 「세상의 망상가」로 대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번역의 방식이나 단어 선택으로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의미 차이까지 일으켜서 번역 관점에도 민감한 대

²⁵⁾ 최근학편, 앞의책, 113쪽.

²⁶⁾ 융의 제자인 칼 프란츠가 “원형이란, 기본사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적 이미지, 환상 그리고 어떤 전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기본충동” 이라고 했다.(이부영, 앞의책, 25쪽 재인용)

응을 요구한다. 제재의 음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한 현상과 사건 현장, 그 성격이 서로 동일한 기저에서 기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서 지역이 서로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형성하면서도 제재의 음가에서 비롯한 유사 현상에서 한 뿌리에 기원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는 두 민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짐작하게 하고,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이루어낸 독특한 이야기 구조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나 민족성을 초월한 동일성과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비교된 특성을 정리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 도표와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에서 공통점, 차이점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 분명하게 차이점에서 오히려 대조되는 점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항목	구분	한국	몽골	공통	차이
1	제목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세상의 세 망상가	△	○
2	화자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통칭)	두루미와 매미와 박쥐	○	○
3	행위	인간과 생명체가 자연에서 활동함	생명체가 자연을 바라보며 염려함	△	○
4	제재특징	세 생명체:두 곤충과 새-이동 작음	세 생명체:새와 곤충과 동물-다 날음	△	△
		농경지대 생명(비교적 짧은 움직임)	산악지대 생명(장소 다양, 먼거리)		
5	장소	자연공간, 땅과 물가로 제한됨	열린 자연공간, 대지에서 하늘로 제한	○	○
6	시간	과거 일회적	무시간(현재적)	*	○
7	화제	잔치를 벌이기 위한 준비	지구를 걱정하는 세 생명체	△	○
8	활동	잔치를 벌일 음식을 준비하러 감	조심스럽게 건너나 아래위를 관망	○	○
9	원인	함께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함	생물, 동물들의 생명 보호하는 생각	○	○
10	가치	공동체 잔치를 벌이려 함	자연 생명체가 함께 살기	○	○
11	행동	피로 땀거나 다툼, 자랑과 조소	자신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사고함	*	○
12	결과	움직여 물거나 모이를 낚아챈	건너나 내려다보거나 자기외부 관망	○	○
13	결과현상	생명체 공생, 기생과 인간 공존	생명체가 자연세계를 보호(상상)	○	△
		자연 생명체의 변한 모습	자연 생명체의 보호의식 행동		
14	상황해석	각 생명체 변이 결정됨	각 생명체 조심하는 행동 지속함	△	○
		결정되어 있는 닫힌 구조	결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구조		
15	주제	공생과 지혜(피), 어리석음 조소	생물을 사랑하는 근심으로 망상	*	○

〈표7: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 「세상의 세 망상가」의 화자성격 대비표〉

위의 대비표는 한몽민담의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기한 임의의 의미준거를 따라 항목들을 열다섯 항목으로 구분하여 본 것이다. 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일부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열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상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70% 이상 함께 공존하

고 있으므로 이는 유사하되 차이점이, 다르되 동질성이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이 서로 자연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영향권 내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많은 부분 잠재하고 있으므로 문화적인 교류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민담은 화자와 구술자가, 창작자와 독자가 서로 자유롭게 반응함으로써 자기 특유의 성격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이에서 상호영향을 입었을 것이다. 특히 시간이나 행동, 주제 측면에서는 20%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몽골의 화자들이 시간과 자연의 질서의 대응 의식을 보이는데, 목적의식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6. 한몽민담 화자의 개연성과 정신문화

민담은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언어와 문화 생명체이므로 정신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특히 지역 흥미에 따라 창의적으로 반응하므로 화자와 구술자 혹은 독자와의 문학적인 대화를 이룬다. 민담을 대비해 보면 그 문화와 언어 또한 친숙해지므로 외국어 화자로서 타문화를 변별하면서 언어도 깊이 이해,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유사한 제재를 사용한 한몽민담 가운데 한국의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와 「세상의 세 망상가」를 중심으로 화자 성격을 대비하여 보았다. 유사문화권으로 대비되는 한국과 몽골이라는 점에서 제재와 주제가 변주하며, 문화의 동질성과 유사성이 잠재하고 있음을 제재와 화자의 성격, 배경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민담의 화자 개미와 매미, 메뚜기와 박쥐, 물새와 박쥐가 대비되는데, 이는 제재의 음가와 의미가 유사하여 물새와 두루미, 메뚜기와 박쥐, 개미와 매미가 제재의 속성만이 아니라 선택되는 이유에서도 일정 부분 상호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한국민담의 배경공간에서 몽골의 민간신앙이 보이며, 몽골민담에 나타난 매미가 한국의 매미 유래에서 나타난 성격과 거의 일치하였다.

두 민담의 배경에서 유사성과 차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데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연과 언어, 문화의 교감으로 얻은 상호교류의 흔적으로 보인다. 시간과 행동, 주제 의식이 다르다는 데서 또한 한국과 몽골의 사고와 목적의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변별성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되 뿌리깊이 문화가 오래 교류하면 각 민족권 내에서 고유한 문화권으로 재창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서 한몽 문화의 동질감과 유사점, 한국과 몽골 관계의 남다른 유대감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덕순 외, 『구비문화개설』, 일조각, 1977.1.
데.체렌소드님 편저, 『몽골민간구비문학선』, 이쉬, 가담바데.체렌소드님,
울란바타르시, 1978.12,
성기설, 『한국설화의 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9.
베.야.블라디미르초브(주채혁 역), 『몽골사회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4.
최근학, 『한국민담사전』, 문화출판공사, 1994.4.
한몽골교류협회, 『한몽골교류천년』, 1995.12.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1999.9.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2000.12.
체렌소드님(이평래 역), 『몽골민간신화』, 대원사, 2001.4.
x.삼필덴디브, 『몽골구비문학약사』, 울란바타르시, 2002.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9.
데.체렌소드님(이안나 역),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7.
센덴자브 돌람(이평래 역), 『몽골신화의 형상』, 태학사, 2007.5.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н өгүүлэгчийн зан авир ба оюуны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И Танми

[Хураангуй]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нь эрт цагаас өнөө үед улиран дамжиж ирсэн хэл, соёлын амьд биет болохынхоо хувьд оюуны соёлын үндэс язгуурыг таниулах гол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он өргөнөөр ашиглагддаг. Ялангуяа тухайн бүс нутаг бүрээс хамааран бүтээлч, сэдэллэг нөлөө болдог бөгөөд ингэснээр өгүүлэгч, уншигч хоорондын уран зохиоллог яриа болон өрнөдөг.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г харьцуулан авч үзвэл хоёр улсын хэл, соёл нь хоорондоо ойр холбоотой бөгөөд улмаар гадаад хэл, соёлын онцлог ялгааг ялган харуулж тухайн хэлийг ойлгож сурч эзэмшихэд ч нөлөө үзүүл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Адил төсөөтэй дүрүүдийг дүрсэлсэн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үүд дундаас Солонгосын “Царцаа, шоргоолж, усны шувуу гурав”, “Хорвоогийн гурван хоосон мөрөөдөгчид” зохиолыг гол болгон өгүүлэгчийн зан авирыг харьцуулан үзсэн. Соёлын өв болон харьцуулагдаж буй номыг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мээх хоёр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вэл, дүр болон сэдэв нь янз бүрийн хувилбартай ч үнэн хэрэгтээ түүний цаана соёлын адил төсөөтэй чанар далд оршиж байгааг зохиолын дүр, өгүүлэгчийн байдал, зохиолын цаад санаа зэргээс нээн илрүүлж болохоор байсан.

Хоёр улсын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н өгүүлэгч дүр болох шоргоолж ба жирхрээ, царцаа ба сарьсан багваахай, усны шувуу ба тогоруу хэмээх дүрүүд нь хоорондоо харьцуулагд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гээр дүр бүрийн хөг хэмнэл, утга агуулга нь адил байхын зэрэгцээ усны шувуу ба тогоруу,

царцаа ба сарьсан багваахай, шоргоолж ба жирхрээ гэх эдгээр дүрүүд нь өөр хоорондоо зөвхөн шинж чанараараа төдийгүй сонгогдож буй учир шалтгааныхаа хувьд ч холбоо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на. Үүнд, Солонгос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н ярианы урсгал хэм болон зохиолын цаад санаанд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итгэл үнэмшил тусгалаа олсон байх бөгөөд Монголын домог үлгэрт ч мөн адил дүрслэгдсэн жирхрээ нь Солонгосын жирхрээнээс улбаатайгаар дүрслэгдсэн нь өөр хоорондоо бараг тохирч байна.

Хоёр домог үлгэрийн цаад санаанд адил төсөөтэй чанар болон онцлог ялгаа нь бараг нэгэн зэрэг дүрслэгдэн гарах тэрхүү мөн чанар хоёуланд нь орших бөгөөд байгаль ба хэл, соёлын адил сэтгэгдэл төрүүлж буй нь өөр хоорондын солилцоо байсны ул мөр болсон юм. Цаг хугацаа болон үйл хөдлөл, дүрийн оюун санааны ялгаатай байгаа нь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 ардын сэтгэлгээ, үзэл санаа өөр буйг харуулж байж болох юм. Соёлын тэрхүү ялгаат шинж нь сэтгэлгээний эргэлт шилжилтийг өөртөө агуулан ирсэн хэдий ч үндэс суурь гүн гүнзгий энэхүү соёлыг хоёр улс үндэстэн хоорондоо солилцсоноор үндэстэн тус бүрийн өөрийнх нь өв соёл болон дахин шинэчлэгдэн бүтээгдэж байсныг олж нээсэн юм.

Голлох үг : ардын үлгэр, бүтээлч, өгүүлэгч, авианы хөг, боломж.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형상성

-주체적 여성들의 영웅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안나*

목 차

1. 들어가기
2. 주인공의 통과의례적 여정의 신화적 의미
3. 영웅적 특성의 유표적 형상성
 - 3.1. 주체적 능동성, 기지(機智)
 - 3.2. 장수적 기개
 - 3.3.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
4. 전인적 양성성(兩性性)
5. 결론

[한국어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본풀이의 주인공들 가운데 영웅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체적 여성(신)에 주목했다. 이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축출(분리), 고난과 극복(입문), 신의 좌정(회귀)이라는 일련의 통과의례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것은 어느 정도 영웅적 특성에도 부합된다. 인고를 통해 모성을 획득해 가는 수동적인 성격의 본풀이 여성 주인공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주관이 뚜렷한 여성 주인공들이 이들과 다른 점은, 성격적 특성으로 주체성, 기지, 장수적 기개를 보이며, 자질적으로 주술성, 초능력, 예지력 등의 비의적 특성을 갖는다. 신화 상징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갖춘 양성구유의 전인적 대모신과 생산풍요신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 이들 여성주인공들의 남녀 결연담에는 잉태와 출산이 강조되지 않는데, 이것은 생산, 풍요성을 자체적으로 지닌 대모신의 속성을 좀 더 많이 내재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 본풀이는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면서 적지 않은 변모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고대 문화의 잔영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고대 신화적 관념 내지 여성의 역사문화적 형상들이 반영되어 있다. 본 논

* 울산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문에서는 이러한 본풀이를 통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여성의 주체성과 전인적인 특성을 새로이 발견하고, 한국 문화의 시원성과 여성의 상관성을 일별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 영웅적 특성, 주체적 여성, 장수적 기개, 비의적 특성, 대모신

1. 들어가기

예로부터 무속의 주체는 여성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속은 모계사회와 깊은 관련을 갖고 발생하여, 가부장적 부계사회로 전이되면서 천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 안에서 신권정치의 한 이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왕권의 신이한 정당성을 하늘에 두어 왕을 천제 혹은 천자로서 관념하던 천신신앙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숭배되던 신성은 대모신이였다. “대모신의 관념은 고대 사회가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 농작물의 생성 주기 등 가장 근원적인 사물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생겨났다.”¹⁾ 이러한 관념은 여성이 무한한 생명의 원천, 생산성의 근원이라는 데 근거한다. 천신을 배경으로 한 남성신의 출현으로 신화 세계는 판도와 양상이 사뭇 달라졌지만, 대모신의 원형성은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며 전승되어 왔다. 본풀이 속의 영웅적 특성을 가진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대모신의 전인적 형상을 내재한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신에 주목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혜숙은 통시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계신성의 변모 양상과 대모신 상징과 변용을 통해 한국 여성의 원초적 형상을 찾고자 했다.²⁾ 강진옥은 무속신화의 여성 주인공의 원형적 여성상을 풍요를 가져오는 생산신에서 찾고 주인공들의 삶의 과정을 근원적인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아, 신화 속의 건강한 여성상을 도출하는 논의를 전개했다.³⁾ 최원오는 서사무가 속의 여성 형상에 주목하여 여신의 전능성과 생산력 표식의 요건이 현실적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았으며, 생산성과 대립적 속성의 모성의 특질을 통해 통시적이고

1) 송정화(2007),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p.61.

2) 천혜숙(1990),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집, 비교민속학회.

천혜숙(1991), 「여성신화연구(1),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제1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3) 강진옥(1995),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한국민속학회. 강진옥(2005),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공시적인 여성상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⁴⁾

특별히 본풀이 속의 여성 캐릭터를 영웅으로 보고 일대기적 삶의 과정의 의미를 해석한 논의로는 윤교임(1995)⁵⁾과 좌혜경(1998),⁶⁾ 이수자(2003)⁷⁾가 있다. 윤교임은 일반 본풀이 가운데 초공,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을 통해 결핍으로 태어난 유표화된 여성이 추방과 고난의 극복 과정을 통해 영웅적 존재 즉 무표화되는 신적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좌혜경의 논의에서는 자청비의 주체적 삶의 방식에 주목하여 영웅적 자질을 가진 자청비에게 제주여성의 대표적인 이상형을 찾았다. 이수자는 영웅적 존재인 자청비를 중심으로 하는 <세경본풀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학, 민속, 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했다.

지금까지 본풀이 속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적지 않게 있었고,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를 영웅으로 다룬 논의도 다소 있었으나, 전반적인 여성신격의 영웅적 특성을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본풀이 속에 영웅적 특성과 행동양상을 보여주는 여성 주인공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녀 이항대립의 성 논리로서의 여성이 아닌 전일적 개체로서 자기 결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했던 용감하고 개성적인 인물에 주목했다. 이러한 인물들은 여성을 기호화시키거나 종속화시키는 편견을 넘어서 전인적 특성을 가진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해주고 문화의 시원과 여성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제주 본풀이 가운데 일반신 본풀이와 당본풀이에서 영웅적 면모가 보이는 주체적 여성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표적 특성과 신화 상징적 형상성의 측면에서 여성 주인공들의 면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를 위해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다른 이본들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의 주제 성격상 이본을 대조하는 논의는 배제했다.

4) 최원오(2000),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화와 여성』, 박이정, 최원오(2007),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5) 윤교임(1995), 「여성영웅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좌혜경(1998),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호.

본풀이의 주체적 여성주인공의 성격을 제주도 여성의 생활상과 의식을 투영으로 본 논문으로는 한창(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제15집, 김정숙(2006), 「자청비문장아기 백주도」, 각, 송성대, 김정숙(2000), 앞의 논문 등이 있다.

7) 이수자(2003),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여신 자청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성신화』,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집문당.

2. 주인공의 통과의례적 여정의 신화적 의미

본풀이에 나타나는 영웅적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의 일대기를 보면, 고귀한 출신이나 비정상적인 출생⁸⁾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축출’, ‘고난’, ‘극복’, ‘신의 좌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신이 곧 영웅은 아니지만 신이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것을 극복해 가는 주인공의 특성은 영웅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쫓겨나거나 버림을 받고 고난, 결연, 고난의 극복 등의 일정한 절차를 통해 영웅적 존재로 변모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일종의 입사의례와도 같은 성격을 띠며 새로운 형질의 존재 변화를 위한 던져짐, 죽음, 재생의 절차라 할 수 있다.

보통 영웅들은 출신과 탄생담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본풀이 주인공들은 반드시 혈통이 고귀한 것은 아니며 출생도 비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만 기자치성 시 하나가 부족한 99근의 시주로 인해 여자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표면적 보면, 이것은 분명 ‘결핍’의 요소이며, 남존여비의 사회적 관념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지만, “무가에 나타난 9수는 단순한 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상수(象數)로 직유적이 아니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⁹⁾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수는 음기를 깨고 양기가 왕성해져 만물이 발생하는 시(時)의 운세를 말하며, 반대적인 성향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¹⁰⁾ 또 본풀이의 “인물들이 자신의 비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적의 공통적 속성은 죽음, 윤패와 감금, 쇠퇴, 어둠, 빈곤 등의 불모성에서 생명, 출산, 번성, 밝음, 풍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산성의 확인

8) 본풀이 안에 여성주인공은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지만 집안이 어떤지 생략된 경우가 있고, 감은장아기 같은 경우는 거지 집안에서 태어난다. 또 여성주인공들은 대개 기자치성을 위해 수록공양을 드릴 때 공양이 100근이 되지 않아 딸로 태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기이한 출생은 보이지 않는다.

9) 배영희(1995), 「巫歌에 나타난 數 ‘九’의 象徵性」, 『한국민속학보』 5, 한국민속학회, p.68.

본풀이에 나타나는 수는 단순하게 사용된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수는 천지인, 성취 및 완성의 수, 7수는 금기의 수, 9수는 천상의 신성수와 변화의 완전수로 볼 수 있다.

10) 위의 논문, pp.75~85 참조. 본풀이 속의 99수는 백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비의적인 상징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라산 99골, 설문대 할망의 속옷을 짓는 명주 99통 등은 결핍, 미완(未完)을 나타낸다. 그러나 9(99)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력을 나타내며, 무속에서 9수는 신성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의 결핍 관념은 후대에 변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 있다.”¹¹⁾ 이렇게 보면, 본풀이 여성주인공들의 탄생시에 나타나는 99근은 대모신의 생생력과 통합적 신성원리와의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 내용을 보면, 딸이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공양 부족으로 딸이 태어났다고 언급한 것은 남아선호사상의 사회적 외피가 덧씌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본풀이 속에 영웅적 특성을 가진 여성 주인공들의 통과의례적 노정은 일상적 공간에서의 축출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쫓겨남 혹은 버려짐은 본풀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웅적 인물들이 거치는 여행의 시작이다. 이들의 “쫓겨남은 존재전환을 예비하는 격리단계로서 잠재된 신성을 발현하는 계기로 작용”¹²⁾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존재전환을 시작하는 출발단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근본 동기는 가족관계에서 야기된 결핍”¹³⁾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영웅적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인 ‘과잉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집에서 축출될 때 사용되는 상투적 표현인 “아방눈에 시찌나고 어멍눈에 굴리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어린 나이에 절차 없는 임신, 다른 하나는 버릇없는 행실로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체적 여성 주인공들은 수동적인 임신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행실에 의해 축출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들이 부모의 눈 밖에 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승할망이 되는 동해 용왕의 딸은 “흔두술에 아방 어멍 몸에 불효가 나서”¹⁴⁾ 일곱 살에 은상자에 담겨 바다에 띄워진다. 여기서는 축출의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안사인 구연본에는 “한 살 적엔 어머니 젖가슴 때린 죄, 두 살 적엔 아버지 수염을 뽑은 죄, 세 살 적엔 넣어 놓은 곡식을 흘뜨린 죄, 네 살 적엔 조상 불효, 다섯 살 적엔 친족 불화, 여섯 살 적엔 존장 불효”¹⁵⁾ 등으로 그 죄목이 명시되어 나타난다. 여러 인물들 가운데 쫓겨나는 이유가 가장 극적이고 리얼한 경우는 감은장아기와 자청비이다. 감은장아기는 부모가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었을 때 천지신과 부모 덕으로 산다고 대답한 두 언니와는 달리 이러한 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배꼽 아래 선그릇(배꼽에서 음부까지 내리 그어진 선) 덕으로 먹고 입고 산다고 당당히 말함으로써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하인인 정수남을 죽이고 그가 했던 밭일 즉, 조씨를 뿌리고

11) 강진옥(1995), 앞의 논문, p.15.

12) 강진옥(2005), 앞의 논문, p.6.

13) 위의 논문, p.11.

14) 진성기(200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p.139.

15)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p.25.

다시 거두어 오자 그 어머니가 “지집년이, 남도 날세! 어떻 좁쌀 빼영 갈았당 모도와 올수가 겠느냐? 느 맵으로 아무디나 나고 가라.” 16)하고 집에서 내쫓는다. 다른 이본에는 하인 정수남을 죽이고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구해다 살려놓자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느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17) 이처럼 주인공들의 축출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보통과는 다르게 드러남으로써 야기된다.

보통 집에서 축출되는 것은 일회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한림읍 명월리 정좌수 따남애기는 행동과잉으로 집에서 쫓겨나 산에서 만난 산포수가 손을 잡으려 하자 부모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 아니니까 떠나라 18)고 매정한 태도를 보인다. 자청비의 경우도 1차적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청태산(국) 마귀할망(또는 주모)을 만나 그녀의 수양딸이 되지만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마귀할망에 의해 또 한 차례 쫓겨남을 당한다. 두 번 모두 축출의 이유는 자청비의 과잉적 행동 때문이다.

축출은 신화적으로 입사의 통과의례적인 성격을 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신의 자식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들은 육신의 부모에 의해 보호를 받던 일상적 세계인 집을 떠나게 됨으로 육신의 부모가 아닌 신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적 영웅들은 어떤 경우든 기아가 되거나 쫓겨나는 통과의례적 사건을 거치게 된다. 자청비의 경우 청태산 마귀할망 19)은 구출자·양육자이자 신적 부모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망에 의해 또다시 축출되는 것은 철저히 신성에게 맡겨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축출과 시련의 과정이 “스스로의 힘으로 복종(자기 극복)의 기술을 완성한 인간” 20) 혹은 신격이 되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들 뒤에는 신적 존재의 음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여성 주인공들은 집에서 쫓겨나 밖의 세상으로 나간 뒤에 배우자의 만남과 결연이 뒤따른다. 보통 영웅담에는 무용담(武勇談)과 결연담이 중요한 화소로 등장하지만 본풀이의 경우 무용담보다는 배우자와의 결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 보통 결연은 자녀출

16) 진성기(2002), 앞의 책, p.292.

17)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p.290.

18) 위의 책, p.569.

19) <세경본풀이>의 청태산 마귀할망은 직조신(織造神)으로 보이며, 주인공의 조력자의 형상으로 나타난 신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민간에 전승되어 온 마귀할미, 마귀할망은 고대 대모신적 존재가 격화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20) 조셉 캠벨(2007), 앞의 책, p.29.

21) 이것을 해체된 가정의 새로운 ‘집짓기’의 사회적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 김인희는 무속에서 집의 안과

산을 통해 생산력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영웅적 특성을 갖는 여성들의 경우 혼인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연이 단순히 출산을 수반하는 '모성 구현'의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영웅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자청비는 옥황의 문도령과의 혼인이 마치 삶의 전 목적인 양 행동하지만 방대한 서사 속에 잉태와 출산 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삼공본풀이의 감은장, 서흥리 본향의 고산국, 차사본풀이의 강림의 큰부인의 경우도 그러하다.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공의 삶이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모성의 길과도 통하지 않는다. 금악본향의 축일한집인 정좌수 따님애기는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지만 자식 때문에 인고의 삶을 산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토산리 용왕 말째딸인 신중아기는 일곱 애기를 뱌 후 돼지털을 그슬려 먹은 죄목으로 마라도로 귀양을 가서 자식을 낳고, 첩(새로금상)이 자기를 데리러 오자 아이들을 첩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바닷가 개보말을 잡아먹으며 혼자 집을 향해 간다.²²⁾

“여성신을 크게 대녀신(大女神)과 배우신(配屬神)으로 나눈다면”²³⁾ 일반적으로 주체적이고 영웅적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은 대녀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대모신의 형상이 대녀신과 배우신으로 분화되었다고 본다면, 대녀신은 양성적 독자성, 배우신은 양성의 화합성의 측면을 그 특성으로 한다. 생산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 남성주인공과의 만남 혹은 결연을 갖는 이러한 존재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유평적 생산성이 아니라 생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생산과 풍요성이라는 대녀신의 내재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세화본향의 백주아가씨는 남성을 만나지만 혼인은커녕 그가 육식을 한다는 식성 문제와 손목을 잡았던 사건으로 원수지간이 된다. 이것은 이들 여성의 삶이 반드시 남성과의 혼인을 지상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렇게 여성영웅들은 일상의 세계에서 쫓겨나면서 고난을 맞지만 그 고난이 존재를 약화 내지 수동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주인공들은 지속적인 자기선택과 불굴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공동체로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격으로 좌정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성으로는 주체성, 장수적 기개를 들 수 있으며, 자질적 특성으로는 주술성, 초능력, 예지력 등의 비의적 특성과 함께 탁월한 기지, 남다른 재

밖, 여성의 관계에 주목했다.(김인회(1982,1995),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본 논의에서는 결연담이 갖는 사회적 측면보다 신화적 의미에 주목했다.

²²⁾ 진성기(2002), 앞의 책, 461~467 참조.

²³⁾ 박상란(1997), 「여성 신화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19집, p.465.

주를 보인다. 신화 상징적으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양성구유적 대모신과 생산·풍요신의 특성을 갖는다. 이들 주인공들은 이 가운데 몇 가지 성격을 공유하거나 그 일부를 갖는데, 이것은 그들 각자의 개성과 문화, 역사적 적층성에 의한 복합성에 기인한다.

3. 영웅적 특성의 유표적 형상성

본 논문에서 주목한 영웅적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은 다른 인물들과 변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며, 성격적인 면에서 매우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들이다. 이들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중심사회가 강요하는 인내나 순종적 태도를 지닌 존재와는 거리가 있으며 개성이 뚜렷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굴의 의지로 과제를 해결하는 중성적 특성을 갖는다. 또 지혜롭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으며, 주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력은 주인공들이 범상한 존재와 구별되는 변별적 자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장수적 기개, 장사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영웅적 특성의 유표성을 드러내준다.

3.1. 주체적 능동성, 기지(機智)

이들 여성 주인공들의 특성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남편을 선택하기도 하며,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기도 한다. 서흥리본향 고산국은 남편인 브람웃도가 동생과 도망치자 그들을 찾아내 남편에게는 결별을 선언하고, 동생에게는 성을 바꿀 것을 명령한다. 이때 브람웃도는 “명령 복종합니다.” 라고 하며 매우 순종적인 태도로 굴복한다. 고산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땅도 가르고 물도 갈라 서로 지역민까지도 왕래를 금할 것을 명한다.²⁴⁾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는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나타난다. 누구 덕에 사느냐는 부모의 물음에 자기 배아래 선그릇 덕에 산다고 하여 쫓겨나면서 감은장아기의 주체적이고도 동적 인생이 시작된다. 집을 떠나 마통이네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을 때 감은장은 할머니에게 밤에 발이 시려우니 발을 따뜻하게 할 아들 하나를 보내달라고 한다. 이때 막내 마통이가 가자 감은장아기는 마통이를 맞아 연분을 맺는다.²⁵⁾ 이것은 보통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연이어 감은장아기는 마

24) 진성기(2002), 앞의 책, p.500~506. 김영식 구연본 참조.

통이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 절세미남으로 만들고, 또 마 파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하라고 한다. 그곳에 잔뜩 버려진 돌덩이가 금덩이, 은덩이인 줄 알고 마통이에게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하여 천하거부가 된다. 이처럼 감은장아기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가되 결국 주변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존재로 부와 풍요의 신, 운명의 신(전상신)이 된다.

이들 여성 주인공들의 눈에 띄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남편감을 찾아가거나 선택한다는 점이다. 감은장은 마통이와 연분을 맺기 전에 세 형제의 행동을 살피다가 ‘쓸 만한 사람은 작은 마통이밖에 없구나.’²⁶⁾ 생각하고 미리 막내 마통이를 남편감으로 점찍어 놓는다. 궤넛깃당의 백주님은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나 천기를 짚어보니 천상배필될 배우자가 조선국 제주도 손(송)당리에서 탄생해 사는 듯하여 제주도로 입도하여 손당리를 찾아가서 소천국을 천상배필로 삼는다.²⁷⁾ 금악본향의 축일한집 정좌수떡남애기는 동네에서 혼담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나 남편넌 하늘에서 태운 사람이 시니 허 급을 맙서.” (내 남편은 하늘에서 인연한 사람이 있으니 허락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산중에서 만난 최지국 아들을 데리고 와 아버지에게 “저것이 내 남편네 될 사름이우다.”라고 말한다.²⁸⁾ 월정본향의 황정승 떡남애기는 나이 일곱에 부모의 눈에 나서 쫓겨난 후 홀로 길을 가다 주막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주막에 들른 사농바치인 태호또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태호또에게 후레자식이라 욕을 하며 다투다가, 자기의 천상배필감이 태호또란 자인지라 태호또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한다.²⁹⁾ 이러한 여성의 남편선택하기는 고대 모계사회의 한 유풍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⁰⁾

주체적 존재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자청비 역시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 결연에 이르지만, 고난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능동적 선택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 앞에 당당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만들고 해결해가며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간다. 이에 비해 문도령은 무능하고 자청비에 의

25) 위의 책, p.100.

26) 현용준(1996), 앞의 책, p.81.

27) 현용준(2007), 앞의 책, p.553.

28) 위의 책, pp.567~568참조.

29) 진성기(2002), 앞의 책, p.424.

30) 모계사회에서는 혼인관계에서 여자가 배우자 선택에 적극적이며 혼전에 여자의 성생활이 개방적이며 혼인시 신부의 처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광규(1968), 「모계사회에 관한 제연구」,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p.2) 본풀이 여성들의 남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면모와 ‘남편선택하기’는 모계사회의 유풍의 한 잔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 삶과 행동이 이끌려지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자청비는 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의 기지도 탁월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자청비의 당찬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뒷천당 연하못에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문도령이 접근해 물을 달라고 하자 갈대섬을 띄워주며 물에 че하면 약도 없다고 하여 관심을 끈 일, 문도령이 글공부 간다고 하자 자기 오라비를 가장하여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쫓아간 일,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가운데 물허벅을 놓고 젓가락을 걸쳐놓으면서 이걸 떨어뜨리면 공부에 낙방한다고 거짓 피를 쓴 일, 문도령이 아버지 문선왕으로부터 혼인하러 오라는 기별이 와 떠나게 되자, 자청비는 글선생에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다는 서한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문도령과 같이 길을 떠난 일, 문도령을 집으로 데리고 와 여복을 입게 하고, 부모에게는 친구가 여자이고 열다섯 살 안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방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천상배필을 맺자고 한 일, 문도령을 찾아 궁녀선녀들을 쫓아 옥황에 올라간 일, 문도령을 만나 그의 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문선왕 부인이 눈치 채 것을 알고 문도령에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말을 일러준 일, 옥황의 변란은 진압하고 그 공으로 시아버지가 벼슬을 주고자 하나 다 물리치고 오곡을 달라 한 일(혹은 물 한쪽, 땅 한쪽을 달라고 한 일), 문도령(혹은 정수남)이 죽자 환생꽃을 구하러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에 가서 온갖 기지를 발휘하여 꽃감관의 말째딸과 혼인하고 환생꽃을 구해온 일, 환생꽃으로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살린 일 등 전체의 서사를 자청비가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여성영웅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자청비가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일은 문도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수남이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부터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될 때까지의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거짓으로 문도령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정수남의 작태와 자청비의 수동성은 성과 생산관계의 신화구술적 장치 혹은 생산신으로서 정수남을 죽이고 살리게 되는 사건의 서사적 장치로 생각된다.³¹⁾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속아 온갖 수난(나중에 갈증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남이가 시키는 대로 옷까지 벗는다)을 당하는 것은 서사 전편에 나타난 자청비의 예지적이고 총기 넘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³¹⁾ 최원오(2001)는 <세경본풀이>를 자청비와 정수남이를 부부로 설정하고, 정수남이가 牛馬를 잡아먹고 종자인 좁쌀 한 알도 잃어버리자 자청비는 그와 결별하고 하늘에 올라가 오곡을 얻어오는 것으로 재구하여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의 갈등 이야기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앞의 책, pp.264~265) 권태효(1999)는 정수남과 자청비 사이의 겁탈 사건이 세경놀이의 사건과 흡사하며, 정수남은 <세경본풀이> 속에서 그 사건이나 중요도를 통해 보면 농경신인 자청비의 배우자 성격을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고 보았다.(「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pp.87~88)

3.2. 장수적 기개

일반적으로 영웅은 무용담의 주인공으로 불굴의 용맹함을 가진 존재 또는 힘센 장사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본풀이 속에 기개가 넘치는 영웅적 여성들은 남자 이상으로 담대하고 당찬 존재로 나타난다. 본풀이에서 무용담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청비는 여성 주인공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란에 참여해 공을 세운다. 시아버지 문선왕이 다른 나라와 다툼이 일어 근심에 싸이자 자청비가 “제가 지집아이라도 한번 가쿠다.” 하고 용감하게 나선다. “즈청빈 두 일되 열나흘 정성드런 비소곰(비수검)을 지여 놓완, 오소리 감티(감투)에 오선갑(갑옷)을 지여 놓고, 나갈 적엔 오선갑을 둘러입고 철리몰을 둘러 타고 튼나라광 마주 당한 저 국 사람은 고초 들어 칼을 받고 고초 들러 활을 받고, 즈청비는 하늘 옷테레 동동 올라가명 비소검을 한번 들러 외우(왼쪽) 둘러 치난 삼천메이 히여지고(휘어지고), 느다(오른쪽으로) 둘러 한번을 히여치난 오천메이 히여진다.”³²⁾ 이렇게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종횡으로 검을 휘둘러 수천 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 이러한 하늘나라 변란 진압 화소는 후에 다른 이본에서 차용되어 삽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자청비가 원래 갖고 있는 장부적인 기개를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말과 영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청비는 전시 때뿐 아니라 평시에도 천리마를 타고 다닌다. 자청비는 말에 언어주술을 걸기도 하는데, 정수남을 죽인 후 산 깊은 할로영산에서 나올 때 말에게 길을 잘 찾으면 너도 녹봉을 먹고 살 것이고, 나도 녹봉을 먹고 살 것이며, 길을 찾지 못하면 널 칼로 찢러 죽이고 나도 자살해 죽을 것³³⁾이라고 위협해 길을 잘 찾아가도록 한다. 또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그가 죽은 곳을 찾으러 갈 때도 “이 몰아, 저 몰아, 느도 살켜건 정수남이 죽은 곳이나 좇앙 글라.”³⁴⁾고 명하고 채찍을 치자 말이 정수남이 죽은 곳을 찾아간다. 이처럼 자청비는 언령주술을 통해 말을 부리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고대에는 초인적인 신인의 모습을 거인(巨人) 혹은 장사(壯士)로 형상화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자청비는 전쟁영웅의 모습뿐 아니라 힘센 거구 또는 장사의 면모도 보인다. 빨래를 해서 손이 하얗다는 늑인덕이정하님의 말을 좇아 빨래를 하러 갈 때 아홉 말들이 구덕에 빨래

³²⁾ 진성기(2002), 앞의 책, p.304.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멸망꽃을 가지고 싸움판에 가서 꽃은 동서로 뿌려 대니 삼만 명의 모든 군사가 건삼발에 늑은 삼 쓰러지듯 동서로 즐비하게 자빠져 난이 수습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현용준(1996), 앞의 책, p.180)

³³⁾ 진성기(2002), 위의 책, p.290.

³⁴⁾ 현용준(2007), 앞의 책, p.289.

를 잔뜩 넣고 말총뱃줄을 둘러지고 연하못으로 간다.³⁵⁾ 또 일천선비들이 자청비와 살고 있는 문도령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독주를 마시게 하고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자청비는 선비들에게 무쇠방석을 내려 깔고 앉으라고 한다. 일천선비들이 모두 방석을 내리려고 했지만 힘에 겨워 내리지 못하자 자청비가 비단 짜던 베틀에 앉은 채 몽둥이로 무쇠방석을 쳐서 떨어뜨린다.³⁶⁾ 서흥리본향의 고산국은 남편 바람웃도와 동생이 도망치자 그들을 쫓기 위해 천근들이 무쇠활과 백근들이 무쇠화살을 둘러메고 길을 떠나는 힘센 장수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³⁷⁾ 또 땅을 가를 때 활을 쏘아 가르려고 하지만 활을 쏘면 자신이 넓은 땅을 차지해 남편이 차지할 땅이 없게 될 것을 알고, 뽕개질을 쳐서 땅을 가른다.³⁸⁾

본풀이에는 유사한 사건이나 장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인공이 불미스런 행실로 인해 무쇠설갑에 떨어져 바다에 띄워지는 사건이다. 주인공이 남성인 경우 용왕에 이르게 되고, 용왕의 말째딸이 석함을 내리고 여는 존재로 나타난다. 토산리웃당본을 보면, 무쇠설갑이 용왕국 산호 가지에 걸리자 용왕의 첫째, 둘째 딸은 석함을 내리지 못하고, 셋째 딸 신중아기가 산호수 가지를 세 번 흔드니 설갑이 내려온다. 또 뚜껑 문을 열라고 할 때도 첫째, 둘째 딸은 문을 열지 못하는데 신중아기가 “우리 곶은 소리에 백력 곶이 둘러치명 가명 오명 삼시번을 설갑을 둘러차니 설갑문 열린다.”³⁹⁾ 이처럼 장수의 배우자들은 그에 걸맞는 장사와 같은 큰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매우 당찬 모습 혹은 압도하는 힘으로 남성을 제압하기도 한다. 금악본향 정좌수땔남애기는 산중에서 만난 최지국의 아들이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최지국 아들을 뱃줄로 나무에 묶어놓고 가려고 한다. 그때 최지국 아들이 살려달라고 빌자 정좌수땔남애기가 “날꺾라 누님이 호민 살려주키여.”⁴⁰⁾하고 여장부와 같은 기개로 당당하게 말한

35) 위의 책, p.272.

36) 위의 책, pp.306~307.

37) 진성기(2002), 앞의 책, p.502.

38) 위의 책, pp.503~504. 고산국이 자신이 던진 돌이 떨어진 곳을 좌정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돌과 신격을 동일시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강정식(2006),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p.89)

39) 위의 책, p.461. 손당본향에는 송곡성이 설갑에 든 채 용궁에 도착했을 때 용왕의 첫째, 둘째딸은 무쇠설갑을 들지 못 하는데 막내딸이 쉽게 안아온다. 또 설갑의 문을 열 때도 첫째, 둘째는 열지 못 하는데 막내가 무쇠설갑을 둘다가 손으로 탁 치니 설갑이 저절로 열린다.(위의 책, pp.411~412) 특별히 본풀이에서 세 번째 딸이나 아들이 주로 주인공이 되는 것은 3이 ‘완성’, ‘성취’의 수를 상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0) 위의 책, p.567.

다. 세화본향 백주애기씨는 명동소천을 만나 그의 집으로 가는데, 집에 소뻘, 말뻘이 잔뜩한 것을 보고 더럽다고 돌아나오려고 하자, 명동소천이 애기씨의 손목을 붙잡는다. 그 때 백주애기씨는 “더러운 놈, 흙목을 심어낸 걸 놓리야!” (더러운 놈, 손목 잡은 것을 놓아라!)라고 하며 장도칼을 빼내 자기 살을 설설 깎아 내던지고 물명주 전대로 퐁퐁 감아 외할아버지를 찾아간다.⁴¹⁾ 이처럼 영웅적 특성을 보이는 여성들은 순종과 인내에 길들여진 모성형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행동양상을 보여준다.

삼승할망은 대별상과의 만남에서 그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대별상은 여자는 꿈만 꾸어도 사물(邪物)인데 대장부 행차 길에 얼씬거린다 하여 삼승할망을 능멸하고, 할망이 내어준 아이들의 얼굴을 뒤옹박으로 만들어버린다. 삼승할망은 이를 응징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별상의 아내(혹은 며느리)에게 생불을 주고 12개월이 지나도 출산을 시키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대별상은 삼승할망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러자 삼승할망은 대별상에게 머리를 싹싹 깎고 고깔과 굴장삼을 둘러입고, 맨션 바람으로 땃돌 아래에 와 엎드릴 것을 명한다.⁴²⁾ 이들의 싸움에서 여성신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여성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사를 관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3.3.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

시공을 넘나드는 초능력과 주술, 신통력, 예지력 등은 범인과 영웅 내지 영적 존재들을 구분시키는 기표라 할 수 있다. 이들 여성 주인공들은 원래 내재적인 초능력을 지니거나 시련을 거치면서 신이한 능력을 획득하기도 하고, 주물을 통해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 신통력 내지 초능력적인 예지로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대항하는 존재나 불의에 맞서 싸운다.

고산국이나 감은장은 원래 초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고산국은 천기운간의 별자리를 보고 남편인 브람웃도와 동생이 함께 도망친 사실을 안다. 또 “역적이 도망치는 방향을 발견해 달라” 고 옥황에 축수를 하고 대축기(大祝旗)를 다니 대축기가 제주도로 불려가 그 뒤를 추격한다. 그뿐 아니라 고산국은 축지법을 써서 백리 길을 오리 길로 축자를 하며 쫓는다. 위험에 처한 일문관 브람웃도가 풍운조화를 부려 안개가 끼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자, 고산국이 층암절벽 중턱에 죽어있는 구상나무의 썩은 부분을 털어 나무를 닭모양으로 만든다. 자시가 되니 나무닭이 날개를 치고 울며 소리치자 짙은 안개가 걷힌

41) 위의 책, p.396.

42) 현용준(1996), 앞의 책, pp.33~35.

다.⁴³⁾ 바람웃도는 풍우신이라면 고산국은 이를 조절하고 제압하는 좀 더 강력한 샤먼이자 영웅적 특성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맹진국 따님애기도 일곱 살에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며, 한 손으로 단수육갑, 또 한 손으로 오행육갑을 쥐는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공간적 초월능력도 보이는데,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는 은지팡이를 쥐고 노각성다리(하늘에 오르는 다리)를 타고 옥황에 오른다.⁴⁴⁾ 또 맹진국 따님애기는 운명적인 탄생시(병오년 정월 초사흘날 인시)와 꽃을 피우는 능력으로 삼승할망이 되고, 생불꽃으로 생명을 잉태를 시키는 생산신, 생명꽃의 주관자가 된다.⁴⁵⁾

감은장아기 역시 집을 쫓겨나자마자 초능력을 보인다. 부모가 집을 나가라 한 것이 마음이 아파 큰딸에게 올래에 아우가 있거든 물에 밥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이르라고 한다. 그때 큰 딸과 둘째딸은 부모가 막내를 불러들여 자기들보다 더 사랑할 것을 시기하여, 감은장에게 엄마, 아버지가 때리려고 나오니 빨리 가버리라고 한다. 그때 감은장은 언니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청지네와 말뚝버섯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녀는 부자가 된 후 거지잔치를 벌여 부모를 불러들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무의(巫醫)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⁴⁶⁾

이에 비해 자청비는 기지와 인간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원래부터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옥황에서 며느리 시험을 거칠 때 수천 석의 숯을 깔아 놓고 선대자 칼선다리를 놓아 그 다리를 타고 옥황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⁴⁷⁾ 이것은 입무의례와도 유사하며, 서사 속에 자청비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백탄숯불에 칼선다리가 시뻘정게 불이 붙어있자 비를 내려주십사 하늘에 세 번 축수하니 삼시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수 천리에 비가 오는데, 이는 자청비에게 비를 부르는 능력이

43) 진성기(2002), 앞의 책, p.502.

44) 위의 책, p.136~137.

45) 삼승할망본풀이를 보면 동해용왕 따님애기와 맹진국 따님애기는 한 존재의 양면적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창조와 파괴, 죽음과 삶의 대립적 요소는 하나의 생명원리로 작용하며, 어린아이의 생사를 관장하는 이 두 신격은 하나의 통합적 모성원리가 대립적인 것으로 분화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꽃피우기는 인세차지 경쟁에서 거의 대부분 꽃을 바피치는 사건이 벌어지나, 이 신화 속에 그러한 화소가 없는 것은 두 존재가 한 존재의 파생이며 둘의 역할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격이 되기 전에 축출과 고난은 동해용왕 따님애기가 겪게 되며, 맹진국 따님애기는 신으로 좌정하는 단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6) 진성기(2002), pp.98~103. 본풀이에서는 감은장애기가 부모의 눈을 직접 띄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의적으로 장님이었던 부모가 개안하는 힘이 감은장애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위의 책, p.301.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⁸⁾ 비를 부르거나 꽃을 사용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농경신의 한 속성이면서 샤먼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청비는 나중에 자유롭게 천상을 오고가기도 하는데, 남편 문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의 딸째딸에게 가서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글월을 띄운다. 글을 본 문도령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허겁지겁 말을 거꾸로 탄 채 달려온다. 여러 가지로 심사가 틀린 자청비는 문도령이 방문을 따고 들어 오려하자 비수검으로 천정을 찢고 옥황에 오른다.⁴⁹⁾ 이것은 문선왕으로부터 오곡을 받고 세경신이 되기 전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한 자청비의 신적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구해온 꽃으로 죽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살리는데, 꽃은 일종의 생사에 관여하는 주물(呪物)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으로부터 생살권을 부여받은 영능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강을생 구연본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특이한 사항은 자청비가 나이 일곱에 대장간에 들어가 갖가지 연장을 마련해 놓고, 3층 6층 기와집을 지었다는 점이다.⁵⁰⁾ 또 하늘나라에서 전란이 일어났을 때 두 이레 열나흘을 정성들여 비수검을 만들어놓는다. 연장을 마련하고 기와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주본가의 서사를 연상시키지만, 아무튼 이것은 자청비의 대장장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⁵¹⁾ 또 자청비는 직조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이 장가갈 때 사용할 비단을 짜고,⁵²⁾ 또 문도령을 죽이려고 독주를 마시게 했던 삼천선비들이 그녀 집으

48) 자청비를 '스스로 비를 부르는 존재'로 해석하는 견해(이수자(2003), 앞의 책, p.233)도 있는데, 자청비는 일본어로 번역할 때 '慈充姫'라고 했다. 제주학자 진성기와 김인호는 '자충'을 신라시대 남해왕을 '자충'이라 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巫王', '女巫'의 뜻을 갖는다고 보았다.(김인호(1997),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상)』, 우용출판사, pp.243~245. 몽골 한국학자 소미아 바타르는 '자충'은 몽골어 '체첵'(Цэцэг)에서 왔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 말은 '지자(智者)'를 일컫는다.

49) 진성기(2002), 앞의 책, p.313.

50) 위의 책, p.272.

51) 성주본가의 황우양씨가 천하궁에 누각집이 쇠동풍에 쓰러져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게 되어 걱정을 하자, 황우양의 부인이 남편을 잠들게 해놓고, 소지를 올려 천하궁에서 쇠를 내려받아 톱, 대패, 먹자 등 온갖 연장을 만들어놓는다.(서대석(1997), 『한국의 신화』, 집문당, p.130) 이는 여성이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예로부터 대장장이와 샤먼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감은장아가기가 막내마통이가 마를 파던 곳에 은덩이, 금덩이를 발견한 것은 감은장아가기가 재복신의 면모를 보이는 것인 한편 대장장이와 모종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2) 진성기(2002), 앞의 책, p.293.

로 왔을 때도 자청비는 비단을 짜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옷감을 짜던 생활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화에서 비단짜기는 신적 기능에 속한다고 점을 고려할 때 청태산 마귀할멈과 함께 자청비는 직조신의 면모를 가진 존재임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자청비는 독자적인 영웅성을 지닌 인물로 여기에 여러 직조신의 화소가 결합되어 제주여성들의 이상적 여인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경우와 달리 주물(呪物)을 사용해 초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토산옷당 신중아기는 남편 바람운의 거식성(巨食性) 때문에 용궁에서 반강제적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부모가 청주머니, 백주머니, 청가루, 흑가루를 주며 사람들에게 흥협을 주어 단골상을 받으라고 한다.⁵³⁾ 이렇게 여러 색깔의 주머니와 가루는 본풀이에 주로 나오는 주물(呪物)로 이것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기도 하고 흥협을 주어 신격으로 제향을 받기도 한다.

세화본향 백주님은 매우 자유롭고 활달한 존재로, 나이 일곱에 집에서 쫓겨나 열두삼촌이 있는 용궁에 가서 청, 백, 흑, 노란주머니와 청, 백, 흑, 노란 가루를 얻어 다시 서울로 간다. 종로 네거리를 가다가 삼천선비가 농악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늦인덕이정하님(하녀)에게 가서 거문고를 빌려오라고 하는데, 삼천선비들이 여자는 꿈을 꾸어도 사물(邪物)이라고 하며 내주지 않는다. 그러자 백주님이 청주머니를 열어 “푸-” 하고 세 번을 부니 온 천지가 짙은 안개(황사)로 자욱해진다. 삼천선비들을 그것이 백주님의 주술인 줄 알고 거문고를 빌려주겠다고 하자, 백주님이 청부채를 내어 살살 부채질을 하니 이내 안개가 걷힌다.⁵⁴⁾ 다른 이본에는 삼촌들이 준 여러 색깔의 주머니와 가루를 가지고 제주도 화북동의 수진포에 내리는데 삼천선비들이 풍악놀이를 하고 있어, 장고를 빌리려고 하지만 빌려주지 않는다. 그때 백주애기씨가 청부채를 흔드니 악기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된다. 그러자 삼천선비들은 장고뿐 아니라 피리, 날라리 등 모든 악기를 내어준다.⁵⁵⁾ 이렇게 주물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신인 내지 영능한 존재들의 한 특질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들 여성 주인공들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과 신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차사본풀이>⁵⁶⁾의 강림의 큰부인이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양생의 처는 세 아들이 일시에 죽자 김치 원님에게 송사를 탄원한다. 김치원님은 염라대왕을 잡아 판결을 하기 위해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기로 했을 때 열여덟 명의 첩들이 모두 강림

53) 위의 책, pp.463~464.

54) 위의 책, pp.388~389.

55) 위의 책, pp.394~395.

56) 이때로 원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의 처가 강림을 보내면 될 거라고 일러준다.

의 어려움에 등을 돌린다. 강림은 할 수 없이 혼인날 이후 다시 찾지 않았던 큰부인을 찾아가 탄식한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그만큼씩한 일을 놓고 탄식을 합니까? 그건 내 해결할 테니 염려 말고 진지나 드십시오.” 라고 하고는, 저승에 갈 모든 준비를 한다. 먼저 조왕신과 문전신이 함께 동행하도록 식량을 준비하고 조왕신께 축원을 드린다. 강림이 저승을 어떻게 가야할지 몰라 탄식하자 “염려 말고 일어나 은대아에 세수나 하옵소서.” 라고 하며 저승 의복과 적패지를 준비하여 저승길로 떠나보낸다. 그녀의 축원에 응감하여 조왕신과 문전신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상으로 강림이 저승 가는 길을 돕는다.⁵⁷⁾ 강림의 큰부인은 본풀이에서 직접적인 주체로서 사건을 끌여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음우형(陰右形)의 여신적 존재로 대모신의 형상을 반영해 주는 인물이라 하겠다.

이처럼 영웅적 특성을 지닌 본풀이의 여성 주인공들은 매우 용감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매우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쫓겨날 때 보통 사람들처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감은장아기는 울며불며 길을 떠나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쫓아버린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잔치를 베풀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무쌍한 자청비도 집을 나서서는 염주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간다. 명월본향 정죄수파님에 가는 집에서 쫓겨나자 죽으려고 산정에 오르기까지 한다.⁵⁸⁾ 이들 영웅적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용감하지만 때로 인간 감정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흥본향 고산국은 눈이 맞아 도망친 남편과 동생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화살을 꺾고 살 거처까지 정해준다. 이들 여성주인공들은 영웅적 특성과 함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전인적 존재의 표상이 된다.

4. 전인적 양성성(兩性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웅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은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장부다운 기개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들의 성격적 특질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존재 내부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양성적 인간이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화된 인간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

⁵⁷⁾ 현용준(1996), 앞의 책, p.102~133참조.

⁵⁸⁾ 진성기(2002), 앞의 책, p.569.

하면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특성을 갖춘 인간을 말한다.”⁵⁹⁾ 이러한 “양성성은 인간정신의 조화와 통일로서 삶을 풍요롭게 하며 창조적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⁶⁰⁾으로 대모신의 한 속성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극적이고 용맹스러우며 지적인 면을 가지는 동시에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이 풍부한 전인적 성격을 띠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성은 곧 그 자체에 생산과 풍요의 원리를 내재하는 특성을 지닌다.

양성성은 앞에서 여주인공들의 결연과 출산의 양태, 장부적 기개 등에서도 살펴보았다. 손당본향 임진생 구연본에는 할라영산 포아낭알(포태나무)로 이씨 할망이 자빠져 입을 여니 입으로 열매가 떨어져 목으로 꿀떡 넘어간 후 열세 달이 되어 아들 삼형제, 딸 삼형제를 낳는 이야기⁶¹⁾가 있다. 또 저지본향 허릿궁할망은 부부간의 정회 없이 유태를 가져 집에서 쫓겨난다.⁶²⁾ 이러한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산 화소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대녀신의 자기 번식의 생산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주체적 여성들 가운데는 남장(男裝)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주인공들의 양성성을 드러내주는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의 남장은 표면적으로는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지만, 신화 상징적으로 보면 영웅적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장을 하는 인물로는 자청비, 토산리 옷당에 나오는 바람운님의 첩 새로금상, 고산국 등인데, 자청비는 강을생 구연본에서는 세 번에 걸쳐 남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갈 때, 두 번째는 궁녀선녀들이 자청비가 마시는 물을 길기 위해 내려왔을 때 옥황에 올라가 큰 장삼을 입고 대사인 채 하며 문도령의 정황을 살필 때, 세 번째는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이본에 따라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천리마를 타고 서천꽃밭으로 갈 때이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해악을 끼치는 새를 잡아줌으로 꽃감관의 말째딸과 혼인을 하기까지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자기 방으로 들이기 위해 문도령에게 여장을 시키기도 하는데, “여장과 남장은 각각 남성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한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상태이며, 또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것은 곧 남녀양

59) 광정식·강화수(2004),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과학논총』 제9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9. 이것은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나 산드라 빔의 정의이다.

60) 위의 논문, p.9

61) 진성기(2002), 앞의 책, p.417.

62) 위의 책, p558.

성의 내재적인 성결합상태, 즉 양성구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화나 의례의 문맥에 있어서 양성구유는 흔히 우주적 풍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⁶³⁾라는 논의도 개진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농경신들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청비의 남장은 사회적으로 여성적 존재로는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된 방편으로 나타난다. 자청비의 남장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남장과 같은 위기 모면이나 복수, 임신양명의 목적이 아닌 상황논리에 따른 변용으로 볼 수 있다.

토산리 옷당의 첩인 새로금상의 경우 여성이라는 한계를 은닉하기 위해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 새로금상은 마라도로 귀양 가 있는 큰부인의 일곱 아이들을 말에 태워 데리고 오다가 도중에 산열매를 따먹는다. 그때 걸추리선비가 나타나 인물 좋고 자식을 잘 낳을 듯한 새로금상을 잡으려 한다.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을 말 위에 태워 집에 와보니 아이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새로금상은 아이를 찾으러 갈 때 남장을 하고 큰 말을 타고 가서 아이를 찾아온다.⁶⁴⁾ 여기서 남장은 남성을 따돌리기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 선택된다.

새로금상이나 자청비와는 달리 고산국의 남장(男裝)은 특이하게 자신 안에 있는 남성성의 발현이라는 형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고산국은 남편 브람옷도와 동생이 도망치자 여복을 벗어두고 남복을 입고 활과 화살을 둘러메고 길을 떠난다.⁶⁵⁾ 여기서 옷은 인격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금상, 자청비, 고산국의 남장의 의미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기질을 가졌다는 점에서 성격적 유사성이 있으며, 남장의 동기가 무엇이었던 이들의 남장은 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의 기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성이란 전인성의 한 측면을 이르는 것이며, 이항대립의 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5. 결론

제주도 본풀이는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생활방식과 세계관의 변화로 적지 않은 변이를 거쳤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고대 신화적 형상들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본 논문

⁶³⁾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9.

⁶⁴⁾ 진성기(2002), 앞의 책, p.467.

⁶⁵⁾ 위의 책, p.502.

문에서 주목한 본풀이 속의 영웅적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인고가 강요되는 모성적 생산신으로서가 아닌 독특한 개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들이다.

본풀이 여성 주인공들은 신격에 좌절하기까지 ‘축출’ (기아) - ‘고난’ - ‘고난극복’ 이라는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치게 된다. 기아 혹은 축출은 일상의 세계인 인간 부모로부터 벗어나 신에게 맡겨지는 과정으로, 신의 자식, 신이 되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여성 주인공들의 고난과 극복, 신의 좌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과의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취해지는 인고의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자아를 드러냄으로써 고난을 선택하고 극복하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또한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고난을 타개해 나가며, 장수적 기개와 지혜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되돌리거나 불의에 대항하여 상대를 징계하는 당당한 존재로 부각된다. 또한 이들은 생래적 혹은 후천적으로 초능력이나 주술력, 예지력 등의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범인을 압도하는 신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주술적 능력은 샤먼적 특질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주인공들의 영능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영웅적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일상의 공간인 집에서 축출이 된 후 남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지만 그에 따른 잉태와 출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수반되더라도 그에 따른 고난담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배우신 혹은 지모신(地母神)이라는 남신의 종속항 혹은 대립항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생산, 풍요성을 자체적으로 지닌 대모신의 속성을 좀 더 많이 내재한 인물들이다. 또한 이들 여성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양성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인적 대모신의 특성을 띤 생산풍요신의 고대적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적인 특성을 갖는 본풀이의 여성 주인공들은 모계적 유풀의 여성적 면모에 제 주여성의 이상적 형상이 덧보태지는 형태로 발전·전승되어 오면서 사회적 관념에 종속적이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형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정식(2006),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 강진옥(1995),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한국민속학회.
- 강진옥(2005),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곽정식·강화수(2004),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과학논총』 제9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태효(1999),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 김인호(1997),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상)』, 우용출판사.
- 김인희(1982,1995),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정숙(2006),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 각.
- 박상란(1997), 「여성 신화의 원리」, 『한국문학연구』 제19집.
- 배영희(1995), 「巫歌에 나타난 數 ‘九’ 의 象徵性」, 『한국민속학보』 5, 한국민속학회.
- 송정화(2007),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 서대석(1997), 『한국의 신화』, 집문당.
- 윤교임(1995), 「여성영웅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하(2000),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박이정.
- 이광규(1968), 「모계사회에 관한 제연구」,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 이수자(2003),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여신 자청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성신화』,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집문당.
- 좌혜경(1998),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 진성기(200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천혜숙(1990),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집, 비교민속학회.
- 천혜숙(1991), 「여성신화연구(1),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제1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최원오(2000),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과 여성』, 박이정.

- 최원오(2001), 『동아시아 비교서사시학』, 월인.
- 최원오(2007),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
문화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화회.
- 한창훈(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제15집.
-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2007),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Figurative qualities of female heroines found in Bonpuri of Jeju – Focusing on self-reliant female's heroic characteristics

Lee, An-Na (Ulaanbaatar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female (goddesses) with heroic characteristics found amo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Bonpuri in Jeju-do. The heroes in shamanist custom typically follow the successive process of expulsion(separation); hardship and overcoming(entrance); and god's seating (recurrence).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nclude autonomy, wisdom and spirit of commander, while they also have esoteric characteristics such as sorcery, supernatural powers and clairvoyance. From the perspective of mythical symbolism, these female heroines resemble the flawless Great Mother Goddess who had both feminine and masculine qualities as the goddess of production and fertility.

Heroes do not always possess an active self-identity; they are often passive beings facing starvation and hardship. Yet, they also appear as figures that actively overcome such suffering and are even worshipped by certain large groups of people. The focus of this paper is limited to women of active and independent personal traits, not to passive characters. By examining these mature characteristics of women, which have been suppressed to this date, this paper sought to search for an ideal personal figure for the new era.

Keyword: self-reliant female, heroic characteristics, spirit of commander, esoteric qualities, the Great Mother Goddess.

몽한 무교 비교연구

보양네메흐*

목 차

- I. 머리말
- II. 무교의 기원과 역사
 - 2.1. 몽골 무교의 기원과 변천
 - 2.2. 한국 무교의 기원과 변천
- III. 몽골과 한국 무교의 성무과정과 숭배대상
 - 3.1. 성무과정과 형태의 비교
 - 3.2. 숭배대상과 제사의식
- IV. 결론

[국문요약]

세계의 많은 지역에 걸쳐 무교는 지역종족마다 다소 변형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 한국의 무교는 비교적 무교의 원형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골 무교의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차이점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점은 혹은 특성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 종교 등의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몽골과 한국 무교의 형태와 양상은 다르며, 또한 시대 변천에 따라 문화가 변하듯이 무교도 변하기 마련이다. 무교는 현대 문명과 현대종교를 말미암아 점차 약화되거나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각 국가의 무교의 전체를 통하여 무교의 특성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몽골과 한국 무교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무교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교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는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려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 먼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몽골 무교의 기원과 역사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몽골과 한국 무교의 역사적 변천을 논할 때는, 다소 한정된 시대에서 벗어나 무교의 전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미를 사용했다.

제 2장에서 몽골과 한국 무교의 성무과정과 숭배대상 그리고 제사의식을 살피고자한다. 또한 몽골과 한국 무교의 유형과 성무과정을 특징을 고찰한다. 제 2절에서는 무교의 신앙대상과 제사의식

*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을 살피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신앙 대상이 있다고 하면 몽골 무교에서는 옹고드라는 신앙대상이 있다. 그리고 한국 무교에서는 신앙 대상이 되는 신령은 신관에 따라서 존재한다. 따라서 옹고드와 신령은 무속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신관의 기능과 내용을 통해서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주제어: 무교, 성무과정, 무속신앙, 강신무, 세습무, 무당

I. 머리말

본 연구를 통하여 몽골과 한국 무교의 특성을 아시아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분명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연 몽골 무교가 한국 무교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또한 어떠한 차이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상이성은 어떠한 문화 배경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몽골인 입장에서 밝히려고 하였다. 본 논문은 몽골과 한국 무교의 유형과, 차이점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지닌 성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본고는 의의로서의 한국인들의 문화와 풍속, 민속의 특성들을 밝힘으로써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교의 연구가 최근에 많이 활발해졌다. 몽골 무교 연구는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와 부리아트족 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몽골 무교 연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후에 몽골족에서 С.Бадамхатан,²⁾ Р.Ринчен,³⁾ О.Пүрэв,⁴⁾ Д.Мансан⁵⁾ 등의 많은 학자들이 무교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대부분은 백무당을 연구했다. 이러한 몽골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 학자들 중에서 최길성, 조홍윤, 김태곤, 유동식, 김성례 등의 학자들의 저서를 많이 인용했으며, 이 밖에 많은 학자들의 저서를 폭넓게 활용했다.

최근에 와서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술조사나 연구도 확대되어 한국 학자들이 몽골 무교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바가 있다. 박원길은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라는 저서에서 고대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의 역사 그리고 당시 무당이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시대 변천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

2) Бадамхатан, С. 『Хөвсөллийн дархад ястан』, УБ, 1965 он

3) Ринчен, Р. 『Хөвсгөл дахь онгодын асар』, Будапешт, 1962 он

4) Пүрэв, О. 『Монголын бөөгийн шашны түүх』, УБ, 2000 он

5) Мансан, Д.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Өвөр Монгол 1990 он

술하였다. 그는 고대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을 서술하며 제천행사나 정례습속 또는 신화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몽골 제국 시대의 샤머니즘 연구에서 샤먼 집단이 몽골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몽골비사』나 여행기를 통해서 제국의 샤머니즘 인식 체계나 역사 단계를 서술했다.⁶⁾ 장장식의 『몽골 민속 기행』이라는 책은 답사 노트를 정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몽골 전통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아울러 무속의 신령, 굿, 오보 신앙에 대한 몽골인들의 인식 그리고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⁷⁾ 전경옥은 『동몽골의 부르야트 무당』라는 발표를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연구 성과를 비교, 정리하여 양국의 무교가 지니는 성격차이 점을 성무과정, 숭배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은 크게 2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 먼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몽골 무교의 기원과 역사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몽골과 한국 무교의 역사적 변천을 논할 때는, 한정된 시대에서 벗어나 무교의 전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미를 사용했다.

제 2장에서는 몽골과 한국 무교의 성무과정과 숭배대상 그리고 제사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몽골과 한국 무교의 유형과 성무과정의 특징을 고찰한다. 불교에 부처라고 하는 신앙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몽골 무교에서는 (Онгод)라는 신앙대상이 있다. 그리고 한국 무교에서는 신앙 대상이 되는 신령은 신관에 따라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옹고드와 신령은 무속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신관의 기능과 내용을 통해서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II. 무교의 기원과 역사

2.1. 몽골 무교의 기원과 변천

몽골은 기원전 209년 몽골 땅에 첫 국가(흉노)가 생겼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몽골 무교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무교는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았을 때부터 신앙에 의해 규율을 정하고, 보호하고, 사람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합치고, 그 목적을 향하게 하고, 자연을 대하는 일을 해 왔다. 이런 무당들의 종교적 가치관의 주된 부분이 바로 гал голонт (불-가정)에 대한 개념이었다. 불을 숭배하는 것에서 나온 이 개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B.C. 4세기 말, B.C. 3세기 초에 이런 천손이라고 찬양을 받게 된 사람은 바로 (Mo

6)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족사, 2001.

7) 장장식, 『몽골 민속 기행』, 자우, 2002.

дун)이다. B.C. 209년에 흉노 제국을 세우고, 흉노의 大單于(대선우) 왕위에 즉위한 (Модун)은 친히 중국 한나라 임금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 “하늘의 힘으로 즉위한 대선우” 라고 자신을 정의하였다.⁸⁾ 이것은 무교 신도인 Модун이 자신이 왕위에 즉위한 것을 하늘의 힘으로 된 것이라 믿는 한편, 흉노를 세우기 전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Модун을 天系(천손)이라고 칭함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다.

몽골 학자인 달라이는 『몽골 무교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중국 한나라의 U-di 제왕의 시대에 흉노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많은 무당들이 있었다. U-di 제왕이 흉노의 무당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들을 위해 신을 섬길 수 있는 사당을 지어 주었다. 또한 흉노에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무당들이 점을 보았다. 여기서 보면 흉노의 군사 세력의 주된 원천은 적을 이기겠다는 믿음으로 군인들을 무장하는 무교의 영향에 있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무당의 역할로 본 것이다.

흉노의 시대로부터 이렇게 몽골 무교의 국가의식은 온전히 형성되어 있었다. 흉노임금들의 명령으로 무교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여러 곳에 지었다. 흉노인들은 몽골 무교의 삼각논리를 근거로 하여 지방 행정과 국내 영토 분할을 동-서-중앙으로 나누고, 그 셋으로 나눈 지방을 또 8개로 나누었다. 또한 군대의 조직력의 근원과 사람의 교육 수단, 그리고 국가 이념은 모두 무교였다. 이렇게 해서 몽골 무교는 흉노의 국가 이념과 조직력의 근원이었고, 이것은 몽골 땅에 차례로 수립된 여러 국가의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발전되었다.⁹⁾

흉노 이후에도 무교는 국가의 주된 종교였다. 흉노가 지낸 큰 제사를 선비족 (Сяньби) 시대에도 선비족의 임금들이 Жаоле강에서 지냈다. 돌궐 시대에는 5월에 Тамир 강에 제사 지내고 천신을 청배해 기원했다. 돌궐족 역시 무교의 나라였다는 것이 돌궐의 빌게 (Билгэ)한의 비석 위의 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거란족도 전쟁 때 무당들이 점을 쳤다. 따라서 고대국가 군인들은 어느 시대에도 무교의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다.¹⁰⁾

13세기에 몽골 제국의 모든 일은 무당들이 주로 결정하고 참가했다. 칭기스한과 그의 씨족이 국가의 일을 처리할 때는 베수드족 무당들의 조언에 따라 처리했다. 칭기스한과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이 다 무교의 신도였다.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 차가다이와 그의 한비 둘이 무당인데다가, 막내 아들 툴로이는 어려서 부터 앞일을 예언하는 현명한 아이였다. ¹¹⁾ 몽골의 한들 중에서 후빌라이한이 처음으로 국가의 무당 대신에 국가의 라마승을 곁에 두고, 몽골의 원나라 한이 근본적으로 불교를 더욱 섬기게 되면서 몽골 무

8) Сүхбаатар.Г. 『Монголчуудын эртний өвөг』, Улаанбаатар 1980 он 34х.

9) Амар.А.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1989он, 21х.

10) Рашид ад Ди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 Улаанбаатар 1999 он. 25 х.

11) Болдбаатар.Ж.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2』, Улаанбаатар 1999он, 355 х

교는 쇠퇴를 맞게 되었다.

후빌라이한이 시작한 이 활동은 몽골 무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떨어뜨리고, 원조는 후빌라이한 이래 막북으로 후퇴하기까지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신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는 황족을 비롯한 지배계층들의 종교였으며, 일반 몽골인들은 여전히 무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16세기 후반부터 왕실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널리 퍼뜨릴 정책을 시행하였고 무교는 16-17세기에 지속적으로 불교의 박해를 받았다. 몽골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 16세기 말기부터 무교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쇠퇴를 맞았다. 특히 불교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는 1930년대 말부터 무교 역시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일반적인 반종교적 태도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종교 자유를 누릴 때까지 상황에 지속적으로 밀려왔다. 1990년 이후의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전통 문화 부흥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절에 억압되었던 전통 종교와 신앙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2.2. 한국 무교의 기원과 변천

한국무교가 북방으로부터 전래되었는지, 혹은 한반도에서 자생했지만 북방 무교와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명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보면 한국 무교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현재 한국 무교와 시베리아 무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학자들은 한국무교의 발생 시기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동식은 '무교의 기원을 선사시대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한국무교는 불교가 전래된 4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말한다.¹²⁾

한국에서 무는 초기 부족 내지 부족 연맹의 종교였다. 부족 내지 부족연맹의 우두머리가 동시에 무당이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복합적인 국가 형성이 진행되면서,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 관리로서의 나라무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통 무당으로 분화되게 되었다.

한국의 제례나 풍속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3세기경 중국 푸의(陳壽: 233-293)가 쓴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기록이다. 삼국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¹²⁾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25쪽.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神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國邑명립일인주제전신 명지천신 우제국명유별읍 명지위소도 입대목
 縣絲鼓 事鬼神 諸 亡逃至其中 皆不還之
 현검고 사귀신 제 망배지기중 개불환지¹³⁾

여기서 삼한시대 하늘에 제사지내는 (天君)천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天君 祭祀長(천군제기장)이요 무당의 원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檀君이(당군) 몽골어로 Тэнгэри란 무당의 뜻을 고려할 때 祭政一致 時代의 司祭가 곧 무당의 기원이 된다고 하겠다.

그후 삼국시대가 전개되면서 전시대와 같이 무당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사는 부족의 집단적 공동제례였다. 이렇게 집단적 가무로써 天地神明(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드리던 고대인들의 신앙 형태는 5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한국 고대 무당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치병자로서, 왕의 자문에 응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왕의 요청에 의해 卜占으로써 神意를 전하거나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보이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왕들은 점차 정치권력에만 치중하며 종교적인 측면은 차차 전문 무당들이 司祭인 담당하게 된다. 무당들은 이때부터 두 종류로 나뉘는데, 왕의 자문역 내지 보좌관으로 가능한 “國巫” (국무)와 민중종교 전통을 형성하는 서민층 상대의 민간 무당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교, 도교, 불교 등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한국 무교의 역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 중국 종교들은 한국무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한국의 무의 기존 구조를 바꾸어 놓을 만큼 강하지는 못하였다. 한국무교는, 중국의 경우 당시 무교가 도교에 동화되어 버린데 반하여, 도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흡수해 버린 것이었다.

인간과 사회의 윤리덕목을 강조하는 유교로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내고 신령을 섬기며 남녀가 어울려 굿을 하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를 淫祀라고 부르고 무당을 성밖으로 내 고, 별신이라는 국행굿을 하느라 많은 비용을 쓰니 이를 금지시키게 하라는 상소문이 올려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보면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의 토대 위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조선왕조는 불교를 국교로 믿던 고려의 정신이 불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새시대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불교를 억제

13) 조흥윤, 『한국의 무』, 정음사, 1983, 17쪽.

하면서 유교를 내세우는 抑佛崇儒 정책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유교주의 국가였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나라에서는 무교와 무당에 대해 이중적인 정책을 썼다. 무교를 음사라고 하여 금무의 법령을 정하고 무당들은 모두 서울 밖으로 쫓아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당들에게 국가 관청의 번두리적인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표면상으로는 남성 지도층을 중심으로 유교주의 국가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양반 간의 부녀자들, 특히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었던 민중들 사이에서 무교가 행해졌으며, 무적신앙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종교였다. 이렇게 무당의 사회적인 신분이 상당히 낮아지고, 무교 자체를 전근대적 혹은 미신이라고 하여 양반 관료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냉대와 억압을 받은 결과 무와 무당에 대한 천시풍조가 사회에 깊숙이 심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심성에서 무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즉 표면적으로는 무교와 무당을 미신이라 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이나 집안에 중대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음성적으로 무당을 찾고 굿을 행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III. 몽골과 한국 무교의 성무과정과 숭배대상

3.1. 성무과정과 형태의 비교

(1) 몽골 무교의 형태와 성무과정

현재 몽골에는 백무당과 흑무당이 있다. 불교의 세계관을 인정하고 라마들의 지배를 받게 된 무당들인데, 이를 백무당이라 부른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무당들이 불교의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고 몽골 무교의 고유사상을 그대로 지켜왔으니, 그 무당들이 바로 흑무당이다.

백무당의 경우 티베트 불교가 지닌 세계관을 수용하여 강하게 불교화한 반면, 흑무당은 몽골 고유의 전통적 사고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¹⁴⁾

흑방무에 대해서 쓰기 전에 몽골 조상들이 세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서쪽이 선하다면 동쪽은 악하다는 개념이 있다.

흑방무들이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바로 악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이는 흑주술-흑주문의 풍속이 발달한 형식이다. 흑방무들과는 달리 자비를 상징하는 백방무들이 있다. 그들은 선

¹⁴⁾ 장장식, 『동몽골 부르야트 족의 샤머니즘』, 자우 출판, 2002년, 177쪽.

을 예언하고 백주술·백주문 외위 백방의 온순한 신들인 백천신들에게 서쪽을 향해 기도한다.

그러나 흑무당이건 백무당이건 간에 몽골 지역 전체의 무당에게는 일반적으로 무당이 되는 한 가지의 길이 있다. 무당이 되려면 대체로 무당의 혈통을 이어받는 세습무,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갑자기 신이 내린 사람이 선배 무당의 제자로 들어가 무를 익히는 강신무가 있다. 현존하는 늙은 무당은 대부분 이렇게 하여 무당이 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Онгод)이 들렸다는 것이다. 무당이 될 사람은 옹고드가 골라 선택한다. Онгод의 선택 선상에 올려진 사람은 무당이 될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무속 세계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옹고드의 선택 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12-20세 사이에 무당이 될 징후(徵候)를 보인다. 이렇게 소년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를 거쳐 성숙해진다. 사춘기 때 소년과 소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知覺能力)이 매우 발달한다. 그 시기에 그들은 자연이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출시킨다. 소년과 소녀의 두뇌에 영향을 주는데 무엇보다 먼저 지각기관을 자극하여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잠 잘 때에도 꿈속에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 대화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 이에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등 다양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된다. 이런 질병을 巫病이라고 부른다. 무병은 무당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갑자기 이런 무병에 걸린 사람은 무당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옹고드와 접하여 무병에 걸려서 스승 무당을 갖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무당은 처음 3년간은 자신의 제단(祭壇)에 있는 주신 즉, 신령(Онгод)과 교류하지 못하고 4년째 되는 해부터 자기 제단의 신과 교류하게 된다. 7년째 되는 해부터는 무속신당의 신령(옹고드)들과 교류하게 된다. 9년째 되는 해에는 다른 가정에도 초대되고 개인 각자의 수호신을 비롯하여 각지의 水神, 地神과 교류하여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15년 동안 곁을 주재한 뒤에는 어떤 신령과 교류가 가능하게 되면 옹고드도 수시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새 무당과 師弟관계를 맺고 후배 무당에게 무속 의례와 규범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15)

무당이 되려는 사람은 무당이 되는 의식을 존중하여 제를 올리고 스승무의 인도를 받아 3일 동안 곁을 해야 한다. 13번의 큰 차나르를 행해야만 (Зайран) 이라는 박수 등 급에 오를 수 있다. 일반 신자들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Чанар)를 행하기도 한다. 차나르는 그 동안 자기가 배운 모든 곁을 스승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는 것

15) Бадамхатан.С. 'Хөвсгөлийн дархад ястан', Улаанбаатар 1965 он. 38-39 х.

인데, 보통 4-5 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차나르는 일종의 성무의식이면서, 무당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차나르는 주로 무속신당 밖의 마당에서 거행하는데, 그곳에 많은 나무를 새로 심는다. 그 후 좋은 무당이 되기를 맹세하는 의식이 있다. 굿이 끝난 뒤 무당은 맹세가 적힌 판을 펴놓고 맹세를 읽는다. 한 항목 한 항목 마칠 때마다 요란스럽게 북을 두드리며 환호한다. 맹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왕(十王)의 하늘 아래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

둘, 남의 재산이나 물건을 허비하지 않는다.

셋, 부자 앞에서 아부하지 않는다.

넷,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다섯, 다른 무당을 질투하지 않는다.

여섯, 남의 일에 방해하지 않는다.

일곱,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는다.

여덟,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아홉, 무교과 불교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는다.

열,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

열하나, 신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열둘,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열셋, 부모님과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스승의 지시를 따른다.

위의 맹세를 어기면 아홉 구멍에서 피가 나서 죽리라. 죽어서 나의 영혼은 네 개의 큰 하늘과 귀신과 합쳐져서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수천 년 동안 바위를 지키는 귀신이 되리라.

(2) 한국 무교의 유형과 성무과정

한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한강 이남의 지방과 태백산맥 이동은 무당들은 세습무이고, 한강 이북은 신이 들려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강신무를 무당이라 부르고 세습무를 단골이라 부른다.

세습무는 무병을 거치지 않은 무당이다. 부모 중에 누가 무당이면 그 자녀는 모두 태어나면서 무당의 신분을 세습한다. 따라서 세습무는 강신무와 달리 대조적이다. 세습무는 원칙적으로 마을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전라도에서는 이러한 단골 관계에 있는 무당을 “당골”이라고 한다.

당골의 활동권은 자기가 담당하는 마을에 제한되며,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마을로 확대되지 않는다. 그 활동권을 “당골판”이라고 한다.

무당이 되는 업무는 무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 무교의 업무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병이다. 한국 무당의 무병은 한국이라는 사회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한국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신무는 무당이 되는 초기에 반드시 신병이라는 신비한 병을 체험함으로써 신통력을 얻는다.

무당이 될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정신 이상 증후가 오고 신체에도 이상 질환 증세가 나타나 장기간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신병이 병인 것은 틀림없지만 신에 의한 이상증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신무가 되려면 반드시 신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이 신병은 무당이 되어 강신한 신을 섬겨야만 치료가 이루어진다. 무병은 증상으로서 병이라고 하여도 원인이나 치료는 병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인 것이다. 이러한 무병을 통해서 강신무가 된다. 즉 신을 몸에 내려서 무당이 되는 것이다.

강신무는 대개 한 마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마을, 때로는 마을을 초월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강신무는 자기가 강신 입무했던 곳을 떠나 무당 노릇을 하면서 신앙적 “charisma”를 더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숭배대상과 제사의식

(1) 몽골 무교의 숭배대상과 제사의식

몽골 본래의 종교 개념으로서의 무교의 기원은 ‘조상숭배’이다. 무교의 원초적 기능은 ‘보호’에 있다. 사람이나 가축 등의 소유물을 악의 힘에 의해 생긴 온갖 위험, 병,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무교의 일차적 기능이다. 무당은 초자연적 힘들의 중개자로서, 조상령이나 그 밖의 여러 신령의 도움으로 해로운 신들과 맞서고 악마를 쫓음으로서 사람을 병이나 재해로부터 막거나 치유한다. 즉 무교는 건강, 생명, 불, 음식, 사냥할 야생 동물, 가축, 다산 등 사회를 이루며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기능했다.¹⁶⁾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무교에서는 옹고드(онгодо)라는 신앙대상이 있다. 옹고드는 무당에 가계에서 상속되며, 무당은 의례나 다른

¹⁶⁾Walter, Heissing 『The Religion of Mongolia』, London 2002

무당적 실행을 통해 옹고드와 교류한다. 무당이 접신한 상태에서 갖는 초의식 상태의 체험은 (ecstatic)라고 부른다.

무교 신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옹고드이다. 옹고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무당의 영험의 근원으로서 무당에 의해 숭배되었던 옹고드이다.

둘째는 옹고드는 가정에서도 수호령으로서 신상의 형태로 숭배되었다. 옹고드 신상에 가축의 젖 우유를 헌주했으며 매끼마다 식사 전 헌주하는 의례를 행했다. 가정에서의 옹고드 숭배는 무당에 의해 이끌어졌다.

옹고드는 또한 각각 특별한 직능들을 갖고 있으며, 신내림을 받은 여무의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여무에게 새 옹고드(鳥靈)가 들어가면, 그녀는 새가 발톱으로 뼈를 집듯이 양손에 뼈를 잡고 굿을 한다.

옹고드의 기원은 토tem 신앙과 관련된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수렵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짐승의 모습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모셨다.

무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상징은 옹고드의 생성에 대한 믿음이다. 무교를 신앙하는 몽골인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영혼이 같은 종(種)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죽은 무당의 영혼이다. 무당의 영혼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옹고드가 된다.

초원의 옹고드에게 제사를 올리기 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3 가지 요건이 있다.

1. 옹고드에게 드릴 삼나무로 만든 'ОРГИЛ' 를 준비한다.
2. 옹고드에게 바치는 '얼거치' 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와 달, 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하늘색의 장식용 끈이 달려 있다.
3. 제상에는 유제품과 최상품 고기를 바친다.

옹고드를 모실 제사 준비가 완전히 끝나면 무당과 일가친척, 신앙인들은 같이 옹고드의 아사르가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하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우유를 뿌리면서 아사르로 간다.

그 다음에 아사르의 아랫목에 준비해 온 얼거치를 펴고 하다그를 건 후 9 종류의(유제품과 고기) 음식을 제상에 차린다. 제상은 다음과 같다.

1. 제상에는 옹고드에게 양의 뼈를 모두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뒷다리를 모두 올린다.
2. 제상에는 고기가 아닌 양 한 마리를 바친다는 의미로 양고기를 담은 나무 접시 밑에 가죽을 깎는다.
3. 옹고드에게 바치는 양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대로 제상에 올린다.

이것은 양의 혼도 옹고드에게 바친다는 의미이다. 제사에 삶은 양의 머리를 통째로 올릴 때 양의 머리의 말탈-트 라는 것을 반드시 행한다.

다음에는 제물로 바친 양고기의 짧은 늑골과 긴 늑골, 꼬리 부분의 지방덩어리, 복사뼈 하나와 Халим을 불에 집어넣고

성취되었다고 브데르히를 바칩니다 (Бүтлээ гэж бүдэрхийг өргөв.)

왕성되었다고 짧은 늑골을 바칩니다 (Боллоо гэж богино хавиргыг өргөв)

다 지나갔다고 긴 늑골을 바칩니다 (Өнгөрлөө гэж өндөр хавиргыг өргөв.)

마음껏 드시라고 할림을 바칩니다 (Ханатугай гэж халимыг өргөв)

배 부르게 드시라고 복사뼈를 바칩니다 (Цадтугай гэж шагайт чөмөгийг өргөв.)

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타락, 아이락, 차, 술, 우유, 치즈를 바치면서

입이 있는 자도 맛보지 못한 (Амтай хүн амсаагүй)

셋노란 황색 차(茶)의 최상품 (ангир шар цайны дээж)

입술이 있는 자도 맛보지 못한 (Уруултай хүн амсаагүй)

붉은 황색빛 차의 최상품 (улаан хонгор цайны дээж)

한 살 난 халзан 양고기를 바칩니다 (Хурган халзан хонины шүүс өргөв) 17)

라고 말하며 복을 기원한다.

모임의 모든 행사가 끝나면 제를 주관한 자들과 연장자들의 지시에 따라 асар와 отго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태울 수 있는 것을 태워버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땅에 파묻는다. 정리가 끝나면 아사르의 문을 닫고 해가 뜨는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사르 주위를 3번 돈다. 그리고 아사르의 모서리에 3번 머리를 대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갖추으로써 초원의 웅고드에게 올리는 제사의 의식을 마친다.

(2) 한국 무교의 숭배대상과 제사의식

한국 무교에는 하늘과 땅, 죽은 조상이나 영웅 등의 수많은 신령이 있다. 그래서 무교에서 말하는 신령은 (萬神)만신이다. 그들은 각자 고유한 기능을 나누어 맡으며, 우주 안에 살아있는 영력으로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외국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다시 사라지기도 한다.

한국 무교에서 신앙대상이 되는 신은 굿거리에서 나오는 (主祭神)주제신, 무당에게 신내려 모셔지는 신령(몸주), (巫神圖)무신도로 봉안된 神,신 (洞祭)동제, (神堂)의 (祭神)제신 그

17) Пүрэв.О.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лаанбаатар 2002 он.302 х.

리고 (家神) 가신 등으로 그 수는 대단히 많다.

최고신으로 천신이 존재하고 무신들 사이에는 계층의 격차가 있는데 이것은 상층, 중층, 하층, 최하층의 4개 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위의 (巫神)무신을 성별로 보면 남성신이 지배적이고 여성신이 소수이다. 그리고 한 종류의 신이 남성과 여성의 (兩性)양성으로 나타나는 신들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서 신라 화랑(花郎)의 무교적 특성인 양성구유 형상에서 보았듯이, 하늘(남성)과 땅(여성)의 융합, 또는 신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여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무교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한국무신의 체계는 (巫神圖)무신도와 (巫義禮) 무의례 현장에서도 뒷받침된다.

IV. 결론

본문에서는 몽골과 한국 무교를 성무과정과 형태와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교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태적인 면으로 몽골에서는 주로 남성무당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 무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여성보다 남성무당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성 무당보다 여성 무당이 절대적으로 많다. M. Eliade는 '한국 무교가 원래 유목문화의 전형적인 의례라고 추측하면서, 현대 한국 무교에서 여성무당이 우세하는 것은 전통적인 무교의 쇠퇴의 징후가 보이는 증거이거나 남방으로부터 받은 증거일 것이다' M. Eliade, 『The Shamanism』 London, 1982, 67역, 까치 1992, 67x 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무당을 크게 서방의 선신을 섬기는 백무와 동방의 악신을 섬기는 흑무로 나눈다.

둘째는 몽골과 한국 신앙대상이다. 몽골 무교에서는 웅고드라는 신앙대상이 있다. 몽골 무교의 웅고드라는 것은 수신, 수호신들과 연결된 고인이 된 조상들의 영체(靈體)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형상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이나 다른 신기가 흐르는 지역에, 혹은 사람의 두뇌에 영향을 끼치는 크고 작은 각종의 작용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무교에서 신앙대상이 되는 신이 굿거리에서 나오는 (主祭神), 주제신 무당에게 신이 내려져 모셔지는 신령, 무신도로 봉안된 신, (洞祭), 동제 (神堂)신당의 (祭神)제신 그리고 (家神)가신 등으로 그 수는 대단히 많다. 따라서 한국 무교의 신앙 체계는 기본적으로 만

신이다. 즉 다신교적 신앙 체계다. 한국 무교에서 신령이 많다고 하여 모든 신령이 모든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신을 성별로 보면 남성신이 지배적이고 여성신이 소수이다.

몽골과 한국의 현대 무교를 비교 대상으로 할 때 보이는 이상과 같은 차이점은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설명을 붙이면 몽골 무교는 역사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무교의 원형은 많은 쇠퇴를 맞았지만 일부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켜 왔다. 한국 무교는 역사 발전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형을 가지고 있다. 몽골과 한국 무교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무교가 몽골 무교 또는 북아시아 무교와 계통을 같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원래 한국무교는 북아시아 무교와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 무교는 오히려 관계가 없이 보인다. 한국 무교는 샤머니즘의 일 계통으로 한국이라는 자연 문화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참고문헌]

Бадамхатан.С. 『Хөвсгөлийн дархад ястан』 Улаанбаатар 1965

Мархаахүү.Д. 『Талын онгодод өргөх тахилын ёсон』, УБ. 2002

Пүрэв.О.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лаанбаатар 2002

Рашид Ад Ди, 『Судрийн чуулган』, Улаанбаатар 1999

Сүхбаатар.Г. 『Сяньби гүрэн』, Улаанбаатар 1971

Сүхбаатар.Г. 『Монголын эртний өвөг дээдэс』, Улаанбаатар, 1971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족사 2001

장장식의 『몽골 민속 기행』 자우.2002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1975,

조홍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Walter, Heissing 『The Relegon of Mongolia』, London 2002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бөө мөргөл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Т. Буяннэмэх

[Хураангуй]

Монгол нутагт МЭӨ 209 онд анхны төрт улс болох Хүннү улс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гдаж эхэлсэн ба тэр цагаас бөөгийн шашний хөгжил эхэлсэн түүхтэй. МЭӨ 4-р зууны эцэс мээ 3-р зууны эхэнд хэдрэг од тэнгэр заяат хүү хэмээх өргөмжлөл магтаалыг авсан хүн бол Модун байжээ. МЭӨ 209 онд Хү?ннү? Эзэнт Гүрнийг байгуулан Хүннүгийн их Шаннюгийн хаан суудалд суусан Модун, Хятадын хан улсын хаанд илгээсэн захидалдаа (Тэнгэрийн хүчээр хаан заларсан Их Шанню) буюу тэнгэр заяат хүү гэж өөрийгөө илэрхийлсэн байдаг.

13-р зуунд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бүх ажил хэрэг бөө нар голчлон шийддэг байв. Чингис хаан болон түүний овгийнхон улс орны үйл хэргийг удирдан явуулахдаа Бэсүд овгийн бөө нарын зөвлөгөөг даган шийддэг байв. Чингис хаан болон түүний ойр дотных н, хүүхдүүд бүгд бөөгийн шашны итгэгчид байжээ. Тэдгээр дундаас хоёр дахь хүү Цагаадай мөн түүний хоёр хөвгүүн бөө байсан гэх ба бага хүү Тулуй нь багаасаа хожмын явдлыг зөгнөн хэлдэг увидастай хүүхэд байжээ.

Солонгосын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мар зүгээс дамжин ирсэн эсвэл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дээр бий болсон гэх боловч хойд зүгийн бөөгийншашинтай янз бүрийн талаараа төстэй байдаг ч өнөөг хүртэл тодорхой нэг хариу гараагүй байдаг. Төрөл бүр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ээс үзвэл Солонгосын бөөгийн шашин нь умар зүг Сибирээс дамжин ирсэн гэж үздэг

Бөө болоход ерөнхийдөө бөөгийн цустай буюу удам дамжсан бөө, төрөлхийн авъяас билэгтэй хүн юм уу гэнэт бөөгийн сүнс шүглэсэн хүн бөөд шавиар орж бөө болдог онгодын бөө гэж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т хоёр

төрлийн бөө байдаг. Бүс нутгаар авч үзвэл Хан мөрний өмнөд этгээдийн бүс нутаг ба Их цагаан нурууны зүүн хэсэг нь удам залгасан бөө буюу (Сэсибмү) ба Хан мөрний хойд тал нь сүнс шүглэж бөө болгодог ганшинмү буюу (онгод сүнс биед нь орж ирдэг) гэсэн хэлбэрүүд байдаг.

Онгодын бөөг Мүдан гэж дуудах ба удам залгасан бөөг Дангуль гэж дууддаг. Сэсибмү буюу удамзалгасан бөө нь бөөгийн өвчин тусаж бөө болдоггүй эцэг эхийнх нь хэн нэгэн нь бөө бол тэдний хүүхдүүд бүгд бөө болох эрх уламжилдаг.

Бөөгийн сүсэг бишрэл итгэл үнэмшилд юунаас илүү чухал зүйл нь онгод юм. Онгод нь хоёр утга агуулдаг.

Нэгдүгээрт: бөөгийн сүнсний шалгуур уг үндэсийнхээ хувьд бөөд тахин шүтэгдэж байсан онгод. Хоёрдугаарт: онгод нь орон гэрийн сахиус тул сүнслэг дүрс зураг байдлаар шүтэгддэг. Солонгос бөө мөргөлд тэнгэр газар, өвөг дээдэс, баатар жанжин нарын гэх мэт олон төрөл сүнс шүтээн байдаг. Тиймээс бөөгийн шашинд дурьдагдах онгод сахиус нь мянган сүнс сахиус гэж хэлж болох талтай.

Солонгос бөөгийн шашинд сүсэг бишрэлийн гол шүтээн болдог бурхан (сүнс) нь бөө буухад гардаг (Жүжэшин) буюу Эзэн тахилын сахиус, бөө удганд онгод ороход урин залдаг Энэ мэт ижил болон ялгаатай талуудыг ажиглан судлах явцад ижил талууд нь давамгай шинжтэй байсны дээр цааш судлах зүйлсүүд багагүй байлаа.

Голлох үг : бөө мөргөл, бөө шашин, зайран, бөө болох ү- шат, онгодын бөө.

논문 심사 및 투고 규정

1. 심사기준과 심사

- (1) 본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논문, 자료, 서평 등을 포함하고,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청탁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2) 본지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의 내용은 한국학, 몽골과 한국학 관계의 비교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 (3) 논문은 독창성, 분량과 체제, 논리적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4)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6) 심사 결과 게재여부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심사위원 2/3의 의견에 따른다.

2. 논문 투고자

- (1) 논문 투고자는 본지 논문게재 체제에 맞게 논문을 작성하여 그 파일과 출력한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보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 논문 집필 규정

- (1) 논문은 한국어와 몽골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와 상대되는 언어(영어, 한국어, 몽골어)로 된 필자의 성명을 포함한 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논문 초록에는 반드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명시해야 한다.
- (3)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성명-초록-본문-참고문헌의 순서를 따른다.
- (4) 논문 분량은 A4지 10장-15장으로 한다(글자크기 10.3포인트 기준).

(5) 2인 이상 공동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원고 작성: <한글> 3.0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로 작성함.

(2) 용지 설정(F7)

1) 용지 종류: A4

2) 용지 여백: 위-20, 아래-15, 머리말-15, 꼬리말-15, 왼쪽-30, 오른쪽-30

(3) 문단 모양

1) 여백: 왼쪽-0ch, 오른쪽-0ch

2) 첫째 줄: 들여 쓰기 안 함

3) 간격: 문단 위-0mm, 문단 아래-0mm

4) 줄 간격: 165%

5) 정렬: 정렬 방식-혼합, 낱말 간격: 0%

(4) 글자 모양(Alt L)

1) 글꼴: 신명조 2) 장평: 100% 3) 자간: -5%

(5) 글자 크기

1) 제목 : 15p(진) 2) 저자명 : 11p(윤고딕 120) 3) 목차 : 9p

4) 초록 : 9.5 5) 본문 : 10.5 6) 각주 : 9p 7) 인용 : 9.5p

8) 참고문헌 : 10.5p

(6) 논문 순서

1) 제목 2) 저자명(소속은 각주 아래로 표기 * 이용) 3) 목차 4) 국문초록 5) 본문 6) 영문 혹은 몽골어 초록

(7) 본문 모양: 장, 절 등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또는 로마자를 사용함(이탤릭, 밑줄 등을 사용하지 않음)

1

1.1

1.1.1

(8) 예문과 인용문: 위아래로 본문과 1줄 띄며 본문과 같은 글꼴로 작성한다. 크기 : 9.5%

(9) 각주: 본문에 사용되는 각주는 문헌각주와 내용각주를 모두 인정한다. 문헌 각주인 경우, 각주의 글자 크기나 글꼴은 〈한글〉에 처음 설정된 기본값을 사용하며 문헌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자, 「논문」, 『저서』 권호수,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 인용 면수.(단, 출판지명은 생략 가능)

예) 홍길동, 「이조 사회의 계급 연구」, 『한국학논총』 제17집, 한국학연구소, 서울.1999, pp. 5-34

(10) 참고 문헌

- 1)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 2) 문헌 배열순서: 국문, 몽골어,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함
- 3) 단행본의 경우—저자, 발행년도, 『서명』, 출판사.
- 4) 논문의 경우—저자, 발표년도,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간 학회.
- 5) 영문일 경우—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 발행년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게재 지명 혹은 다행본의 경우는 이탤릭체). 출판지명: 출판사. (단, 출판지명은 생략 가능)

(11) 논문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따른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

U.B. 한국학연구 (2호)

발행인: 최기호

편집인: 현길언

발행기관: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발행일: 2010.6.8

www.ubu.ac.kr

www.ulaanbaatar.edu.mn

tel : 976-11-462147, 462026-9

fax : 976-11-462040

E-mail : ubuniversity@hanmail.net

ubanna@hanmail.net

P.O Box 658, Ulaanbaatar 210644, Mongolia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 ▣ Монгол хэлний эгшиг гийгүүлэгчээр Хангиль эгшиг гийгүүлэгчийг тэмдэгдэх боломж ... Ким Гүк
- ▣ Өгүүлэхүүний бүлгээр илрэх баймж илэрхийллүүдийн хамрах хүрээ болон нэгдлийн байдал ... И Пил Ён
- ▣ 18-р зууны үеийн МонӨрогхЭ-н хэл зүйн талаар ажиглалт ... Г. Баярмаа
- ▣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ийлмэл өгүүлбэр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Зэрэгцсэн нийлмэл өгүүлээр ... Түвшинбаяр
- ▣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шалгуур ... А.Нарангэрэл
- ▣ ХА-ийн интеграци: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доктор ... Б. Лхагва
- ▣ Монгол улс дах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хөгжилт ... Т.Намжил
- ▣ Романы учир шалтгааны өгүүлэмжийн утга санаа
- ▣ - Аав хүү хоёрий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л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 Хён Гил Он
- ▣ Солонгосын зарим өгүүллэ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үрийг гаргасан нь ... Нармандах
- ▣ Жусэйнвон түүх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 Кан Шин Гү
- ▣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ийн өгүүлэгчийн зан авир ба оюуны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 И Танми
- ▣ Жэжү арлын Бунпүрид гарч буй эмэгтэй бурхадын дүр
-Гол дүр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баатарлаг зан чанарыг голчлон ... И Анна
-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бөө мөргөл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Т. Буяннэмэх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ТӨВ